중구향토사 관계자료 제7집

명동변천사

중구문화원

목 차

발간사 9

축간사 10

제1장 조선시대의 명동

(1) 동명 유래 15

(2) 명동의 발자취 19

1) 도시화 과정 19

2) 일제의 침략과 군사 주둔 28

3) 근대화 시설과 경관의 변모 31

4) 일본인의 상권 장악 32

(3) 인물과 이에 깃든 일화 39

1) 이민구(李敏求) 39

2) 김범우(金範禹) 40

3) 손순효(孫舜孝) 41

4) 윤선도(尹善道) 45

5) 허목(許穆) 46

6) 허준(許浚) 47

7) 유몽인(柳夢寅) 50

8) 김귀주(金龜柱) 51

9) 조말생(趙末生) 51

10) 윤시동(尹蓍東) 52

11) 정작(鄭碏) 53

12) 박은(朴誾) ····· 54
13) 심희수(沈喜壽) ····· 55
14) 김광국(金光國) ····· 56
15) 이경하(李景夏) ····· 57
16) 신익성(申翊聖) · 정숙옹주(貞淑翁主) ····· 58
17) 이유승(李裕承) ····· 59
18) 기타 인물 ····· 60
(4) 문화유적과 변천 ····· 60
1) 장악원과 동양척식회사 ····· 60
2) 청국 공관 ····· 64
3) 독일 공관 ····· 67
4) 벨기에 영사관 ····· 68
5) 일본영사관과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69
6) 한성병원 ····· 71

제2장 일제 강점기의 명동

(1) 남촌의 형성 ····· 75
(2) 외국인의 거주 배경 ····· 82
1) 중국인의 거주 역사 ····· 82
2) 일본인의 거주 역사 ····· 85
(3) 경제 및 상가의 형성 ····· 87
1) 중구의 경제권 형성 배경 ····· 87
2) 명동의 상가형성 ····· 89
3) 백화점 및 시장 ····· 93
4) 유흥 · 음식 · 숙박업 ····· 95

(4) 문화인들의 집결지 ····· 98
1) 발 묶인 문화인들의 애환 ····· 98
2) 문화인들의 서식처 ····· 102
(5) 천주교와 명동성당 ····· 106
1) 천주교회의 창설 ····· 106
2) 명동성당과 주교관 ····· 108
3) 본당의 활동분리와 교세확장 ····· 114

제3장 광복 후의 명동

(1) 감격과 환희의 거리, 명동 ····· 119
(2) 명동파 문인들의 일화 ····· 126
(3) 정부수립과 명동문화의 정착 ····· 129
1) 정부수립 형성배경 ····· 129
2) 명동어깨파의 활동 ····· 131
3) 다시 모인 문화인들 ····· 137
4) 음식점 및 유흥업소 흥행 ····· 143
(4) 문화유적의 변천 ····· 149
1) 경성주식 현물시장 ····· 149
2) 일본생명빌딩 ····· 150
3) 동아증권주식회사 ····· 150
4) 혼마치(本町)빌딩 ····· 151
5) 경성전기회사 사옥 ····· 151
6) 치요다 생명보험상호회사 경성지점 ····· 152
7) 아사히(朝日)빌딩 ····· 152
8) 미쓰코시(三越)백화점 ····· 153

9) 공동상업빌딩 ····· 153
10) 모리나가 캔디스토아 ····· 154
11) 메이지제과(明治製菓) 매점(賣店) ····· 154
12) 전(前) 국립극장 ····· 155
13) 기독교여자청년회(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 156
14) 유네스코회관 ····· 157

제4장 6 · 25전쟁과 명동

(1) 폐허화한 명동(1950년~1960년) ····· 161
1) 사라진 도심의 변화상 ····· 161
2) 전란이 할퀴고 지나간 모습 ····· 165
3) 옛모습을 찾기 위한 몸부림 ····· 168
(2) 복구재건기의 명동(1961년~1969년) ····· 172
1) 경제성장기의 명동 ····· 172
2) 문인 · 예술가들의 집합처 명동 ····· 174
3) 명동 보물 발굴 사건 ····· 180
4) 복구되는 명동 ····· 180
5) 서울의 명소 명동 ····· 185
(3) 대중문화예술의 중심지, 명동 ····· 189
1) 대중문화의 변화상 ····· 189
2) 문화예술의 메카 ····· 203
(4) 금융권의 중심지, 명동 ····· 208
1) 금융의 메카 ····· 208
2) 변모하는 상가 ····· 219
3) 백화점 시대 예고 ····· 222

제5장 한국 번영의 상징, 명동

(1)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한 명동(1970년－1981년) ····· 229

1) 유신체제기의 명동 ····· 229

2) 시위로 얼룩진 명동 ····· 234

3) 명동사건 ····· 237

4) 명동 결혼 위장 집회 ····· 239

5) 변화하는 명동 ····· 240

6) 영화예술의 요람 충무로 ····· 243

(2) 「명동상가번영회」창립 이후의 명동(1982년－2002년) ····· 250

1) 제5공화국 이후의 명동 ····· 250

2) 명동상가번영회 창립과 명동축제 개막 ····· 254

3) 관광특구로 지정된 명동 ····· 255

(3) 번영의 상징, 명동 ····· 266

1) 패션문화의 중심지 ····· 266

2) 문화적 명소와 관광지화 ····· 271

(4) 활기를 되찾은 명동 ····· 306

1) 금융권의 변화 ····· 306

2) 상가의 번영 ····· 310

3) 백화점 시대 ·····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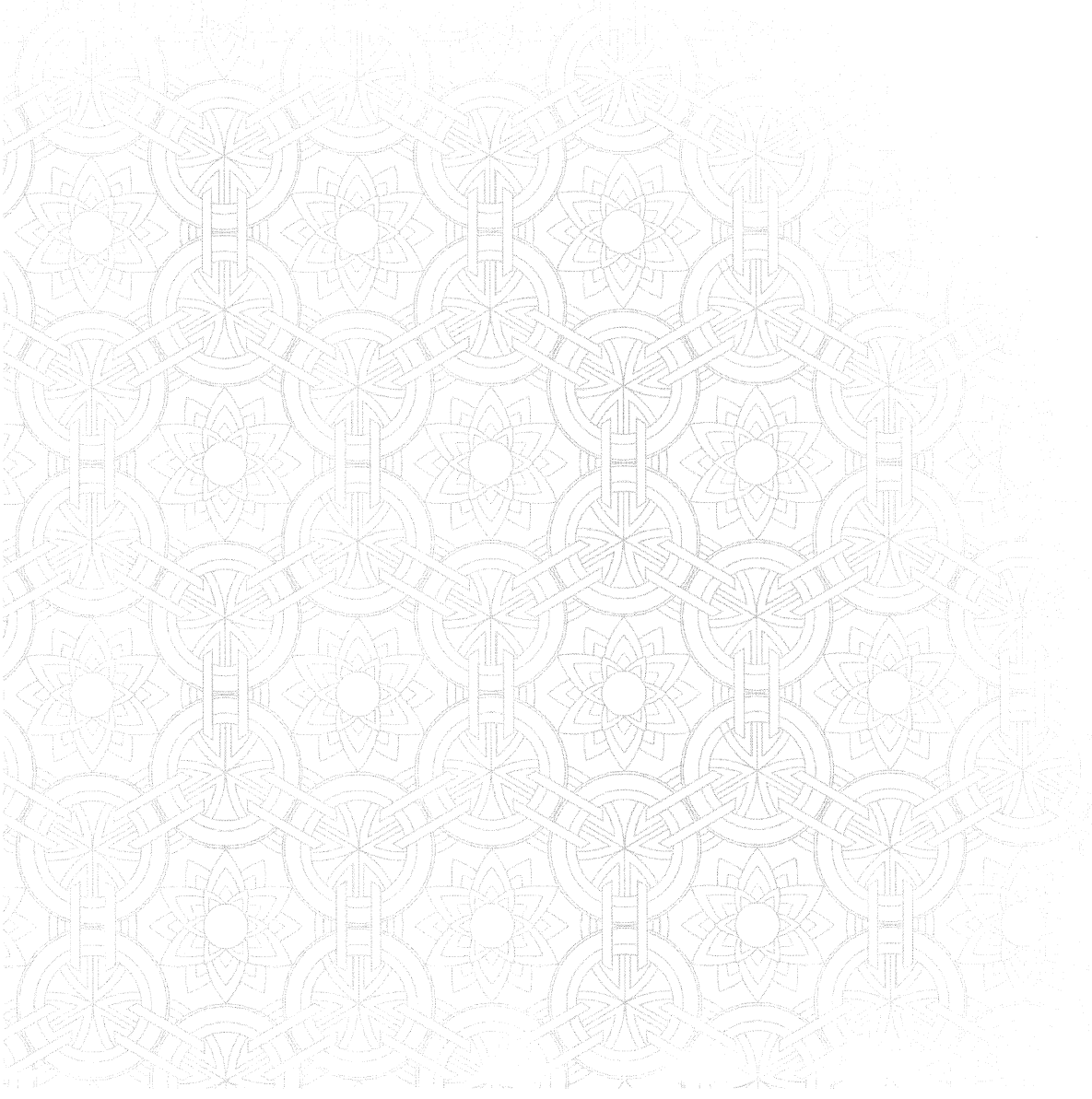
< 참고문헌 > ····· 323

< 주(註) > ····· 325

< 부록 > ····· 335

◇ 명동관련 연표 ····· 337

◇ 명동지역 지도 ····· 348



발 간 사

중구는 서울 정도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그중에도 명동은 '한국 제1의 번화가'의 대명사로, 멋과 유행의 본산이며, 젊음의 열기가 넘치는 '서울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광복이후 서울의 중심 번화가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던 명동! 6 25 전쟁으로 폐허의 아픔을 겪으면서 수복이후 오늘날의 명동의 모습으로 자리잡아오기까지, 비록 척박한 환경에도 명동에 모여 예술과 인생을 담론하며 기개가 하늘을 찌를듯하던 문학 예술인들의 전설같은 추억담들이 있는 곳, 1960년대 이후 금융의 중심지로, 유행의 1번지로, 젊은이들의 사랑과 낭만을 불태우는 곳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70 80년대에 강남개발붐과 대학가 주변문화의 변화, 명동성당에서의 격렬했던 민주화 집회 등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김동일 중구청장의 지속적인 환경정비, 2000년도 관광특구 지정 등 행정적 지원과 명동상가 번영회 김장환 회장을 중심으로 1982년부터 명동축제의 연례화, 구 국립극장 복원 등 명동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민 · 관이 꾸준히 노력 한 보람이 있어 젊은이들의 인파가 중앙로를 입추의 여지없이 꽉 메우고 패션문화가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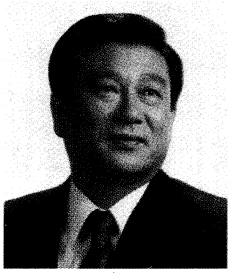
우리 중구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회에서는 2000년 『명동변천사』 발간을 기획한 이래 박경룡 자문위원이 중심이 되어 3년여에 걸쳐 묻혀있던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집필하여 '중구향토사자료 제7집' 으로 『명동변천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후세에 명동의 참모습을 알리는 귀중한 사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책에 실린 문헌자료, 사진, 문학 · 예술, 신문자료를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과 어렵사리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원고를 집필해 주신 박경룡자문위원, 김일림선생, 홍윤정선생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을 펴낼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주신 김동일 중구청장님과 손덕수 중구의회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년 2월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장 김 영 남

축 간 사



우리 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고 사료를 수집 보존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중구문화원의 향토사연구위원회에서 매년 발행하는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집은 귀중한 자료로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으며, 자료집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김영남 원장님과 관계 연구 · 자문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고장 중구는 한양정도 이래 나라의 심장부로서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유산과 현대의 첨단빌딩 등이 공존하는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특히 이번 '중구향토사 관계자료 제7집' 『명동 변천사』는 명동의 문화예술, 패션, 금융 등을 시대별로 연구하고, 격동기인 1980, 9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거쳐 관광특구지정으로 세계 속의 명소가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연구한 것으로 매우 뜻깊고 소중한 자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동(明洞)은 우리나라의「가장 밝은 동네」로서 이처럼 아름다운 자원을 연구 발굴한 자료집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지역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등의 많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구 명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년 2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동 일

축 간 사

우리 구의 문화예술의 본산지로서 거듭 성장하고 있는 중구문화원의 향토사 관계자료 7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구는 장구한 수도서울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뿌리 깊은 고장입니다. 역사가 일천한 여타의 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전통도 깊고 문화유산도 많아 정신적면에서도 부자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명동은 주택지였으나 충무로일대가 상업지역으로 발전하여 명동도 그영향을 받아 상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명동은 다방, 까페, 주점 등으로 형성되어 충무로에 예속된 유흥 오락가였으나 미도파 백화점이 생긴 후 명동이 새로운 쇼핑 중심지역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광복 후 금융과 위락가로 발달하였다가 최근에는 세계제일의 쇼핑관광지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스스로가 우리 고장의 내일을 설계하고 살림을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해 구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이러한 뜻을 모아 문화원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소중한 향토사를 조사 · 발굴 · 체계화하고 각종 문화강좌 개설 등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명동 변천사」의 발간은 중구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역사와 전통, 풍습, 문화유적, 역사적 인물, 기타 제반사항 등을 더욱 더 발굴 · 수록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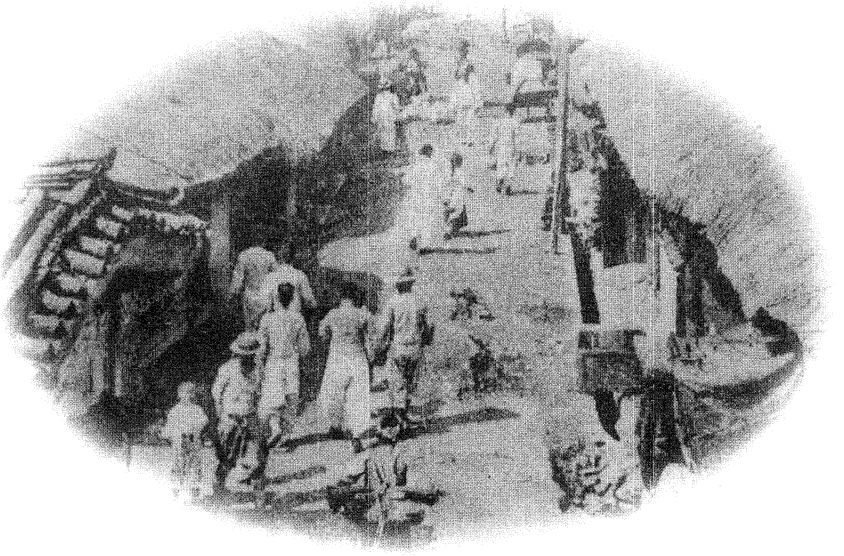
끝으로 자료집 발간을 위해 애쓰신 김영남 중구문화원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구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년 2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손 덕 수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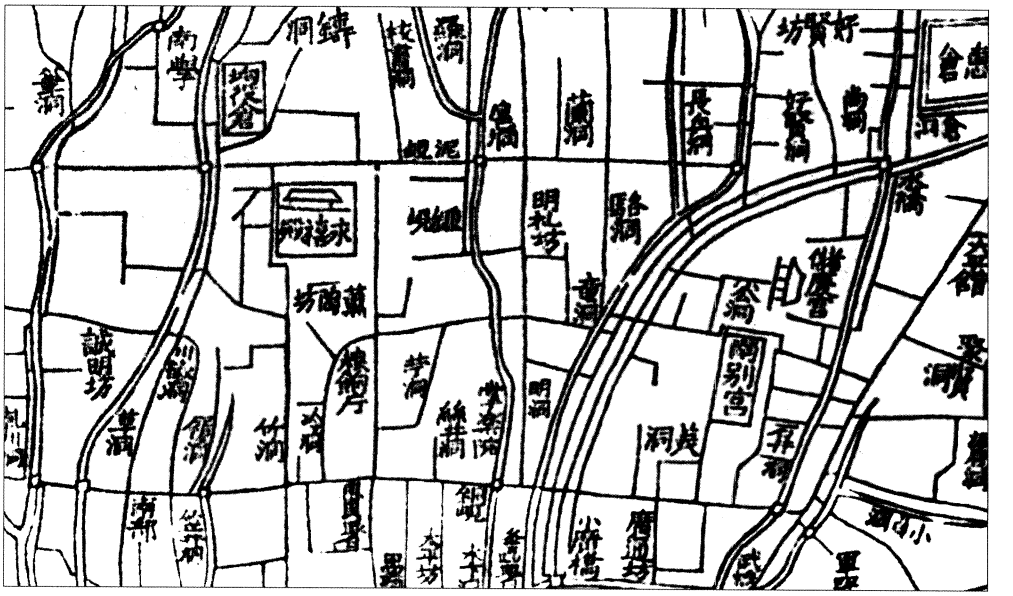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명동



제1장 조선시대의 명동

(1) 동명 유래

아직은 누가 무어라 해도 한국 제1의 번화가는 명동이고, 명동은 서울의 얼굴이기도 하다. 또한 명동은 서울을 상징하는 번화가일 뿐만 아니라 멋과 유행을 낳는 곳이다. 명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낭만과 유행의 1번지, 멋쟁이 문인들의 서식처, 여자들의 거리 등, 명동을 지칭하는 말들은 참으로 다양하며, 요즈음은 대형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므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물결로 항상 혼잡을 이루고 있다. 명동은 젊음이 넘치고, 숲을 이루고 있는 빌딩들 사이로 거미줄처럼 뚫려있는 좁은 골목을 따라 하루 평균 1백만 명이 오가는 인파가 흐르는 곳이다.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멋내고,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수많은 점포가 밀집하여 '없는 물건



「수선전도」에 나타난 명동 일대(1840년)

이 없고, 있을 만한 것은 다 있는 동네'가 명동이다.[1] 명동에 넘치는 인파에 휩쓸리면 소속감과 연대의식(連帶意識)을 느끼고, 오늘을 사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유행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명동을 찾는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변(辯)이다.

명동(明洞)이란 동명은 이 곳이 조선초에 한성부(漢城府) 남부 명례방(明禮坊)이었으므로 여기에서 「명(明)」자를 딴 것인데 원래 이곳을 명례방골이라고 하다가 줄여서 명동이라고 하였다.[2]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빼앗고 나서 1910년 10월 1일 한성부를 경기도 경성부(京城府)로 바꾸면서 이 곳은 경성부 명동이 되었고, 이듬해 4월 1일에 5 부(部) 8 면(面)제로 바뀔 때 경성부 남부 명동이라 하였다. 1913년 4월 1일에는 이 곳을 남부 명례방 장악원동 · 명동 · 소룡동 · 대룡동 · 종현동 · 저동, 회현방(會賢坊) 구남부동이라고 하였다. 이듬해 1914년 4월 1일에 일제는 명치정 1정목(明治町1丁目)이라고 일제식 명칭으로 바꾸고, 1943년 6월 10일에 경성부가 구(區)제도를 처음 실시하면서 중구(中區)에 속하게 되었다. 광복이 되면서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 동명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명치정 1정목은 명동1가로 변경되었다.

조선시대에 명동 지역은 늙은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주택지로 민가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옛날의 자연촌락명이 남아있다.[3]

명동을 이룬 구남부동(舊南部洞)은 구남붓골로도 불렀는데 현재 명동 1가 · 명동 2가 · 충무로 1가 · 을지로 2가에 걸쳐있던 마을로서 5부(部)의 하나인 남부(南部) 관아가 있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당피동(唐皮洞)은 물감과 중국과실을 파는 가게로 당피(唐皮)로 물건을 싸주는 집이 있다하여 불렀던 이름으로 혹은 당피골이라고도 하였다. 대룡동(大龍洞)은 큰용골이라고도 부른 것은 마을 생김새가 마치 용이 여의주를 품고 있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동명이다. 용 두 마리가 서로 똬리를 튼 것처럼 몸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 큰 용에 해당하므로 큰용골이라 하였다. 작은용골은 소룡동(小龍洞)으로도 불렀는데, 이는 작은 용처럼 생겨서 붙여진 명칭이다.

장악원동은 혹은 장악원골이라고도 했는데 을지로 2가 198~199번지에 장악원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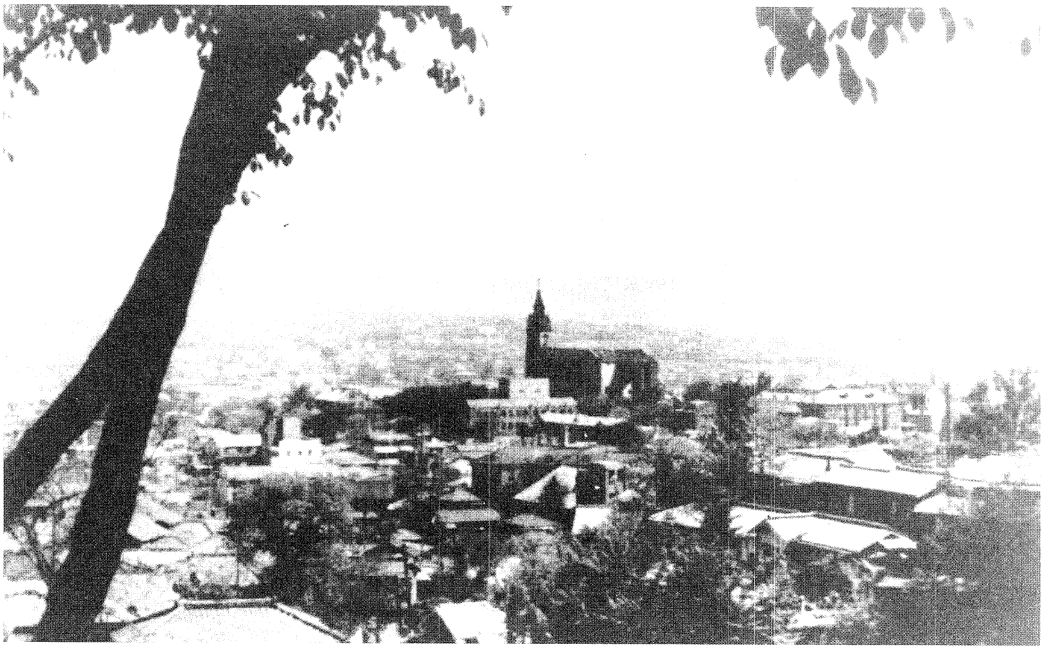
모시전골[저동(苧洞)]은 조선시대에 저동 1가와 명동 1가 · 충무로 2가에 걸쳐 모시를 파는 모시전[苧廛]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모시전골은 모시를 취급하는 모시전이 있었

기 때문에 동명이 유래되었다. 이곳에서 취급하던 모시는 종로 육의전에서 취급되는 것보다는 한 등급 아래로 발이 굵은 것을 주로 판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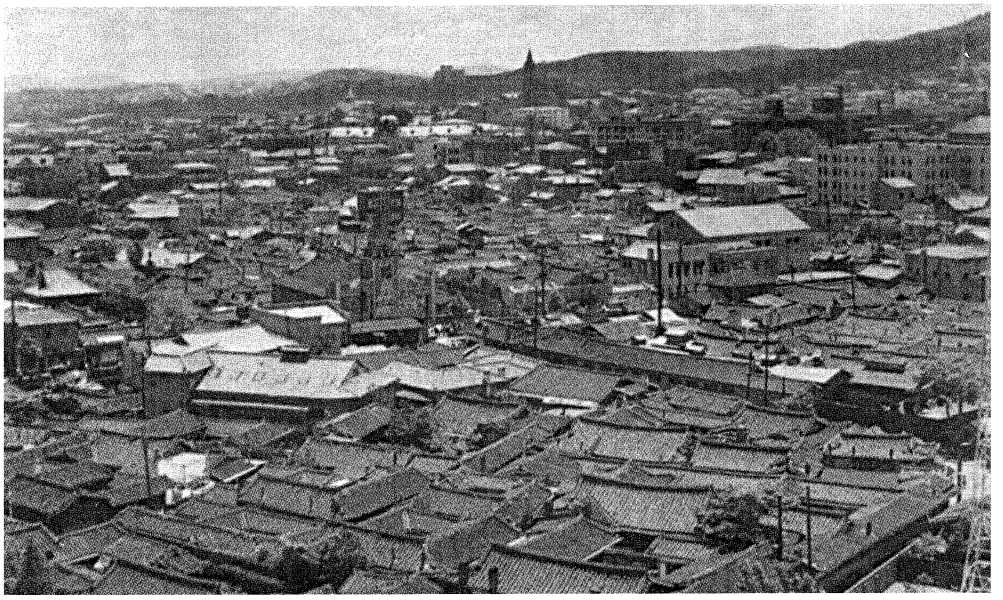
일제 때 명동 1가는 명동동사무소에서 행정을 맡았는데 광복 직후에는 명동 1 · 2가동회(洞會)가 설치되면서 이 동회의 관할구역으로 되었고, 그 후 명동동회가 설치되어 이곳을 관할하였으며 1953년 3월에는 명동 1가 54번지에 명동동사무소가 설치되었다. 1970년 5월 18일부터는 명동 1가 · 명동 2가 · 충무로 1가 · 충무로 2가의 행정을 명동동사무소에서 맡고 있다.

이어서 명동 상권에 속하는 충무로 1 · 2가의 동명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무로는 1946년 동명을 우리말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제 때 본정통(本町通)으로 불렸던 것을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물리치고 역사적 공훈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시호를 따서 충무로라고 명명하였다.[4]

충무로 1 · 2가는 조선초기에 한성부 남부 명례방과 · 훈도방(薰陶坊) 일원 · 호현방(好賢坊)의 일부 지역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 때 남부 명례방 명동계(明洞契) 명동 · 종현계(鐘峴契) 종현동 · 저동계(苧洞契) 저동과 훈도방 주동계(鑄洞契) 주



명동일대(1890년)



무교동에서 바라본 명동

동(鑄洞) 일원으로 되었다.

충무로 1· 2가도 명동과 같이 일제가 1910년 10월 1일 경기도 경성부 남부에 속하면서 명례방 명동계 명동 · 종현계 종현동 · 저동계 저동 · 훈도방 주동계 주동으로 되었다. 이듬해 4월 1일에 5부 8면제로 바뀔 때에도 경성부 남부는 변함이 없었다. 1914년 4월 1일에는 본정(本町) 2정목이라 하였다. 일제 때 충무로에는 일본인들이 특히 많이 살았으므로 동명을 제정할 때 이곳을 일본 혹은 본국을 뜻하는 의미에서 본정통이라 하였다. 1943년 6월 10일에 구(區)제도를 실시할 때 본정 1· 2정목은 중구의 관할 지역이 되었다.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으로 된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본정 1· 2정목은 충무로1 · 2가로 개칭하게 되었다.

일찍부터 일본상권이 형성되었던 지역이기도 한 충무로 1· 2가는 퇴계로가 개설된 이후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곳으로 부상(浮上)되었으며, 이는 명동에 접한 까닭에 수많은 인파가 언제나 북적거린다. 이 지역은 비교적 구획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바둑판 형식의 가로가 형성된 근대적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다.

충무로 1 · 2가 지역의 조선시대의 자연촌락[5]을 살펴보면, 충무로 1가를 형성하고 있는 대

룡동(大龍洞)은 혹은 큰룡골이라고도 하는데 남대문로 2가 · 명동 1가 · 명동 2가 · 충무로 1가에 걸쳐 있는 마을이었다.

낙동(駱洞)은 타락동(酡駱洞)을 줄여서 부른 것인데 타락(酡駱:우유)을 파는 곳이 있으므로 연유된 이름이고, 회동은 회현방이므로 동명이 유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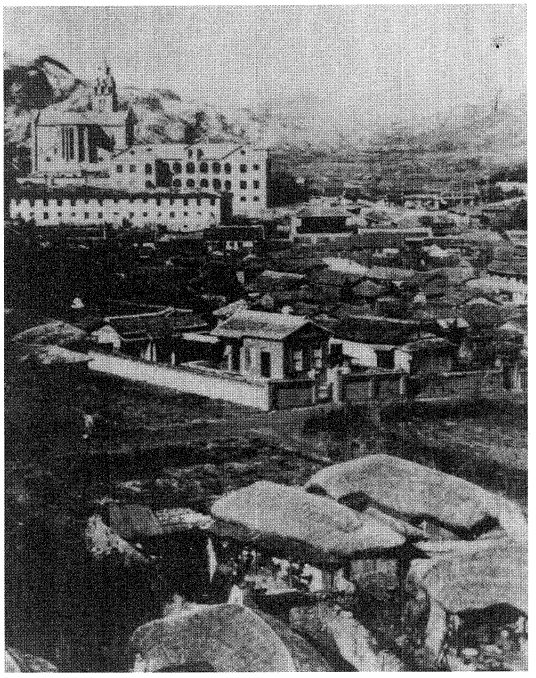
장동(長洞)은 장흥고(長興庫)가 있었으므로 장흥고동 혹은 장흥곳골이라 했는데 줄여서 장동으로 불렀다. 장동은 회현동 1가 · 남대문로 3가 · 충무로 1가 접경지역에 있었다. 이곳에는 장흥고라는 관청이 있었으나 후에 현재의 종로구 내자동과 적선동의 경계지역인 서부 인달방(仁達坊)으로 이전하였다. 장흥고는 조선시대 호조(戶曹)의 산하에 있던 관청으로 궁중이나 각 관서에서 소요되는 창호지 · 유지(油紙) · 기타 종이와 돗자리 등을 보관하여 대궐내의 여러 관청에 매달 공급을 담당하였는데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조선 건국 초에 설치되었다. 장흥고는 태종 3년(1403)에 흥신궁(興信宮)의 일부를 흡수하였고, 후에 다시 풍저창을 병합시켰다가 1884년에 폐지되었다.[6]

주동(鑄洞) 혹은 주동(做洞) · 주잣골이라고도 부르는 곳은 충무로 2가와 주자동이 경계하고 있는 지점, 즉 지금의 퇴계로로 편입된 곳에 주자소(鑄字所)가 있었으므로 명칭이 유래되었다.[7]

(2) 명동의 발자취

1) 도시화 과정

조선왕조가 한양 천도 후 도시계획에 따라 도성안에는 세개의 대로(大路)가 있었다. ① 황토현(黃土峴 : 현 광화문 네거리)에서 경복궁 앞까지 통하는 대로 ② 황토현을 중심으로 해서 동(東)으로 흥인지문(동대문)까지, 서(西)로 경희궁 흥화문까지 연결되는 동서 관통로 ③ 숭례문(남대문)에서 대광통교(현 종로네거리)까지의 대로가 있었다. 18세기에 그려진 「도성대지도」를 보면 당시 도성내의 중로(中路)는 을지로 입구에서 광희문까지의 길, 충무로 즉 신세계백화점 앞 로타리를 기점으로 광희문에 이르는 길 등이 있었고, 그 밖에 많은 소로들이 있



남산에서 바라본 명동성당과 충무로 진고개일대의 모습당시 "언덕위의 뾰족집"으로 불렸다.(1904년)

었다. 따라서 현재 명동 1, 2가와 충무로 1, 2가를 구분하는 충무로는 조선시대부터 개통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종 3년(1662) 6월에 아문(衙門)과 궁가(宮家)의 배[船]수량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여러 궁가의 배는 전에 이미 수량을 정하였는데 내수사와 명례방(明禮坊)과 용동(龍洞)의 여러 궁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 외에 일체 늘리지 말도록 분부해야 됩니다."라고 건의한[8] 기록을 보면 명동 지역에는 왕실의 저택이 들어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명동과 인접한 을지로 입구 일대를 조선시대에는 구리개라고 불렀다. 구리개란 이름은 전에 을지로 1가와 2가 사이에 나지막한 고개가 있었는데 이 고개의 흙이 몹시 질었기 때문에 불리어진 것이다. 이 일대를 동현(銅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구리개를 한자로 고친 것이다. 전일의 을지로 일대는 현재처럼 평지는 아니었다. 남산 줄기가 뻗어 내려온 탓으로 낮은 언덕이 있었고, 10여 개 정도의 개천이 남산에서부터 흘러내려 청계천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구리개를 바꿔 황금정(黃金町)이라고 고쳤다. 추측컨대 을지로 입구의 동현과 을지로 4가 부근의 은동(銀洞)이란 동명을 따서 황금정이라 붙인 것 같다. 현재처럼 을지로라는 명칭은 광복 이듬해 1946년 10월 1일부터 붙어졌다. 이 명칭은 주지하다시피 살수대첩을 거둔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성(姓)을 붙인 것이다.

조선시대에 가뭄이 들면 호랑이 머리를 강물에 던지거나 도마뱀을 강박하기도 하고 버들가지로 막은 물병을 매달았다. 또한 시장을 옮겼는데, 조선왕조실록에도 서울의 시장을 옮긴 기록이 몇 군데 보인다. 예종 1년(1469) 7월에는 저자[市]를 구리개(銅峴)로 옮기고, 숭례문(崇禮門)을 닫게 하였다. 예전에 가물면 저자를 옮기고 숭례문을 닫았는데, 이때에 가뭄이 매

우 심한 데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임금이 백성의 일에 마음을 졸이고 농사를 상하게 할까 깊이 두려워하여, 무릇 가뭄을 구하는 일이라면 거행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9] 인조 25년(1647) 6월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대로 남문을 열고 북문을 닫으며, 시장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였다.

종로가 종로구의 대표적인 도로라면 을지로는 중구의 대표적인 도로이다. 전에는 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4대문으로 통하는 길이 주요도로였다. 서대문과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종로와, 종각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길은 대로였지만 시청 앞에서 광희문으로 이어지는 오늘날의 을지로는 중로였다.

또 종로네거리를 중심으로 청계천의 좌 · 우측, 오늘날 종로와 을지로의 1~4가에 해당하는 지역 일대에는 상가와 시장과 환락가로 이루어진 번화가가 형성되었으며, 상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이 곳에는 관권과 결탁하여 치부(致富)한 거상(巨商)들도 살았지만 동시에 많은 서민들의 빈약한 가옥들이 밀집하여 혼잡과 소란의 애환이 얽힌 마을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는 사실상

남산에서 본 서울 전경(1905년)

번화가라고 하지만 한성부에서 가장 저지대였기 때문에 한발자국 뒷골목에 들어가면 배수가 잘 안되어 비만 오면 진흙구덩이가 되었으며, 여름철 가뭄 때에는 개천의 악취가 퍼져 주거환경으로는 좋은 곳이 못되었다.

대한제국에서 일제 강점기 초까지에는 시가지 정리(市街地整理)라는 이름으로 도로의 확장 · 정비가 있었다. 즉 1907년 4월경부터 남대문 옆의 도로개설과 좌우성벽의 철거공사를 함으로써 서울성곽은 축조된 지 511년 만인 1907년부터 헐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서대문의 동서 양측에 각각 8간(間) 씩의 새로운 길을 개설하고, 이 도로를 경성정거장까지 연장하는 공사와 구리개(을지로)를 확장(연장 464칸 폭 12칸)하는 공사 등 많은 소구간(小區間)의 개수(改修)도 대한제국시대에 이루어졌다.[10]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구리개, 즉 을지로 일대는 종로처럼 붐비지는 않았으나 혜민서(惠民署), 장악원(掌樂院)과 같은 관아가 자리잡고, 몇 개의 시전(市廛)이 있었으며 가내수공업이 성하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을지로 일대에 공공건물, 상가(商街), 중소기업체가 밀집해 있으므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대구하면 '사과', 개성하면 '인삼'을 연상하듯이 서울의 구리개하면 '약방'으로 통하였다. 그 까닭은 조선 초부터 5백년간 현재 외환은행 본점이 들어선 동쪽(을지로 2가 101번지 부근)에 혜민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민서는 의약과 일반 서민의 치료를 맡았던 기관인데 조선 초 서울 도성을 쌓을 때 많은 부상자를 수용 · 치료하였다.

혜민서와 관련된 것으로 '약방기생(藥房妓生)'을 빼놓을 수 없다. 조선시대는 유교 관습으로 남녀가 유별했으므로 궁중의 비빈(妃嬪), 궁녀 및 고위직의 부인들이 건강 진단이나, 비록 중병에 걸렸더라도 남자 의사가 직접 진맥을 할 수 없었다. 즉, 휘장을 치고 팔만 내밀어 진맥을 하거나 손목에 실을 매어 문밖에서 진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병을 정확하게 진찰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궁리 끝에 지방 기생들 중에서 70여 명의 영리한 기생을 뽑아 혜민서에서 의술을 가르쳐 내보냈는데 이들을 흔히 '약방기생'이라고 하였다.

한편, 서울은 그 지역마다 주민의 생업이 달랐다. 예를 들면, '목덜미가 까맣게 탄 사람은 왕십리 미나리장수'이고, '이마가 까맣게 탄 사람은 마포 새우젓장수'라는 말이 있었다. 이것은 왕십리 일대에는 미나리를 많이 심어 이것을 아침에 도성 안으로 팔러 들어오려면 아침 햇빛을 목덜미에 받아 까맣게 그을렸고, 마포에는 새우젓이 많이 들어와 이를 팔려고 도성 안에 오자면 아침 햇빛을 이마에 받아 새까맣게 그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누각골(누상동, 누하동) 쌈지장수, 자하문[彰義門] 밖 화초장수, 아현동의 놋갓[鍮器]장수, 잔다리(연희동) 게(蟹)장수, 물쇠골[水鐵里, 신수동] 솥장수, 청파동과 두뭇개(옥수동) 콩나물장수, 이태원 복숭아장수, 전생골(후암동) 제육(猪肉)장수, 갈우리(갈월동) 청포장수, 수구문[光熙門] 끈목장수, 다방골(다동) 기생, 숭동(명륜동) 앵두수, 용머리[龍頭洞] 무우장수, 홍제원 인절미장수, 제터골[祭基洞] 토란장수, 홍문골(행촌동) 투전(鬪戰)장수, 서빙고 어름장수, 동작리(동작동) 모래장수, 오강(五江) 뱃사람, 공덕리(공덕동) 소주장수, 동대문 안 객주(客主)로 유명했으니 지역마다 주민들의 생업의 분포를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서울에는 남촌의 술, 북촌의 떡(南酒北餠)을 꼽았다. 남촌의 술은 오늘날 충무로 1가와 회현동 1가, 즉 장동(長洞)에서 빚은 술이다.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李裕元)은, "술의 빛과 맛이 모두 절품(絶品)이며 한 잔을 마시면 곧 취하고, 술이 깬 다음에는 갈증이 나는 일이 없어 우리 나라의 명주(名酒)라고 할 만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초 태종 16년(1416) 5월에는 서울에 강풍이 불어 먼지를 드날리면서 천둥과 번개를 쳤는데 이 때 명례방(明禮坊)의 첨지 사역원사(僉知司譯院事) 선존의(宣存義)의 집 기둥이 벼락을 맞는 등 피해가 있었다.[11]

을지로1가 반도호텔, 외환은행 본점(구 내무부)이 보인다.(1961년)

명동성당이 보이는 진고개 일대(1900년대초)

남산에서 내려온 산줄기의 하나는 예장동의 국토통일원이 자리했던 곳을 지나 충무로 2가 세종호텔과 명동 천주교회당, 기독교 여자청년회관(YWCA) 자리를 지나 을지로 2가로 뻗었다. 서울의 옛지도인 수선전도(首善全圖)를 보면 세종호텔 뒷쪽 충무로에 있던 고개를 진고개(泥峴)라 하고, 성모병원과 로얄호텔 사이의 고개를 종현(鐘峴)으로 표시해 놓았다. 따라서 명동천주교회당을 종현성당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공사관이 현재 극동빌딩 서쪽(충무로 2가 52번지)으로 일시 옮겨오면서 일본인들은 진고개 일대에 모여 살게 되었다. 그들은 이곳의 길이 불편하자 광무 10년(1907)에 8척이나 흙을 파내어 고개를 낮추는 동시에 하수도를 묻음으로써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조선시대에는 이 진고개 일대를 남산골이라고 불렀으며 이 지역에는 주로 하급관료인 아전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갑신정변 이후부터 이곳에 일본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근대적 상품을 진열하여 당시 개화가 늦었던 한국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도성 안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도로 개수(改修)는 진고개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원래 항상 토지가 습하다고 해서 진고개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곳은 큰 비가 오

면 남산에서 흘러내린 골짜기 물이 범람하여 현재 충무로 2가 서쪽은 전혀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진고개(泥峴)에는 굴우물이 있어 또한 유명하였다. 이 굴우물은 깊고 또 우물 안에 굴이 있었으므로 한자로 굴정(窟井)이라 하였고,[12] 또한 진고개 일대를 남산골이라고 불렀으며, 이 지역에는 주로 하급관료인 아전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남산의 산줄기가 뻗어 내려오면서 만든 이 진고개는 배수시설이 잘되지 않는데다가 고개에 있는 흙이 몹시 질어서 비가 한 번 오면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질 정도로 통행이 곤란했던 곳으로 유명하였다.

영조 · 정조시대의 명신이며 학자로도 유명한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는 진고개 근처에 있던 그의 집 이름을 이와(泥窩, 진굴)이라고 지어

남산 앞에 진고개가 있다. 땅이 낮고 협소하여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습하고 진흙길이 되는 일이 많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곤란을 당하므로 이 마을을 진고개라 부른다. 나의 집이 그 옆에 있어 진굴이라고 이름지었다.

고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명동성당 부지(1892년)
-「사진으로 본 백년전의 한국」에서

명동성당 계단공사(1898년)
-「사진으로 본 백년전의 한국」에서

이리하여 진고개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입주한 일본인들은 거주하기가 어려웠다. 그 때문에 청일전쟁 발발 이후로 증가 일로에 있던 일본인 이주자들은 이 진고개 좌우를 기피하고 남대문 방면으로 그 정주지(定住地)를 확장해 가는 추세에 있어 진고개의 일본인 거리가 쇠퇴해 가는 징조까지 보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일본인 거류민과 일본영사관이 협력하여 진고개~남대문간의 도로개수 작업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고종 32년(1895) 4월에 일본인들은 일본계 제일은행 서울지점에서 일화(日貨) 3만원을 기채(起債)하고, 소학교 졸업자에서 60세까지의 거류민 1인당 10전씩을 거두어 같은 해 8월 하순에 공사에 착수하여 그 해에 완공하였다. 가로 양편의 건물(주로 假家)을 철거하여 가로 폭을 확장하고, 배수로를 깊이 팠으며 공중변소와 가로등까지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 때에 이현교번소(泥峴交番所, 현 충무로파출소)까지 신축하였다. 일본인들에 의한 충무로 개수는 1904년에도 실시되어 2가 중간에서 5가 끝까지 도로를 확장 · 개수하였다. 1906년에는 진고개를 8척 가량을 파내어 고개를 낮추고 길을 닦아 현대식 도로를 만들면서 높이 5척의 방추형태의 하수도를 묻어 그 지역의 하수

를 통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서울시내 하수구 도랑의 시초가 되었다.

북달재라고도 하는 종현(鐘峴 : 명동 2가 1번지)은 명동성당 부근 고개 마루에 임진왜란 때 종로 보신각의 종이 불타 버리자 명나라 장수 양호(楊鎬)가 이 고개에 진을 치고 남대문에 걸어 놓았던 종을 옮겨 달아 시각을 알리게 된 이후부터 부르게 되었다. 한편 세조 14년(1468)에 주조하여 원각사에 매달았던 종을 연산군이 절을 폐사(廢寺)하여 유원지로 만들면서 이 곳 언덕에 종을 방치했으므로 북달재라는 명칭이 붙었다. 한편 북달재라는 명칭은 간고(諫鼓)라는 북을 달아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나 조정에 알릴 일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북을 치고 하소연하게 했다 하여 북고개 등으로 불렸다고도 전한다.

이 곳은 조선 정부에서 모진 박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첫 천주교회당으로 삼았다가 끝내 죽음을 당했던 김범우(金範禹)의 집터이기도 하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이면 반드시 사들여 교회로 삼는 천주교의 전통에 따라 그 땅은 명동성당의 터로 닦였던 것이다.

1887년 한불수호조약이 비준(批准)됨에 따라 프랑스 성직자들의 행동이 자유로와지자 몇 해전에 사두었던 북고개의 넓고 전망 좋은 곳에 무엇보다도 먼저 성당과 천주교관을 세우는 일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 터는 원래 이조판서 윤행임(尹行恁)의 아들 윤정현(尹定鉉)의 집이었는데 1883년 김(金)기밀의 명의로 쁘랑 주교가 매수하였다. 조선정부는 왕궁을 비롯하여 서울 장안을 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이 곳에 집을 세우는 일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여 왔었다. 그러나 쁘랑 주교는 조선정부와의 오랜 교섭의 결과로 이 곳에 집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자 1887년에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현 등성이를 깎아 1890년까지 터를 만들었다.

종현에서는 덕수궁 안 궁녀들의 움직임도 내려다 보여 각 전각에는 발을 쳤다고 하며, 한편으로 인근 마을사람들은 물론 새문안의 사람들도 높은 북고개에 더 뾰족한 탑이 서게 되면 하늘이 노하게 된다 하여 저마다 전전긍긍하였다.

순종 1년(1907)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황태자(순종)는 매일 진고개의 숙소에 머물고 있는 일본 황태자를 방문하였고, 일본 황태자와 동반하여 창덕궁과 경복궁을 관람하였다는 기록도 있다.[13]

2) 일제의 침략과 군사 주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서울을 1년간 점령하였을 때 당시 왜군 사령관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는 종묘를 주둔군의 본부로 삼았다. 그런데 밤이 되면 신병(神兵)이 나타나고, 또는 병졸이 폭사하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종묘에는 신령이 있으니 오래 거처할 수 없다' 하므로 본부를 남별궁(南別宮)으로 옮기고 종묘를 불태웠다. 또한 부하 장졸들을 20개 처에 분산하여 주둔시켰는데 그들이 주둔했던 지역은 대부분 청계천 남쪽의 남촌으로 석전삼성(石田三成)이 명례방에 주둔하였다. 석전삼성은 서울 점령의 첩보를 접한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서울의 주둔 병력이 적은 것을 염려하여 보낸 장수들 중의 한 명이었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일본인들의 도성 내 거류가 허용되고, 진고개 일대가 거류지역이 되자 그들은 남산 기슭에 평평한 잔디밭 지대를 골라서 봄 · 가을 놀이터로 정하여 야외의 모임이 있으면 으레 이 곳에 모이곤 하였다. 지금의 예장동 일대는 예로부터 속칭 「왜장터」, 「왜장이」라고 불려 온 지역이다. 임진왜란 때 이 지역 일대가 일본군의 주둔지였으므로 이 곳 속칭이 왜장터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 지역이 왜장(倭將) 또는 왜성(倭城)과 관계 있는 곳이라 하여 거류 초기부터 왜성대(倭城臺)라는 이름을 붙여 자기들의 성역처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곳이 왜장터라고 속칭된 것은 옛날 영문군졸(營門軍卒)들의 무예연습장이었던 때문에 예장(藝場)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 음이 전화(轉化)되어 「왜장」이라 불린 것이지 왜장과 관계된 이름은 아니었다.

영조 때는 임진 · 병자란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여 한성부를 사수하는 방위체계를 세웠으므로 명동 지역은 훈련도감의 3패(牌)가 순찰하는 구역이었다. 영조 27년(1751)에 『수성책자(守成冊子)』를 간행 반포하고 수성계획을 구체화하였는데 이를 보면 훈련도감이 분담했던 숙정문(肅靖門)에서 돈의문까지 도성 구역에는 모두 109 계(契)가 배치되었고, 호수(戶數)는 14,587가구이었다.

3군문은 도성을 수축, 수비하여야 될 임무 이외에 도성의 내외를 순찰하여야 하였다. 순찰은 각 군문에서 8패(牌)로 나누어서 행했는데, 그 내용을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 훈련도감을 보면 제 3패는 종각에서 현재 명동지역인 낙동(洛洞) · 장흥동(長興洞) 서쪽까지와 종각~돈의문 남쪽까지 순찰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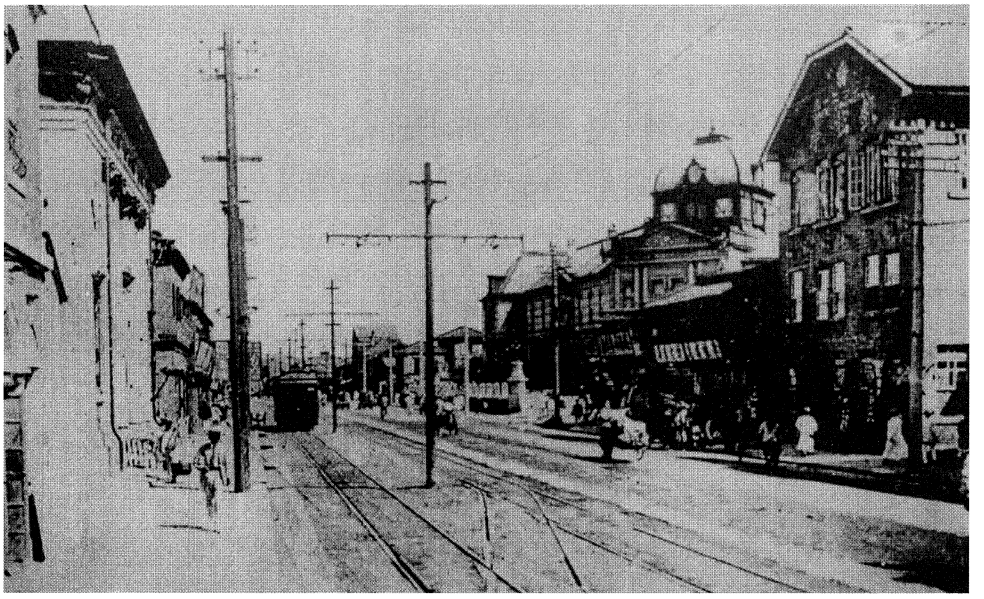
청일전쟁(1894), 을미사변(1895), 아관파천(1896) 등을 거치면서 러 · 일간의 세력이 팽

팽히 맞서자 건양 원년(1896) 5월 14일, 러시아대표 웨베르(Waeber)와 일본대표 고무라(小村)가 한성에서 회담을 가져 한반도에서의 양국세력 균형책을 숙의하였다. 이 당시 작성된 합의점이 이른바「조선문제에 관한 웨베르(Waeber) · 고무라 각서(小村覺書)」였다. 이 웨베르 · 고무라 각서에 따라 일본군대는 서울에 2개 중대 400명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당초에는 그 본부를 저동 1가(일제 때 전매국 자리)에 있었던 조선인 큰 가옥에 두고, 나머지 병력은 충무로 1가 19번지(중앙우체국 자리)와 광화문의 구 조선보병대(舊朝鮮步兵隊) 영내에 분산 주둔하였다. 1904년 1월에 필동 2가에 일본병영(兵營)이 건설되자 모두 이곳으로 옮겼다.(이 병영건물은 일제 때에는 헌병사령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이 각서에 의해 주병권만 확보하였을 뿐이고, 서울에 군대주둔은 하지 않았다.

광무 8년(1904), 러 · 일간의 형세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인천항에 열강의 군함이 다수 정박하는 등, 한반도에 전운(戰雲)이 짙어지자 한국 군대만으로는 서울의 치안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자국의 교민(僑民)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 각 공사관마다 군대를 입성케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예장동 일대



동양척식회사 건물이 보이는 을지로 입구
-「사진으로 본 서울(1)」에서

하여 수용하였다. 이어 1904년 1월 10일 · 12일에도 러시아군들이 들어왔고 15일에는 미군 25명이, 그리고 16일에는 불란서 사병 30여명, 19일에는 영국 사병 16명도 들어와, 일본군이 아닌 이들 열강의 병력도 300여명이나 되어 삼삼오오 떼를 지어 서울의 거리를 산책하게 되자 부녀자들은 거리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러일전쟁의 선발대로 일본군 1개 여단병력이 서울에 입성한 것은 그해 2월 9일부터이며 그날 정오가 좀 지날 무렵, 인천에서 시작된 해전을 시발로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러일전쟁을 위해 서울에 들어온 일본은 당초에는 진고개를 중심한 일본 가옥들에 분산 투숙하였지만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져 일본인 가옥에의 수용이 불가능해지자 2월 18일 이후부터는 시내 각처의 공사(公私)의 한국건물에도 분산 수용되었는데 그때 명동 장악원(掌樂院, 현 외환은행 본점자리)에도 일본군이 수용되고, 그 외에도 7개의 일본인 소학교 및 한국인 가옥 등에도 주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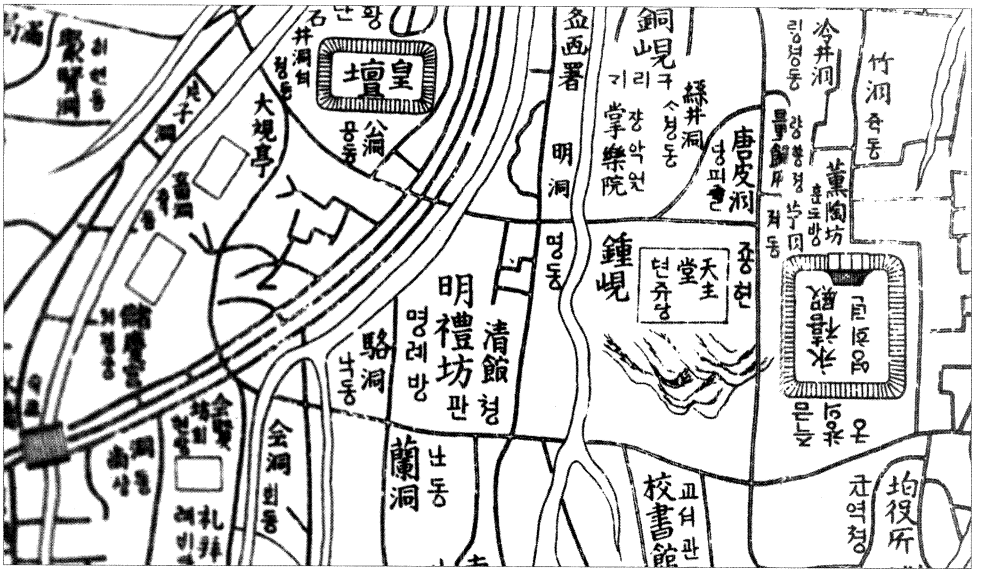
청일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으로 말미암아 불통된 남로전선(南路電線)을 개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서로전선(西路電線)과 북로전선(北路電線)도 강제로 일본군이 작전용으로 접수함에 따라 우리 나라의 전신은 일본 군사전신만이 통하게 되

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지방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역참제(驛站制)에 의존하거나 외아문(外衙門)에 전문(電文)을 보내면 외아문에서 일본공사관에 보내고, 일본공사관에서는 이것을 당시 일본 군사전신소(軍事電信所)가 있는 진고개에 보내어 발신(發信)하였다. 지방에서 서울로 보내 올 때에는 위의 경로를 반대로 밟아 수신(受信)하게 되었다.

3) 근대화 시설과 경관의 변모

광무 7년(1903), 즉 미국인 콜브란(Collbran)과 보스트 위크(Bostwick)에 의한 상수도사업 특허신청이 한국정부에 제출되었던 것과 같은 해 2월에 일본인 하야시다(林田)·사까모도(坂本) 두 명이 일본인 거류민들에게 수도를 급수할 목적으로 사설 수도(私設水道) 부설 허가원을 일본영사관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서울의 상수도는 콜브란·보스트 위크보다 몇 년 앞서 일본인거류지역의 사설 상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고개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을지로 2·3가 퇴계로 2·3가, 남산동, 필동 일대의 지역에 집단거주 하던 일본인들도 당초에는 우물을 파서 음료수 등 생활용수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물물은 냄새가 나고 염분이 많아 음료수로는 부적합하였다.



「서울지도」에 나타난 명동 일대(1902년)

이들은 남산의 계곡 다섯 군데를 막아 수원지로 하고, 수원지→우물→여과지(濾過池)→저수지→급·배수의 계통을 취하였다. 이 사설 수도는 「한국정부의 자체사업 또는 그 특허에 의하여 경성 전 시역 또는 그 일부지역에 상수도사업이 실시될 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10년 기한의 특허를 받았다.[14]

이들은 허가를 받은 3개월 후부터 기공하여 동년 7월말까지 제1기 공사를 끝내고, 8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고 한다. 이 공사 이후 급수량이나 급수 가구수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나 투입된 자금이 4,707여 원(圓) 밖에 안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는 보잘 것이 없었고, 급수량도 적었을 것 같다. 일본인들은 이 물을 받아 음료수로만 썼다고 한다.

노일전쟁이 일본의 승전으로 끝나가자 일본인 내한자(來韓者)가 급증하고 진고개를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지역의 범위도 늘어나자 사설 수도의 확장이 불가피해졌다. 융희 원년(1907) 11월에 일본 거류민단은 코리안 워터 워크사(Korean Water Works Co.)에 청하여 일본 거류민단역소(日本居留民團役所), 일본인 학교, 유치원, 병원 등에 매일 90,000가론씩의 무상 급수와 화재 등의 비상시에 임시 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진고개 일대의 사설 수도는 코리안 워터 워크사의 경영권이 일본 시부사와 재벌(澁澤財閥)의 손을 거쳐 1911년 3월에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자마자 서울시내 수도체계의 일원화라는 명목 하에 사설 수도는 폐쇄된 것으로 추측된다.

1902년 11월에 명동 경성학당에 신문-잡지 종람소가 설치되었는데 신문은 13종, 잡지는 17종이 비치되어 있었다. 관람자는 11월 18일~30일까지 280명(한국인 253명, 일본인 23명, 청국인 4명)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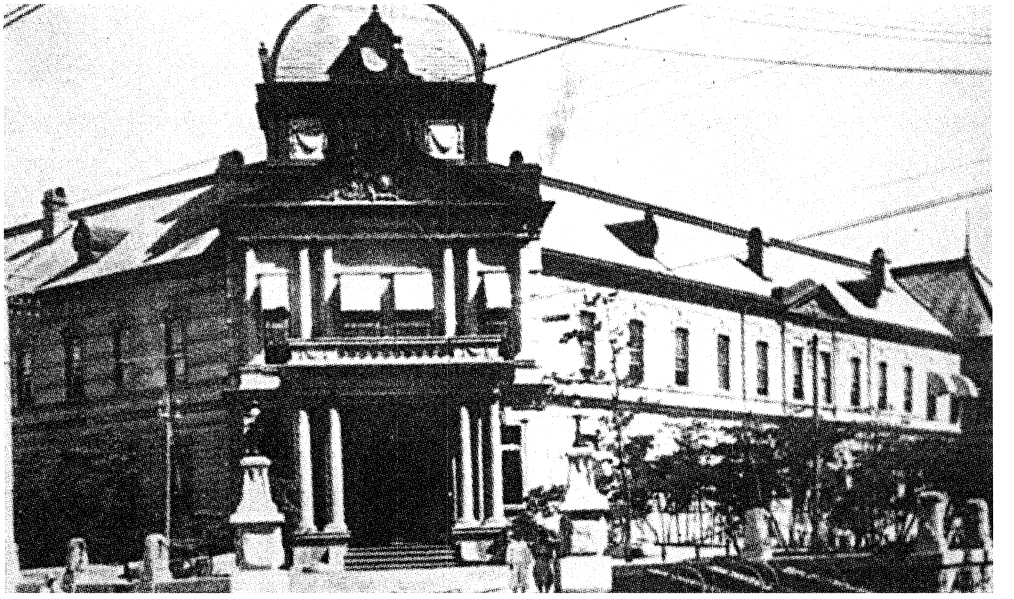
4) 일본인의 상권 장악

1882년에 일본 영사관은 현재 관훈동의 박영효집으로 옮겼는데 이때의 영사관 직원은 30여명, 공사관 소속 일본군인 약 200여명이 서울에 주둔하게 되었다. 일본 공관원이 이와 같이 많이 서울에 주둔하게 된 것은 임오군란 이후 일본의 강요로 체결된 제물포조약 제5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수의 일본인이 서울에 상주함에 따라 그 물품조달을 구실로 상인의 입성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에 서울에 들어온 일본상인으로는 협동상회(協同商會), 대창조(大

倉組), 경전조(慶田組) 등 10여명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에 입성한 일본 상인은 아직도 한국의 일반인 상대로 거래를 시작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들은 당시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주화용(鑄貨用) 구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일이 있었을 뿐이다.

1885년 조일통상장정 체결 이후 일본상민의 거주가 일단 허용이 되자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국 정부가 제물포조약에 따라 일본 상인에게 개시(開市)를 허락한 곳은 양화진이었다. 그 뒤에 개시장(開市場)을 용산으로 옮겼으나 일본 상인들은 이 개시장에는 별로 모여들지 않고 주로 일본공사관이 있던 진고개 일대 즉 오늘날의 중구 예장동 · 주자동~충무로 1가에 이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처음에는 한옥을 임차(賃借) 또는 매수하여 입주했으나 점차 공지(空地)를 구입하여 일본식가옥을 지어가면서 집단적으로 일본인취락을 형성해 갔다. 그런데 개항 이후 조선에 이주하여 정착한 일본인의 대다수가 그러하듯이 초기에 도성 안에 거주한 일본인들도 거의가 무지(無智) · 무산자들이었으며, 영세한 자금으로 행상 노점 중개 · 매춘 등 치재(致財)의 수단이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종사하였다. 따라서 이들 일본상민과 한성주민들 간에는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식민지 경제수탈의 본거지 동양척식주식회사(을지로 입구 외환은행 본점)

그러나 이들 일본인들은 꾸준히 그들의 식민의욕을 펼쳐 나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집단인 일본인 거류민회나 일본인 상업의회(商業議會)를 결성하는 등 주자동 · 진고개 · 명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여 일본인들의 시가지로 조성해 나갔다.

1887년 당시 진고개 일대에서 상점을 열고 그곳의 일본 거류민 및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던 일본 상점은 50호 정도였다. 이를 영업 종목별로 보면 서양 면직포상점(西洋綿織布商店) 10여 호, 잡화상 10여 호, 약종업(藥種業) 5 호, 과자점 10 호, 전당포 10여 호였고, 이 밖에 빈전상회(濱田商會) · 굴구상회(掘口商會) · 협동상회(協同商會) 등 무역상이 몇 명 있었다.

이들 일본 상인들은 1887년 2월에 경상의회(經商議會)를 조직하고, 서울 상계(商界)에서의 세력 확장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당시 서울에서의 일상의 활약은 그다지 활발치는 못하였다. 그 주요한 원인은 이들 초기의 일상들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온 사람들이었고, 상거래에서 속임수가 많아 신의를 잃었고, 또 일본 침략주의에 대한 한국 민중의 반발이 일본상인 배척으로 번져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상인이 서울에서 확고한 상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청일전쟁 이후라고 하겠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많은 청상들은 폐점 귀국한 반면에, 일상의 서울 진출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서울에 진출한 일상들은 초기의 도래자들과는 달라서 서울에 정착하려는 자가 많았고, 그들은 진고개 일대에 일본식 점포를 신축하고 영구 체류의 자세를 갖추었다. 또 이 무렵에 조선에 온 일본 상사(商社) 중에는 거상(巨商)이 많았는데 이들은 남대문에서 진고개 입구에 이르는 지역에 자리잡고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894년 3월에 입경한 비숍(I.B. Bishop) 여사는 당시의 일본인 거류지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남산 비탈에 단조하고 수수한 백색목조의 일본공사관건물이 위치하고 그 앞쪽에 근 5,000명이 살고 있는 일본인 거류지가 있다. 다방도 있고 극장도 있으며 그밖에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곳은 조선인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점포와 주택이 들어선 가로는 깨끗하고 말끔하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여인들이 허리띠를 두른 길다란 일본 옷을 입고, 남자들은 모두 나막신을 신은 채 일본에서와 같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 군인들과 헌병 그리고 칼을 찬 경찰들이 시간을 맞추어 거류지 내의 호위병을 교대시키고 있다. 조선인의 뿌리깊은 배일감정(排日感情)에다가 두 차례의 소요에 의해 공사관원조차 쫓겨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 거리에는 은행도 우편국(郵便局)도 있어 훌륭히 경영이 되고 있다.

그 후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일본인의 대륙진출은 전에 없이 고조되었다. 그에 따라 전쟁경기(景氣)를 틈탄 도래자(渡來者)가 급증하면서 1896년 일본영사관이 현재의 충무로 입구(신세계 백화점과 제일은행 제일지점 자리)에 자리하자, 이들은 그 활동 거주지역을 더욱 확대시켜 남대문로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한편 일상(日商)과 대립되어온 청상(淸商)들의 활동도 청국 세력의 영향에 따라 신장하였다. 서울에 들어온 청상은 대체로 1882년 이후 수표교와 남대문 일대에 자리 잡았으며 갑신정변 후인 1885년경에는 이미 300여 호를 헤아릴 수 있었으며 일상을 압도하는 상태였다. 청상들은 상해 · 홍콩 · 천진(天津) 등지에서 수입된 서양 면직물 및 잡화와 중국산 견포(絹布)와 한약재 등을 수입하여 팔았으며 한국으로부터 인삼 · 곡물 · 우피(牛皮) · 해물 등을 수출하였다.

그들은 재한 청국관헌(在韓淸國官憲)의 보호를 받으면서 토지와 가옥을 매수하고 남대문 시장으로까지의 확대를 시도해 나갔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상인과의 보이지 않는 암투가 시작되어 치열한 상권쟁탈이 청일양국의 세력의 영향과 함께 전개되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측이 유리해지면서 진고개와 남대문 일대에는 일본상가가 형성되고, 소공동 일대

제일은행 앞 거리의 손수레가 지나다니던 모습(1920년)

의 청국인 상가가 생기게 되었다.

1882년 인천에 설치되었던 일본계 제일은행 부산지점의 출장소는 서울과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영사관들의 금고(金庫) 노릇을 하게 되어 그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1888년 9월에는 제일은행 인천지점으로 승격하였다. 때마침 서울에 뿌리박고 있었던 일본상인들은 풍부한 상업자본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낮이나 밤을 가리지 않고 제일은행의 유치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일본인들의 요망에 따라 제일은행 인천지점은 한 달 후인 1888년 10월에 그 출장소를 서울에 설치하게 되었다. 서울에 설치되었던 제일은행 인천지점의 출장소는 1903년 2월에 제일은행 경성지점으로 승격하였으며, 1906년 5월에는 제일은행 한국 총지점(韓國總支店)으로 다시 승격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제일은행은 해관세 수입을 담보로 한국정부에 멕시코 은화 24,000불(弗)을 대여함으로써 해관세(海關稅) 수납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손안에 넣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해관세 수납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한국의 재정금융에 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제일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는 인천·부산·원산 등의 각 개항장에서 관세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은행 자체의 어음을 한국정부에 납입하게 되었으므로 일본 은화는 점차로 유통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1897년에는 일본 은화의 유통량이 350여 만원에 달하여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한화(韓貨)의 통화량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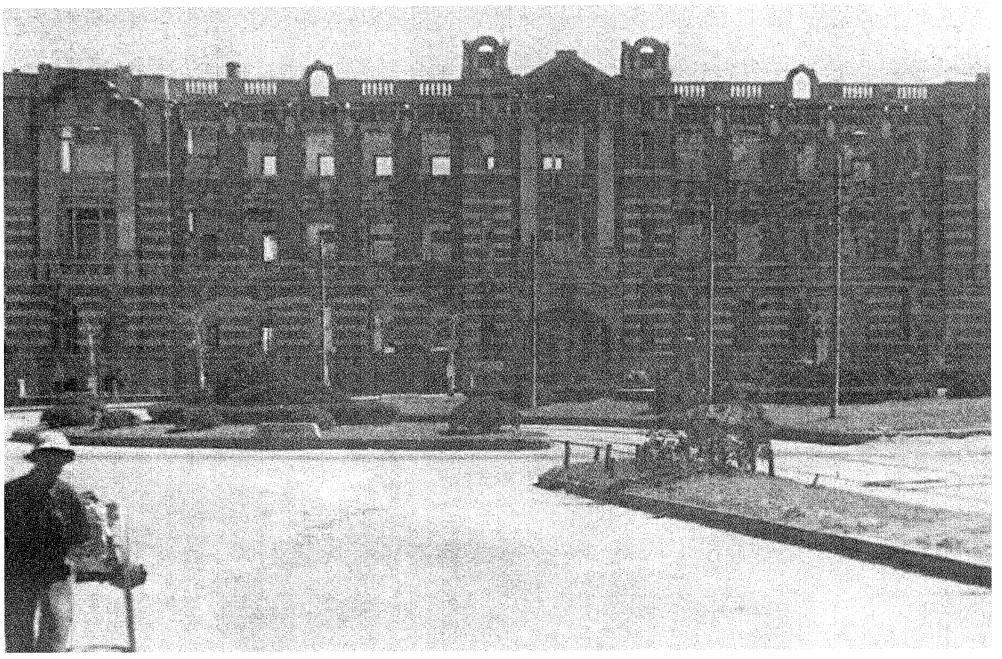
구한말부터 남대문로는 은행가가 되었다. 이는 첫째로 1882년 임오군란 후 원세개(袁世凱)가 남대문쪽으로부터 뻗쳐 나오고 있는 일본상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었다. 원세개는 남대문로의 2가 지점에 청국경찰서를 설치하고 남대문로의 1~2가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청국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므로 상업활동에 발맞추어 움직이는 처지에 있었던 은행들이 남대문로에 모여들 수 밖에 없었다.

둘째로 1904년 8월 15일에 한국주차군사령관은 남대문 밖의 길야정(吉野町, 도동 일대)에서 한강에 이르는 지역을 군용지로 점유하여 일본인의 거주지역으로 전용하였다. 1906년 3월에 이르러 용산방면의 일본인 거주지역과 남대문로가 연결되는 지점(상공회의소 부근)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보세시장을 설치하여 남대문로에 대한 일본상인의 진출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제일은행의 경성지점을 신축하는 예정지가 남대문로 3가로 책정되었다는 사실도 남대문로가 일본상인들의 상권이 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다.

셋째로 1901년 이래로 남산동~필동 등이 일본인 거주지역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충무로 일대가 일본인 상가로 급격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게 되었다. 충무로(본정) 상가에서 일본상인과 한국상인의 거래가 증대됨에 따라서 종로의 육의전(六矣廛)은 진고개에서 일본상품들을 구입하는 한국상인들에게서 징세(徵稅)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일본상인들은 충무로에서 남대문로로 쉽게 진출할 수가 있게 되었다. 더구나 청일전쟁의 패전과 더불어 원세개의 세력기반이 허물어짐에 따라 청국상인들은 남대문로에서 후퇴하여 소공동을 거쳐서 서대문 동쪽으로 그 상권을 옮겼으므로 남대문로는 충무로와 더불어 일본인 상가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남대문로가 상업활동의 중심지대로 되었기 때문에 종로 1가에서 영업을 해오던 한호농공은행(漢湖農工銀行)마저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한일은행 등과 더불어 남대문로 1가 113번로 이전하였다. 또한 한성은행도 1909년에 이르러 다동쪽에서 남부 태평방(太平坊) 동행랑(東行廊) 32통 5호로 이전하였으니 그 위치가 남대문로 1가 19번지였다는 것이다.

신축된 경성우체국 건물(1920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중앙우체국 건물(1950년)

개화기를 맞아 서울과 원산 등지에는 일본의 상인이 상륙하여 상권을 쥐게 되어 그 피해는 날로 더해 갔다. 고종 22년(1885) 수표교~남대문 사이의 상가는 청국 상점이 3백여 호가 들어서고, 진고개 일대는 일본상점이 판을 치니 한국의 상가는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1889년 12월에 한국상인은 철시(撤市)를 하고 궐기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외국상인들과 각축을 벌이며 곤란에 빠졌다. 청국상인 3천명, 일본상인 1,500명이 활동하였으니 외국상품이 얼마만큼 많이 퍼졌는지 짐작이 간다.

일본인이 진고개에 진을 치고 3천명이 모여 살게 되면서, 일본 요리집과 일본 과자집이 생겨 구경거리가 되었다. 왜(倭)각시 구경한다고 눈깔사탕을 사러 가는 한국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게주인은 10년 안에 큰 부자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1887년에는 일본 기생인 게이샤를 둔 일본 요리집 화월루(花月樓)가 생기고, 송병준(宋秉畯)이 청화정(淸華亭)이라는 일본 요리집을 차리자 친일파의 아지트가 되니 한국의 상류계급을 자처하는 인물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하여 차차 외국의 문물이 침범하고 그들의 음식도 물론 전해졌다.

(3) 인물과 이에 깃든 일화

1) 이민구(李敏求)

『한경지략(漢京識略)』에 보면 진고개에는 굴우물[窟井]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 우물은 인조 때 이민구(李敏求 : 1589~1670)가 동네 아이들과 파 놓았다는 것이다. 즉 이민구가 13살 때, 선조 34년(1601)에 진고개에서 놀다가 돌 밑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우물을 파서 넓히니 그 뒤부터 행인들이 이 우물을 떠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민구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東洲) 또는 관해(觀海)로 이조판서 이수광(李睟光)의 아들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한성부 남부 명례방의 진고개에 살았다. 광해군 1년(1609)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612년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수찬(修撰)으로 등용되었다. 이어 예조 · 병조 좌랑(兵曹佐郎)을 거쳐 광해군 14년(1622)에는 지평(持平)이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선위사(宣慰使)로 일본사신을 접대하였다. 이어 교리(敎理) · 응교(應敎) 등을 거쳐 인조 1년(1623)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으며,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도원수 장만(張晩)의 종사관이 되어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인조 4년(1626)에 대사간이 되었으며 이듬해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병조 참의가 되어 세자를 모시고 전주에서 난을 피하였다. 그해 승지가 되었다가 임천군수(臨川郡守)로 나갔으며, 인조 14년(1636)에는 이조 참판 ·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역임하였다.

이 해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도검찰 부사(江都檢察副使)가 되어 왕을 강화(江華)에 모시기 위해 배편을 준비했으나 적군이 어가(御駕)의 길을 막았으므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난이 끝난 뒤 책임을 물어 아산으로 유배되었다가 인조 21년(1643)에 영변으로 이배(移配)되었으며, 인조 27년(1649)에 방환(放還)되었다. 그 뒤 부제학 · 대사성 · 도승지 · 예조참판 등을 지냈다.

그는 문장에 뛰어나고 특히 사부(詞賦)에 능하였으며 글쓰기를 즐겨 그가 쓴 책이 4,000여 권이 되었다 하나 병화(兵禍)로 거의 소실되고, 『동주집(東洲集)』 · 『독사수필(讀史隨筆』 · 『간언귀감(諫言龜鑑)』 · 『당률광선(唐律廣選)』 등이 있다.

이민구가 내 · 외직을 역임하고 5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진고개를 지나다가 우연히 굴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불현듯 옛날 생각이 떠올라 우물 맛을 보니 옛날 그대로였으나 우물 모습은 고색 창연하였다. 그는 흘러간 옛날을 회상하면서 우물물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본 뒤 시를 지은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2) 김범우(金範禹)

또한 진고개 부근에는 조선후기 정조 때 중인 계급의 중국어 역관(譯官) 김범우(金範禹 : ? ~1786)가 살았다.

김범우의 본관은 경주(慶州), 충선공파(忠宣公派)인 중인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조선 후기의 천주교인으로 순교자이다. 1773년의 역과(譯科)를 거쳐 역관이 되었으며, 관직은 한학 우어 별주부(漢學偶語別主簿)를 지냈다. 그는 청국에서부터 전해진 한역(漢譯) 서학서를 일찍부터 가까이 하여 천주교에 근접하였다. 1784년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어 귀

주교관(현 사도회관)과 명동성당(1916년경)

국한 이승훈(李承薰)이 수표교 부근의 이벽(李檗)의 집에서 한국 최초로 정식 입교(入敎) 예절을 취할 때 그도 영세를 받아 천주교인이 되었다. 이때 영세 받은 천주교인들이 명례동(明禮洞) 소재 그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신앙집회를 가졌다.

그는 신앙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교리 서적을 구비하여 원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주선해 주었고, 여러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등 초기 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1785년 봄에 그의 집에서 열리던 신앙집회가 형조에 의해 적발되는 '을사 추조 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으로 참집자와 같이 형조(刑曹)로 연행되었다. 다른 교인들은 훈방되었으나 장소 제공자이며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고문을 당한 끝에 경상도 밀양의 단장(丹場)으로 유배되어 이듬해 병사하였다. 그의 친동생 김현우(金顯禹)·김이우(金履禹)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였다.

'을사 추조 적발사건'은 이승훈이 정조 8년(1784)에 북경에서 천주교에 입교한 뒤 귀국하여 이벽·권일신(權日身) 등에게 전교하여 세례를 주자, 이들은 양반계급의 정약용 3형제, 역관 김범우·최인길(崔仁吉) 외에 충청도 내포(內浦 : 아산)에 살던 상민계급의 이단원(李端源)들과 전라도 전주에 살던 양반계급인 유항검(柳恒儉)들에게 세례함으로써 수 십 명의 교우(敎友)를 얻게 되었다.

이어서 이승훈·이벽·권일신 형제·정약용 3형제들은 정조 8년(1784) 겨울 어느날 명례방에 있던 역관 김범우 토마스의 집 대청 마루에 모여 이벽의 지도 아래 주일(主日)행사를 지냄으로써 스스로 조선교회를 창설하게 되었다. 김범우 집에서 비밀 신앙집회를 가져오던 이들은 정조 9년(1785) 봄, 형조에 의해 적발되어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3) 손순효(孫舜孝)

손순효(孫舜孝)는 조선 초 성종 때 좌찬성까지 지낸 청렴한 관리로 명례방(明禮坊 : 명동2가 1번지)에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6, 7세에 이미 학문에 능했다 한다. 그러나 과거는 26세에 급제하여 병조좌랑을 거쳐 전한집의(典翰執義)로 있을 때에 시정(時政) 17사(事)를 건의하였다.

손순효가 강원도 관찰사에 재임하고 있을 때 성종이 중전 윤씨를 폐위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는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였으며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성

종의 총애를 받았다. 그래서 성종이 승하하자, 손순효는 너무나 애통하여 밤낮으로 통곡하고 달포나 음식을 들지 않았다.

성종이 어느 날 경회루에 올라 산책을 하다가 멀리 남산을 바라보니, 남산 숲 사이로 서너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눈에 뜨였다.

(저 사람 중의 한 사람은 분명 손순효일 것이다…)

라고 짐작한 성종은 내시를 시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윽고 내시가 엿보고 와서 하는 말이 손순효가 두 손님과 탁주를 마시고 있는데 안주로는 쟁반에 참외 조각만이 놓여 있을 뿐이라고 보고하였다. 손순효가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청렴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 있는 성종은 즉시 사람을 시켜 술과 안주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일로 내일 사은(謝恩)하지 말라"

고 말하였다.

손순효는 도승지, 대사헌, 경상도관찰사 등의 고위직을 거쳤지만 아무리 귀한 손님을 맞더라도 술상에는 안주로 콩자반이나 나물 밖에 놓지 않았다.

손순효의 일화로 후세에 전해지는 것으로는 술과 관련된 것이 많다. 선조 때 차천로(車天輅)가 지은 『오산설림(五山說林)』에 보면,

손순효는 술을 즐겨 마셨으므로 그를 아끼는 성종은 항상 경계하기를

"석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

고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다.

성종이 어느 날 승문원(承文院)에서 올린 표문(表文)의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손순효의 글재주를 빌리고자 사람을 시켜 찾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방이 묘연하여 열 명째 사람을 내 보내도 찾아오지를 못하였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겨우 손순효를 찾아 왔는데 머리털이 망건 밖으로 헝클어져 나오고 취기가 만면에 가득하였다. 성종이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노하여

"표문의 글 좀 고치게 하려더니 경이 이처럼 취했으니 글렀구려"

"내 일찍이 경에게 술을 석잔 이상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어찌 왕명을 거슬리시오"

하고 나무랐다. 그러자 손순효는

"황공하옵니다. 신이 시집간 딸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여 딸네 집에 들렀더니 술상을 차려 내오기에 세 그릇을 마셨을 뿐입니다"

라고 복명하였다. 그러자 성종이

"그런데 술잔은 무슨 그릇이오"

하고 하문하자

"놋쇠 주발입니다"

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왕명을 어긴 것은 천만부당이라고 하면서 취중에 붓을 들고 표문을 고쳐 쓰는 데 틀린 글씨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손순효는 이 밖에도 소신 있게 행정을 하기로도 유명하였다. 그가 관찰사로 있을 때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곧잘 내리기도 했지만 이따금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손순효는 신(神)에게

"내가 너에게 비오기를 빌었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고 큰 소리로 신을 꾸짖었다고 한다. 이 당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드는 것은 그 지방 수령의 부덕(不德)이나 부정에 대한 천벌(天罰)로 여겼기 때문에, 손순효가 신을 꾸짖을 수 있는 대담한 용기는 자신의 행실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손순효는 연산군이 세자로 있을 때 폐세자(廢世子)할 것을 감히 성종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성종이 창덕궁 인정전에 연회를 베풀어 술이 얼근히 취했을 때의 일이다. 우찬성 손순효가 넌지시 왕에게 다가가

"친히 아뢸 말씀이 있습니다."

하였다. 성종이 어탑(御榻)으로 올라오게 하였더니 손순효는 장차 세자 연산군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을 암시하고

"이 자리가 아깝습니다"

하였다. 이에 성종은

"나도 또한 그것을 알지만 차마 세자를 폐할 수 없소"

하자 손순효는

"대궐 안에 사랑하는 여자가 너무 많고, 신하들이 상감에게 말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넓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성종은 근심 어린 빛으로

"어찌하면 세자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하니 손순효는

"전하께서 이를 아신다면 저절로 그 해물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그 후 신하로서 왕의 용상(龍床)에 올라가는 것도 크게 불경(不敬)한 일인데 게다가 왕의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하는 것은 더욱 무례한 태도이니 손순효를 하옥하라는 대간(臺諫)의 상소가 있었다.

그리고 손순효가 비밀히 아뢴 말이 무어냐고 물었다. 성종은

"손순효가 과인을 사랑하며 과인에게 여색(女色)과 음주를 경계하라 했으니 무슨 죄가 될 것이 있으리요"

하고 상소를 물리쳤다.

손순효는 항상 자제들에게

"우리 집은 초야(草野)에서 일어났으니 대대로 전해 내려온 옛 물건은 없다. 다만 청렴하고 결백한 것을 전해주면 그만이다"

고 말하였고 술에 취하면 누워서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 속에는 조금도 더러운 물건은 없다"

하였다.

그는 말년에 발광하여 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 밤중에 갑자기 옷을 벗고 남산 위에 올라가는 악습(惡習)으로 병이 악화되어 병상에 눕게 되었다.

그는 밥을 먹은 뒤에 부인과 아들들을 불러 놓고,

"내가 젊었을 때 책을 끼고 스승의 문하에서 공부하던 흉내를 내어 보고자 한다"

하더니 책 한 권을 끼고 섬돌 층계를 서 · 너번 오르내렸다. 그러더니

"피곤하구나. 내가 좀 쉬어야겠는데"

하고는 베개를 베고 누웠다. 집안식구들은 자는 줄만 알고 있다가 한참 뒤에 살펴보니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손순효는 일찍이

"좋은 소주 한 병을 무덤에 같이 묻어 달라"

하였기에 그대로 하였다 한다.

4) 윤선도(尹善道)

북달재[鐘峴] 남쪽 윗 둔덕에 있는 명동성당 아래의 연화방(蓮花坊)에서 윤선도(尹善道)가 살았다. 이 집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제비 형국의 명당이라 했으며, 영조 때에는 허목(許穆)의 집이 되어 그가 직접 쓴 '여산부동(如山不動)'이라는 네 글자를 주련(柱聯)으로 걸었는데 비바람을 맞아도 씻겨지지 않았다.[15]

윤선도(1587~1671)는 본관이 해남(海南), 자는 약이(約而), 호는 고산(孤山) 또는 해옹(海翁)이며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시조작가로 정철(鄭澈)·박인로(朴仁老)와 함께 조선시대 3대 가인(歌人)으로 불린다.

윤선도는 한성부 연화방(蓮花坊 : 현재의 종로구 연지동)에서 예빈시 부정(禮賓寺副正)을 지낸 윤유심(尹唯深)의 아들로 태어나 명례방 종현에서 거주하였다. 8세 때 큰아버지인 윤유기(尹唯幾)에게 입양되어 해남으로 내려가 해남 윤씨의 대종(大宗)을 이었다.

그는 18세에 진사 초시에 합격하고 20세에 승보시(陞補試)와 향시·진사시에 연이어 합격하였다. 광해군 8년(1616) 성균관 유생으로서 당시의 집권세력인 이이첨(李爾瞻)·박승종(朴承宗)·유희분(柳希奮)의 죄상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오히려 이들의 모함을 받아 이듬해 2월에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다. 1년 뒤 경상도 기장(機張)으로 이배(移配)되었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이이첨 일파가 처형된 뒤 풀려 나와 의금부 도사로 임명되었으나 3개월만에 사임하고 해남으로 내려갔다. 인조 4년(1626) 안기 찰방(安奇察訪)에 제수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인조 6년(1628) 별시 문과 초시에 장원급제하여 봉림대군(鳳林大君)과 인평대군의 사부 겸 사복시 첨정(師傅兼司僕寺僉正)과 한성부 서윤을 맡았다. 인조 11년(1633)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한 뒤 예조 정랑·사헌부 지평 등을 지냈다. 그러나 1634년 강석기(姜碩期)의 모함으로 성산 현감에 좌천, 그 이듬해 파직되었다.

그 뒤 해남에서 병자호란의 패전 소식을 들은 윤선도는, 이를 욕되게 생각하여 제주도에 은거하러 가던 도중, 산수가 수려한 보길도(甫吉島)를 발견하여, 이곳에 터를 잡아 부용동(芙蓉洞)이라 이름짓고 낙서재(樂書齋)를 지어 입거(入居)하였다. 1638년 병자호란이 끝난 후 서울에 와서도 왕에게 문안드리지 않았다는 반대파의 모함으로 경상북도 영덕으로 귀양갔다가 그 이듬해 풀려났다.

이로부터 10년 동안 정치에 나아가지 않고 보길도에 돌아와 부용동과 새로 발견한 금쇄동

(金鎖洞)의 산수자연 속에서 한가한 생활을 하며, 「산중신곡(山中新曲)」 등의 시를 지었다. 효종 2년(1651)에는 다시 보길도를 배경으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40수를 지었다. 이듬해 효종의 부름으로 예조 참의에 특진되었으나 서인의 모략으로 사직하고, 경기도 양주의 고산촌(孤山村)에 은거하면서 마지막 작품인 「몽천요삼장(夢天謠三章)」을 지었다. 효종 4년(1656)에는 보길도로 돌아가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1657년 71세 때에 다시 왕의 부름으로 벼슬길에 올라 첨지중추부사에 제수 되었고, 그 이듬해에 특명으로 공조 참의에 제수 되었으나 송시열(宋時烈)과 대립하다가 삭탈관직 되었다.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예론문제(禮論問題)로 서인과 맞서다가 이듬해 6월 함경도 삼수(三水)로 유배되었다. 현종 8년(1667) 왕의 특명으로 유배에서 풀려나 현종 12년(1671) 보길도 부용동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남인 가문에 태어나 서인과 맞서 왕권강화를 주장하다가 오랜 은거생활과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화려한 은거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한시문(漢詩文)과 시조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는 자연을 문학의 제재로 채택한 시조작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역량을 보인 작가로 평가되는데, 여기서의 자연은 엄격히 유교적인 윤리세계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생활현장으로서의 생동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자연이 주는 체험이나 고통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유복한 삶만을 누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집(文集)인 『고산선생유고(孤山先生遺稿)』에 한시문과 35수의 시조, 40수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가 실려 전하고, 친필가첩(親筆歌帖)으로 『산중신곡(山中新曲)』·『금쇄동집고(金鎖洞集古)』 두 책이 전한다.[16]

5) 허목(許穆)

윤선도가 살았던 북달재[鐘峴] 남쪽, 명동성당 아래 연화방(蓮花坊)에 허목(許穆 : 1595~1682)이 살았다. 그의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문부(文父)·화보(和甫), 호는 미수(眉叟)·대령노인(臺嶺老人)·석호장인(石戶丈人)이며 허자(許磁)의 증손이고 현감 허교(許喬)의 아들로서,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다.

허목은 연천(漣川 : 서울 창동)에서 태어났고, 정구(鄭逑)·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다. 50여 세가 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書)를 연구하다가 다시 경서(經書)의 연구에 전심을 기울였으며, 특히 예학(禮學)에 일가를 이루었다. 효종 1년(1650)

에 참봉으로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다가 1657년 지평, 이듬해 장령이 되었다.

현종 1년(1660)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로 제1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당시 집권세력인 서인 송시열 등이 채택한 기년설(朞年說)을 반대하고 3년설을 주장하였으나, 현종이 기년설을 채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재집권을 노리던 남인들이 숙청당하였으므로, 이 때 그는 삼척 부사로 좌천당했다가 2년 뒤에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다.

숙종 1년(1674) 제2차 복상문제로 예송이 일어나자 서인의 대공설(大功說)을 반대하여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1675년 이조 참판이 되어 덕례형정(德禮刑政)의 4조에 대한 상소를 하였다. 1678년 연로한 관계로 우의정을 그만두고 판중추부사가 되었다. 이때 장기(長鬐)에 유배 중이던 송시열에 대한 처벌문제로 영의정 허적(許積)과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에 온건론을 주장하던 세력은 탁남(濁南)이 되었고, 그는 청남(淸南)의 영수가 되었다. 1679년 탁남(濁南)인 허적을 탄핵했다가 파직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 독특한 도해법(圖解法)을 해설한 『심학도(心學圖)』와 『요순우전수심법도(堯舜禹傳授心法圖)』를 지어 교육하였다. 이기론(理氣論)에 있어서 기(氣)는 이(理)에서 나오고, 이는 기에서 행(行)하므로 이기(理氣)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전서(篆書)에 능하여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그림과 문장에도 뛰어났다.

그의 저서로는 『경설(經說)』·『동사(東事)』·『방국왕조례(邦國王朝禮)』·『경례류찬(經禮類纂)』·『미수기언(眉叟記言)』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17]

6) 허준(許浚)

『동의보감』 한의서를 지은 명의(名醫) 허준(許浚)은 조선 중기 선조 때 사람으로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청원(淸源)으로 훈련원 정(訓鍊院正) 허곤(許琨)의 손자이고, 허론의 아들이다. 조선 명종 때 출생하여 노후에는 강서구 가양동에서 거처하였다.

선조 때 어의(御醫)가 되어 왕을 비롯한 왕족과 대신의 진료에 많은 공적을 세워 상사(賞賜)가 많았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어의로서 왕을 끝까지 호종(扈從)하였다. 선조 29년(1596) 선조의 명으로 정작(鄭碏)·양예수(楊禮壽) 등과 함께 『동의보감(東醫寶鑑)』 편찬을 시작하였으며, 이 해에 왕세자를 치료한 공으로 동반직(東班職)에 가자(加資)되었다.

1601년에는 정헌대부(正憲大夫)·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올랐다. 선조 37년(1604)

에 임진왜란시 왕을 호종한 공으로 충근정량호성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 3등이 되었으며, 이듬해 양평군(陽平君)에 봉해지고, 1606년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랐으나, 중인인 의관(醫官)에게 정일품의 품계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대간(臺諫)의 계속된 상소로 취소되었다.

이 해 선조가 승하하자 어의로서의 책임을 지고 파직되었다가, 광해군 원년(1609) 어의(御醫)에 복직되었으며, 이듬해 8월『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세상을 떠난 후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추증되었다.

허준이 명의로 알려지기 전에는 구리개에서 약방을 차리고 있었다고 전한다. 어느 날 70여 세 되는 협수룩한 노인이 찾아오더니 약방 한구석에 앉아 참선하듯 눈을 감고 있자 이에 허준이 수상히 여겨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여기서 누구와 만날 약속이 있다오."

하고는 또다시 눈을 감아 버렸다. 그때 어떤 젊은이가 황급히 들어와서 부인이 해산을 하다 기절을 했으니 약을 지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허준은 의사가 아니므로 약을 지을 수가 없노라며 거절하였다. 이때 노인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아무 말 말고 곽향정기산 세 첩만 지어 주구려. 꼭 낳을게요."

하자,

"아니 곽향정기산은 담 걸린데 쓰는 약인데 해산할 여인에게 썼다가는 큰일나지 않소."

허준이 펄쩍 뛰자 노인은,

"곽향정기산 세 첩만 써요!"

하고 말하니 젊은이도 자꾸 졸라 허준은 약을 지어 주고 말았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던 차에 저녁쯤 되어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의 이웃집 부인이 해산하다가 위중했는데 이 댁에서 약을 지어다 복용했더니 곧 회복되었답니다. 이 댁이 약을 잘 짓는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의 세 살 된 어린놈이 마마를 앓아 곧 죽을 것 같은데 약을 지어 주십시오."

이 말에 허준은 일변 안심은 했으나 마마에 대한 약을 지어 달라고 하자 난처하였다. 이 때에도 노인이 눈을 뜨고선,

"곽향정기산 세 첩"

이라고 태연히 말하니 허준의 눈은 동그레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전히 노인은 곽향정기산 세

첩이라고 말하니 허준은 다시 약을 지어 주고 말았다. 그 후 두 시경이 지났을까? 그 사람이 찾아오더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린놈의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하며 기쁜 낯으로 고개를 연방 숙이자 허준도 덩달아 머리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허준의 약방은 유명해져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가지 병을 호소하고 약을 지어 달라고 할 적마다 허준은 방구석에 앉은 노인을 쳐다보면 노인은…,

"곽향정기산"

하고 태연히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허준은 그때마다 약을 지어 주었지만 마침내 '이 노인은 신통한 술법을 지닌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노인에게 의술을 배우겠다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허준은 노인에게서 열심히 의술을 배워 외에 참다운 의사가 되는 인술(仁術)을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더욱 명심하였다.

허준의 또 다른 일화로는 호랑이 새끼를 치료한 이야기가 전해 온다.

어느 때 허준이 사신을 따라 중국에 가다가 으슥한 산길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모두 혼비백산했는데 호랑이가 허준 앞에 꿇어앉아 옷자락을 잡아당기는데 호랑이가 하는 시늉을 가만히 보니 무슨 곡절이 있어 자기 등에 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허준은 용기를 내어 납작 엎드린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마자 호랑이는 나는 듯이 달려 어떤 동굴 앞에 내려놓았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보니 호랑이 새끼 세 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딩굴고 있었다. 이는 어미가 없을 때 어떤 맹수에게 습격을 받은 것이 분명하였다. 허준은 곧 치료를 해 주자 어미 호랑이가 마음이 놓이는지,

"어흥"

하고 울더니 이내 어디론가 나갔다가 곧 커다란 이리 한 마리를 물고 들어와 무참하게 찢어 죽이는 것이었다. 저 이리가 새끼를 해쳐 원수를 갚는구나 하고 허준은 생각하면서 며칠간 굴 안에서 새끼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였다. 그 동안 호랑이는 부리나케 산토끼와 노루 따위를 잡아다 주어 구워 먹고, 밤이면 물어다 준 마른 풀 더미 위에서 잤다.

호랑이 새끼가 완치되자 호랑이는 허준 앞에 큰절을 하듯이 엎드리므로 다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호랑이는 사신 일행과 만날 수 있도록 내려놓고 숲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18]

7) 유몽인(柳夢寅)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설화문학가인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 : 1559~1623)이 명례방(明禮坊 : 명동 1가)에서 태어나서 살았다. 그는 조선 중기 때의 명신으로 본관은 고흥(高興)이고, 자는 응문(應文), 호는 어우당(於于堂) · 간재(艮齋) · 묵호자(默好子)이며, 진사 유당(柳㙫)의 아들이다.

그는 10세에 처음으로 백형(伯兄) 유몽사(柳夢獅)에게서 십구사략(十九史略)을 배웠고 이후 성혼(成渾)에게서 성리학을, 신호(申濩)에게서 고문(古文)과 고시(古詩)를 배웠다. 성혼에게서 경박하다는 책망을 듣고 쫓겨났기에 사이가 좋지 못하였고, 성혼이 죽은 뒤 그를 모독하는 글을 써서 비난을 받았다.

선조 15년(1582) 진사가 되고, 선조 22년(1589)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이듬해 1590년 형부 좌랑 · 강원도 도사를 역임하였고, 1591년 정언 · 홍문관 수찬이 되었으며, 이해에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가서 1592년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가 임진왜란의 소식을 듣고 선조를 봉산(鳳山)에서 만나 평양까지 수행하였다. 그 뒤 선조가 영원(寧遠)으로 옮기고, 세자가 분조(分朝)하여 남하할 때 이를 보좌하다가 다시 의주로 돌아가 문안사(問安使)가 되어 대명(對明) 외교를 맡아 활약하였다. 1593년 한양이 수복되고, 세자가 전라 · 경상지방의 후방을 감무(監撫)할 때 세자를 보좌하여 선조 31년(1598)까지 삼도 순안 어사 · 함경도 순무어사 · 평안도순변 어사로 후방관리의 사찰과 민생의 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그에 앞서 선조 29년(1596)에는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 뒤 경기도 암행어사 · 동부승지 · 도승지 · 대사성 · 예조 참의 · 병조 참의 · 황해도 관찰사 ·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가 세상을 떠날 때 도승지로서 영창대군을 잘 돌봐달라는 유교를 받은 7대신(七大臣) 중의 하나였으며 이 일이 물의가 되자 잠시 은퇴하였다.

광해군 1년(1609)에 성절사 겸 사은사(聖節使兼謝恩使)로 세 번째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벼슬에 뜻을 버리고 고향에 은거하였다가 잠시 남원 부사로 있다가 대사간, 이조 참판 겸 홍문관 · 예문관 제학 · 한성 좌윤 겸 동의금을 역임하였다. 이때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찬성서명을 회피하고 관직을 물러나 와우산 · 도봉산 등에 은거하며 성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의 많은 시문(詩文)은 이때 작성된 것이다.

이로써 1623년 인조반정 때 화를 면하였으나 관직에서 물러나 방랑생활을 계속하였다. 그

해 7월 유응형이 '광해군의 복위음모를 꾸민다' 고 무고하여 국문(鞫問)을 받고, 앞서 지은 「상부사(孀婦詞 : 늙은 과부의 타령)」를 들어 모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아들 유약과 함께 사형되었다. 이때 관작은 물론 임진왜란의 공으로 봉하여진 영양군(瀛陽君)의 봉호마저 박탈되었다.

그 후 정조 때 신원(伸寃)되고 이조 판서에 추증 되었다. 그는 당대의 문장가 · 외교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전서 · 예서 · 해서 · 초서에 모두 뛰어났다. 저서로는 야담을 집대성한 『어우야담(於于野談)』과 시문집 『어우집(於于集)』이 있는데 특히 『어우야담』에는 천주교가 소개되어 있다. 시호는 의정(義貞)이다.[19]

8) 김귀주(金龜柱)

조선후기 영조 때 왕의 외척인 김귀주(金龜柱: 1740~1786)가 진고개[泥峴]에 살았다.[20] 그는 영조의 장인인 김한구(金漢耉)의 아들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누이가 영조의 계비(繼妃)가 됨에 따라 음보(蔭補)로 벼슬길에 나서며 궁중에 출입하기 시작하였다. 영조 38년(1762)의 사도세자 사사(賜死)사건을 일으킨 배후세력의 한사람으로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부교리가 되고, 이어 강원감사 · 승지 · 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이 동안 왕세손(후일의 정조)의 외척인 홍봉한(洪鳳漢)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청류(淸流)를 표방하면서 경주김씨 일문(一門)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조직함으로써 이른바 시파(時派) · 벽파(僻派)의 대립을 가져오게 하였다. 영조 48년(1772) 정월과 이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한성부 우윤을 역임하고, 이어 한성부 좌윤이 되었다가 정조가 왕위에 즉위하게 되자 전일의 정치행각과 정후겸(鄭厚謙) · 홍인한(洪麟漢) 등과 결탁, 임금을 해치려 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정조 즉위년(1776)에 흑산도로 유배되었으며, 1784년 나주로 이배되었다가 병으로 죽었다.[21]

9) 조말생(趙末生)

조말생(趙末生 : 1370~1447)은 충무로 1가와 회현동 2가의 타락동 혹은 낙동으로 부르던 곳에 살았다. 조말생의 집터는 특히 남산의 정맥(正脈)이 뻗어 내려와 거북이가 엎드린 복

구형(伏龜形)으로 되어있으며, 조선 초 무학대사가 정하여 준 것이라고 하여 '낙양(洛陽)의 명원(名園)'이라고 전하여졌다.

조말생은 조선조 세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근초(謹初)·평중(平仲), 호는 사곡(社谷)·화산(華山)으로 서운관 정(書雲觀正) 조의(趙誼)의 아들이다. 조용(趙庸)의 문인으로 생원으로서 태종 1년(1401)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요물고 부사(料物庫副使)에 임용되었고, 감찰·정언·헌납을 거쳐 이조 정랑에 승진되었다. 태종 3년(1403) 등극사(登極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태종 7년(1407) 문과중시에 2등으로 급제하여 전농시 부정(典農寺副正)이 되었다. 이듬해 장령을 거쳐 예문관 직제학을 역임한 뒤 태종 11년(1411)에는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승정원 동부대언·지신사(知申事) 등을 지냈다. 태종 18년(1418) 이조 참판에 이르러 가정대부(嘉靖大夫)가 되어 같은 해 형조판서·병조판서를 차례로 지냈다.

태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항상 측근에서 보좌하였고, 이 해 세종이 즉위하자 주문사(奏聞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세종 8년(1426)에 장죄(贓罪)로 연좌되어 외직으로 좌천되었다. 세종 14년(1432)에 동지중추원사가 되고, 이듬해 함길도 도관찰사 겸 함흥부윤으로 부임하여 올적합(兀狄哈)이 침입하자 이를 막아 싸우기도 하였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1434년 지중추원사가 되고, 이어 1435년에 판중추원사가 되었으며, 1437년 예문관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이듬해 경상·전라·충청 등 3도의 도순문사(都巡問使)로서 축성을 감독하였다.

세종 21년(1439)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기로소에 들어갔고, 1442년 숭록대부가 되었으며, 1446년 영 중추원사가 되었으나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는데 글씨에도 뛰어났다. 시호는 문강(文剛)이다.[22]

10) 윤시동(尹蓍東)

충무로 1가 낙동마을 서쪽에 조말생의 옛집이 있었던데 반해 그 동쪽에는 조선후기 영조 때의 정승을 지낸 문익공(文翼公) 윤시동(尹蓍東 : 1729~1797)의 집이 있었는데 이 두 집이 거북이의 양쪽 눈에 해당한다고도 전해지고 있으며, 거북의 꼬리에 해당하는 곳에는 공북헌(拱北軒)이라는 정자도 있어서 유명하였다.[23]

윤시동은 본관이 해평(海平), 자는 백상(伯常), 호는 방한(方閒)이다. 황해도 관찰사 윤세

수(尹世綏)의 증손이며 윤득민(尹得民)의 아들이다.

25세인 영조 30년(1754)년 문과에 급제하고, 이듬해 1755년에 설서 · 정언 · 지평 등을 역임하면서 당론을 일으켰다는 탄핵을 받아 영조 32년(1756)부터 7년간 전리(田里)에 유배되었다. 영조 41년(1765) 제주 목사에 제수 되었고, 그 이듬해 1766년 대사간이 되자 신광집(申光緝)의 무죄를 논하다가 다시 전리에 방축되었으며, 영조 48년(1772) 갑산에 유배되었다가 3년 후에 대사헌이 되었다. 영조 52년(1776) 경기도 관찰사 재직시 당론을 운위했다는 죄로 다시 남해(南海)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정조 10년(1786) 개성 유수로 발탁되었고, 정조 12년(1788) 형조 판서로 있을 때에 다시 당론을 운위하다가 삼화로 유배되었으며, 이듬해에 풀려나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김종수(金鍾秀) · 심환지(沈煥之) 등 시파와 함께 벽파 공격에 앞장섰고, 김한구(金漢耉) · 홍인한(洪麟漢) 등 척신의 축재를 규탄하였다. 정조 19년(1795)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이 되었다.

젊었을 때부터 나라의 고사(故事)를 잘 알았고, 군국(軍國)의 기무에 정통하였으며 개성이 뚜렷하여 옳다고 생각하던 당론을 일삼았기 때문에 파란 많은 생애를 보냈다. 그의 편저로는 『향례합편(鄕禮合編)』이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24]

11) 정작(鄭碏)

정작(鄭碏 : 1533~1603)은 선조 때의 시인으로 충무로 1가에 살았는데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겨 전해지고 있다. 정작은 본관이 온양(溫陽), 자는 군경(君敬), 호는 고옥(古玉)으로 좌의정 정순붕(鄭順朋)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가 윤원형(尹元衡) · 이기(李芑) 등과 을사사화를 주동하였으므로 세인의 지탄을 받고 그 후 관작이 삭탈 당하였으므로 벼슬에 뜻을 두지 않다가 선조 때 벼슬이 이조 좌랑에 이르렀다. 학문에 정진하였으며 술을 즐겨 주선(酒仙)이라 칭하였다. 시(詩)에 능하였으며 글씨에 뛰어나 초서와 예서를 잘 썼다. 의학에도 조예가 깊어 선조 29년(1596) 『동의보감(東醫寶鑑)』 편찬에 참여하였다.[25]

12) 박은(朴誾)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에는 장동(長洞 : 현재 충무로 1가)에 박은(朴誾) · 심희수(沈喜壽) · 김광국(金光國) 등 많은 문인과 명사가 살았다고 하였다.

박은(1479~1504)은 조선중기의 학자인자 시인이다.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중설(仲說), 호는 읍취헌(挹翠軒)으로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박담손(朴聃孫)의 아들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범상하지 않아 이미 4세에 독서할 줄 알았고, 15세에 이르러서는 문장에 능통하여 당시 대제학이었던 신용개(申用漑)가 이를 기특하게 여겨 사위로 삼았다. 연산군 1년(1495) 17세로 진사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같은해 사가독서자(賜暇讀書者) 선발에서 뽑힌 뒤 곧 승문원 권지(承文院 權知)를 받고 홍문관에 선택되어 정자(正字)가 되었으며, 수찬에 있으면서 경연관을 지냈다.

홍문관 관원들이 서쪽 변방에 성을 쌓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고 논하다가 권신(權臣)의 뜻을 거슬려 신문(訊問)을 당하니, 10여 일 동안 신문하지 말기를 상소하므로 연산군이 들어주었다. 이로써 직언을 잘한다는 명성이 있었다. 그러나 연산군 4년(1498) 20세에 유자광(柳子光) · 성준(成俊) · 이극균(李克均)을 탄핵하는 소(疏)를 올렸으나 오히려 그들의 모함을 받았다. 평소 직언을 꺼리는 연산군이 '사사불실(詐似不實)'이라는 죄목으로 23세인 그를 파직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적 ·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되자, 산수를 주유하며 시와 술로써 소일하였다. 연산군 9년(1503)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힘겹게 꾸려나간 아내 신(申)씨가 25세로 세상을 떠난 뒤 그 이듬해 1504년에 다시 지제교(知製敎)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이 해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연루되어 동래(東萊)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의금부에 투옥되어 26세에 사형 당하였다.

그는 죽은 지 3년 후 신원(伸寃)되어 도승지로 추증(追贈)되었는데 해동강서파(海東江西派)의 대표적 시인이며 박은의 절친한 친구인 이행(李荇)이 그의 시를 모아 『읍취헌유고(挹翠軒遺稿)』를 냈다. 여기에는 서울의 명소를 읊은 「잠두봉시(蠶頭峰詩)」 2수와 「대은암시(大隱岩詩)」도 전한다. 박은의 시는 주로 파직된 23세부터 아내가 죽기 전까지의 것이며, 현실세계에서 벗어난 온갖 고뇌로부터 정신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는 현실 초월에의 노력과 주변인물의 죽음을 통한 인생무상을 노래하였다.[26]

박은의 고택에는 한 그루의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박은의 시에서

바람은 나뭇잎 따라 솔솔 지나가고
술은 아내 마음대로 찔끔찔끔 붓게 하네.

라는 중에서 나무는 바로 장흥고(長興庫) 관아 옆의 은행나무를 일컫는 것이다.

그의 집에 얽힌 이야기가 남아있다.[27]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이 어렸을 때 박은의 집 동산에서 앵두를 땄다. 박은이 그 벌로 시를 짓게 하니 정유길이 그 자리에서 선 채로 읊기를 「박은네 앵두가 무르익어 붉었다」라고 하였다. 이에 박은이 "노하여 어린것이 어찌 감히 어른의 이름을 부르느냐"고 하였는데 정유길이 "성명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선생 집 앵두인 줄을 알겠습니까"하니 박은이 이를 듣고 크게 기특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그 후 이 집은 상서(尙書) 정대용(鄭大容)의 소유로 되었는데 하루는 일꾼들이 은(銀)독이 묻혀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파내어 가재(家財)에 보태어 사용하자고 하였다. 이에 정대용은 가세(家勢)가 아무리 기울었기로서니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생활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물건을 조금도 탐내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묻게 하였다는 말이 전하여지는데 그 해에 그는 경상감사가 되었다.

13) 심희수(沈喜壽)

심희수(沈喜壽 : 1548~1622)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충무로 1가인 장흥동(長興洞)에 거주하였다. 그의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백구(伯懼), 호는 일송(一松) · 수뢰루인(水雷累人)으로 정자(正字) 심건(沈鍵)의 아들이며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종제(從弟)이다.

노수신(盧守愼)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선조 3년(1570)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고, 이해 이황(李滉)이 죽자 성균관을 대표하여 장례에 참여하였다. 선조 5년(1572)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보임 되었고, 선조 16년(1583) 호당(湖堂)에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선조 22년(1589) 정여립(鄭汝立) 옥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다 조정과 뜻이 맞지 않자 사임하였으나 이듬해 곧 부응교가 되었다. 선조 24년(1591)에는 응교로서 선위사(宣慰使)가 되어 동래에서 일본사신을 맞았다. 이어 간관(諫官)이 되었으나 여러 차례 직언을 하다가 선조의 비위를 거슬려 사성(司成)으로 전직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의주로 선조를 호종(扈從)하여 도승지를 거쳐 대사헌이 되었지만, 중국사신이 오자 중국어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다시 도승지에 임명되어 명나라 장군 이여송(李如松)

을 영접하였다. 이 해 겨울 형조 판서를 거쳐 호조 판서가 되어 명나라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의 접반사가 되어 서도(西道)에 오래 있으면서 송응창을 설득하여 관서의 기민구제에 애를 썼다.

선조 32년(1599) 예문관 제학 · 예조 판서를 거쳐 이조 판서가 되어 홍문관 · 예문관의 대제학을 겸하였고, 이후 좌찬성 · 우찬성 등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으며, 청백리(淸白吏)에 뽑혔다. 선조 39년(1606) 좌의정이 되었고, 이듬해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추숭에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1608년 광해군의 즉위로 다시 좌의정이 되었고, 권신 이이첨(李爾瞻) 등이 임해군(臨海君)을 극형에 처하자고 주장하자 이에 반대하였다. 광해군 5년(1613) 계축옥사가 일어나 부원군 김제남(金悌男)이 죽고 이이첨 등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옥사의 주모자로 몰아 해치려하자 이항복(李恒福) · 이덕형(李德馨) 등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듬해 영창대군의 처형을 비판하고 가해자 강화 부사 정항(鄭沆)을 참수하라고 주장하다가 광해군의 노여움을 받은 정온(鄭蘊)을 적극 변호하여 귀양에 그치게 하였다.

광해군 7년(1615) 영돈녕부사로 있을 때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허균(許筠)이 중국 야사에 와전된 종계(宗系)를 시정했다고 보고하여 조정에서 그 축하연의 개최 여부가 논의될 때 이를 반대하다가 축출당하였다. 이듬해 폐모론이 다시 제기되자 둔지산(屯之山)에 은거하여 『주역(周易)』을 읽고 시를 읊으며 지조를 지켰다. 광해군 12년(1620)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국사를 비관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관동(館洞 : 명륜동 3가)에 그의 사당(祠堂)이 있었다.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 권32에 보면 이 장흥곳골(장동) 부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 중의 장흥고 관아 옆 심희수의 고택(古宅) 곁에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으므로 그의 아호를 일송(一松)이라고 하였는데 나중에는 『양연산방(養硏山房)』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심희수는 문장에 뛰어났고 글씨를 잘 썼으며, 저서로는 『일송집(一松集)』이 있는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28]

14) 김광국(金光國)

김광국(1685~?)은 조선후기 숙종 때의 문신으로 남부 회현방 장동(충무로 1가 · 회현동 2가 지역)에 살았다. 그의 본관은 안동, 자는 대관(大觀)으로 승지 김준원(金俊元)의 현손이

며 김담(金湛)의 아들이다.

김광국은 영조 11년(1735)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지평(持平)·장령(掌令) 등의 청요직(淸要職)을 거쳤다. 영조 31년(1755)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사간·승지·황주목사 등을 차례로 역임한 후 영조 45년(1769) 도승지에 올랐으며, 이어 병조참판까지 지냈다. 그의 편저로 『간독(簡牘)』이 있다.[29]

15) 이경하(李景夏)

조선말 고종 때 포도대장을 지낸 이경하(李景夏 : 1811~1891)가 낙동(駱洞), 현재 중국대사관 자리(명동 2가 83번지~105번지)에 살았다. 이경하는 신정왕후(神貞王后 : 조대비)의 인척으로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무위대장(武衛大將)이 되었고, 훈련대장 겸 좌포도대장을 지낸 후 금위대장과 형조판서를 거쳐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기보연해순무사(畿輔沿海巡撫使)가 되었다. 또한 경복궁을 중건할 당시에는 영건도감의 제조를 맡기도 하였다. 그는 주로 군사와 경찰의 요직을 맡았는데 그 해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도를 탄압할 때 포도대장으로서 교도들을 수없이 학살하였다. 이때 교인들을 낙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심문하였는데 어찌나 혹심하게 천주교인을 살육하였던지 울던 아이도 '낙동대감' 하면 울음을 멈추었다. 천주교인을 바로 그의 저택에 잡아들여 고문했기에 염라대왕을 빗대어 '낙동염라(酪洞閻羅)' 라고도 하였다.

이경하는 자기 집에서 나는 비명소리가 듣기 싫고 피를 보기 싫다하여 천주교도의 얼굴에 물묻은 한지(韓紙)를 몇겹씩 발라 질식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이를 도모지(塗貌紙)라 불렀다. 이경하는 백성들이 천주교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겁주는 방법으로 종로 네거리에 형장을 가설하고 우차(牛車)로 거렬형(車裂刑)을 가했으며, 돌을 던져 석살(石殺)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 수구문 밖과 서소문밖에 쌓인 시체가 산처럼 높을 정도였다. 그는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후에도 조대비의 인척인 관계로 계속 포도대장·어영대장·훈련대장·형조판서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고, 그의 후광을 입은 아들 이범진(李範晋)은 민비의 총애를 받아 친일파 제거에 주동 역할을 하였다.

병인양요 때에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공격하고 한강을 봉쇄하자 순무사로 발탁되어 도성방비의 책임자로 출진하였다. 그 뒤 한성부 판윤·형조 판서·강화부 유수·어영대장·공조 판

서를 역임하였다. 특히 고종 6년(1869)에 한성부 판윤으로 부임한 후 1872년 · 1873년 · 1877년에 각각 한성부 판윤에 부임하였다. 1882년 무위대장으로 재직 중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파면되어 전라도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되었으나 흥선대원군의 깊은 신임으로 1884년에 풀려나 좌포도대장이 되었다. 그 해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이경하는 조대비 등을 이범진의 집에 피신시켰다.

16) 신익성(申翊聖) · 정숙옹주(貞淑翁主)

신익성(申翊聖 : 1588~1644)은 선조(宣祖)의 부마로 정숙옹주(貞淑翁主)와 결혼하여 동양위(東陽尉)에 봉해졌다. 그는 현재 한국외환은행 본점 남쪽(을지로 2가 195번지)에 살았다. 신익성의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군석(君奭), 호는 낙전당(樂全堂) · 동회거사(東淮居士)로 영의정 신흠(申欽)의 아들이며,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임진왜란 때에는 선무 원종 공신 1등에 올랐으며, 선조 39년(1606) 오위도총부 부총관이 되었다. 광해군 때 폐모론이 일어나자 이를 반대하다가 방축되었다. 인조 1년(1623) 인조반정 후 다시 등용되어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왕명으로 3궁을 호위하였으며, 정묘호란 때에는 세자를 모시고 전주에 피난하였고, 병자호란 때에는 인조를 호종하여 끝까지 성을 지켜 청군과 싸울 것을 주장하여 척화(斥和) 5신(五臣)의 한사람이 되었다. 저서로 『낙전당집(樂全堂集)』 · 『낙전당귀전록(樂全堂歸田錄)』 · 『청백당일기(靑白堂日記)』 등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에 보면, 선조의 셋째 딸인 정숙옹주와 부마 동양위 신익성의 집이 장악원(掌樂院) 옆에 있었다고 하였다. 부족함이 없는 궁궐에서 자란 정숙옹주가 이웃집들이 처마를 맞댄 곳에 와서 살았으니 그 불편함을 견디기가 매우 어렵기도 했거니와 악공을 길러내는 장악원과 담을 이웃해 있었으므로 밤낮없는 가무연습 소리에 귀가 아플 정도였다. 처마가 낮아 서로 집안이 들여다보이는 이 집에 대해 처음부터 불만이 많았던 정숙옹주는 어느 날 선조 임금을 뵙고 이 고충을 호소한 뒤 집터를 늘려 줄 것을 청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선조는 정숙옹주에게,

"음성이 낮으면 이웃집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처마를 가리면 서로 보이지 않을 것이니 구태여 마당을 넓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였다. 정숙옹주는 이 말에 기가 막혔지만 어찌할 수 없이 궁궐을 나왔는데 곧 이어 선조는 해당 관서에 명하여 정숙옹주 집의 처마를 가릴 발 2 장을 하사했고, 그 이후부터 해마다 선공감(繕工監)에서는 정숙옹주의 집에 발 2 장씩을 제공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17) 이유승(李裕承)

이유승(1835~?)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명동 1가 1번지(현 YWCA)에서 거주하였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경선(景先), 호는 동오(東梧)로서 이계선(李啓善)의 아들이며, 부통령 이시영(李始榮) · 독립운동가 이회영(李會榮)의 부친이다.

고종 1년(1864) 증광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예문관 검열 · 승문원 주서를 거쳐 고종 3년(1866) 홍문관 수찬을 지냈다. 이듬해 접위관(接慰官)으로 일본 사신을 접대하였고, 고종 5년(1868) 공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상호도감 도제조(上號都監都提調) 이하를 시상할 때 우통례로 참여하여 가자(加資)되었고, 고종 7년(1870) 승지를 지냈다. 고종 15년(1878) 성균관 대사성 · 이조 참의를 거쳐 이듬해 다시 이조 참의가 되었다. 고종 18년(1881) 좌부승지, 고종 20년(1883) 이조 참판을 지내고, 고종 24년(1887) 시강원 겸보덕을 거쳐 이듬해 공조 판서가 되었고, 고종 27년(1890) 국장도감 제조 · 예조 판서를 지냈다. 이어 대호군으로 중국의 사신을 호송하는 반송사(伴送使)를 맡았다가 형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고종 28년(1891) 다시 형조 판서를 거쳐 9월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고, 이듬해 선조대왕옥책문의 서사관을 맡았다. 고종 29년(1893) 공조 판서가 되고 이듬해 또다시 형조 판서가 되었다. 이 해 교정청이 설치되자 대호군으로 교정청당상에 임명되고 이어 이조 판서 · 우찬성을 역임하였다. 1895년 중추원 일등 의관에 임명되고, 칙임관 4등에 서임 되었으며, 광무 2년(1898) 다시 중추원 일등 의관이 되고 칙임관 2등에 서임되었다. 광무 8년(1904) 태의원 경(太醫院卿)을 지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매국노 박제순(朴齊純)이 의정 서리(議政署理)가 되는 것은 불가하며 조약을 배척해야만 국권을 보전할 수 있다는 소(疏)를 올렸다. 정헌(靖憲)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나 효정(孝貞)으로 고쳤다.

이유승은 이 곳(경성부 남부 명례방 저동 64통 7호)에 은행나무를 심어 놓았고, 그의 여섯 자제가 성장하였다.

18) 기타 인물

(가) **신순(申楯)** : 조선 후기 광해군 때 군자감 봉사 신순(申楯)이 명례방동에 살았다. 그는 광해군 9년(1617) 8월 경희궁 건축공사 때 계단돌과 주춧돌 모두 120개를 영건도감(營建都監)에 자진 납부하여 국가의 비용에 협조하였으므로 광해군은 특별히 신순을 6품직으로 옮기도록 명하였다.[30]

또한 장동(長洞 : 충무로 1가)에는 광해군의 사당과 공신인 승평군(昇平君) 김류(金瑬)의 사당이 함께 있었다고 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나) **이재영(李載永)** : 조선말 고종 22년(1885) 5월에는 명동에 사는 전 판관(前判官) 이재영(李載永)이 건장한 종 5명을 보내서 부안(扶安) 감옥에 가둔 백영술(白永述)을 빼내기 위하여 감옥을 부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수직 사령(守直使令) 1명을 붙잡아다가 그 집에 묶어놓고 마구 때려 온몸에 상처를 입혀 생사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 이 보고를 들은 고종은"명색이 조정 관리로서 이런 행패를 부렸으니 참으로 아주 통분한 일이다. 이처럼 법을 업신여기는 부류들은 보통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형장을 엄하게 쳐서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라."[31] 고 명하였다.

(4) 문화유적과 변천

1) 장악원과 동양척식회사

현 을지로 입구, 현재 외환은행 본점이 세워진 곳에는 조선시대 5백 년간 음악을 가르쳐 악공(樂工)을 길러 내는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 관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 부근을 얼마 전까지 장악원동이라 불러 왔다.

이 장악원에는 보통 320 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맹인(盲人)도 15 명 가량이 교육을 받았던 것은 특이하다. 그런데 이 곳에 장악원을 특별히 설치한 까닭이 있다고 한다. 『한경지략(漢京識略)』에는

"풍수설에 따르면, 이 곳은 터가 세고 불길한 곳이므로 특별히 장악원을 세우면 사람들이

걱정 근심으로 생긴 답답한 마음을 풀게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날마다 노래 소리가 들려 나오니 어찌 마음이 불쾌할 수 있을 것인가.

태조 실록 16년 5월 12일 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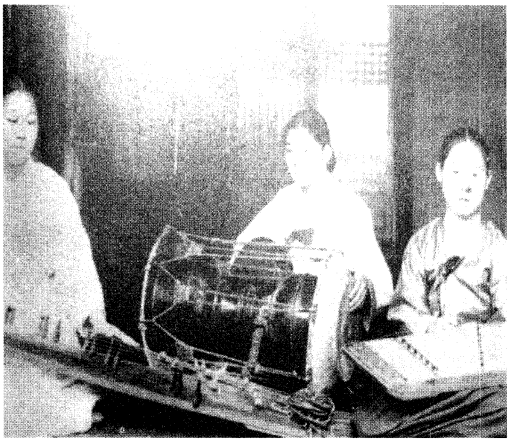
「저자를 구리고개(仇里古介)로 옮기다」라고 한 기록이 보이는 것을 보면 애초부터 우리말 그대로 '구리고개'였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어느덧 '동현'으로 표기하게 된 것 같다.
8 · 15광복 전까지도 이곳의 전차 정거장을 '구리개'라 불렀던 현재의 을지로 입구 언저리는 오랜 세월 장악원이 자리하고 있어서 유명한 곳으로 손꼽혔다.

『한경지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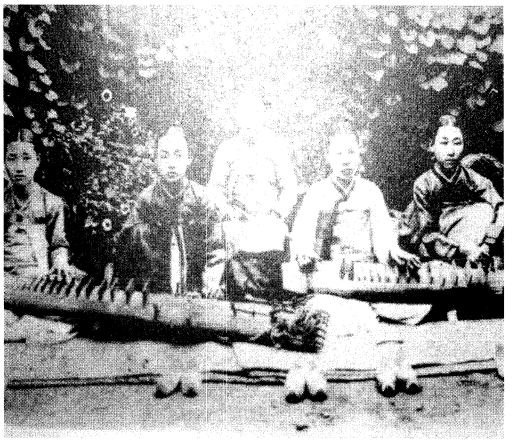
「장악원이 개국초기부터 남부 명례방에 있어서 음악을 맡아보았는데, 아악은 좌방에서, 속악은 우방에서 관리하고 달마다 초 2 · 6일과 12 · 16일과 22 · 26일에 풍악을 강습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

조선초기에는 장악원의 전신인 관습도감을 흥복사 안 서쪽 선당에 설치하였다가 세종 때에 이를 봉상시로 소속시켜 아악을 가르치게 하는 한편 속악을 맡아보는 악학도감을 따로 설치하고 이를 장악서라 하였다. 세조 때에 악학도감을 없애고 장악서를 장악원으로 승격시켜 아악 · 향악 · 당악까지 통합 관장하게 하고, 좌방과 우방을 두어 아악은 좌방, 속악은 우방에



기녀(妓女)의 국악 교습(1910년)



기녀(妓女)의 국악 교습(1910년)

서 맡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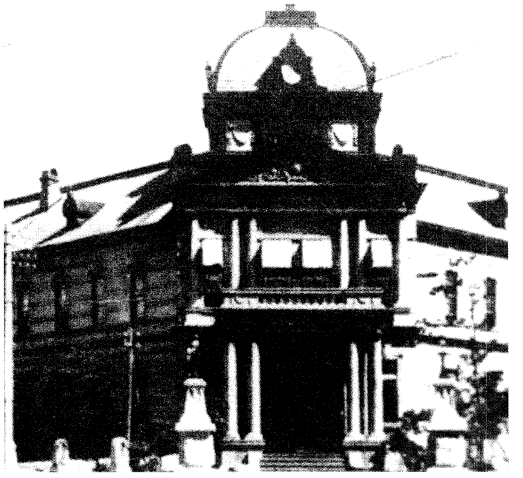
세조 때 봉상시 동쪽에 새로 지은 장악원의 건물은 매우 거대하여 크기가 장안의 모든 관청 건물 중에서 으뜸가는 규모이었는데 그것은 백관(百官)의 습의소(習儀所)로 쓰기 위함이었다. 이는 궁궐 정전에서 거행되는 조하(朝賀) 등의 의례를 익히기 위하여 장악원 넓은 뜰에 지체 높은 벼슬아치들을 모이게 하곤 하였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장악원이 이처럼 규모가 크고 터전이 넓었기 때문에 때로는 과거장으로 쓰이기까지 하였다.[32]

장악원은 조선 말 고종 때 갑오개혁으로 폐지하였지만 한때 일본군이 악생(樂生)을 내쫓고 주둔한 적이 있었다. 즉, 임오군란으로 쫓겨갔던 일본 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는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개 대대 병력을 끌고 도성에 들어왔다. 즉, 이때 장악원을 일부 일본 군인들이 주둔 장소로 사용하였다.

끝내 장악원은 일제의 침략으로 건물마저 헐리고 말았는데, 1908년 일제는 이 자리에 동양척식회사(東洋拓植會社)를 세웠다. 동양척식회사는 우리나라 경제 침략의 총본산으로 악명 높은 침략 기관이었다.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 척식(拓植) 사업의 경영'이라 하였다. 영업 과목은 ①농업 ② 척식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매매 및 대차 ③ 척식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경영 및 관리 ④ 척식을 위해 필요한 한 · 일 이주민의 모집 및 분배 ⑤ 척식상 필요한 자금의 공급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설립한,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한 국책 기관이었다.

이 회사는 1924년까지 선량한 농민들의 토지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약 80,000정보(町步)의 토지를 강점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잃은 조선인들은 동양척식회사야말로 원한의 표적이었다.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은 농공은행(農工銀行)을 병합하여 동양척식회사의 자매기관으로 출발, 농촌 및 산업기관을 상대로 경제 침략의 구실을 맡았던 일제의 어용 금융기구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침략기구에 대한 의거는 경제 파탄, 생활고로 허덕이던 한민족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일이었다. 1926년 12월 28일 오후 2시. 중국에서 김구(金九) 선생의 의열단에 가입한 나석주(羅錫疇) 의사는 우리나라에 몰래 입국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장악원 부근의 지리를 익힌 뒤 먼저 식산은행(현 롯데백화점 자리)에 들어가 폭탄을 던지고 뛰어 나와 동양척식회사로 달려갔다. 권총으로 일본인 몇 명을 사살하고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하였다. 회사를 나온 나석주 의사는 을지로 큰길에 나와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을지로 2가까지 오게 되었다. 탄환은 떨어지고 사방에서 경찰이 몰려드니 그는 최후의 1발로 장렬하



동양척식회사 건물(1920년대)

東拓과 殖銀에 爆彈을 投
拳銃을 亂射하야 一擧에 七
昨年十二月廿八日午後二時黃公
脫出한 犯人

동양척식회사에 투탄한 나석주의사 의거 신문기사

게 자결하였다.

1911년 을지로 2가 195번지에 목조 르네상스풍 2층 규모로 세워진 이 건물은 이 회사의 경성지점이었다. 19세기말부터 일본은 홋카이도오(北海島)를 농업기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개척사를 초빙하여 여러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였는데 특히, 토목 · 건설에 관한 기술도 상당히 많이 이곳을 통하여 받아들였다. 그리고 홋카이도오 전역에 세워진 초기 관청 건물에서도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과 같은 의양풍(擬洋風)건축물이 상당수 있었다. 대개가 목조 르네상스 양식으로 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을 모사하는 정도의 건축물이였다.

건축 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기간에 완공된 이 건물은 가각(街角)의 모서리에 주 출입구가 있고, 그 부분을 좌우에 한쌍의 원기둥을 두었고, 2층 정면에도 이와 유사한 입면으로 구성하였다. 양쪽 도로면에 입면에도 중간에 가식적인 페디먼트가 사용되었으며, 외관은 전체적으로 당시 일본인 건축가들 중에 유사 서양식 건축을 구사하던 단계에서 막 빠져 나온 단계의 풍토가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1970년대에 이 건물은 철거되었고, 이 자리에 한국외환은행 본점이 세워 졌다.

한편, 을지로 2가 181번지에는 1940년에 건축된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 별관이 있었다. 본관만으로는 업무수행에 협소함을 느낀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인접대지에 별관을 건설하였다. 주요 구조는 벽돌조와 목조로 하였고, 지하실과 계단의 일부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여 지

하 1층, 지상 3층 규모였다.

주 출입구 주위는 화강석 붙임으로 하였고, 1층의 창대받침까지는 인조석 태스트스톤을 사용하였다. 외부마감은 자기질 황색타일을 붙였고, 지붕은 갈색 유약 기와를 사용하였으며, 처마 난간은 인조석으로 둘렀다. 의장적으로 디자인되었다기 보다는 기능적으로 필요한 개구만 뚫려 있다는 느낌이었다. 지하층에는 기관실 · 석탄고, 1층은 현관 · 로비 · 수위실 · 사무실 · 변소 · 체면장 · , 2 · 3층에는 사무실 · 변소 · 세면장이 있었다. 전시체제로 들어선 정세에서 민간 건설에 충분한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였으므로 철근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벽돌조이며, 바닥과 계단을 비롯하여 예전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할 것을 목조로 대체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세워진 건축물을 보면 지붕이 기와지붕으로 경사지게 처리한 것이 많은데 이는 평 슬래브로 지붕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빗물의 처리라든가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하여 트러스지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33]

2) 청국 공관

조선말 포도대장 이경하가 살던 명동 2가 83번지 일대는 임오군란(1882년)으로 청나라군이 서울에 주둔하게 되었을 때 1883년 진수당(陳壽棠) 조선상무위원이 경복궁과 한성부 청사가 가깝고 경치가 좋았으므로 청국 공관(公館)을 짓기로 하고 이를 조선정부에 요구, 강제로 구입하였다.

청나라는 공관 설치는 물론 일반 상민(商民)의 거류까지도 합법화시키기 위한 상민수출무역장정(商民輸出貿易章程)을 체결하고, 그 다음해 1883년 9월 16일 주(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3 년간 지낸 진수당(陳壽棠)을 총판(總辦) 조선상무위원이란 직함으로 한성에 부임하게 하였다. 진수당은 부임 직후 바로 공관에 입주하지 않고 당분간 남별궁(南別宮)에 여장(旅裝)을 풀고 업무를 보았다. 무역장정을 체결하자 청나라 산동현에 살던 중국인들이 물밀 듯이 몰려와 명동과 소공동, 수표동 등에 자리 잡았다. 이 당시 청나라 거상(巨商)이던 담걸생이 무역회사 동순태(同順泰)를 세운 곳은 을지로입구 근처였다. 동순태는 현재 유네스코건물 자리(명동 2가 82번지)의 2천여 평을 구입하면서부터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명동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청국 공관은 진수당이 부임하기 직전인 1883년 9월 7일에 회현방(會賢坊) 낙동(酪洞)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초기의 규모는 잘 알 수 없다.[34] 진수당이 부임한 후 청국 상민(商民)의 권익이 보장되면서 청상(淸商)들의 출자(出資)에 의해 공관 주변의 가옥과 대지를 매수하는 한편 이른바 청상회관(淸商會館)을 설립하여 그 규모를 급격히 확장하였다. 즉 공관이 설치된 직후 한달 후인 동년 10월 16일에는 박씨(朴氏)소유로 된 인근 가옥(110칸)과 토지(300칸)를 매수하였고,[35] 곧 이어 다음해 1월 25일에도 인근의 가옥 및 토지를 60여 칸이나 매수하였으며,[36] 그 해 5월 22일에는 거금 5,300양(兩)을 들여 한국인 주택 142칸을 사들여서 상무위원 공서(公署)를 개축하고 청상회관을 설립하여 공관의 규모를 확대하였다.[37]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매입은 진수당이나 청국 상인들이 그들의 권세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 졌다. 그 예로 청상회관 도로를 둘러싸고 소송사건이 벌어졌다. 원래 청상회관 부지 일대는 당시 훈련대장을 지낸 이경하(李景夏)의 아들 3형제 범진(範晋) 범조(範租) 범대(範大)의 소유였다. 그런데 범조, 범대 형제는 청국 상인에게 땅을 팔았으나 가운데 땅을 소유하고 있던 범진 만은 팔지를 않았다. 그러자 통로가 궁색한 청국상인은 범진의 땅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범진이 이를 항의하자, 청상회관 동사(董事) 웅정한(熊廷漢)은 청상 수십 명을 동원하여 범진을 상무공서(商務公署)로 납치하여 뭇매를 가하며 자인서(自認書)를 강요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 조선과 청의 외교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범진은 영국영사에게까지 위촉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청국의 행패를 폭로하였다.[38] 결국 총판(總辦) 진수당이 사과를 하고 웅정한(熊廷漢)이 동사의 자리에서 파직되어 일단락 되었지만 이는 상무공서가 순수한 외교상의 목적 이상으로 상민(商民)을 지나치게 비호(庇護)하였던 데에서 야기된 사건이었다.

그 후 1885년 10월 11일 진수당이 물러가고 대신 원세개(袁世凱)가 상무위원 직함 대신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직함으로 부임하였다. 속칭 '원대인(袁大人)'으로 불려진 그는 외교관과 통상외교업무의 권한을 넘어서 조선의 내정 인사문제까지 간섭하는 등 10여 년간 조선 조정을 위압하면서 온갖 세도를 부렸다. 원세개의 행동은 방약무도하기 짝이 없었는데 일상생활은 신변장구가 국왕과 같았고, 출입시에는 시종 50여명을 거느리고 뽐내었고, 궁궐 출입시에도 다른 나라 공사들이 모두 궐문 밖 수레에서 내려 걸어들어 갔으나 원세개만은 타고 들어갔다. 그리고 앉은 채로 임금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였으며, 조선 관아에 들어와 실무자들의 빰도 예사로 쳤다.

원세개는 상무공서를 개축하여 이를 총리아문(總理衙門)이라 불렀다. 이에 따라 부근에는

원세개 초상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원세개가 주둔했던 본진(本陣) 앞의 충무로 입구~명동~을지로 입구까지를 '원대진 앞(袁大陣前)'이라고 불렀다. 이 길에서 청나라군의 횡포가 어찌나 심했던지 길 입구에서 조선 병사들이 길을 막고 조선 사람들의 통행을 막기까지도 하였다.

이 당시 청국 공관의 면적은 6,400평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편 원세개의 총리아문은 청국거류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총리아문과 인접한 지역(현 을지로 입구)에 청국경찰서(淸國警察署)를 세워 40명의 순경을 두고, 또 마포에는 계사국(稽查局)을 설치하여 도선장(渡船場)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등 청상의 이익에 앞장섰으며, 만약 조선인 소유의 토지가옥을 청국인이 매수하려 할 때 조선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청국 총리아문이 직접 순경을 파견하여 조선인을 강제 퇴거(退去)시키는 폭력까지 예사로 일삼았다.[39]

이렇게 횡포를 자행하던 청국 공관도 1894년 6월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청국의 전세(戰勢)가 불리해지자 동년 6월 17일 원세개가 귀국함에 따라 청국 공관(公館)은 일단 철수하게 되었고, 수년동안 서울 거리를 활보하던 청국 경찰관들도 모두 철수하자 상민(商民)들까지도 그들의 가옥 및 재산을 영국영사관에 위탁하고 떠나버림으로써[40] 사실상 조선과 청국간의 외교관계는 단절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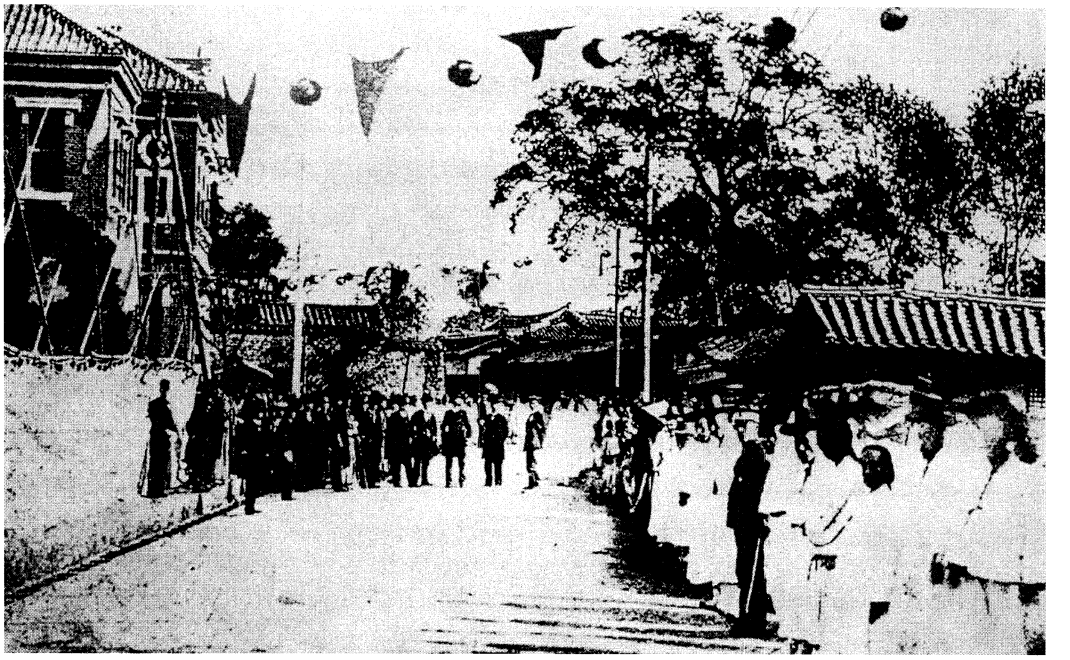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은 1895년 5월 청·일 두 나라 사이의 강화조약이 성립되고 그 이듬해인 1896년 1월 다시 정식으로 청국 공관을 설치하면서 국교를 계속 이어갔다. 그 후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의 외교권이 일제에게 넘어가면서 외교관계가 단절되자 한성에 주재하던 각국 공사는 철수하였다. 그 대신 각국은 잔류사무를 위해 공사 대신 총영사 또는 영

사를 두게 되었는데 청국도 공관을 폐쇄시키지 않고 자국민의 보호 및 일제와의 외교업무를 위해 영사관으로 격을 낮춘 뒤 같은 위치에 계속 두었다. 1910년 경술국치 후 원세개가 거주하던 집은 일시 일본인이 수용하였으나 1920년대 중국과 일본의 국교가 재개되면서 중국인 소유로 되었다.[41]

경술국치 후 청나라 상인들의 활동무대인 명동지역에 일본상인들이 잠식해 들어와 일본식 점포로 바꾸어 나갔다. 그러나 일제 때는 충무로가 번성하였고 명동지역은 광복 이후에 전국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변모하였다.

3) 독일 공관

개화의 물결이 몰려오던 1884년에 독일 공관이 임시로 낙동(駱洞, 현 충무로 1가 중앙우체국 뒷편)의 한옥을 빌려 들어 있었다.



경성우편국 낙성식 (1915년)
-「서울의 옛모습」에서

한독수호통상조약(韓獨修好通商條約)은 1883년 11월 26일 조인되었으나 조인 직후 두 나라 사이의 외교업무가 곧바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 다음해 6월 24일에 부영사 버들러(H. Budler)가 입경하여 조약비준을 위한 업무가 추진된 후 그 해 10월 8일에 총영사 쳄쉬(Zembsh)가 부임하여 조약을 비준하자 10월 14일에 가서야 비로소 공관이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최초의 공관은 당시 조선의 외교고문으로 파견된 묄렌도로프[목린덕(穆麟德): Mellendorff]에 의해 알선이 되어 낙동에 있던 한옥을 3개월에 한번씩 불입하는 조건으로 매달 15원(元)에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다.[42] 그 후 건물이 좁고 낡았다는 이유로 인근 서쪽에 있던 빈집을 임대하여 사용하려고 여러 차례 조선정부에 청원했으나 조선정부에서는 그 집은 프랑스공관(佛國公館)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워놓은 집이었기 때문에 끝내 거절하였다. 그러다가 1886년 11월 과거 묄렌도르프가 살았던 박동(磚洞, 현 수송동 종로구청 자리)으로 옮겼는데 원래 이 집은 민겸호(閔謙鎬)의 저택이었다.

4) 벨기에 영사관

벨기에(白耳義) 영사관은 1919년 회현동 2가 78번지에서 현재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부근(충무로 1가 18번지)으로 이전하였다.

한백(韓白)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어 한백간의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수립이 된 것은 1901년 10월 17일 벨기에 전권위원 빈가르트(Leon Vincart)가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과 조약을 비준하면서부터 이다. 빈가르트는 조약비준 직후부터 총영사가 되어 외교업무를 시작하였고, 이듬해 6월 10일에 영사관 신축기지를 현재의 회현동 2가 78, 79번지에 선정하여 1903년 2년여에 걸쳐 공사를 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총건평 454평의 영사관건물을 신축하였다. 벽돌과 석재(石材)를 혼용(混用)하여 지은 이 건물은 고전주의 양식(古典主義樣式)의 현관과 발코니의 아이오닉 오더(Ionic Order) 석주(石柱) 등 의장상(意匠上) 상당히 수려한 양식을 갖추고 있다. 벨기에 영사관도 타국과 마찬가지로 을사조약 이후에도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지속하면서 영사관을 유지했으며, 1919년에는 영사관건물을 일본의 횡빈생명보험회사(橫濱生命保險會社)에 팔고 그 위치를 충무로 1가 18번지로 옮겼다. 이 건물은 그후 일본 해군성(海軍省)에서 무관부(武官部) 관저로 쓰다가 광복 후에는 해군 헌병감실과 상업은행에서 사용하던 중, 사적 제254호로 지정되자 서울특별시에서 1980년 8월에 철거를 하여

1982년 8월에 관악구 남현동 1059번지 13호에 이전 복원하였다.

5) 일본영사관과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현재 신세계백화점 자리(충무로 1가 52번지)에는 1896년~1905년까지 일본영사관이 있었다. 일제는 임오군란 후 정선방(貞善坊 : 현재 관훈동 경인미술관)의 개화파 박영효 집을 영사관으로 삼았으나 1884년 갑신정변으로 소실되었다. 일본인들은 소실된 이 영사관을 서울 최초의 2층 양옥이라고 자랑하였지만 완공 후 1개월만에 소실된 데다가 건축양식이 치졸하여 역사적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43]

그러나 일본측은 다시 조선 정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여 한성조약에 의해 조선 정부는 남산 밑의 주동(注洞) 언덕에 위치한 현재 중구 필동(남산 한옥촌 일대)의 전 판서 김상현(金尙鉉) 집의 녹천정(綠泉亭)을 일본공사관 대지로 제공하였다. 또한 일제는 소실된 영사관의 변상조로 건축비까지 강요함에 따라 조선 정부는 이를 부담하였다. 1894년 동경에서 온 목수

일본공사관이 있던 신세계백화점 주변(1998년)

나까무라(中村底吾)에 의하여 일본공사관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44] 이 건물은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 이후에는 통감관저로, 1910년 국권 강탈 이후에는 총독관저로 일시 사용하였다.

한편 일본공사관이 남산 산록에 신축되기 전에 일본공사관은 현대 극동빌딩 서쪽(충무로 2가 52번지)의 조선말 순조 때에 금위대장을 지낸 이종승(李鍾承)의 집을[45] 임시 공사관으로 삼았다. 한편 일제는 공사관과 경복궁과의 일직선이 되는 지점(현 충무로 1가 52번지)을 일본영사관 부지로 책정하고, 1895년 7월부터 건물 매입 교섭에 들어갔다.

원래 일제는 일본거류민단의 보호라는 구실 아래 한국으로 진출한 일본헌병 및 군인과 함께 1885년 일본영사관을 용산에 설치하였는데 남산의 일본공사관과 가까운 곳에 둔다는 방침에 따라 현 신세계백화점 일대의 터를 매수하여 벽돌과 목조 2층의 청사를 1896년 12월 30일에 준공하였다.[46] 이는 일본 내무성 기사 선기흠재(船起欽哉)에 의하여 감독된 것으로 소규모의 르네상스식이었다.

미쓰코시(三越) 백화점 개점 광고(1930년)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이듬해 2월 1일에 일제가 일본영사관을 폐지함에 따라 이 청사는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이 사용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47] 1909년에 이르러 업무가 폭증하자 이 건물은 영사관으로는 협소했으므로 11월에 본관 동쪽에 평옥(平屋) 건물 1개 동의 청사를 완공하여 12월 20일에 입주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는 이사청과 지청(支廳)을 각 지방에 설치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나갔는데 1907년 정미7조약 체결 이후에는 지청의 책임자를 각 도의 관찰사 밑에 서기관으로 임명했으므로 이들이 지방행정의 간섭 · 감독 등을 하게 되므로서 지청이 폐지되고 이사청의 역할도 축소되었다.

일제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통감부를 설치한 후 이를 보조하기 위해 이사청을 각지에 설치하게 되면서 개항장과 개시장(開市場)의 감리서(監理署)가 폐지되고 일본공사관 · 영사관도 폐쇄하였다. 이사청은 통감의 명을 받아

영사업무와 일본 거류민의 행정과 통제를 하는 외에 관할구역 내의 한국 지방행정을 감독하여 치안 · 사법 업무도 담당하였다.

경성이사청의 관할구역은 5도 58군에 걸쳐 매우 넓었으므로 1906년 11월 18일 수원지청, 1907년 6월 30일에 충주지청을 설치하여 수원 · 이천 · 원주이남을 관할하게 하다가 1910년 10월 1일 경기도청, 충청북도청에 각각 이관되었다. 경성이사청은 대한제국 말에 콜레라 전염병이 유행하자 「한성위생회」규약에 따라 보건 위생 규칙과 요식업 · 교통 · 출판 · 거리질서 등에 관한 법규를 제정, 시행하였다. 또한 거류민의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조합(學校組合)을 관리하고, 일본거류민들의 행정자치단체인 경성거류민단, 용산거류민단 등 2개의 거류민단과 6개의 거류민단총대역장, 2개의 일본인회를 관할하였다.

경성이사청 업무가 개시되면서 이사청 경찰은 거류민의 치안과 한국인들의 위법사항도 다루었다. 이 당시 경성이사청 경찰기관으로는 경찰분서(警察分署)가 용산 · 개성 · 대전 등 3개소에 있었고, 순사주재소는 영등포 등 8개소에 두었는데 이 업무는 1910년 7월 13일 경무총감부로 이관되었다.

1910년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한성부(漢城府)를 경성부로 개칭하고, 4년 8개월간 서울의 일본 거류민을 관할하던 경성이사청도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경성이사청 청사는 경성부가 사용하게 되었다.[48] 경성부 청사는 지금의 서울시청 건물이 준공되던 1926년까지 사용하다가 옮겨간 빈터에는 1929년 9월 삼월오복점(三越五服店)이 불하받아 미쓰코시(三越)백화점을 짓기 시작하여 대지면적 730평, 건평 435평, 연건평 2,300평으로 준공하였다. 이 백화점은 종업원 360여명이 근무함으로써 당시로서는 만주 · 조선을 통틀어 최고의 백화점으로 출발하였다.[49]

한편 1922년에는 오복점(吳服店)을 경영하던 중강승치랑(中江勝治郞)이라는 일본상인이 현재 지하철 명동역 남서쪽(충무로 1가 45번지)에 삼중정백화점(三中井百貨店)을 설립하여, 1932년에는 현대식의 대형점포를 신축하였다.

6) 한성병원

명동 2가 25번지 부근에는 조선말에 한성병원(漢城病院)이 있었다. 고종 32년(1895) 조선의 위생고문으로 있었던 나협수웅(瀨脅壽雄)이 병원을 차렸다가 일본으로 귀국하자 그 이

듬해 일본 해군 군의 안전양(安田穰)이 해군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인수하여 1896년에 개원된 이 병원은 한국인과 일본인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적대감정을 회유해 보자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 병원은 그 후에 기부금 등으로 시설을 확장해 나갔는데 그 중에 친로파 이용익도 거금을 희사(喜捨)하였다. 1903년 6월 이용익이 중환으로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아 회복되자 그는 2,000원의 돈을 병원 시설비로 내 놓았다.[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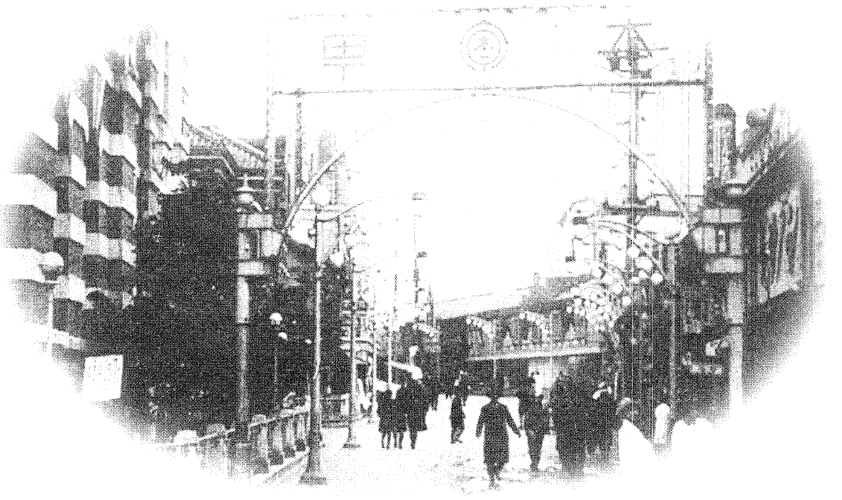
그 후 1905년 3월 일본공사 임권조는 해군성(海軍省)의 동의를 얻어 이 병원을 일본거주민공립병원으로 고치고 시설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2개월 후 병원 경영의 악화로 부득이 개인에게 이 병원을 임대하고 말았다. 그 후 1912년 이 병원은 다시 임대가 어려워져 그 이듬해 4월에 이 병원은 폐쇄되었으며 수용된 환자는 총독부병원으로 옮겼다.

그리하여 일본 거류민단에서는 이 병원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건물과 시설을 학교조합(學校組合)에 인계하였다. 한 때 이 병원 건물이 경성부 청사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1922년 10월 5일부터 경성부립 도서관을 이용하다가 소공동 대관정 터(大觀亭址)로 이전해 갔다.

〈박경룡(朴慶龍)〉

Ⅱ

일제 강점기의 명동



제2장 일제 강점기의 명동

(1) 남촌의 형성

남산 기슭과 그 밑의 일대는 즉, 남촌이라 불리었고, 이는 모두 가난하거나 벼슬 못한 샌님들이 살던 지역이라 하였다. 이는 매천 황현의『매천야록』에 보면 '서울 큰 거리를 사이에 두고 종각 이북은 북촌(北村)이라 하여 노론(老論)이 살고, 큰 길 남쪽은 남촌이라 하여 소론(少論)이하의 삼색(三色)이 섞여 살았다.' 라고 설명하듯이 종로 큰길 북쪽의 북촌에는 정권을 쥐고 있던 노론파가 집중해서 살고, 그 남쪽 남산 밑 남촌에는 소론파와 남인파 · 북인파 사람들이 뒤섞여 살았다. 이것은 사색당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어서 남촌사람들이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들려면 북촌의 노론파 대관(臺官)들에게 탄핵을 받곤 하였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남산골 샌님 제 벼슬은 못해도 남의 벼슬 뗄 재주는 있다' 는 속담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귤산 이유원의『임하필기(林下筆記)』에 보면

예로부터 남주북병(南酒北餠)이라는 속담이 있다. 남주는 장흥동, 회현동에서 빚어내는 것을 제일로 쳤다. 그 맛과 색깔이 뛰어나서 한잔에 취하여도 쉬이 깰 뿐 아니라 갈증이 나지 않으니 가위 나라 안을 통털어서 가장 이름난 명주이다. 떡은 누각골의 것을 제일 좋게 친다."라고 기술하였다. 즉, '떡 빚는 북촌, 술 거르는 남촌' 이라고 하며, 이는 집 술을 빚어 팔기도 하고, 시장기를 달래던 남산골 샌님과 곡식이 넉넉하여 떡 빚어 잔치를 차리고 아이들 군것질시키던 북촌 양반들의 일상생활을 대조적으로 풍자한 것이다.[51]

또한, 1919년의『경성부사』에 보면

경성부내에 있어서 일본인의 거주지역은 남산 산록 북측 일대의 지역에서 점차 확대되어 경성부의 중앙

을 관류하는 청계천을 넘어 점차 조선인가에 미치고 1919년 당시에 있어서는 부(府)내의 각 정동(町洞) 중 일본인을 보지 못하는 곳은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 다음에 조선인은 그 대부분이 청계천 이북, 즉 종로를 중심으로 하여 북악산의 남록에 따라 거주하는 자가 많고 점차 청량리 · 왕십리 · 마포 등의 교외로 향하여 발전해 가는 상태에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인은 생활난 때문에 교외로 이주하는 자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10년대까지 형성된 이 북촌과 남촌의 한 · 일인별 거주실태와 상업지 · 거주지 등에 관하여 잡지 『개벽(開闢)』에 실린 글을 보면 일제 때 서울 주민의 구성과 거주분포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경성부는 186개의 정 · 동(町 · 洞)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야마도마찌(大和町)니 메이지마찌(明治町)니 '마찌'라고 불러야 제 맛이 생기는 101개소의 정과 갯골이니 똥골이니 골이라고 불러야 제 맛이 생기는 85개소의 동이 있습니다. 정(町)은 마찌라는 일본말로 불러야 맛이 생길 만큼 대체로 일인의 독천지(獨天地)외다. 동(洞)은 골이라고 불러야 옛날 맛이 생길 만큼 대체로 옛날의 주인인 조선인 최후의 퇴거지(退居地)외다. 그런데 일본인 독천지는 101개, 조선인 퇴거지는 85개, 이만하여도 상세한 설명은 필요치 아니하나 시구의 형성과 주민의 분포상태를 개괄적으로 간단히 소개하여 미흡을 보충하려 합니다. 동일한 목적, 서로 비슷한 규범, 균등한 세력 하에 있는 여러 개의 부락은 자연적으로 동일한 구역에 모이어 각각 특수한 일군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도회의 특색인 동시에 도회자체가 발달하는 경로 외다. …중략 … 그러면 경성의 그것은 경성의 상업지 · 공업지 · 주택지는 어느 방면이며, 장차 어느 방면으로 하는지에 대하여는 당국의 도시계획상 비밀에 붙인 것이므로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형성되어 가는 상태와 당국의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하고 아울러 자연의 고유한 지세를 살펴보면 대개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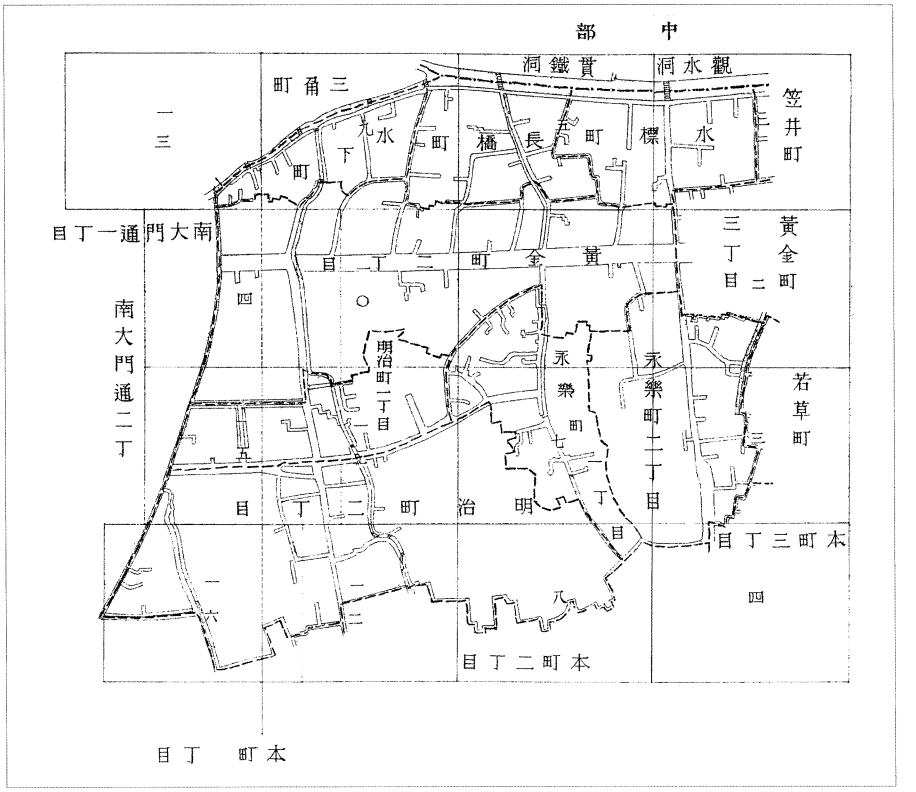
○ 상업지대는 황금정(을지로) 큰 길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으로 **명치정(명동) 1 · 2가, 영락정(저동)** 1 · 2가, 누정정(인현동) 1 · 2가, 야초(초동) · 화원(예관) · 초음정(오장동) 등의 여러 정과 **황금정(을지로)** 1 · 2 · 3 · 4 · 5가, **본정(충무로)** 1 · 2 · 3 · 4가, 남대문통 1 · 2 · 3 · 4 · 5가, 남 · 북창동정, 의주통1가, 어동(양동) · 고시(동자) · 화천(순화) · 길야정(도동)등의 여러 정 그리고 종로 1~5가 와 이에 딸린 약간의 여러 동…

○ 주택지는 지세가 높고 지미가 건조하고 산을 등졌다는 조건 뿐만 아니라 주택과 떠날 수 없는 각 학교, 관공서 등의 위치 또는 몰락된 조선인의 거주지로 보아 북부 일대, 동서부 일대이다. 그러나 북부 중에

도 극북, 동서부 중에도 극동 · 국서부근은 실상 주택지라고 하기보다 차라리 빈민지대라고 함이 적당할 지니, 이 모든 시구의 형성은 현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장차 서로는 아현리 · 공덕리, 남으로 노량진 · 영등포, 동으로 왕십리 · 청량리 일원을 포함한 대경성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이러할 것이외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주민이 세력 있고, 재력있는 주민인지는 설명할 필요 없이 일본인 100호 이상의 호수가 있는 지역을 상세히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1923년말 현재)

본정(충무로) 1가 : 74호, 2가 : 340호
황금정(을지로) 2가 : 289호
명치정(명동) 1가 : 173호, 2가 : 293호



명동 일대 지도 (1911년, 1/6,000)
-「중구청」 소장

영락정(저동) 1가 : 153호

현재 명동으로 불리어지는 이곳의 호수는 모두 일본인이 100호 이상 되는 지역이었다.

또한, 다음은 1925년의 한 · 일인의 인구비교를 1925년 10월 1일 국세조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남촌에 해당하는 명동지역은 모두 일본인 득세지역으로 나타났다.

1930년대 북촌의 일본인 침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한일간의 거주지별 세력대비는 그

	한국인(명)	일본인(명)	일본인 비율(%)
충무로 1가	210	898	81.0
2가	413	1,763	81.0
명동 1가	255	730	74.1
2가	494	1,438	74.4
저동 1가	199	704	78.0
을지로 2가	1,033	1,288	55.5

만큼 한국인측이 위축되어 갔다.

즉, 1926년 10월에 광화문 북단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준공됨으로서 예장동에 있던 총독부가 이전되고 같은 달에 경성부청 청사도 준공되어 경성부청이 이전되자 적선동 · 통의동 · 궁정동 · 청운동 · 효자동 등의 북촌 마을에 많은 총독부, 경성부 직원용 관사가 들어서게 되어 한일 주민 거주의 교체현상이 일어났다.

1929년 정동에 재판소 건물이 준공되고, 1934년 태평로 1가에 천대전 빌딩과 세종로에 총독부 체신국 분관이 들어서자 신문로에서 부터 당주동 · 내수동 · 내자동 각 동에도 일본인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1924년 경성제국대학이 개교되고, 1926년부터 1928년에 걸쳐 의학부를 비롯한 경성제국대학 여러 건물이 연건동, 동숭동에 건립되자 동숭동 · 이화동 · 명륜동 · 혜화동 등 각 동에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의 관사, 관택이 건립되고 그들을 따라서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수

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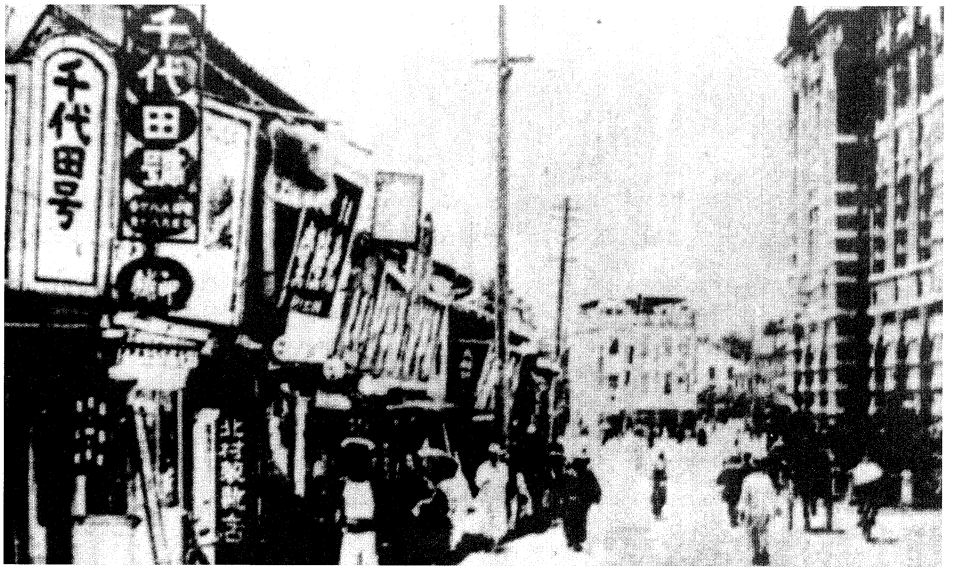
1931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조선 도시경영주식회사가 장충동 1가에 6천평, 신당동에 4만평의 토지를 개발하여 고급주택지화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일제 때의 한글로 발표된 신문, 잡지들을 통해서 남촌이니 북촌이니 하는 말이 무수히 많다. 잡지 『개벽(開闢)』에는 "형제여 남촌의 시설은 저러하거늘 북촌의 시설은 왜 이모양 입니까", 남촌의 일인(日人村), 남촌시가의 극성(極盛), 몰락된 북촌의 참상(慘狀) 등의 글귀가 눈에 뜨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글의 신문, 잡지에서는 남촌 · 북촌의 단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 표현은 순전히 그 이전부터 한국인들 사이에서 통용된 단어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당시의 한인들이 「왜놈들 마을」이라고 한 것을 남촌이라고 표현하였고, 그에 대해 자기들의 거주지역을 북촌이라는 말로 작용하였다.

이 당시의 남촌이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경계로 한 것일까?

일본인 거리로 변한 명동
-「서울잡학사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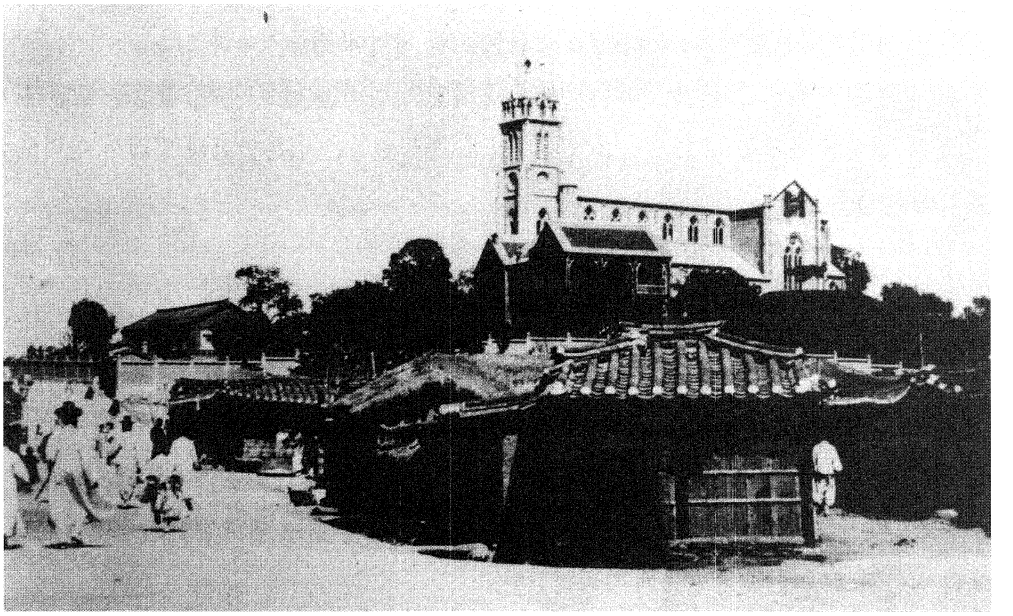
일본 색이 짙은 본정통(충무로)
-「명동야화」에서

이는 청일 · 러일 양대 전쟁을 계기로 일본인이 입경하여 정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일본 군인이 거리를 활보하고, 일본공사관의 발언권이 강해지며 원래는 대단치도 않던 일본인들이 위세를 부리자 작년에 김 모의 소유가옥이 금년에는 모 태랑, 모 위병의 소유가 되고, 작일에 이모의 소유 점포가 금일에는 이등 모, 재등 모의 소유로 되는 등, 동산 · 부동산 할 것 없이 매년 날마다 일본인의 소유로 귀속하였다. 이리하여 일인 거주지역 안에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 오던 소수의 한국인들도 모두 쫓겨나 완전한 일본인의 독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거주지역 자체가 더욱더 확장되어 동으로는 진고개의 끝인 충무로 1~5가, 필동~쌍림동 일대, 서로는 남대문로 1~5가에서 남산 · 회현 · 북창 · 소공 · 도 · 양 · 동자의 각 동으로 퍼져 황현의 『매천야록』에 기록된 「포락상남촌 오지사십허리 진위왜촌(包絡上南村 五之四十許里 盡爲倭村)」 상태에 이른 것이었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식민정책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탈바꿈을 한 후 행정 및 지방제도를 개혁하였으며 공업 및 상업의 발달을 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강력한 식민정치와 그들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 대륙침략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도시내의 공간분포 변화를 주었으며 특히 상업권의 형성 및 주

거지역의 공간변화를 초래하였다. 일인들의 끊임없는 증가는 도시 내 거주지역의 분포 및 기존 상업지역의 공간 이동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종로 1 · 2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서울의 상업지역은 남대문통을 비롯한 그 일대와 충무로 · 명동 · 을지로 등지까지 확대하였으며 남쪽 특히 일본인들의 상업지역이 분포하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 지역에는 또한 일본인들에 의해 설립된 은행 · 백화점 등도 분포하였다. 일본인들의 거주지는 대체로 신흥 상업지역 주변과 남부에 위치하였으며 기존의 한국인 거주지역에는 일부만이 거주하였다.[52]

일본인들에게 서울 거주가 허용된 것은 갑신정변 다음해인 고종 22년(1885) 2월부터의 일이며, 이때 그들의 안전을 위해 일본공사관과 영사관 주위에 집단 거주케 할 필요성을 이유로 공사관 · 영사관에 이웃한 진고개 일대 즉, 오늘날의 중구 예장동 · 주자동에서 충무로 1 · 2 · 3가 , 명동에 이르는 지역을 일본인 거주지역으로 정하였다. 입경 초기에는 이들 지역에 있던 한옥을 임차 또는 매수하여 간신히 하나 둘씩 정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수가 늘어나고 경제력이 늘어나자 토지와 가옥의 매각기피 등 원주민들에 의한 크고 작은 항거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1885년 2월에 결성한 거류민회와 1887년 2월에 발족한 일본인 상업



충무로 입구(1930년대)
-「사진으로 보는 서울(2)」에서

회의를 중심으로 강건한 식민의욕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주자동 · 진고개 · 명동 일대의 일본인 시가지는 점차 그 모습을 달리해 갔으며, 진고개와 명동은 서울의 새로운 상거래지의 핵기능을 하게 되었다. 성내의 한인들은 일본인들에 의해 성밖으로 밀려나거나 낙향해 버리므로, 이 과정에서 한 · 일인 주민들의 교체가 일어남으로써 도심부는 일본인의 독거지화가 되었다. 이 결과로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마침내 일본인의 거주구역은 남촌과 한인 거주구역이 북촌으로 구분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시대 도성내의 남촌 · 북촌과는 그 뉘앙스도 내용도 다른 새로운 남 · 북촌이 형성된 것이다.

(2) 외국인의 거주 배경

민족별 거주지 분화를 보면 각 동별 거주역사 및 민족적 특수성과 연관성이 있다. 한국인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나 일본인의 식민도시에 거주하는 지배민족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식민지화의 성공으로 일본인들이 대체로 전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한국인의 전통적인 거주지역에는 대체로 적게 분포하며 그들에 의해 개발된 신흥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인 본정통(충무로)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집중거주하였다.

또한, 일본인의 성비(性比)는 비슷한 반면, 중국인의 성비는 남초(男超)현상을 보인다. 이는 일본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중국인들은 일본인한테 밀려서 아직도 개척초기의 현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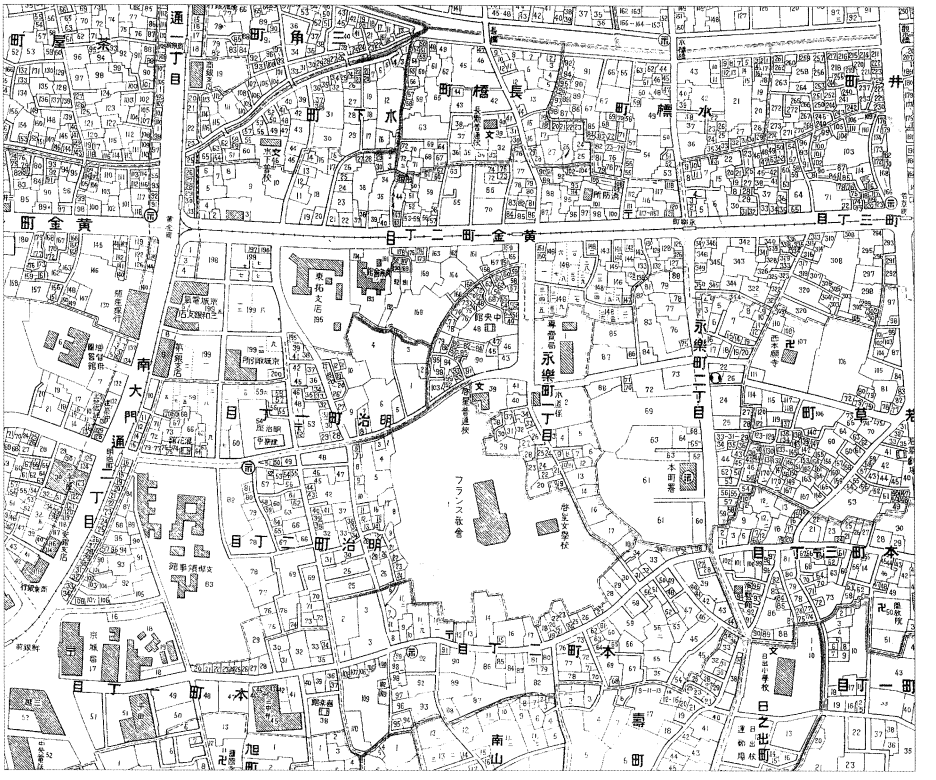
1) 중국인의 거주 역사

중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게 된 거주역사를 보면,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민씨일파의 요청으로 청나라 장수 오장경이 그의 장졸 5천 여 명을 이끌고 서울에 들어왔다. 이 당시 상민수출무역장정(商民輸出貿易章程)을 체결하여 산동현에 살던 중국상인들과 농사꾼들이 현재의 명동과 소공동 및 관수동에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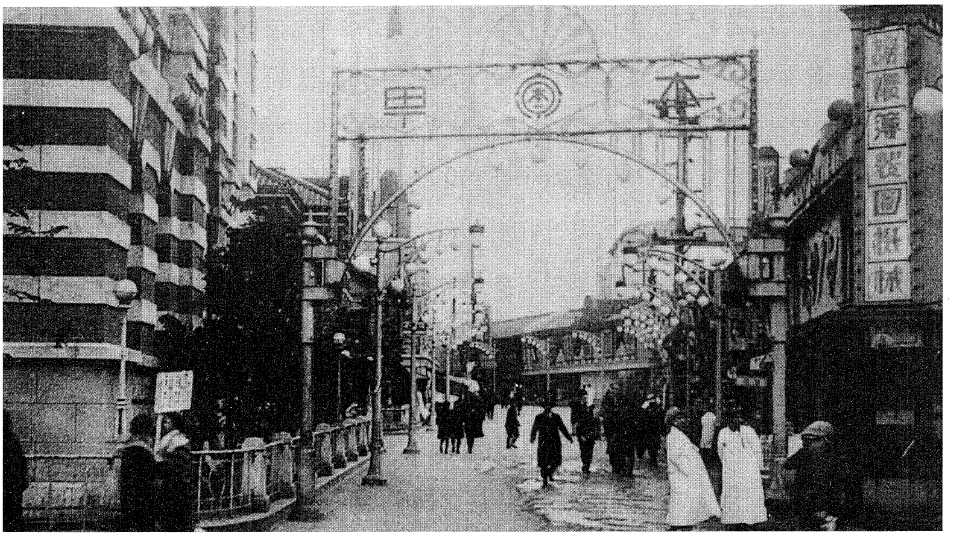
청국인들은 초창기부터 거주 · 영업 · 여행 등에 별로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조선인과 다름없

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당연하게 청상(淸商)들의 숫자들도 늘어나서 그들은 대부분 직물수입상 · 외래품 잡화상 · 포목상 · 잡화소매 · 피혁모피상 · 객잔(客棧 : 여관, 음식점) · 영미(英美) 무역상 대리점 · 토산품 수출상 · 잡화물 행상 등이었다. 이들은 천부적인 상업적 수완으로 일본상인들은 물론 조선의 민족상인들까지 압도하기 시작하였다.[53] 이들이 한성에 거류하기 시작한 지 3년도 못되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회관을 지을 만큼 급속히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도성 안에서는 이 나라의 무역계를 주름잡는 거상들이 약 20~30개에 달하는 대상인들이 있었으며 그 상세(商勢)도 대단하였다. 그 중에 「동순태」는 명동과 이웃해 있던 을지로 입구 근처에서 활동하였는데 그가 처음 2천여 평의 땅을 사들여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를 한 곳이 바로 현재의 유네스코빌딩이 서있던 명동 2가 82번지 일대였다. 그 이후 중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명동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1883년 진수당(陳壽棠)이 6,500 평의 대지



명동일대 지도(1936년)
-「대경성정도」에서



일제때 충무로 입구

를 2천 냥에 사들여 이곳에 집을 짓고 공관으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 원세개가 청군의 사령관으로 왔을 때 사령관 관사도 명동 땅에 잡았다.[54] 청상들은 원세개의 위력을 업고 그 상권을 확대해 가는 청국상인의 횡포에다가 대소의 토목공사가 있을 때 마다 산동반도로부터 떼를 지어 몰려 들어온 노동자들, 속칭 쿨리 또는 유용(游勇)들의 횡포도 겹쳐 한국인의 반발은 그치지 않았고, 그것은 여전히 겁탈 · 절도 · 방화 · 패싸움 등의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원세개를 따라 들어온 청나라 상인들 가운데 광동지방 출신 즉 이들을 광동방이라고 하는데 소공동 일대에 터전을 잡고 차이나타운을 형성하였다. 이 지역사람들이 일본상인들보다 급격히 확장되어 간 이유는 원세개가 자기나라 상인들을 두둔했으며, 일본사람보다 신의가 있었으며, 중국 특유의 성질인 느긋하게 장사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호감을 산 이유에서였다.[55]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서울에서 일본상인과 청국상인의 위치는 바뀌게 된다. 특히 전세가 일본쪽으로 기울자 많은 청상인들은 가게를 닫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명동에는 요릿집만 남아서 장사를 계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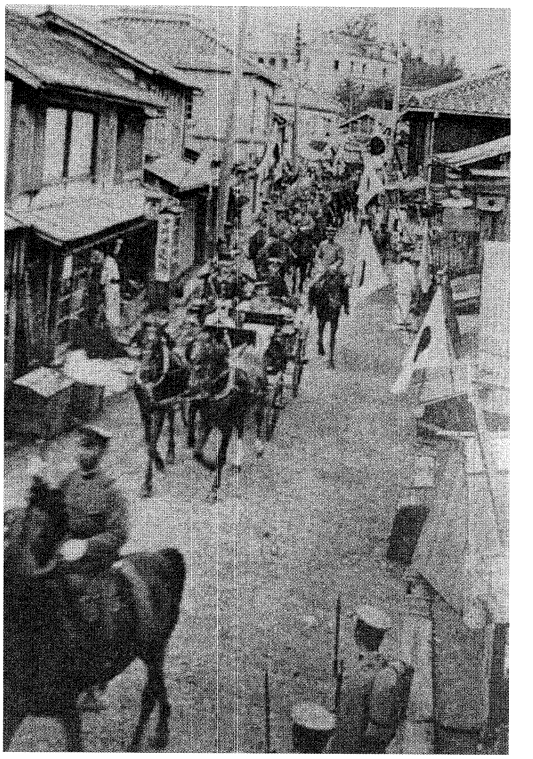
결국, 1910년 국권을 빼앗긴 이후 이곳의 풍토는 점차 정세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중국상인들이 활개치던 그들의 본거지에 일본상인들이 들어와 차츰차츰 그들의 판도를 넓혀가기 시작하였다.

2) 일본인의 거주 역사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날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은 도성 10리 안에는 서양인 · 일본인을 막론하고 외국인의 거주를 허락하지 않았다. 즉 1880년 4월에 개설된 최초의 일본공사관만 하더라도 서대문 밖 청수관에 두었다. 임오군란으로 일본공사관은 난군의 습격을 받아 불타버리고 하나부사는 일본으로 쫓겨갔다. 그해 8월 12일 해군소장 니레(仁禮)와 육군소장 다카시마(高島)가 인솔하는 육해군 1,200 명을 거느리고 인천으로 진군하여 8월 16일에 도성 안으로 들어와 지금의 충무로 2가 부근에 있던 금위대장 이종승의 집을 가공사관으로 하고 군대는 남산일대에 주둔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인들은 왜성대와 진고개에 진을 치며 그들의 세력을 넓혀갔다.

진고개 일대를 일본인 거류구역으로 정한 이유는 1884년에 건축했던 경운동 소재의 일본공사관이 갑신정변으로 소실된 트집으로[56] 한성조약 제 4조에 의하여 일본이 남산 밑 녹천정(綠泉亭) 자리에 공사관 부지도 또 바로 이웃한 가옥을 영사관 부지로 받아 그곳에서 집무를 개시하고 있던 터였으므로 거류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지역을 선정했던 것 같다. 조선정부측에서는 당시의 진고개가 남촌의 끝이면서 문자 그대로 진흙지대였으므로 거주환경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응낙했던 것 같다.

당시에 본정통에는 일본인 가옥이 하나도 없었으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가옥을 임대하여 상품을 가게 앞에 늘어놓고 조선인에게 판매케 한 뒤 일본인은 안에서 이를 감독하였다. 일본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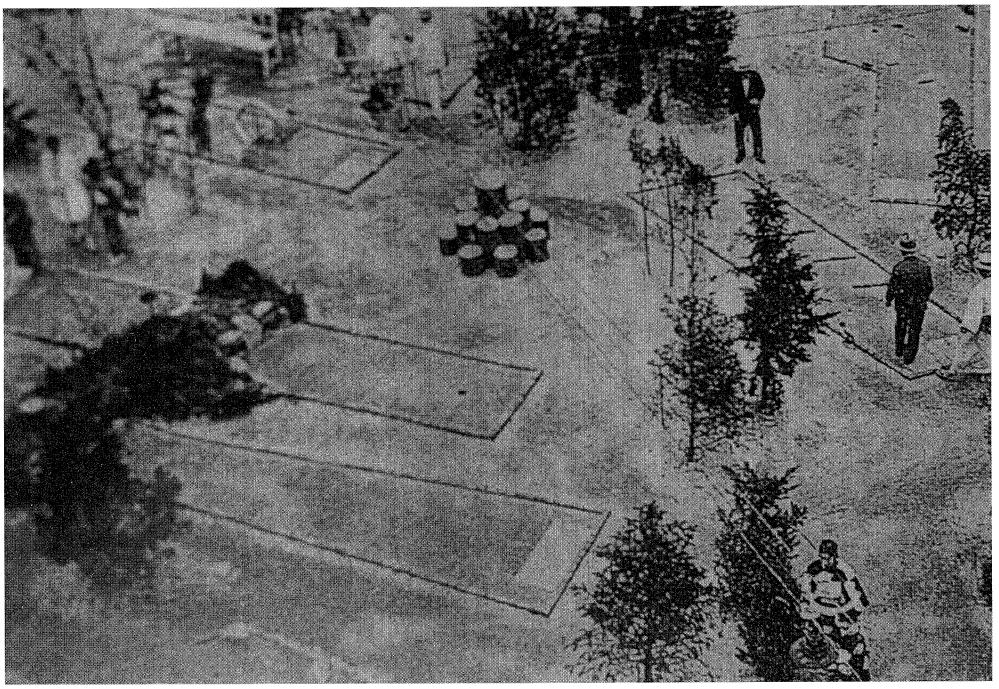


충무로를 지나는 데리우찌 통감의 부임 행렬(1910년)
-「중구지(하)」에서

은 한옥을 임차(賃借) 또는 매수하여 입주했으며, 공지를 구입한 자는 일본식 가옥을 지어 점차 일본인 취락을 형성해갔다. 개항기에 이 땅에 건너와서 정착한 일본인의 대다수가 그러했듯이 초기에 도성 안에 거류한 일인들도 거위 무지 · 무산자들이었으며 몇푼 안되는 영세한 자금으로 행상 · 노점 · 중개 · 매춘 등 부를 축척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종사하였다.

일제가 진고갯길을 개수하기 시작한 것은 을미사변이 나던 해, 즉 1895년이었다. 그들은 진고개와 주자동 · 명례현 일대에 자리잡은 일본상인들의 왕래를 위해 공공예산을 들여 진고갯길 옆의 가가(假家)를 철거하고 하수도를 설치하여 진고개의 모습을 변모시켰다.[57]

따라서 한말부터 서울에 이주하기 시작한 일본인 역시 서울 전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는 있었으나 도시 남부의 신흥상업지역 및 거주지역에 집중하고 있었다. 과거 청나라 영사관이 있었던 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본정(충무로)로 고치고 중국 가게가 즐비했던 골목을 명치정이라 바꿔 일본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였다. 명동이 지금은 가장 번화한 거리로 변했지만 일제 때는 본정통(충무로)에 눌려 지냈다.



충무로의 골프장(1930년)
-「사진으로 보는 서울(2)」에서

1935년의 경성부의 통계에 따르면, '~ 정(町)'이라는 지명에는 일본인 거주자가 51%나 되었던 반면에 '~ 동(洞)'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의 일본인 거주자는 7%에 불과하였다. 일제강점하에서는 거주자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본인과 한국인은 이용하는 활동사진관과 유곽(遊廓)조차도 서로 달랐다.

조선말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이 땅의 상권을 거머쥐면서 충무로 일대를 그들의 본거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명동은 충무로의 번창과 더불어 이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온 것이고, 청나라와 일본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형성된 거리였다.

(3) 경제 및 상가의 형성

1) 중구의 경제권 형성 배경

중구지역이 상업성이 증대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부터 이 지역에 대규모의 칠패(七牌)시장이 형성되어서 이를 중심으로 상업기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긴밀한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구지역은 지형적 여건 뿐만 아니라 도성 안이라는 입지 때문에 농경이 거의 불가능하여서 이 지역의 경제는 상공업 중심으로 영위되었으나 종로구에 비해서 그 위상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선왕조의 위정자들이 이 지역을 한성부로 포함시키면서도 주변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중구지역이 도심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왕조가 무너지면서부터이다.

오늘날 중구지역은 서울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상업지구이다. 조선후기 이래로 한성부는 행정도시에서 상업도시로 모습이 달라져 갔다. 처음에는 종로구 지역이 그 경향이 강했으나, 19세기 말 이후에는 중구지역의 상업화가 종로구 지역을 앞서게 되었다.

개항과 더불어 문호가 개방되자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들이 우리 나라에 진출하여 각기 소공동과 충무로 지역을 거점으로 상권을 확장하면서 이 지역은 지금까지 비교적 조용하던 상태에서 깨어나 상업중심지로 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이 지역은 거의 순수라고 할 수 있

을지로 입구에서 바라본 옛 황금정통(1913년)

을 정도로 상업화가 되어 있다.

중구지역의 상업화는 근대에 이르러 본격화되었지만 그 역사적 배경에는 일찍이 이 지역에 설치되었던 시전(市廛)과 난전(亂廛)이 있었다. 조선왕조는 한양으로 천도를 결정하고 도시계획을 세워 관청의 물자수급과 주민의 생활용품을 거래 할 수 있게 궁궐 · 관아의 조성과 함께 시전의 개설을 꾀하였다.

시전의 활동구역이 넓어지는 것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였다. 상품화경제의 진전과 더불어 새로운 시전이 개설되면서 시전의 활동구역이 본바닥인 종로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어 간 것이다. 이는 시전의 성격변화와 새로운 상인층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작용하게 된다. 17세기 후반부터 상품의 유통량이 증대하고, 금속화폐가 유통됨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사람들 사이에는 장사에는 이익이 많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 유랑 농민, 관청서리, 군영군인, 세도가의 노비들이 상인의 대열에 합류되었다. 이들은 새로이 시전을 설립하여 시전상인의 이익을 저해하면서 주로 중구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시전의 설립시기를 분명히 밝힐 수는 없지만 18세기 이후 중구지역에서 활동한 시전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위치로는 무교동에 모전 · 도자전, 수하동에 자리전, 삼각동에 병풍전, 장교동에 모시전, 청포전, 관자전, 소금전, 신전, 수표동에 죽전 · 마전,

입정동에 연초전 · 장전, 을지로 1가에 기름전 · 유지전 · 을지로 2가에 약전 · 죽전 · 상전 · 모시전, 을지로 3가에 신전, 을지로 4가에 은방, 남대문로 1가에 자라전 · 백목전, 소공동에 우전, 정동에 우전 · 상전, 저동에 모시전 · 초동에 초목전, 남대문로 4가에 잡곡전 · 소금전 등이 있었다. 이는 기존의 종로지역의 시전의 전매 물종과 중복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가 있다. 청계천 연변에서는 주로 생활용품이, 서소문 밖에서는 주로 식품이 거래되고 있었다.

2) 명동의 상가형성

일본인들은 장안을 드나들며 진고개 일대를 마음에 두었다가 남산 중턱의 높고 널찍한 예장동에 일본공사관을 짓고 이어서 차례로 통감부, 총독부 청사로 쓰면서 가난한 남산골 샌님들을 꾀어 집을 저당잡고 돈을 꾸어주고는 일부러 기일이 되면 다른 곳으로 피해 숨어 있다가 기한이 지났다며 마구 집을 몰수하는 등 온갖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고개 일대를 점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장악원 자리에는 착취의 본거지인 동양척식회사를 설치하는가 하면, 종로 육의전 중심의 500년 북촌 상권을 탄압하면서 진고개를 즉, 본정통을 일본인의 상권의 중심지로 키워 나갔다. 그들은 남촌을 근거지로 삼아 진고개를 혼마치(本町)라고 부르면서 서울 제일의 번화가임을 자랑하였다.

일제 때의 중구 충무로 · 명동 · 을지로 등지는 서울의 번화가 즉 다운타운(down town) 그 자체였다. 대기업의 본사가 집중해 있는 오늘날의 중구 관내보다 오히려 잡다한 상업기능은 일제 때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명동, 당시의 명치정은 일반 점포도 많기는 했으나 경식사집 · 까페 · 다방 · 당구장 등의 집중지로 더 유명하였다. 극장 양화관과 송죽극장이 이곳에 있었고, 까페는 마루비루(丸ビる) · 국수(菊水)의 두 개가 큰 것이었고, 중국요리 봉래각과 중화정, 뱀장어전문의 일식요리 강호천, 서양요리집 천대전 그릴 · 화월식당 등이 명치정을 대표하고 있었다. 또 명치정의 특징은 이곳에 주옥, 즉 오늘날의 표현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이 집중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바로 명동 1가와의 경계인 황금정 2정목 199번지에 조선취인소(증권거래소)가 있었고, 또 당시 가장 조선인들이 즐겨했고 또 그 때문에 패가망신한 기미시장인 조선미곡시장도 명치정 1가 59번지 10호 자리에 소재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명동에는 덕력상점(德力商店)이 있었다. 덕력상점이 취급했던 은괴(銀塊)의 양은

을지로 입구에 세워진 일본생명 건물

대단했다고 한다.[58]

일제 때 서울 최대의 번화가 일반 상점가는 본정(충무로) 1 · 2가였다. 이곳에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전문적 점포들이 즐비했던 것이다. 그중 저명한 것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명동 1가 (본정 1가)>

- 정원상점(井原商店) – 금속기구
- 교구금속물점(橋口金物店) – 금속물
- 대석상회 – 시계 · 귀금속 · 사진기
- 구마옥(倶馬屋) – 피혁제품
- 산안천우당(山岸天佑堂) – 약국
- 소기반조(篠崎半助) – 지류 · 문구류
- 평목옥상점(平木屋商店) – 양품잡화
- 이등본점(伊藤本店) – 신발
- 대판옥호서점(大阪屋號書店) – 서적
- 횡전상점(横田商店) – 가구 · 장식품
- 하천지점(夏川支店) – 화장품 · 여성용품
- 명치옥지점(明治屋支店) – 양주 · 식료품
- 삽곡상점(澁谷商店) – 당분 · 과자원료

〈명동 2가 (본정 2가)〉

- 우정당문당(友井堂文堂) – 종이 · 문구류
- 포도본점(浦島本店) – 완구
- 웅평상점(熊平商店) – 금고 · 소방기구
- 복옥재봉점(福屋裁縫店) – 부인 · 소아복
- 저옥호(杵屋號) – 화장품
- 삼길상회(三吉商會) – 넥타이
- 삼정길상점(森政吉商店) – 범포(帆布) · 모시 · 베
- 귀옥(龜屋) – 식료품
- 고전환일상점(高田丸一商店) – 병 · 콜크
- 등전본점(藤田本店) – 식료품
- 국예족대(國譽足袋) – 일식 다비
- 명치옥 제과(明治屋製菓) – 양과자 · 우유
- 평호상점(平戶商店) – 라사(羅紗) · 직물(織物)

이상과 같이 일본상인들은 남촌을 비롯하여 주요 거점을 확보 확대하면서 재래 한국상인의 상업지역을 잠식하여 나갔다. 한국에 일본상인의 증가는 본국의 인구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조사와 실업조사 등 각종 조사를 행한다든가 자유도항을 인정하는 등 일본인의 이주를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은행 · 식산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최대의 토지소유자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경성부 명치정과 황금정통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일상(日商)들에게 자금대출 등을 통해 각종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일상들은 이러한 식민권력

일제 때 명동거리

기모노를 입은 일본인들이 거닐던 본정통 (충무로 : 1920년대)

및 금융기관의 정치 · 경제적 지원과 한국상인의 몰락을 바탕으로 자본력을 증대시키면서 대외교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경성부의 도매업과 소매업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59]

일본인들은 1905년 통감부 설치와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10년 약 9,000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남촌을 거점지의 중심지로 삼아 주로 진고개와 명동일대에 자리하였다.

이 당시에 일본인거주지역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오던 소수의 한국인들이 모두 쫓겨나 일본인의 완전한 독거지가 되었고 이 당시 일인 거주지역 자체가 더욱 확대되어 동쪽으로는 진고개 전체, 서쪽으로는 남대문로 1~5가에서 남산, 회현동, 남창동, 북창동, 소공동, 도동, 양동, 동자동 등으로 확대해 갔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상업권의 확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1910년대의 일본상인들이 공산품과 고급품을 주종으로 도매업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본력과 판매력을 강화하여 나갔다. 반면에 한국상인들은 객주의 쇠퇴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품목에서 도매 기능을 상실하고, 한국인을 상대로 일용잡화와 저가품을 소매하는 가운데 열악한 자본력마저도 영락하여 재산상의 위기를 맞이해야 하였다.[60]

소춘 김기전은 다음과 같이 이 시기의 일본인이 상업지구의 확대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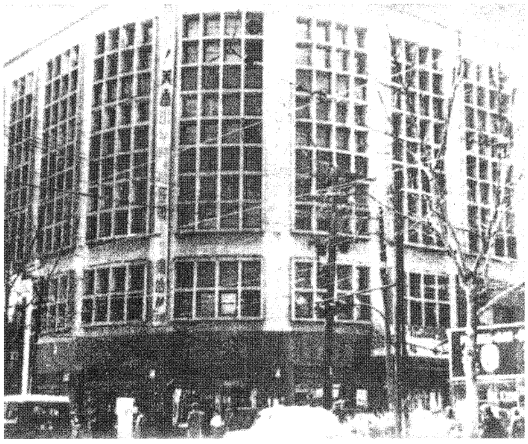
진고개는 경성상업의 중심지이다. 구미직수입이니 일본특약이니 무엇이니 하는 물품도 대개 진고개 일본상으로부터 넘겨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종로통, 남대문통을 칠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일본상인의 직접세력만은 진고개, 남대문통을 벗어나지 못하더니 근년에는 어느덧 황금정을 쑥 넘어서 근일에는 종로통에도 가끔 일본상인의 새 간판을 보게된다.

따라서 일본상인들은 그들의 거점이었던 남촌에서 벗어나 부동산 매입을 통하여 경성부 동부 및 서부까지 확대했고, 심지어는 한국상인들의 오랜 거점인 북부까지 침투해서 한국상인들은 외곽으로 밀려 쫓겨가기 시작하였다.

3) 백화점 및 시장

백화점은 중구지역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백화점 4개가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었다. 한말에 경제진출의 주도권을 잡아왔던 미쯔이(三井)재벌은 그 직영백화점인 미쓰코시(三越)지점을 1906년 한성에 설립하였는데 장소는 충무로(본정) 1가 현재 사보이호텔 자리였다. 1927년에는 현재의 신세계백화점자리에 대형 현대식 백화점으로 발전하였다.[61] 1921년에 소림(小林)양복점을 경영하던 소림문중(小林門中)은 조지아(丁字屋)를 설립하였고, 1929년에는 현재 미도파백화점의 자리에 현대식 대형점포를 신축하였다. 1922년에 중강등치랑(中江藤治郎)은 삼중정(三中井)백화점을 설립하고, 1932년에 현대식 대형점포를 신축하였다. 이상과 같이 중구지역에는 현재의 백화점지대로 발전하는데 큰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와 더불어 명동에는 1926년 충무로 1가 51번지에 평전(平田)백화점이 설립되었다. 그 자본금은 20만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충무로 1가 지대가 백화점화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평전(平田)백화점은 그 규모가 작았던 대신에 신부 · 주부상대의 주방용품과 식료품 · 일용잡화 전문점으로 결혼을 전후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62]

일제 때의 한국인이 이용한 대표적인 생활시장은 5일 마다 열리는 장시였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에 '시장규칙'을 공포하여 시장을 공설 · 공영화하여 경찰에 의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사장의 상권을 독점하였는데 법적으로 인정하는 시장을 4가지로 규정하여 제 1호~4호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예외로 남문안장과 배오개 시장은 한국인 소유로 남겨두었다.[63]



조지아(丁字屋) 백화점(현 미도파 백화점:1950년대)

제 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물가등귀 추세는 해마다 격화하였다. 경성부의 물가지수는 1914년의 103에서 1917년에는 155로 높아졌으며, 1919년에는 159라는 고율로 폭등하였다. 전례 없이 격심한 물가고 속에서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시도해 보려는 경성부는 1920년 12월에 15,290원을 들여 명치정에 공설시장과 종로공설시장을 설립하였다. 즉 일본인 상가와 한국인 상가에 공설시장을 설립한 셈이다.

그런데 한국인 상가로서 오랜 전통과 세력기반을 굳히고 있었던 종로에 설립한 공설시장은 한국상인과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1924년 10월에 폐지되고 말았다. 경성부의 행정력도 종로상인의 저항에 부딪친 나머지 공설시장의 운영을 스스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64]

도소매 사설시장으로 경성어시장(京城魚市場)은 명동 2가 85번지에 설립되었으며, 수산물을 취급하였고, 1912년에 허가되었다. 이는 수영희삼랑 · 화삼랑(守永喜三郎 · 和三郎)형제가 경영한 수산물 도매시장이며, 그 시장규모는 알 수가 없으나 1922년 1년간의 거래액이 65만 9,059원이었다고 하니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설 일용품 소매시장으로는 경성부 소유의 명치정(明治町) 공설시장(명동 2가 25번지)이 1919년 10월 29일에 허가되었다. 면적은 918평이며 개설은 매일 개설되며, 주요 거래품은 양곡 · 생선 · 해산물 · 건어물 · 신탄 · 조수육(鳥獸肉) · 김치류 · 채소류 등 기타를 취급하였다. 상인의 종류는 소매상이 19명이며 중개수수료 등은 일체 없었다. 시장 사용료는 1등은 건평 1평당 월 1원 80전이며, 2등 건평 1평당 월 1원 60전을 내었고, 토지사용료는 1평당 월 30전을 내었다. 시장감독은 경성부청에서 파견된 전임 감시원이 감독하였으며, 한편 물가조사원을 시켜서 시중 도매시세를 조사하여 공설시장의 판매품 가격을 지정하고, 상품마다 정가를 명시하게 하여 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만약에 상인에게 부정행위가 있으면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 할 수도 있었다.[65]

사설 일용품 소매시장인 영락정 시장(저동 2가 79)은 등전장태랑(藤田長太郎)의 소유로 대부분 일용품을 취급하였고, 이는 1921년에 8월 1일에 허가되었다.[66]

하늘에서 본 경성(1935년), 경성부청과 명동성당이 모인다
-「서울의 옛모습」에서

4) 유흥 · 음식 · 숙박업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에 걸쳐 서울의 유흥업은 극장과 당구장 및 고급요정 등이었다. 그 중에서 극장은 모두 12개가 있었는데 중구 관내에는 7개, 명동지역에는 4개가 있었다.

- **중앙관** : 영락정 1가 48
- **희락관** : 본정 1가 38
- **화랑관** : 명치정 1가 65
- **약천지** : 본정 1가

당구장은 서울 시내에 모두 18개가 있었는데, 중구에는 서울시내의 2/3가 있었고, 명동 내에는 충무로 2가에 1개, 명동에 3개 등 모두 4개가 있었다.

음식업에 대해서 『대경성안내』를 보면

밤의 경성에 화려한 환락을 뿌리는 붉은 등, 푸른 등의 거리, 그것은 상당한 성황을 이루고 있다. 환(丸)빌음식점을 제외하고 카페, 바만으로서 약 1,000명의 여인이 째즈음악 흐르는 밤의 경성을 맞이하여 서비스하는 것이다.

일본인가에서 왕좌를 점하고 있는 것은 명동의 환(丸)빌회관이다.… 여급의 총수는 50여명, 이른바 미국

식이며, 째즈 기분이 넘쳐 밤마다 성황을 이루고 있다.… 환(丸)빌에서 조금 북쪽으로 간 모퉁이에 국수가 있다. 품위면에서는 경성의 제1이며… 위의 2개와 어깨를 겨루는 것으로 소공동 경성공회당 지하의 화랑식당이 있다……회현동 1가에 모던한 유리로 장식한 3층 누각을 지은 삼양헌도 경성 카페계의 일류에 속한다. 이상 4개에 다음가는 것이 은송정(을지로 입구), 부사(남대문통), 바론(저동), 킹그(충무로 5가), 본정바 등이 중류이다. 주류 전문의 바로는 소공동의 난, 화도, 명동의 리라, 마이홈, 회현동의 우리집 등이 있다. 동경에서 데리고 온 빼어난 여급들도 있어 차분하게 술을 마실 수 있다.

명동은 1930년대에는 다방, 카페, 주점 등으로 형성되어 충무로에 예속된 유흥 환락가였다. 명동의 비좁은 뒷골목의 어는 지역 나지막한 다방과 술집만은 이 땅의 꿈 많은 예술인들의 터전이기도 하였다. 고독과 인내와 지조와 양심과 청춘의 낭만 속에 살아오던 그 시절의 이 땅 예술인들의 울분과 탄식이 서려있기도 한 안개 낀 부두의 새벽같은 분위기가 항상 서려 있던 지대였다.[67] 정자옥(현 미도파)백화점이 세워지고, 명동입구~명동성당까지 도로폭을 10미터로 확장하면서 독자적인 상가를 형성하였다. 이로써 명동 2가는 유흥환락가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1930년대 말부터 명동은 근대적인 도시풍으로 저마다 특색있는 분위기를 갖춘 그릴과 다실들이 여기저기 생겨났다. 명치정의 명물인 보아그랑의 정식, 가네보의 양식, 가와조의 장어덮밥, 에도가와의 스기야끼 등은 이 때에 등장한 명물이다. 시인과 문인 등이 분위기 있는 그릴과 다실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장안의 멋쟁이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글과 그림과 사진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명동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중에는 명동에서 예술성을 찾는데 평생을 바치려 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명동 일대는 번화가를 형성하였고, 거리마다 그 특징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다방의 효시는 1923년을 전후로 해서 형성되었는데, 「후다미」라는 다방이 본정과 명치정에 생기면서 부터이다. 이로부터 다방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지역은 당시의 정보의 공급처가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1930년대에 들어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 명치정에 성림, 에리자, 프린스, 활콘, 백룡 등의 이름을 붙인 다방들이 줄줄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성황을 이루었던 것이 성림이었는데 당시에는 매우 희귀했던 전기 축음기 장치까지 하여 젊은 남녀를 불러 들였다. 에리자는 고급음악을 조

용히 듣는 곳으로 유명하였다. 이렇게 처음에는 명치정에서 생긴 다방도 점점 다른 지역에도 파급 되었다. 소공동에는 프라카느 · 낙랑, 서울역전에는 돌체, 다시 명동에 트로이카 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조선인들이 모인 종로에도 이 흐름을 타서 멕시코 · 봉아미 등이 유명하였다.

일제 때 중구는 종로와 더불어 모든 숙박업의 중심지였다. 종로가 조선인 숙박업의 중심이었고, 중구는 일본인 숙박업의 중심이었다.

1929년에 발간된 『경성편람』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서울 시내 여관 362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의 중구 관내에 있는 것은 모두 99개였다.[68] 그러나 경성편람에서 99개 모두 조선인을 상대하는 한식여관이었고, 남산동 · 회현동 등지에 소재했던 일본식 고급여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 일본식 여관은 거의가 요정도 겸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대좌(貸座)방(매춘)도 겸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들 일식 고급여관 중 유명한 것으로 남산정 3가의 파성관을 들 수 있는데 이토오 히로부미도 여러번 숙박했다는 것이다. 이 당시 명동 2가의 산본여관(山本旅館), 본정 2가의 포미(浦尾) 등이 고급여관이었다.

미쓰코시(三越)백화점 옥상 카페
-「사진으로 보는 서울(2)」에서

충무로거리(1930년대)

한국에 호텔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14년에 조선호텔이 시초이고, 이는 당시에 호텔을 짓게 된 동기는 구미지역 등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숙식할 서구식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되었고, 이는 당시 서울에는 개화의 물결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과 더불어서 서양인들의 우리 나라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들 외국인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교통편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는 만주에 러시아인이 만들었던 규모와 같은 근대식 호텔을 세우기로 방침을 정하고 총독부와 관리로 하여금 수 차례에 걸쳐 유럽의 일류호텔을 답사하여서 얻은 결과이다. 즉, 설비와 양식은 유럽풍을 택하되 외관은 한국과 일본풍이 가미된 호텔을 짓기로 하였고, 1913년 독일인 건축가 '게란데"의 설계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조선호텔이며 이는 국제수준의 관광호텔이었다. 현재의 명동에는 본정호텔이 본정 2가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객실의 반은 일본식, 반은 양식이었고, 식당은 양식이었다.[69]

(4) 문화인들의 집결지

1) 발 묶인 문화인들의 애환

시인 황금찬의 기억에 의하면 문예지 『문장(文章)』은 1939년에 발간되었는데 출판사는 전 화신백화점 맞은편에 있던 「한청빌딩」 2층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봉구를 위시하여 명동에 자리를 잡았으나 생활근거지가 없었다. 문예지는 1949년 남대문로 2가에 있는 문예빌딩 1층에서 발간이 시작되었다. 문예싸롱도 같이 문을 열게 되었다. 그때 많은 문학인들이 문예싸롱으로 모였는데 모윤숙, 노천성, 최정치, 김동리, 조연현,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김영상 그리고 명동의 백작이라고 했던 이봉구 등이다.

1 · 4후퇴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1953년부터 명동은 다시 예술인들의 터전이 되었다. 명동백작 이봉구는 명동의 역사를 1930년대 말에서 광복에 이르기까지와 6 · 25전쟁에서부터 1960년대 말로 구분하고 있다.

1954년경 문예싸롱과 그 옆에 있던 명천옥이 문을 닫자 그 식구들은 갈채다방으로 옮겨갔다. 거기는 새로 등단한 문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즉, 이범선, 박재삼, 송영택, 김상억, 김구운, 황금찬 등이었는데 이들을 현대문학파라고 했다.

자유문학을 중심으로 문인들이 모이던 곳을 동방싸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김광섭, 이헌구, 김송, 김용호, 조경희, 이문희, 박홍근, 장수철 등 많은 문인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성악가 임만섭이 자주 찾곤 했다.

그 무렵 금꿩다방은 화가들이 모이는 휴식처였다. 오후가 되면 화가들이 모이고 그들을 찾아오는 손님들, 그리고 외국에서 화상(畵商)들이 오면 이 다방을 찾곤 했다. 그때 많은 거래가 여기서 이루어 졌다.

그곳에 나오던 화가들은 대체로 손응성, 박수근, 장이석, 김형구, 이충근, 박항섭, 박창돈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명동에서 빠뜨리면 바다가 울 명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은성집이다. 호화롭진 않으나 정갈한 술집이다. 이 술집엔 각계 각층은 말할 수 없고 그저 모여드는 집이었다. 특히 이봉구는 이 집에서 특별 대우로 하루 몇 번이고 와서 술을 마셔도 돈을 받지 않았다. 은성집이 명동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명동이란 이름은 그리 화려하게 들어오진 않았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명치정에는 조선총독부가 3 · 1운동 후 문화정치를 펼쳤을 당시부터 한국 문인들이 자주 들러서 어려운 국난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애환이 서려있던 장소이었다. 그러나 광복되기 전에는 명동(明洞)이 암동(暗洞)으로 바뀌었다. 이는 일제가 다방과 술집을 모두 닫게 하고 외국이름이 붙은 간판은 모두 떼어버렸기 때문이다.

일제 때에도 많은 문인들은 명동거리에 모였는데, 1939년에 유치환은 만주를 향해서 서울을 떠났고, 만주로 간지 한참 후에야 신문지상에서 만주에서 보낸 그의 시「향수」가 발표되었다.

나는 영락한 고독의 까마귀
창황히 설한(雪寒) 의 거리를 가도
심사는 머언 고향의
푸른 하늘 새빨간 동백에 지치었어라
고향 사람들 나의 꿈을 비웃고
내 그를 증오하여 페리같이 버리었나니
어찌 내마음 독사 같지 못하여
그 불신한 미소와 인사를 꽃같이 그리는고
오오 나의 고향은 머언 남쪽 바닷가
반짝이는 물결 아득히 수평에 조을고
창파에 씻긴 조약돌 같은 색시의 마음은
갈매기 울음에 수심져 있나니
희망은 떨어진 포켓으로 흘러가고
내 흑노(黑奴)같이 병들어
이향(異鄕)의 추은 가로수 밑에 죽지 않으려 하니
오오 저녁 산새처럼 고향길은 어디메뇨

이런지 얼마 후 이육사도 유치환의 뒤를 이어 명동거리를 벗어나 만주로 가버리고, 서정주도 서울을 떠나 명동 친구들에게 가끔 편지를 보내왔다. 서정주의 편지는 명동의 남아있는 문인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나는 지금 글자 그대로 유야무야한 상태에 있다.
환경도 환경이리라. 그렇지만
벗아! 이 침투하는 정열은 어쩐 까닭이냐?
뼉다귀를 깎아먹으면서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벗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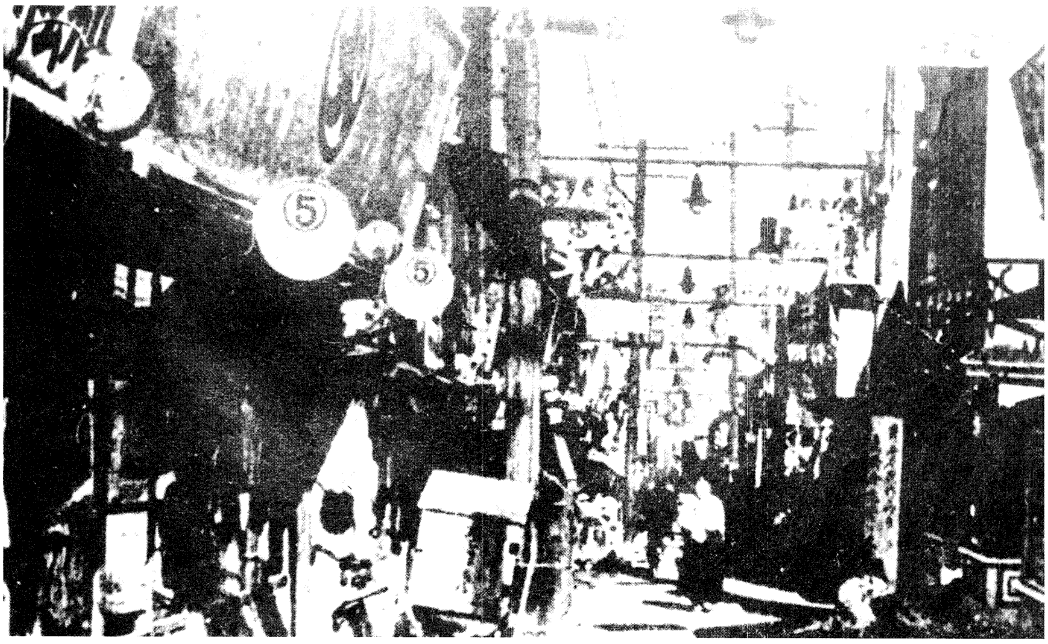
...

벗아. 사람이 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이라냐? 남국에 벌써 봄이 다 되었다.

어찌 나는 자구 울 것만 같구나!

명동의 명물은 봐그랑의 정식, 가네보의 양식, 가와쵸(川長)의 장어덮밥, 에도가와의 스키야키, 그리고 백룡, 노아-노아, 황혼, 오아시스, 라전구(羅典區) 등이 특색 있는 그릴과 티룸이었다. 많은 다방과 바도 폐쇄당하고, 막걸리 조차도 배급제도도 바뀌었다. 완전히 마지막 고지에 들어서자 명동거리도 황량해졌다. 유명한 문화인들의 얼굴도 하나 둘씩 날이 갈수록 사라져 갔다. 학병, 징용, 보국단, 강제공출, 예비검속으로……명동은 점점 무인지경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음악도 들을 수가 없고 산송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광복되기 3년 전 「삼사문학」의 기수 이시우가 징용에 끌려가게 되었다. 그의 친구 신백수



1930년대의 명동거리
-「명동야화」에서

는 징용을 피하려고 시골로 내려가 군청 고원(雇員)이 되어 국민복에 자전거 방울을 울리며 촌길을 달리고 있었다. 명동에서 술과 커피로 아침부터 자정이 넘도록 시간을 보내며 담배를 연거푸 피우던 이시우 앞에 징용장이 발부되었다. 당시 일정한 직장이 없이 무직인 사람이 제일 먼저 징용에 끌려나가는 것 같았다. 직장은 명동다방과 술집이요, 직업은 시인이니 무직과 다름없으므로 제일 먼저 징용에 끌려가게 되었다. 그래서 명동거리의 단골이며, 새로운 문학의 기수인 이시우는 밤차에 실려 짐짝처럼 일본 땅으로 떠나고 말았다.

조국 광복과 더불어 명동거리는 새로운 명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다시 명동이라는 옛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문을 연 다방이 봉선화라는 곳이었다. 김광균을 비롯해서 오장환 등은 광복 전에도 명동에서 살다시피한 시인이었다. 오장환은 서정주와 단짝이었다. 일제 때는 관훈동에 남만서방이라는 책가게를 내었다. 문학과 철학서적이 전문이었고, 절판, 한정판, 호화판, 진귀본, 구해 볼 수 없는 책, 구해보려 애쓰는 책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 또한 오장환은 이상과 함께 다방과 술집으로 돌아다닌 친구였다.

광복된 다음날 8월 16일 오장환이 병원에서 쓴 시는 에덴다방의 단골손님인 예술인과 신문기자들이 술에 취해 거나해지면 유행가처럼 곡을 붙여 부르기도 했다.[70] 이 당시 명동에서 광복날 해방의 감격을 목놓아 운 사람으로 김광섭을 기억할 수 있다.

2) 문화인들의 서식처

(가) 다방의 변모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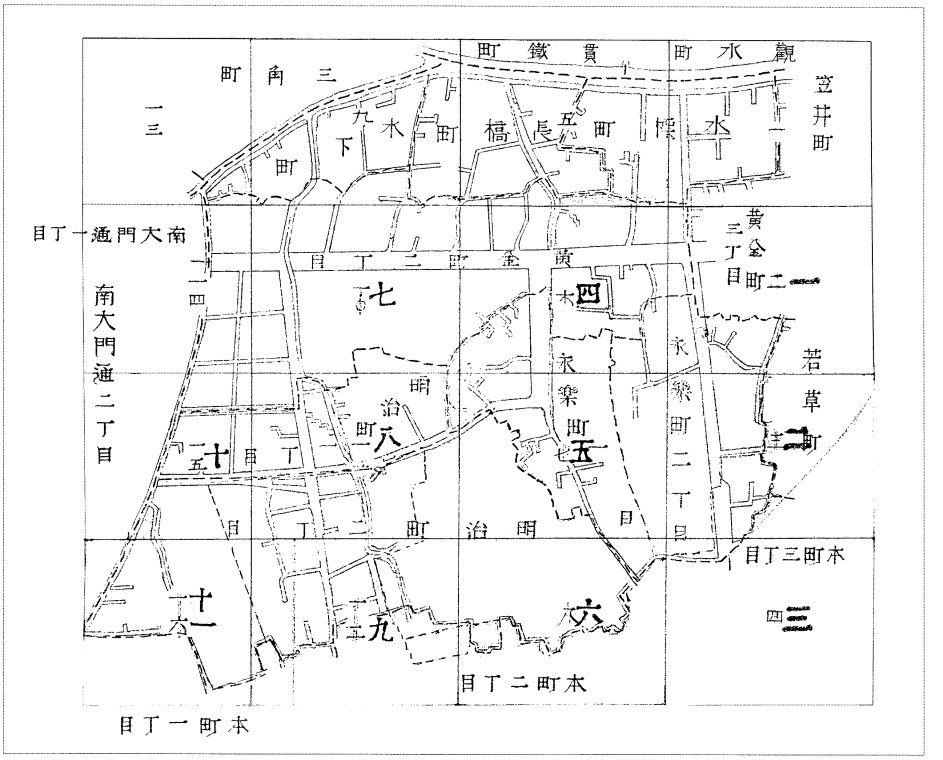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것은 고종 19년 (1882) 구미각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사신들에 의해서 궁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고종황제는 커피를 즐겼는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을 하면서 그곳에서 커피 맛을 들였다고 한다.

커피가 궁중의 전용물이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선을 보이게 된 것은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했을 때 거기서 고종과 민비의 수발을 들던 러시아공사의 처형이 되는 손탁양이 고종에게서 하사 받은 땅에다가 손탁호텔을 짓고 여기서 커피를 팔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어서 청목당, 조선호텔에서 일반대중들에게 커피를 제공하였다.

서울에 지금과 같은 형태와 기능을 갖춘 다방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3 · 1운동 후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생겨난 말이 '신식'이란 말인데 개화의 물결과 함께 서양의 문명이 고루 침투

되어 어느덧 이 땅의 젊은이들도 차를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1923년 명치정에는 이견(二見: 후타미)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이 문을 열었고, 이어서 본정 2정목에서 진고개 식료품점 귀옥(龜玉: 가메야) 안에 금강산이란 이름으로 다방의 문을 열었다. 이 두 다방은 일본인에 의해 문을 열었지만 서울의 다방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천재시인 이상(李箱)은 다방경영에 의욕을 갖고 있었다. 그는 여러 번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35년에는 명치정에 맥(麥:무기)이라는 다방 문을 열게 되는데 우리말로 보리라는 뜻이며, 무기다방은 명동에 다방이 밀집하기 시작하는 효시가 됐다. 이 당시에 영화연극인 · 화가 · 음악가 · 문인들이 여기 저기에다 다방의 문을 열었다. 이른바 서울에 다방문화가 활짝 꽃을 피운 셈이다. 당시의 다방은 영리(營利) 위주의 상업다방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유행되던 멋이었는데 그것은 다방 주인 자체가 문화인으로서 주로 영화감독, 배우, 화가, 음악가, 극작가, 언론인, 시인 등이고 손님 또한 이와 같은 계층이어서 이러한 풍토가 가능하였는지 모른다



명동일대 지도(1940년, 1/6,000)
-「중구청」 소장

1940년대를 전후에서 다방의 규모가 조금 커지기는 했지만 이때가 일제의 태평양전쟁의 말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방의 수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적인 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광복과 6 · 25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기였고, 이때까지 다방은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다방이 본래의 기능, 즉 차를 마시고 쉬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종합예술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대행하게 된다. 이를 확인한 구술(口述)과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의하면 광범한 분야에 걸친 문화활동이 다방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주로 그림 · 영화의 밤 · 문학의 밤 · 출판기념회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외에도 독립투사추모회 · 환영회 · 송별회 · 동창회 · 요리강습회 등과 같은 것도 열렸다. 다방이 본래 기능 이외에 문화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과도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나) 여인 소극장

광복후 명동에는 오화섭 · 박노경 부부가 여인 소극장을 이끌어 나갔다. 오화섭은 각본을 박노경은 연출을, 배우들은 그의 제자인 이화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일부였다. 조갑주, 이병복, 황경운을 멋지고 머리좋고 어여쁜 색시들이 「인형의 집」, 「라인강의 감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활동은 뛰어났다.

신상옥은 「악야」라는 영화를 감독하느라 「악야」의 작자인 김광주와 이 거리의 다방을 찾았다.

(다) 책가게와 신문 · 출판사

이 당시 명동에는 양품점이 셋, 구둣방이 셋, 보석상이 둘, 이 밖에 모두 찻집과 술집으로 형성되었던 때이다. 이채롭게 악기점과 레코드 회사와 화구점이 있었고, 장안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었다.

책가게는 일제 때 일본사람이 경영하던 고본상인 금강당 서점을 광복 후 그대로 물려받아 문을 열었다가 6 · 25전쟁 때 문을 닫고, 이보다 조금 전에 명동 초입에 문예서림이라는 신간 서적상이 문을 열어 이 거리의 체통을 지켜주었다.

일제 때에 서점 가메야는 제일백화점이 들어선 지점 근처에 있었는데 책방 주인은 일본여

자였다. 하지만 이 주인은 미야께라는 경성제대 교수의 부인이었다. 미야께교수가 한국학생들과 함께 반제국주의운동을 벌이다가 투옥되자 미야께교수가 소장했던 책들을 들고 나와 책방을 열었는데 명동을 드나드는 학생들과 문인들에겐 꽤나 인기가 높았다. 어쩌다 술값이 떨어져서 집에 있는 귀중한 책을 들고 나오면 책은 도로 주고 돈만 건네주기도 했던 일들과 비오면 가메야로 달려가서 우산을 빌려가기도 했던…그런 추억이 있는 맛깔스럽고 훈훈한 사람의 정이 있었던 명동이지만 광복되기 1년부터 암동(暗洞)으로 바뀌게 되었다.

광복 후 처음으로 문예서림은 「문예」, 「신인」 이라는 대중 오락잡지가 발간되었다. 사장은 김희봉, 편집책임은 김희창, 여기자는 조경희와 이은휘가 활약하였다. 이 집을 드나들은 사람들은 윤백남, 조용만, 웅초, 행인, 김내성, 박태원, 안철영, 정인택, 최정희, 이헌구, 최영수, 김기림, 노천명, 김광주, 정현웅, 정비석, 김용환, 김의환, 채정근, 문철민, 김환기, 윤용노, 김선영, 손소희, 오기영, 김기창, 김영상, 박성환을 비롯한 각계 각 부문의 사람들이 이 잡지에 집필을 하였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여기자 이은휘의 뛰어난 원고 청탁솜씨에 아무도 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필하게되고 원고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국제신문」은 새로운 스타일, 참신한 편집을 가지고 새로 발간된 신문이었다. 주필에는 송지영, 편집국장에 정국은이며, 이 신문에서 「민족문학의 새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김동석과 김동리의 대담을 실어서 독자들의 인기를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출판사는 장만영이 산화장이라는 출판사를 내고 호화판 시집을 발간하고 있어 신인들의 얼굴이 비엔나에 많이 나타났다. 대지 근처에 수선사(首善社)라는 출판사가 생겨 이를 중심으로 백철, 계용묵, 정비석, 허윤석 의 얼굴이 명동거리에 보였다.

문인들의 사랑방이었던 문예싸롱 빌딩
-「명동야화」에서

대지는 아래층은 양품점이고, 2층은 주인인 박거영의 손님을 치루는 곳이었다. 대지 2층은 매일 밤 많은 사람들로 떠들석하였다. 최인규, 김영수, 박계주, 최영수, 이용악, 이병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떠들어댔다.

일제 때에 가져다 준 풍물은 미풍(美風)으로 오고가는 대접이 아니라 먹는 것의 대부분이 모두 이해관계가 개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요정은 나날이 그 수가 늘어가고 있었다. 또한, 그 당시 차는 홍차와 기타 인삼차 같은 한방차도 있었지만 대개는 수입된 커피가 주종이었고, 찻잔 또한 외국산으로 모두 고급스러웠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당시는 다방출입이 문화인의 필수조건이었고 다방은 문화의 산실이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다방이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시 지식인들이 다방을 통해 우리 문화에 끼친 공적도 물론 있겠으나 지나친 서구 취향으로 말미암아 1,4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고유의 작설차 같은 것과 한때 세계에 자랑하던 도자기 공예를 모두 잃어버린 허물도 잊으면 안될 것 같다.

(5) 천주교와 명동성당

1) 천주교회의 창설

천주교가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인조 21년(1643)의 일이었다. 그후 천주교가 점차 성행하게 되자 숙종 12년(1686)에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였고, 영조 34년(1758)에는 황해도 · 평안도지방에 금교(禁敎)를 엄명하였는가 하면, 정조 15년(1791, 신해)에 진산(珍山)의 윤지충 등이 조상의 제사를 폐한 일을 추궁하여 목을 베는 동시에 천주교를 사학(邪學)으로 단정, 중국으로부터 그에 관한 일체의 서적을 들여오지 못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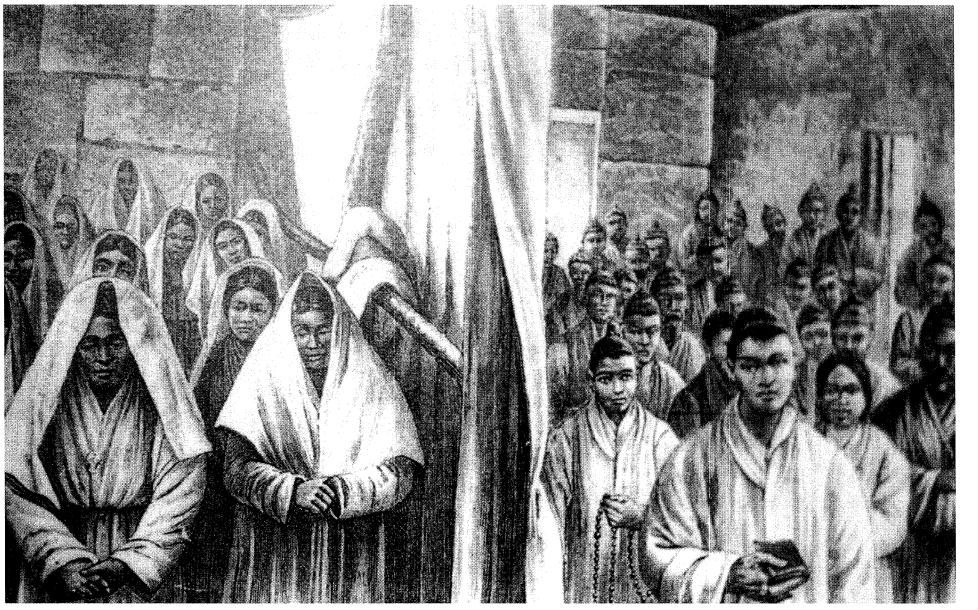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교세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자 순조 1년(1801, 신유)에 이가환, 정약종, 이승훈 등 여러 명의 유학자 출신 신도들을 사형하고 전국 8도에 명하여 금교를 철저하게 하던 중, 중국 신부 주문모가 숨어 들어와서 포교하는 것을 체포하여 처형하고, 그 무렵 주문모를 맞아 들였던 황사영이 프랑스의 간섭을 요청하는 '백서(帛書)사건'이 발생하자 역시 대역죄로 다스렸다.

헌종 5년(1839, 기해)에 프랑스 신부 앵베르, 모방, 샤스탕 등이 숨어들어 온 후로 교세가

점차 확대되자 그들 역시 잡아 사형에 처하고, 서울의 신도 150여 명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래도 전교하러 들어오는 프랑스 선교사가 끊이지 않자 철종 때에 이르러서는 교인 2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 중에는 궁궐 안의 유모 박씨 전승지, 남종삼, 홍봉주, 이신규 등 양반계급에도 차츰 신자 수가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 정조 15년의 천주교 탄압을 신해박해라 하고, 순조 1년의 일을 신유, 헌종 5년의 일을 기해, 고종 3년의 일을 병인 박해라고 하여 통틀어서 '4대 박해'라고 하는데 병인 박해에 대해『경성지략』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 사람 베르뉴 주교가 남종삼 집에 숨어 있음을 알고 대원군은 즉각 금교령을 내려 종삼 및 그 가족 20여명과 베르뉴를 잡아서 여러 차례 심문 끝에 베르뉴 등 프랑스 신부 9명을 3월 8일에 형장에 끌어내어 목을 베어 남종삼, 이신규 등은 종로에서 목을 베었다. 이 때 시골에 펴져 있던 신도들도 서울까지 끌려와서 목이 잘린 이가 무려 2만 명으로 그 시체가 수구문과 동대문밖에 산같이 쌓인 참상은 프랑스 파리의 성 바르톨로뮤 학살 이후 처음 있는 큰 사건으로 친다.



개화기때 남여구별로 미사참배
-「사진으로 본 백년전의 한국」에서

천진암 강론에 앞장 선 이벽의 영향을 받고 이승훈이 입교(入敎)를 결심, 중국 북경의 남천주당에서 한국 최초로 영세자가 되어 성서와 성물(聖物)을 가져온 후로 스승 이벽도 그로부터 영세를 받아 명례방 이곳 김범우 집을 교회로 삼아 강론과 선교를 통해서 자생적인 교세 발전에 이바지하였다.[71]

명례방 공동체는 1785년 봄에 형조의 사령들에게 적발되어서, 김범우는 유배되어 사망하게 되었던 사건이 유명한 「을사 추조 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이다. 이는 명례방 공동체가 와해되는 계기가 되었고, 명동지역은 오랫동안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2) 명동성당과 주교관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새로운 서양학문의 단계에서 1784년 종교적인 신앙집회가 열림으로써 조선 천주교회가 창설된 것이다. 명동지역은 1830년대 이후 선교사들이 은거하며 비밀리에 신앙을 전파하던 선교의 중심지였고, 1845년 조선에 돌아온 김대건 신부가 숨어서 활동하던 곳도 명동성당과 이웃한 석정동이었다.

이와 같이 유서 깊은 자리에 교회당국은 천주교의 중심적인 건물을 세우기 위해 이 부근의 땅을 매입하였고, 조정에서는 조선조 역대 왕들의 어진(御眞)을 모신 영희전(永禧殿)의 풍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하여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말 한국에 파견되어 온 프랑스 선교사 코스트신부에 의해 벽돌 생산이 성공함에 따라 일련의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그 첫 건물이 바로 주교관이다.

이 건물은 1888년 7월 이후에 착공되었다. 이 건물에 대해 당시 파리 외방전교회(外邦傳敎會)의 연말보고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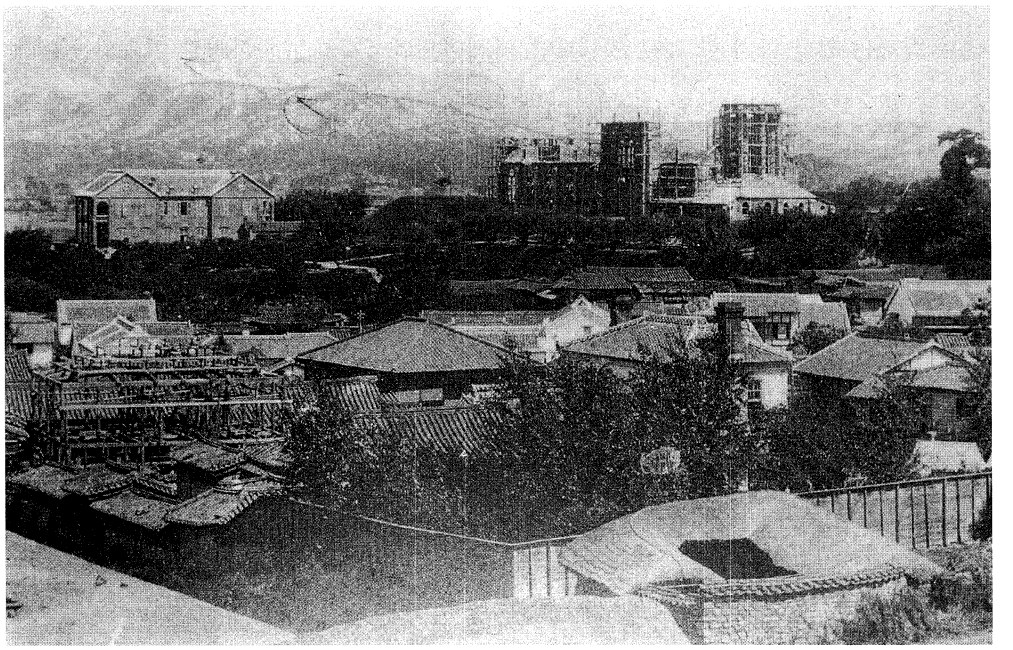
> 올해 코스트 신부는 건축가가 되어서 포와넬 신부와 함께 주교관 겸 경리부 건물의 건축공사를 지휘하였다. 2층 선물인데 비록 매우 수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조선인 교우 모두는 이를 감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건물이 명동성당 경내에 처음 세워진 첫 작품이었다. 이 건물은 완공 후 교회행정의 중

심적 기능을 갖게 되었고, 명동성당을 비롯한 각종 교회건물이 설계되고, 그 공사를 지휘하던 곳으로서 대한제국 말 주요 양식건축의 산실이었다.

명동성당이 자리잡은 곳은 한국 천주교회 초기 공동체가 이룩된 김범우의 집이 있던 명례방 장악원 옆의 종현 언덕으로 경사지 구릉의 산봉우리를 깎은 정상부에 한국 교회의 상징처럼 우뚝 서있어 주위에서 확연히 드러나므로 옛날에는 이를 뾰족집이라 불렀다. 서양식 교회건축양식의 수용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프랑스인 코스트 신부에 의해 설계되고 감독되었으며 중국인 벽돌공과 미장이 목수 등이 동원되었고, 벽돌이 공급되었다.

평면구성은 라틴 십자형 삼랑식인데, 1층 평면상에는 악랑의 돌출이 적어서 바실리카식(Basilica) 장방형에 가까우나 익랑의 상부에서 공중회랑(Triforium)이 끊어짐으로써 내부공간과 지붕외관은 완연한 라틴 십자형을 이루고 있다. 성당의 내부는 6개의 회중석 베이(Bay)와 교차부, 2개의 성단(Sanctuary)베이와 앱스(Apse)로 구성되고, 앱스 주위는 제의실로 쓰이고 있는 보회랑(Ambulatory)이 위치한다. 성단과 보회랑 하부에는 지하성당(Crypt)이 설치되어 있다.



명동성당 종탑공사(1894년)
-「사진으로 본 백년전의 한국」에서

남대문에서 바라본 명동일대(1902년)

내부 벽체는 횡단 아치 한 개로 지지되는 아케이드와 4개의 뾰죽아치로 연속되는 어두운 공중회랑 및 2연장의 광창으로 구성되는 3층 벽면 구성이며, 천장은 목재에 의한 교차 리브 볼트(Rib vault)로 되어 있다. 내부 열주(列柱)의 족주(Clustered Pier)는 로마네스크양식으로 둔중하나 기둥 중간에 돌출 장식이 없이 천장 리부에 연결되어 중량감을 약화시키고 수직의 상승감을 높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내부공간의 구성은 각 창의 스체인글라스와 함께 고딕적인 공간을 빚어내고 있다.

원래 고딕양식은 석조에 의해서 그 정교함을 나타내지만 명동성당에서는 적색과 회색의 이형(異形) 벽돌을 써서 풍부한 장식이 섬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부공간의 고딕적 분위기에 비해 단순한 외관과 견고한 벽체, 분절적 구조의 노출 등 구조체계와 공법은 로마네스트양식에 가깝다. 1898년 축석 되었고, 건물 폭 29m, 길이 68m, 면적 427평, 종탑 높이 46.7m에 이른다.[72]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중구 지역만큼 천주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지역도 드물다. 왜냐하면 조선후기 천주교가 새로운 양식으로 수용되고, 정조 8년(1784) 한국천주교회가 창설

된 이후 남부 명례방이 천주교 신자 집단의 활동 근거지가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화기에는 명동에서 한국 최초의 본당이 설립되면서 현재까지 한국천주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명동은 1911년 조선교구로부터 대구교구가 분리되기 전까지 천주교 활동의 구심점으로서 그리고 이후에는 서울교구의 구심점으로서 한국 천주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명동 2가 1-8번지에 위치한 명동성당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주교좌(主敎座) 성당으로서 사적 258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경지략』 각동 조에는 '종현(鐘峴)은 예로부터 북을 달아 두었던 곳이었기에 종현이라 한다' 하여 그에 덧붙여 형조의 『추관지(秋官志)』를 참고하여, '서울 도성 안 남쪽 언덕에 임금께 간하는 신호 삼아 치는 간고(諫鼓)를 달아 놓고, 그 서편 다리에는 간하는 내용을 적는 방목을 설치하였다. 때문에 순조 연간까지도 그 다리를 방목교라 하였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이곳은 한성부 초창기부터 남현 또는 북고개하고 불러오다가 임진왜란 이후로는 종현으로 널리 불렸다.

그 사연이 『유한잡록』에 자세히 전한다. 즉 선조 26년(1593) 계사년 여름에 왜군이 서울에서 물러가고 그해 겨울에 임금이 환도한 후, 다음 해 가을에 남대문 안 평지에 놓아 두었던 남대문종(원래의 원각사종)을 버팀목에 매달고 아침 저녁으로 쳐서 파루와 인정을 알리니 도성 사람마다 그 종소리를 듣고 슬퍼하고 한편으로 기뻐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선조 30년(1597) 겨울에 명나라 경리 양호가 이 종을 명례방 남현 마루턱에 옮겨 달고 파루와 인정을 알리게 하였다. 그후 광해군 때에 종로 네거리 제자리에 종각이 복원되기 전까지 종소리는 10년 남짓 이곳 북고개 마루턱 높은 곳에서 장안 낮은 지대로 울려 퍼졌다.

『한경지략』 각동 조에,

… 종현 산맥이 남쪽에서 뻗어 와서 도성 안 가운데로 불쑥 솟았는데 그런 가운데 상대, 중대, 하대의 삼대를 이룬다.

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만 해도 명동 언저리는 세 층으로 구분되었던 듯 싶다.[73]

명동성당이 자리잡은 명동일대는 명례방으로 불리우던 곳으로, 1784년 우리 나라에 천주

교 신앙이 수용된 직후부터 천주교 신도들의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곳이다. 이 부근 일대에서 이승훈(李承薰)은 이벽(李檗)에게 세례를 주었고 명례방의 장악원 앞에 살던 김범우의 집에서도 신앙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집회는 1785년 「을사추조적발사건」으로 말미암아 해산되었고, 김범우는 단양으로 유배되고, 그곳에서 순교하였다. 또한 이 일대는 1830년에 이후 선교사들이 은거하며 비밀리에 신앙을 전파하는 선교의 중심지였고, 1845년 조선에 돌아온 김대건이 숨어서 활동하던 곳도 바로 오늘날 명동성당에 이웃한 석정동이었다.[74]

이 지역은 천주교와 인연이 있기 이전, 이조판서 등의 벼슬을 지내다가 1847년에 세상을 떠난 윤정현의 집이 있던 곳이다.

황현(黃玹, 1855~1910)은 그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명동성당(구 종현성당)의 유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남부의 종현은 명동과 저동 사이에 있는데 지대가 높고 조망이 좋은 곳이다. 윤정현의 집이 그 마루턱에 있었는데 10여 년 전 서양인이 이를 구입하여 철거하고서 평지를 만들어 교회당을 세워 6년만에 공사를 마쳤다. 집이 높다라니 우뚝하여 산을 자른 듯한데 낮이나 밤이나 남녀 영세자들이 북적이니 마치 저잣거리 같다.

(南部鐘峴 在明洞苧洞之間 地壟塏便眺望 尹定鉉舊第 據基顚 十年前 洋人買而毁之 作平地 築教堂 六年乃畢 穹然類斷山 可容數萬人 世所謂鐘峴學堂者也 男女領洗者 晝夜吊沓 如歸市)

윤정현은 헌종, 철종, 고종의 3대에 걸쳐 벼슬을 역임하였다. 윤정현은 그 말년에 이르러 극도의 생활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고종 11년(1874) 6월 9일에 정부는 그의 아들 윤태경에게 이 땅을 하사하였다 한다.

부지 매입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으나 늦어도 1883년까지에는 현재 명동대성당의 부지 일부가 교회의 손으로 들어오게된 것 같다. 이 종현성당의 주인은 전부인 교회장이었던 김가밀로였다. 그의 부인은 이들 유학생을 위하여 의복까지 새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 김가밀로는 곧 종현성당 부지의 명의상 주인이었으며, 이를 매수한 원주인이 교회였을 것이다.

종현의 언덕지대는 이와 같이 일찍부터 천주교인에게 착목되어 늦어도 1883년까지에는 김가밀로의 명의로 매수되기 시작하였고, 교회가 부지구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1886년의 한불수호조약 비준 전후 무렵으로 추정되며 1887년에 거의 완료되었다. 1888년에는 정부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억류로 말미암아 국유지 및 풍수지리설 논쟁에 걸친 대지 분쟁이

1890년 구정 무렵까지 계속되어서 그 이후에 새로운 대지 구입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지의 구입은 1888년 전에 충분히 끝난 것으로 보인다.[75]

명동성당은 1898년 5월 28일 성혼강임대축일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1892년부터 1898년까지 6년 동안에 걸친 공사에 소요된 직접 경비의 총액은 모두 6만 달러(150만냥)로 보고되고 있다.

명동성당의 규모는 총 길이가 68.25m, 폭 29.02m, 건물높이 23.43m, 십자가를 제외한 종탑 높이 46.70m 이며, 건축면적은 427.14평이고 연면적은 612.61평이다.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조 교회당이며 국내 유일의 순수한 고딕식 구조를 갖춘 건물이다. 건물 형태 배치는 정북에서 30.5°서쪽으로 기울어진 북북서측에서 입구를 내었고, 평면형은 라틴 십자형 삼랑식으로 되어있다. 구조방식은 벽돌조로서 일반 벽체기둥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 목구조부로는 지붕의 트러스트 구조, 내부의 궁륭천정구조, 종탑의 종지지(鐘支持)구조와 뽀족탑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벽돌구조의 세부는 붉은 벽돌과 다양한 형태의 회흑색(灰黑色) 벽돌로 구성되어 있다. 입면의 구성에 있어 주요 창과 개구부에는 여러 가지의 뽀족 아치로 되어 있고, 주요 창의 윗부분은 판격자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창을 구성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건축당시의 건물의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주제대(主祭臺)는 대리석으로 제작되었다. 종탑은 주현관 부분, 파이프, 오르간실, 시계실로 이루어진 잡신부와 종루부 그리고 상부의 뽀족탑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뽀족탑 부분은 박동, 아치, 작은 뽀족탑 등의 고딕적

명동성당의 내부

장식요소가 풍부하게 구사되고 있다. 그후 1925년, 1938년 1947년, 1963년 등에 걸쳐서 대구모의 보수작업이 시행되었다.[76]

일제 때 북한산을 등진 백아(白亞)의 조선총독부청사와 남산을 등진 고딕양식의 장려한 명동성당이 여러가지로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건축양식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구심점이라는 측면에서 정신적으로 위압감을 조성하였다. 일제 36년 동안 한국의 선남선녀는 신앙을 불문하고 마음의 안식처로서 명동성당을 찾았으며 가혹한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정신적인 구원을 잠시나마 얻기도 하였다.[77]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당시의 북쪽은 종로를 중심으로 동명이 붙은 한국인 거리인데 반해, 남쪽은 본정(本町)을 중심으로 일본식 정명(町名)의 일본인 거리였다. 이는 서로 감시라도 하듯이 공포의 상징인 총독부청사가 들어서 있는 반면, 남쪽은 영혼의 상징인 고딕성당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 또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본당의 활동분리와 교세확장

명동 본당에 두세(Doucet)신부는 약현공소에 신자수가 나날이 증가하자 1891년 뮈델 주교의 허락아래 남대문밖에 새본당을 설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성당 건축을 시작한 시기는 명동과 약현이 거의 비슷하였지만 명동 대성당은 규모도 큰데다가 여러 가지 기술과 자재가 필요했으므로 그 완공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지만 약현 성당은 1893년 코스트 신부의 지휘하에 완공하였고, 그 해 4월 23일에는 뮈델주교의 집전으로 축성식을 갖게 되었다.[78]

명동과 약현본당의 신자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선교사들은 전교활동에 어려움을 느껴 이들을 방문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하였다. 명동본당의 초기교세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79] 이에 따라 1930년대까지 여러 개의 교구로 분할되었다.

한국인 신부들도 여러 명이 탄생하여 1910년에 15명이었던 것이 1932년에는 78명으로 증가하였다. 일제 말기인 1942년에는 일제 총독부가 일본인 교구장 임명을 추진하려 하자 라리보 주교가 교황청에 노기남 신부를 후계자로 추천하였으므로 한국인 최초의 주교이자 10대 서울교구장에 임명되었다. 그 이후 노기남 주교는 명동 주교관에 거주하면서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는 동안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그 동안 한국의 각 교구에서는 교세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학교·양로원·고아원을 운영하

였다.

그리고 순교자 현양운동은 명동 본당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일제강점기, 광복을 거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이와 함께 명동의 시복재판소에서는 1900년 이후 그 자료수집과 시복 추진사업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25년에는 1차로 기해 · 병오 순교자 중 79명이 복자품(福者品)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43년 뒤인 1968년에는 병인 박해의 순교자들 중 24명이 복자품에 오르게 되었다.

또한 명동교회사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은 한국교회의 초기의 의료사업이 명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본래 카톨릭 의료활동은 이전부터 시약소(施藥所)나 무료진료소 형태로 각지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1899년에는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에서 명동에 무료진료소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그 필요성 보다 그 활동이 미약한 상태였다. 후에 1931년 경성교구 청년연합회를 중심으로 병원 설립 운동이 일기 시작하였다.[80] 이는 라리보 신부의 강한 희망이 작용하였고, 그 결과 1936년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라리보 신부는 이후 교구장에 오른 뒤인 1935년 3월 11일 명동성당 앞에 있던 무라가미병원을 매입하여 제반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듬해인 1936년 5월 11일 마침내 병원을 개원하였다. 한국 카톨릭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정식병원이었다. 당시에 성모병원은 병실수 24개, 의사 4명, 간호원 10명의 작은 병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가 찾았으며, 일제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뢰를 받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81]

국립극장 앞에서 올려다 본 성모병원(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성모병원은 광복이후 나름대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병원측 뿐만 아니라 서울교구의 성직자 · 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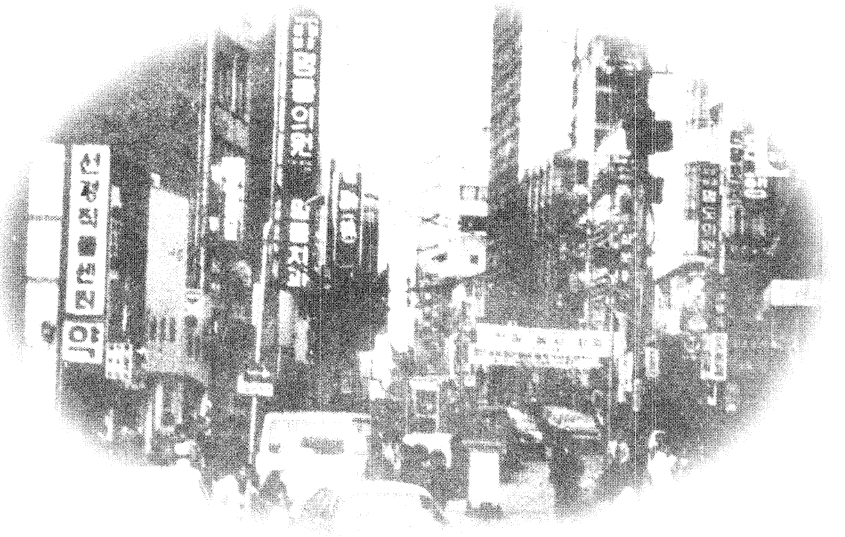
들이 모두 희망하는 일이었으며, 일본인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의료기관이 부족하게되어 일반 사회에서도 긴급히 요구되는 사업이었다.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자동차를 지원 받아 이동진료를 개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1946년 9월 23일에는 중구 저동 1가 2번지에 있던 건물을 인수하여 자선진료와 함께 입원 분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모병원의 개원과 성장은 한국 카톨릭의 의료활동에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후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의료활동이 전기를 마련한 것은 성신대학(聖神大學) 안에 의학부를 설립한 이후였다.

〈 김일림(金逸林)〉

Ⅲ

광복 후의 명동



제3장 광복 후의 명동

(1) 감격과 환희의 거리, 명동

일제 때에는 이른바 일본천황이 내려준 신성한 옷이라는 군복의 단추 하나, 실 한 오라기만 풀어져도 불경죄(不敬罪)에 걸린다고 호통을 치던 군복이 시장 바닥에 딩구는 등 이 무렵에는 일본색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성인 남자들은 짙은 카키색의 국민복에 각반을 치지 않으면 일본순사들에게 '비국민'이라는 취급을 당하였으므로 명동에 패션문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 동경의 번화가 은좌(銀座)의 구미풍(歐美風)의 유행은 부산

중무로를 누빈 경성제국대학 조선학생들
-「명동야화」에서

넝마주이가 지나는 명동거리(1966년)
-「명동20년」에서

을 거쳐 명동과 충무로에 바로 상륙하였다. 또한 새까만 망토와 사각모를 쓴 대학생들이 외국 원서를 옆에 끼고 명동과 충무로를 좁다고 거드럭거렸으나 대학생은 기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82]

태평양전쟁 말기에 미국 B-29폭격기가 서울 하늘을 날아오자 흰옷을 입은 한국인들은 미군기가 절대 폭격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명동거리에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놀란 일본순사들은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시커먼 먹물총을 쏘아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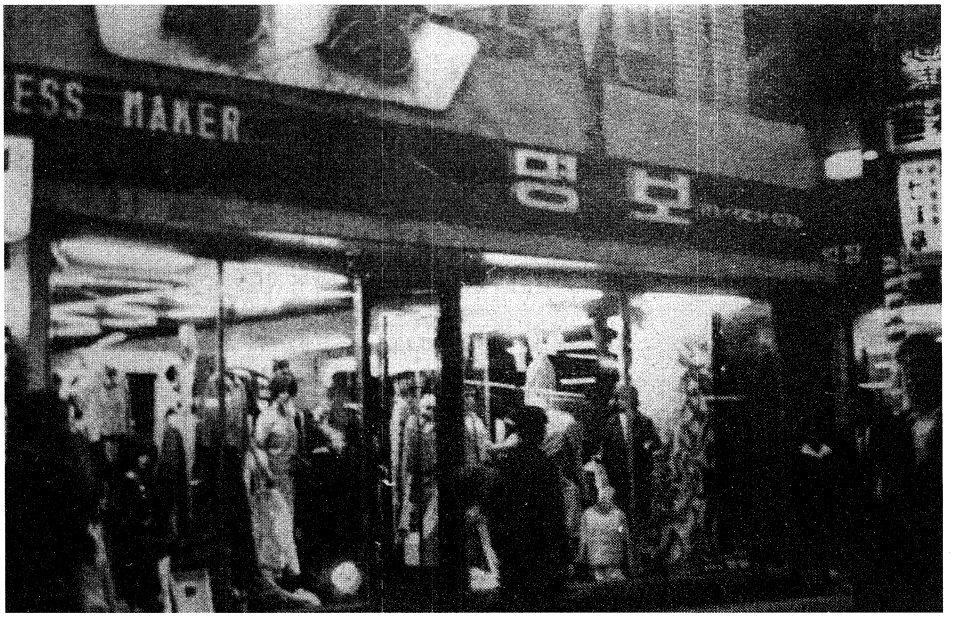
광복이 되자 일본인들이 신었던 지까다비(버선모양의 신발)가 사라지고 미국 해군 단화와 헬미트가 점잖은 명동신사들의 차림으로 등장하였으며 양복가에서는 마카오시대가 막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 마카오 양복지는 중국 사람들이 홍콩과 마카오를 왕래하면서 조금씩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 나중엔 밀수품 가운데서 가장 인기높은 품목이 되었다. 이에 명동 신사들은 비싼 마카오 양복을 걸치려고 명동의 양복점을 찾는 이들이 줄을 지었으므로 양복점들은 호황을 누렸다. 이리하여 명동과 충무로에는 수많은 양복점들이 다투어 문을 열었다. 이 당시 명동에는 마카오양복지로 티룩(T-Look) 패션의 양복을 해입고, 광이 나는 미해군장교 단화

를 신은 뒤 '럭키 스트라이크'를 꼬나문 신사들이 거리를 휘저었다.[83] 명동입구와 충무로에는 싸구려 군복시장이 섰고, 하오리 비단이 헌옷가게에 걸렸다.

광복 후 명동은 상점들보다 다방과 술집이 더 많았다. 오랜만에 다방에선 진한 커피 향내 속에 음악이 우려 나왔고, 술집에서는 슬기로운 논쟁과 멋진 주정이 터져 나왔다.

이 무렵 신사들이 즐기던 유행 옷은 미국 스타일인 티룩(T-Look)이었다. 티룩은 어깨가 넓고 깃이 가슴을 꽉 메울 만큼 넓은 자켓에 바지는 홀태여서 넓적다리와 그 윗부분은 헐렁헐렁하고 바지부리는 좁았으며 바지 아래는 접어서 입었던 모양새였다. 이 티룩의 유행은 제2차 세계대전 뒤부터 유행되었다.

광복 전의 한국여성들은 전쟁 중에 입던 「몸빼」라고 하는 바지에 블라우스를 입는 정도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몸빼」와 간단복을 벗어 버리고 전후의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옷차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세계적인 유행은 볼드 룩(Bold Look)으로서 볼드 룩은 제2차세계대전 중부터 계속되어오던 활동적인 스타일로 높은 어깨와 허리는 보통 정도로 가는 편이고 스커트는 활동하기 알맞은 정도로 짧은 군복스타일의 밀리타리 룩(Military



비너스다방 옆 양장점(1966년)
-「명동20년」에서

Look)으로 이것은 아워글라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이다.[84]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패드를 넣은 높은 어깨에 남성적인 느낌이 드는 자켓과 타이트 스커트를 입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여성들은 양장과 한복을 겸용하였고 나이가 많은 층에서는 여전히 한복을 고수하였다.

1945년경 서울의 18세부터 45세까지의 여성 1,716명 중 한복만 입는 사람이 24.5%, 양복만 입는 사람이 34.6%, 한복과 양복을 겸용하는 사람이 40%였다는 기록도 있고,[85] 또한 이 당시 우리나라 전체 성인여성 20~50세까지의 1%만 양장을 착용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86]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여성은 양장을 빨리 받아들였으나 전국적으로 본다면 양장의 보급이 늦었다고 보겠으며, 이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여학생의 교복착용이 서울의 양장 수용도의 비율을 높인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광복 후 1947년에는 프랑스의 디자이너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가 발표한 뉴룩(New Look)이 우리나라에도 유행하였다. 뉴룩은 전후 스타일과는 매우 다른 스타일로서 좁은 어깨에 꼭 끼는 허리, 스커트는 밑으로 퍼져 나가며 매우 길어진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여성적인 우아함을 나타내어 주는 형태이다.[87] 이때부터 어깨는 점점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졌다.

1948년에는 길이가 길고, 밑으로 넓게 퍼져나간 플레어(Flare) 스타일의 빅 코우트(Big Coat)가 등장하였고 이 풍성한 코트는 몇 년간 계속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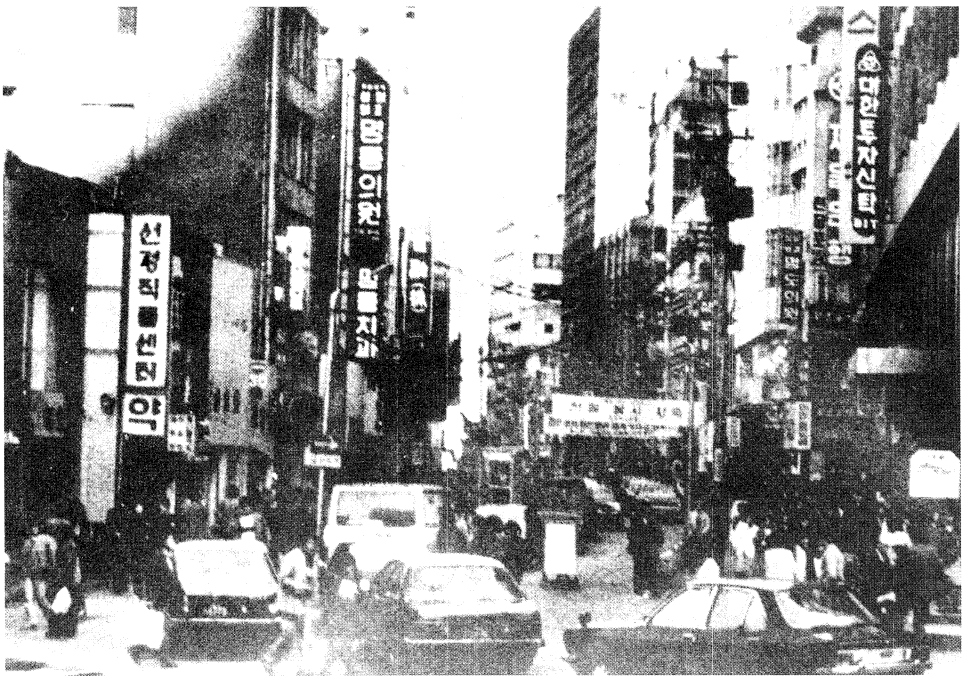
이와 때를 같이하여 '슈산 보이'라는 구두닦이 직업도 신종으로 등장하였으며, 또 유행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양복점도 등장하였다. 이들 양복점은 멋쟁이들이 나다니는 거리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는데 그 이름을 라사점(羅紗店)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당시 여자옷 만을 전문으로 하는 양장점이 몇 집 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사점에서 양장점을 겸하기도 하였는데 마카오에서 얇고 부드러운 모직 외투 감인 빨간 멜돈이 들어왔으나 남성 옷감으로 팔리지 않자 빨간 옷감으로 바지를 지어 입으면 액땜을 한다는 풍문을 퍼뜨려 여자들이 라사점으로 몰려들었으며 점차 여자들의 속바지로 널리 유행되었다.[88]

광복이 될 때까지 서울의 상업지역과 상가들은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를 중심으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광복이 되면서 서울시내 전체가 시장으로 화하여 물자의 사태(沙汰)를 이루었다. 군수물자의 유출, 전시에 퇴장(退藏)했던 물자의 방출, 쫓겨가며 귀국하는 일본인들의 물자방매(物資放賣) 등으로 각종 물자들이 길거리를 메웠다. 이러한 물자의 매매는 일제말 방

공(防空)건축규칙에 의해 철거된 소개지(疎開地)에 행정적 공백을 틈타 자리를 잡았고, 이들 불법노점 및 불법건물들은 각종 물자의 소매는 물론 음식물과 중고물품을 파는 등 우후죽순격(雨後竹筍格)으로 발생하였다. 미군정청의 행정이 궤도에 오르면서 이들을 일부 정리하였으나 커다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특히 도심지대에 무허가 노상점포가 늘어가고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도로용지의 잠식현상이 심하여 수도경찰청의 단속과 철거도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비극적인 전쟁의 경험과 핍박한 생활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당시 사회, 특히 광복 이후 급격하게 정신적인 뿌리, 향토문화의 뿌리를 상실한 서울은 미국 대중문화가 가장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당시의 우리 사회는 기본적인 경제구조가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웠고, 급격히 밀려드는 외국문물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었다.

광복 후 미군의 진주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로 편입됨에 따라 석 ·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



미도파백화점에서 본 명동입구(1982년)

학 외에도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또는 향상을 꾀하는 단기 내지 중기의 연수 외에도 미국 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나 자격 또는 업적 획득을 위한 방편으로 미국을 떠나거나 떠날 꿈을 꾸는 숫자가 날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미국유학은 하나의 유행이었고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출세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다.

교육을 통해서도 미국문화가 우리 사회 저변에 파고드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교육의 제도적인 측면과 교육내용에 있어서 미국적인 방식을 따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각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식인들의 유학을 통해서도 미국적 사고방식이 스며들었다.

이 당시 미국문화가 물밀듯이 유입되었다 해도 우리 나라는 아직 일본문화를 일소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만큼 일제침략기간 동안 일본문화는 우리 생활의 근저에 깊이 침투해 있었다. 미국문화의 유입, 일본문화의 잔재, 그리고 일본을 경유하여 일본문화를 통해 굴절된 미국문화의 유입 등은 정치,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마찬가지의 문화적 공백상태에 있었던 우리 나라,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시민생활과 의식에 혼란, 즉 문화적 혼란을 가져왔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원조경제의 성격도 미국문화의 유입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당시 미국 원조는 대부분 현금이나 자본재가 아닌 소비재, 구호물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들이 시중에 퍼지게 됨에 따라 외제물건에 대한 선호(選好)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물질문명과 문화에 대한 국민의 동경심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이들 원조물자 외에도 피엑스(P · X) 물건과 밀수품 등 여러 경로를 통한 외제물건들이 시중에 나돌게 되었는데, 이들은 당시 급성장한 서울의 시장을 통해 공공연한 비밀로 거래되기도 하였다.

광복 전과 달리 세모(歲暮)에 느낄 수 있는 풍경은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 것과 성탄절이었다. 크리스마스가 일반 대중에게 많은 관심거리가 되었고, 미군정 때부터 미국식 일색(一色)의 카드로 일변되다시피 하였다. 이 당시 미제 크리스마스 카드는 대개 표지에 설경(雪景)이나 빨간 모자에 털옷을 입고 검은 가죽 장화를 신은 산타클로스의 그림이 색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1947년 여름에 몽양 여운형(呂運亨)선생이 암살되자 명동의 다방이나 술집은 그 충격으로 술렁거렸다. 이듬해 1948년에 새해를 맞으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양품점 세 곳, 구두방 네 곳, 보석상이 두서너 군데, 그리고 술집과 다방만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는데 이채롭게도 악기점과 화구상, 레코드점이 들어섰다. 전일의 명동 제일백화점 뒷편에 동해탕이란 목욕탕도 문을 열어 밤새 술마신 문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일제 때부터 명동에는 유일한 고서점인 금강당이 있었고, 명동 입구 (전일 코스모스백화점) 앞에 문예서림이란 신간 서점이 문을 열어 광복 후 처음으로 『신인』과 『문예』라는 대중오락 잡지를 발간하였다. 당시 이 잡지의 편집 책임은 김희창, 여기자는 조경희와 이은휘가 맡았다. 이 두 잡지가 문예서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작가 윤백남 · 김래성 · 정비석, 화가 코주부 김용환 · 이승만 등 많은 인사들이 드나들었다.[89] 문예서림 주인 김희봉은 광복 직후부터 1980년대까지 명동에서는 유일하게 서점을 내고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금싸라기 땅값의 명동에 잘 팔리지 않는 책방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었던 것은 명동을 사랑하는 마음과 오기(傲氣)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는 요정과 다방의 범람이다. 요정의 범람은 일제와 6 · 25 전쟁이 가져다 준 풍물이었다. 미풍(美風)으로 오고가는 대접이 아니라 먹는 것의 대부분이 모두 이해관계가 개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요정은 나날이 그 수가 늘어가고 있었다.

1945~1948년 당시의 다방은 시민의 유일한 위락장소이며 사교장이었다. 경영주는 사업이기보다 도락(道樂) 혹은 취미로 영업하고 있었다는 점에 현재의 다방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당시 유명했던 명동의 자리했던 다방을 소개한다.

연예인들이 많이 출입한 다방으로는 사보이 호텔 뒷골목의「휘가로」다방이었으며, 영화인들이 주로 많이 출입한 다방은 명동 파출소 부근에 영화배우 김연실(金蓮實, 카메라맨 김학성(金學聲)의 누이)이 경영하던「낙랑」과 영화감독 이병일이 경영하던「신신」(명동 2가)이 있었다. 고전음악으로 이름난 곳은「돌체」(서울역전에 위치하던 서울다방이 전신)가 있었다. 그리고 여대생들이 많이 모인 음악다방으로 명동 2가 환선서적빌딩(태극당 맞은편) 3층의「태백다방」이 있었고, 고전음악으로「르네상스」, 정치가 · 교수들이 많이 모이던 곳으로는 그랜드호텔 옆의「보리수다방」과「청탑」(현 유네스코회관 부근), 그리고 커피 맛으로 유명한「브라질」등이 있었다.

또 하나의 큰 변모는 여권(女權)이 크게 신장되었던 점이다. 즉 봉건사회에서부터 민주국가의 국민으로 눈부시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남녀평등시대가 도래되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눈부시게 나타났다. 여판사, 여자민의원, 여자경찰관, 여장학사를 비롯해서 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 상공부장관에 이르기까지 활동영역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신형법(新刑法)의 등장으로 간통쌍벌(姦通雙罰)로 방탕한 남편을 형무소에 집어넣는 여성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월급생활하는 남편의 무기력을 더 볼 수 없다하여 계(契)를 조직하여 수백만 환의 거액을 현금으

로 취급하는 통 큰 여인도 속출하였다.

이처럼 여러 풍속의 유행이 무질서하게 범람한 것은 광복과 6 · 25전쟁 전후 10여 년간으로 서구문화가 쏟아져 들어온 영향으로 일제 때의 그 잔재(殘滓)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근대 발전과정에 있어 소화하지 못한 채 외형만 받아들인 과도기의 현상에서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중음식점으로 유명한 집은 명동 한일관(당시 시공관 건너편 동쪽) 등이 있었다.

(2) 명동파 문인들의 일화

일제 때에도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가였으며 문화의 거리였지만 그 후 광복과 6 · 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도 여전히 명동은 서울의, 아니 한국의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다. 광복의 환희와 전후의 허무와 「페이소스」가 흐르던 이 거리에서 한국의 문화인들은 명동거리의 다방과 술집 등에 모여 실존주의철학을 논하고, 「니힐리즘」을 논하고 예술과 인생을 토론하며 불운했던 시대의 한과 정을 풀었던 거리가 바로 흘러간 시대의 명동거리였다. 비록 주머니는 텅 빈 예술가이지만 기개(氣槪)만은 높아 하늘을 찌를 듯 하였던 사람들이 모였던 낭만의 거리가 명동이었다.

지금은 소비문화의 중심지, 환락의 거리, 지분(脂粉) 냄새가 가득한 거리로 명동이 변해버려 그 당시 명동거리에 정과 한을 쏟았던 명동파 문화인들의 발자취는 지금 거의 찾을 길 없지만 전설 같은 추억담만은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먼저 이 격동기의 시대, 명동의 풍속도를 다방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와 명동파 인물들의 일화(逸話)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명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속칭 명동의 상송 「세월이 가면」의 작사자인 박인환(朴寅煥)이다.[90]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면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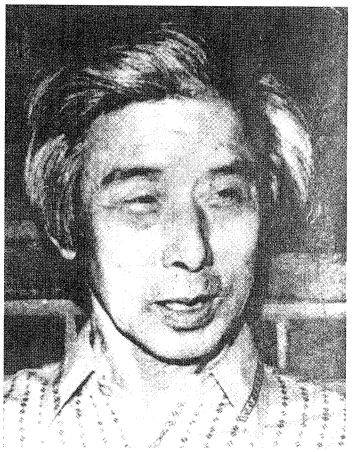
1956년 이른 봄 동방싸롱 앞 빈대떡집에서 박인환이 작사하고, 이진섭(李眞燮)이 작곡하였으며, 임만섭(林萬燮)이 노래를 불러 즉흥으로 만들어진 「명동샹송」은 이 후에 사람들 입에 회자(膾炙)되어 명동의 노래가 되다시피 하였다. 그 외에도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生涯)와 목마(木馬)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라고 시작되는 「목마와 숙녀」라는 유명한 시를 남기고 30세의 한창 나이에 그가 사랑하던 거리에서 통음(痛飮)한 끝에 그의 시 귀절처럼 술병처럼 쓰러져버린 시인 박인환! 그의 일화는 아직도 명동거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명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명동시장(明洞市長)」, 「명동백작(明洞伯爵)」이란 애칭으로 불리었던 소설가 이봉구(李鳳九)이다.[91] 명동으로도 문화예술인들에 의하여 빛나던 황금시대에 이봉구는 명동거리에 젊음을 묻어버린 말하자면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명동을 사랑하여 그곳에서 살다시피 한 인물이 한 두명이 아니겠지만 그처럼 명동에 애착을 갖고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기에 「명동백작」, 「명동시장」이란 애칭이 생겼을 것이다.

그가 1966년에 발표한『그리운 이름따라 — 명동 20년』(유신문화사)에서 그는 흘러간 시대의 인물들과 거리들을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서문에서 월탄 박종화(朴鍾和)는

문인(文人) 예술가들은 항상 이곳에서 기염(氣焰)을 토로하면서 새로운 문학과 음악, 미술, 연극을 구상했던 것이다. 당시 이봉구형은 언제나 명동카페나 주점에 앉아서, 또는 문인 예술가와 단란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만길 기염을 얌전하게 토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에게 명동시장의 호칭을 보냈던 것이다. 이제 지난 날 명동시장이 그 치내(治內)에 있었던 명동20년사를 친히 썼으니 다시 더 말할 나위가 없는 명동사(明洞史)가 될 것이다.

또 「명동백작」이란 애칭의 유래도 유명한 일이다. 6 · 25전쟁 당시 그가 부산에 피난살이 할 때 부산일보에다 무대에서 쓰러져 죽은 프랑스의 배우「루이 · 쥬베」의 추도사를 쓴 적이



명동백작 이봉구
-「명동야화」에서

있는데 이 글에서 「룸펜 굴(窟)」이란 영화에 몰락한 남작(男爵)으로 출연한 「루이 · 쥬베」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폐허가 된 파리의 뒷골목 룸펜들의 소굴에서 헤매는 그대는 최후의 남작이여! 나도 명동에서 밀려나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하는 신세이니 그대와 나는 같은 신세로다' 라고 썼는데, 이 글을 연유로 하여 그의 벗들이 "남작이 뭐냐 백작으로 해라"하고 농담삼아 붙여준 것이 일화가 되어 사람들 입에 회자(膾炙)된 것이다.

다음으로 공초(空超) 오상순(吳相淳)의 일화도 빼놓을 수 없다. 위의 『명동 20년』에 공초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청춘이다 청춘, 멋지고 흥겨워야지. 카운터 위에 올라 기염을 토하는 두 사람을 향해 공초는 젊음이 부럽다고, 술잔을 높이 들어 찬사를 보내고 다시 담배를 피워 물고 스르르 눈을 감았다. 「선생님, 술은 못하시면서도」「포엠」의 마담은 담배 두 갑을 사다 공초에게 선사한 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그 정이 고마워 인사를 올리면 「여기를 한번 다녀가면 그래도 파적(破寂)이 되니까 오지, 가족들과 즐기다 가는 것 같아서」 쓸쓸한 미소가 입가에 잠시 감돌다 또 눈을 감는 것이었다.[92]

술을 못하여 주로 「청동다방」등에 출입하던 그와 『명정(酩酊) 40년』으로 유명한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는 같은 해 나란히 사파(娑婆)를 떠 "수주 가고, 또 공초가 가고"라는 무상(無常)이 가득 찬 말 속에 명동은 흘러갔다.

시인 조병화(趙炳華)도 명동을 사랑하여 "명동 인생천리 허허한 골목에 주점의 불꽃만이 늘어간다 잘잘잘! 인간의 기름이 닳도록!"이라고 읊으며 거리를 돌아다녔고 또 「포엠」에 대하여는 이렇게 썼다.

퇴계로에 「포엠」이라는 술집이 생겼읍니다. 저녁이 오면 하루의 일과를 마친 저녁이 오면 병들어 앙상한 가로수 잎사귀를 돌아 우리들은 술을 마시러 「포엠」으로 갑니다. (중략) 그림쟁이들이 먼

저 모여 들었읍니다. 그리고 글쟁이들이 모여들었읍니다. 그림쟁이와 글쟁이와 노래쟁이들이 같이 취해서 노랑저고리를 웃기다가 돌아들 가곤 했읍니다. …

〈 박경룡(朴慶龍)〉

(3) 정부수립과 명동문화의 정착

1) 정부수립 형성배경

8 · 15 광복 당시 서울에는 약 16만 명 가까운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의 약 5분의 3이 약 9만 명이 현재의 중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광복이 된 후의 중구는 다른 구 보다 많은 변화를 볼 수 있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에 입경한다는 소식을 듣자 서울시민들은 재빨리 연합군 환영시민대회를 열고 서투른 영어글씨로 「Welcome」이라는 프랑카드를 만들어 꽹과리와 북을 치면서 그들을 맞이하였고, 노(老)혁명가 이승만 박사가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환국한다는 말을 들은 시민들은 또 김포가두(金浦街頭)에까지 나아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열광적인 환영을 아끼지 아니하고, 임시정부가 환국했을 때에도 역시 환영국민대회 열고 똑같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처럼 서울의 민심이 환영물결로 출렁이고 있을 때 난데없이 한국에 대한 5년간의 신탁통치란 말이 들려왔다. 한국 내 정국이 정당의 난립과 좌우정파의 대립으로 혼란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이 귀국하고 같은 해 11월 23일 김구 이하 15명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 귀국하였다.

1945년 12월 17일 모스크바에서 미 · 소 · 영 3대국의 외상회의가 소집되어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고, 28일에는 신탁통치 결정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 결정은 일시적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전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한동안 민족적 단합의 계기가 형성되는 듯하였다.

서울에서의 반탁데모는 우선 동대문운동장에 모여 연설판을 벌이고 시위대열을 지어 동대문 · 종로를 거쳐 미군정청에 있는 옛 조선총독부 건물 앞에서 일대 시위를 전개한 후에 해산하거나 아니면 동대문 ~ 을지로로 해서 당시 하지 미군사령관이 유숙하고 있던 을지로 1가

반도호텔 앞에 모여 큰소리로 시위를 한 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해산하였다.

약 2년간 서울에서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의 회의장소는 세종로에 있는 중앙청 회의실도 사용되기는 했으나 주로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되었고 그때마다 서울 시청 앞에서 덕수궁 대한문 앞과 그 주위는 미군 헌병들에 의해 삼엄한 경계망이 펼쳐졌다. 이 경계망 때문은 아니겠지만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내용이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가 되면 서울 시민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우리의 문제가 미 · 소 양대국 군사령관들에 의해 논의되고 결정된다는 데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다. 수도 서울에는 이날의 식전장인 중앙청 광장을 중심으로 개회 정각 전부터 각 정당 · 사회단체 · 학생 등, 수 십 만의 군중이 식장의 정문으로부터 세종로 · 태평로에 운집하였으며 정면에 드높이 태극기와 UN기를 늘인 단을 특설한 식장에는 단 정면에 통위부 군악대, 서울시 취주악대, 국회의원, 과도정부 관공리, 일반유지가 참가한 가운데 상오 11시 15분에 만장의 박수 속에 이승만대통령 · 맥아더 원수가 등단, 식은 시작되었고 오세창옹의 개회사, 이대통령의 기념사, 맥아더 원수 · 하지중장 · UN 한국위원단장 루나 박사 등의 축사가 있은 다음 하오 1시 15분 오세창옹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식은 모두 끝났다.[93]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후 동년에 11월 17일에는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臨時措置法)이 공포되었고, 1949년 8월 15일부터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중구(中區)의 지위와 행정구역 등에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었다.

북위 38도선 이북에 진주해 있던 소련군이 철병(撤兵)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1948년 9월 19일이었고, 그해 12월 26일에는 철병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 소련군이 이북에서 철병하여 이남에 주둔해 있던 미군도 계속 주둔할 명분이 없어졌다. 이에 미국무성은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미군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성명을 1949년 5월 20일에 발표하였고, 6월 29일에는 철수를 완료하였다. 사상적 대립이 점차 심해지는 과정에서 강력한 민족주의 세력은 전국학생연맹을 결성하여 좌익세력인 민주학생동맹과 정면으로 맞섰다. 중등학교에서도 이의 영향을 받아 학생과 교사들의 사이가 각각 분열되었고, 교사의 폭행 · 수업거부 · 단식 · 농성투쟁이 자행되어 학원을 혼란에 빠뜨렸다. 미군정 당국의 좌익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사회적 혼란을 더욱 조장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은 현실참여와 무관한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1948년에는 명동극장(明

洞劇場)을 학생영화관으로 선정하는 등 다각적인 선도책을 마련하였으나,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난 광복감과 자유민주주의를 곡해하는데서 오는 방종이 훈도방법에 큰 애로를 겪게 만들었다. 특히 수도서울에서의 이러한 동태가 심하여 교외지도반 편성 · 우수교원의 확보와 양성 · 교원의 처우개선 ·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선도의식의 선양 · 고학생(苦學生) 구원기관의 증설 등을 대책으로 삼았으나, 교원 부족 · 시설 불비 · 양서(良書) 부족 등으로 고유 도덕이 계속 붕괴하는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큰 우려를 자아내 도덕교육을 강조하는 여론이 점차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일본식 정명(町名)에서 한국식 동명으로 환원되었다. 황금정 2정목이 을지로 2가로, 명치정 1 · 2정목이 명동 1 · 2가로, 본정 1 · 2정목이 충무로 1 · 2가로, 영락정 1정목이 저동 1가로 환원되었다. 이는 1946년 10월 1일에 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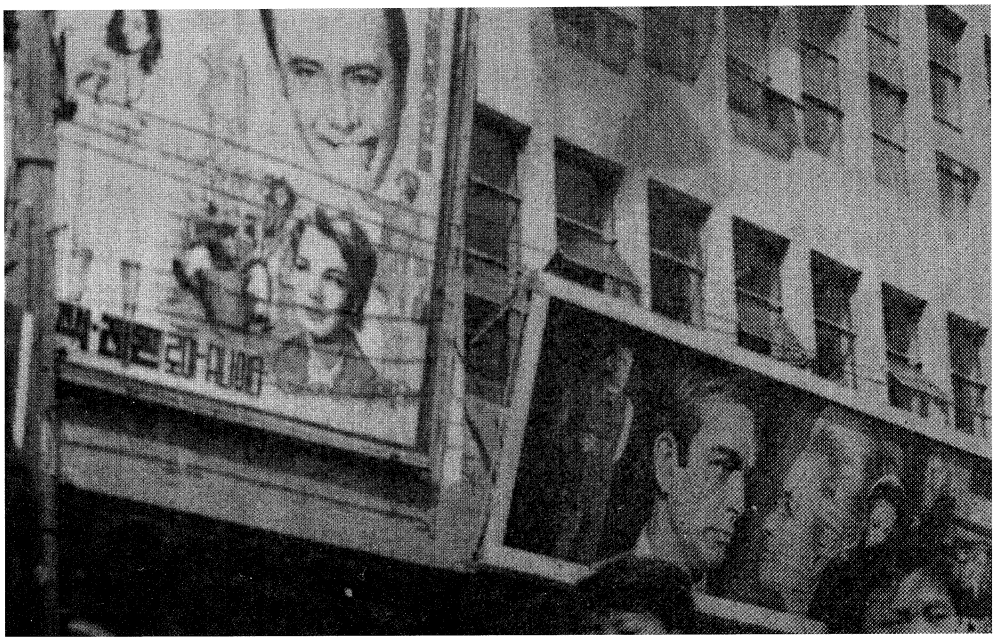
2) 명동어깨파의 활동

6. 25전쟁 전에 명동은 어딜 가나 구걸하는 사람들로 와글댔다. 다방과 술집 그리고 빵집도 말할 것도 없이 구석진 사무실까지 찾아 왔다.

광복이 되어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모두 돌아가자 명동은 텅비게 되었다. 그러자 월남해 온 평안도 사람들이 이러한 빈자리를 메꾸었다. 이들 중에 약 100 명이 넘는 북쪽 청년들은「평안청년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광복 직후에 좌익들이 선동해서 일으켰던 경전(京電)파업사건이나, 영등포방직공장파업 그리고 인천부두파업 등을 때려 부셨던 반공투사들이다.

이들의 집단은 1946년 후반까지 약 200 명이 넘어 섰다. 이들은 둘로 갈라져서 평양남도 출신은「대동강동지회」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레슬링선수였던 황병관, 별명이「맨발의 대장」인 김성순과 이화룡(李華龍)이 대표인물로 시공관을 중심으로 남도파의 많은 동지들을 이끌었다. 한편, 북도파는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도출신들이「압록강동지회」라는 이름으로 뭉쳤다. 하지만 강펀치와 천하에 제일 가는 박치기를 자랑하는 이화룡의 남도파가 전력면에서 우세하였다. 그러자 북도파는 북한에서 60 세가 넘은 박치기로 만주 대륙을 석권한 싸움꾼 이성순(시라소니)을 데려와 남북파가 공존할 수 있게 되었고, 명동의 주먹세계를 만들었다.

또한 중앙극장을 무대로 한 정팔(鄭八)사단이 있어서 청계천을 경계로 종로의 주먹들과 대결하고 있었다.[94]



명동극장 (1966년)
-「명동20년」에서

명동의 구석구석에는 어깨들이 깔려 있었지만 문화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깨들의 덕분이었다. 명동을 지배했던 당시의 어깨들은 규율과 인간관계가 철저했고, 이른바 문화인들의 보호에 각별한 배려와 신경을 썼다. 따라서 어려웠던 시절에 명동에 문인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었던 것도 명동 어깨들의 보호 속에서 그들의 생활이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당시의 우리나라의 주먹세계는 광복 전에는 반항시대, 광복 후~6 · 25전쟁까지는 반공시대, 환도 후에는 정치시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광복 이후의 명동파는 종로파와 크게 양분되는데 종로파와는 달리 개방적이어서 종로파가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식이라면 명동파는 아테네식이었다.[95]

명동은 일제 때부터 바, 캬바레, 술집 등이 몰려 있는 유흥가인 관계로 종로 일대와 함께 주먹들이 이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투던 무대였다. 일제 때는 주먹으로 이름을 날린 사하라가 부하들과 명동의 뒷골목을 주름 잡았는데 민족의식이 강한 사하라는 일본 건달패들과 자주 다투어 일본 경찰이 뒤쫓자 중국으로 피했다가 광복 후에 귀국하였다.[96] 이 당시의 '어깨' 또는 '건달'들은 자유당 말기 이후에 호칭되기 시작한 '깡패'라는 부류와는 구분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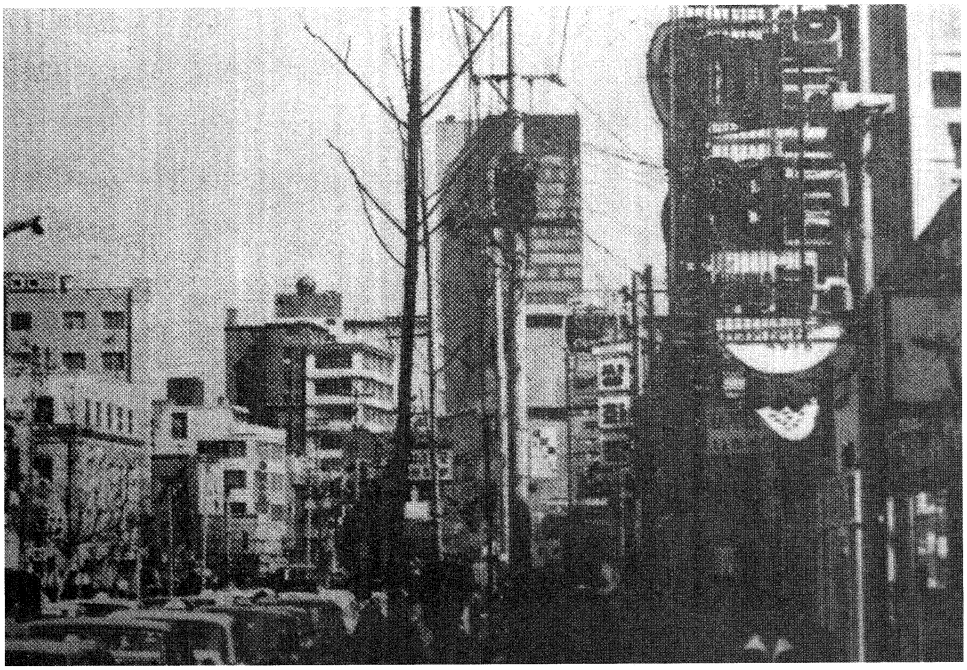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명동파는 종로파의 심종현(靑松: 아오마쓰)과 동대문파의 이정재(李丁載), 유지광과 관할구역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하였다. 명동파는 중앙극장파의 정팔과 그 휘하의 신상수(일명 申上士)가 가세하여 그 세력이 대단하였다. 명동파와 종로파의 첫 번째 격돌은 중앙극장파가 종로파의 관할 하에 있는 국일관 캬바레를 습격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97] 또한 1954년, 미군물자 공매처분을 둘러싸고 동대문파와 종로파가 건중친목회를 조직하여 이익을 독점하자 명동파의 이화룡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러자 1954년 가을, 소공동에 위치한 건중친목회의 대표 홍영철은 명동파를 누르기 위해 그가 이끄는 50여 명이 수류탄, 권총을 들고 명동의 다방으로 들어가 명동파의 어깨를 마구 때려 누이는 외에 수류탄을 변기 안에 던져 터뜨리는 등 명동극장 앞에서 대활극을 벌이자 현재 외환은행 본점 자리에 있던 치안국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여 겨우 진압하였다.[98]이어서 1955년 6월 19일 동대문의 이정재, 종로의 심종현, 서대문의 최창수 3개파는 명동파를 제거하기 위해 삼우회를 조직하고 300여 명이 자하문 밖에서 합동 야유회를 가졌다. 이들은 60 명을 골라 뽑아 명동파가 장악하려는 수표교 근처의 캬바레 황금마차를 공격하였다. 이 때 100여 명의 명동파 어깨들은 2 대의 드리쿼터에 돌멩이와 벽돌을 잔뜩 싣고 와서 황금마차 부근의 건물 지붕 등에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해 오던 3개파들을 향해 벽돌 세례를 퍼부었다. 이 당시 60명 중에서 중상 15명, 경상 40명이 발생하여 황금마차 골목은 깨어진 벽돌과 피묻은 유리병들이 수북히 쌓였다. 그러자 이들 3개파는 이 날밤 명동파에게 복수하기 위해 서대문 금란여자고등학교 자리 공터에 다시 모였다. 150여 명의 어깨들은 8 대의 지프에 나누어 타고 6자루의 권총과 칼, 몽둥이, 쇠파이프로 무장한 뒤 캬바레 황금마차와 중앙극장, 국립극장, 명동 일대의 술집과 다방을 모두 뒤졌지만 명동파 어깨들은 이를 미리 알고 피신하여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명동파와 종로파 등은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여 4년간 '주먹 중동전(中東戰)'을 벌였다.[99]1957년 10월 27일 건중친목회 대표 홍영철은 종로파, 서대문파, 동대문파를 부추겨 명동파를 제압하기 위해 인왕산 아래 무악재에 100여 명을 집결시켜 쇠파이프를 들고 트럭 8대에 분승하여 세 방면으로 명동에 쳐들어 갔다. 그러나 이 공격 정보를 사전에 알아낸 서울시경 기동대와 중부경찰서 형사들이 요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30여 명을 체포하였다.[100] 또한 1958년에는 「충정로 도끼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명동파의 어깨들은 규율과 위계질서, 인간관계를 잘 지켰을 뿐 아니라 이곳의 문화 예술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였다고 전한다.[101]

〈 사보이호텔 기습사건 〉

5 · 16군사정부는 정치깡패를 근절하고 해마다 폭력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함에 따라 명동파의 어깨들도 활동할 수 없었다. 명동 어깨들은 1965년 경부터 신상수가 사보이호텔 커피숍에 매일 나오자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명동 일대에는 명동극장을 중심으로 마사오와 다케오의 마사오파, 세종호텔 뒤쪽에 김철주와 경상도 운동선수, 충무로 북쪽에 광주에서 상경한 송덕준이 어깨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1965년부터는 광주, 전주, 목포, 순천 등 호남 지역 폭력배들이 대거 상경, 무교동을 중심으로 점차 세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이른바 호남파 또는 호남 연합파로 불린 조직들이 서울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활동하기 시작하고, 명동의 주점에서 영업부를 맡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서북 사투리 대신 남도 사투리가 판을 치게 되었다.

1970년도에는 신상수를 중심으로 한 명동어깨들을 '신명동파'라고 불렀는데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102] 이리하여 명동 등 서울 중심부를 장악한 신상사파에 대하



무교동 번화가(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여 급격히 성장하던 호남파가 대항하는 형세였다. 호남파는 내부적으로 두목 오종철 밑에 조양은(曺洋銀) 등 '오종철파'와 두목 박종석 밑에 박영장, 오기준, 김태촌(金泰村) 등 '박종석파'로 양분되었다. 이들 양대 세력은 차츰 주류 공급권과 관내 호텔과 유흥업소 등의 정기적인 상납금을 둘러싸고 1974년 갈등이 절정에 달해 결국 '조폭(組暴)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103]

전쟁의 시작은 1975년 새해 벽두 서울의 한복판인 충무로 1가에 있는 사보이 호텔에서 일어났다. 「사보이 호텔 기습사건」이 그 것이다. 그 해 1월 2일 아침 조양은을 중심으로 한 호남파 세력들이 생선 회칼과 야구 방망이 등으로 중무장한 채 사보이 호텔커피숍에서 신년회를 열고 있던 신상사파를 급습,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12월 그믐날 대구에서 상경한 건축업자 노일사장에게 토지대금을 대신 받아내려고 한 대구의 어깨 김태식이 노일사장과 입씨름을 하자 신상수는 두 사람에게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 이 때 신상수 수하의 전병식이 뛰어들자 노일사장이 데리고 있던 무교동의 건달 이정한이 전병식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자 명동파들이 들어와 이정한을 끌고 나가 뭇매를 가함에 따라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를 알게 된 무교동 호남측의 건달들은 흥분하여 명동파에게 보복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당시 명동파는 무교동측에게 이정한 사건에 대해 사과를 표하고 치료비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무교동측의 양형철은 이를 무시하고, 생선회칼과 쇠파이프 · 몽둥이를 지닌 30여 명을 동원하여 사보이호텔 커피숍에 모여있는 명동파를 기습하여 몽둥이를 휘둘렀다. 커피숍은 순식간에 비명소리와 고함치는 소리, 신음 소리가 뒤섞여서 난장판이 되었다. 신상수는 마침 화장실에 있을 때 기습을 당하여 무사하였지만 많은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다.[104] 검찰은 당시 서울 충무로와 명동을 장악하고 있던 신상사파가 생선회칼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범 호남연합 세력의 습격에 맨주먹으로 대항하다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검찰은 전국에 호남측의 건달을 전국에 수배하였고, 신상수의 부하들은 무교동을 샅샅이 뒤져 이들 일파를 잡아다가 린치를 가했으므로 호남측은 서울에서 3년 동안 건달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신상수는 이 사건 이후 명동에서 호남 세력을 몰아내고 명실공히 명동의 어깨 보스로 자리를 굳히고, 사보이호텔 커피숍에서 충무로쪽의 수다방으로 활동무대를 옮겼다.[105]

검찰은「주먹」으로 승부를 내던 신상사파가 1975년에 기습 당한 후, 조직 폭력배들의 충돌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생선회칼, 일본도, 쇠파이프 등의 무기가 등장하므로「칼잡이」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보았다. 사보이 호텔 기습사건을 계기로 서울 명동 일대를 비롯, 중심가의 패권을 잡은 호남파는 곧 내부적인 분열을 겪었다.[106]

광복 이후부터 일간지에 보도된 어깨들간의 다툼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명동지역에서의 폭력 사건 내용

연 월 일	사 건 내 용	비 고
1957년 7월 3일	시민극장 부근에서 종로의 '아오마쓰' 파가 명동의 '정팔(鄭八)' 파를 제압하기 위해 20여 명을 동원하였으나 경찰의 경계 강화로 1시간 동안 대치	「조선일보」 1957. 7. 3
1957년 11월 26일	명동 칠각 다방에서 경찰이 명동 어깨 정종현 등 8명을 격투 끝에 체포함	「조선일보」 1957.11. 28
1958년 3월 9일	회현동의 고미파(高美波)캬바레에서 명동파와 종로파의 어깨 60여명이 대립, 격투를 벌이고 총격전까지 벌임	「조선일보」 1958. 3. 11
1958년 7월 20일	명동 향미 다방 앞에서 소년단 김진섭 등 20여 명과 회현동에 거주하는 한관수 등 4, 5 명이 집단패싸움으로 던진 돌에 2명이 부상	「조선일보」 1959. 7. 21
1958년 12월 28일	명동 어깨의 폭행 감금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명동파 진상기 외 3 명과 소공동파 김관태 외 4 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	「조선일보」 1959. 12. 29
1964년 1월 22일	명동 칸타비레 음악감상실을 무대로 13명의 부하들과 남여 대학생을 공갈, 금품을 갈취하던 돼지파 두목 조인행을 경찰이 체포	「조선일보」 1964. 1. 24
1965년 8월 13일	8월 3일부터 영화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폭력단을 조직, 시민을 납치, 금품을 갈취한 죄목으로 경찰이 '신상사' (申常鉉 : 35세, 남산동 45-9)파 외 3명을 체포하고, 신상현의 동생 등 8명을 수배함.	「조선일보」 1965. 8. 13
1970년 10월 30일	1965년 1월부터 45 개 업체를 매월 순회하면서 300여 회나 금품을 갈취한 명동-소공동파 폭력배 김두영(金斗榮)을 경찰이 체포, 구속함.	「조선일보」 1970. 10. 30

3) 다시 모인 문화인들

광복되던 해에 명동에는 제일 먼저 다실이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대포집과 바 그리고 카페가 줄지어 손님들을 맞이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명동의 술집 · 다방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이곳을 드나들던 얼굴들도 갈렸다. 광복과 함께 시인 조병화가 등장했고, 김용호도 나타났다. 그 이후 시인 김수영, 영화인 안종화 · 전옥 · 전혜린 등이 명동에 단골로 등장하였다.

일제강점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시민은 거리마다 골목마다 넘쳐 나와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멀리 이역만리(異域萬里)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지사(志士)들도, 일경(日警)에 쫓겨 곳곳에 숨어 지내던 인사(人士)들도 모두 서울거리로 모여들어 꿈에도 그리던 사람들과 재회를 하였다. 이때 필연적으로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여 명동, 충무로, 소공동, 종로의 번화가에 다방이 생기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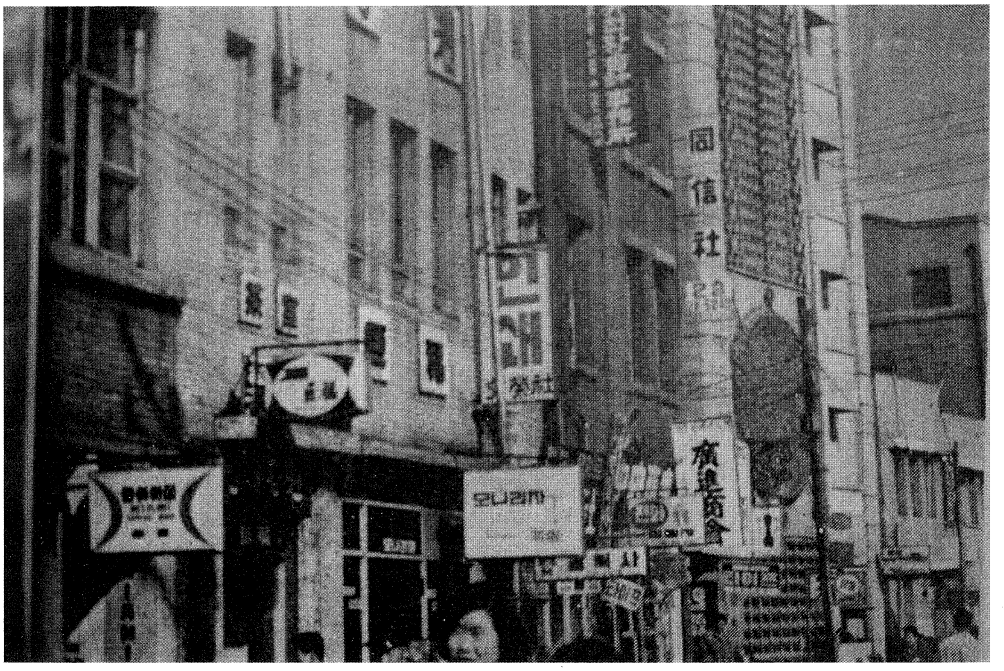
광복 전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다방의 주인이 바뀌거나 일본식의 이름이 바뀌는 등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제 때 다방 풍속도(風俗圖)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다방〉

광복이 되면서 일제 때에 있던 명동의 다방들은 일단 문을 닫고 약간의 변화를 거쳐 다시 문을 열게된다. 전일에 이 거리에서 다방을 열었던 마담에 의해서 고전음악 전문의 봉선화(鳳仙花)다방이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커피 한잔과 함께 언제나 마음 편하게 봉선화 노래를 감상할 수 있게 되어 명동거리는 다시 다방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봉선화 다방에서 몇 걸음 내려가 새로 리버티라는 널찍하고 시원스러운 반 그릴 겸 티룸이 생겨 거리의 멋쟁이들을 유혹하였다. 이 집 손님은 태반이 장사꾼들이었다. 상해, 중경, 만주에서 돌아온 동포들이 이 집을 찾곤 하였다. 이들 속에는 자칭 항일투사, 광복군, 망명객, 또 장사꾼 등 형형색색이었지만 종로거리의 정치적 색채와는 달리 문화적 색채가 농후한 것이 명동거리의 특색이었다.

리버티 아래 길 건너 증권시장 근처, 그전에 바가 있던 자리에 3 · 1다방이 문을 열었다. 주로 손님들은 연극 · 영화인들이 드나들었다. 명동 파출소 뒷골목에 에덴이라는 명곡다방(名曲茶房)이 새로 문을 열었다. 그 동안 봉선화를 잃어버린 문학인들이 안주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다가 새로운 아지트가 생기게 되어 모두 이 집으로 몰려들었다. 채영묵이라



모나리자 다방 (1966년)
-「명동20년」에서

는 청년이 장사보다는 취미로 다방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소설가 손소희(孫素熙)와 수필가 전숙희(田淑禧) 그리고 이화여대 음대 교수인 유부용(劉芙蓉)씨가 현재 우리은행 명동지점 바로 옆에 「마돈나」라는 음악다실을 개업하여 이채를 띠었다. 이 다방에는 시인 · 소설가 · 연극학도 · 영화감독 · 글을 쓰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였다. 이들이 다방을 개업한 이유는 전숙희와 손소희씨가 펴냈던 잡지 『혜성』의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이들 셋은 하루에 4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였다. 여기의 단골손님으로는 김동리(金東里) · 조연현(趙演鉉) · 김송(金松)을 비롯한 문협인(文協人)들이 모였고, 김광주(金光州) · 이용악(李庸岳)도 즐겨 드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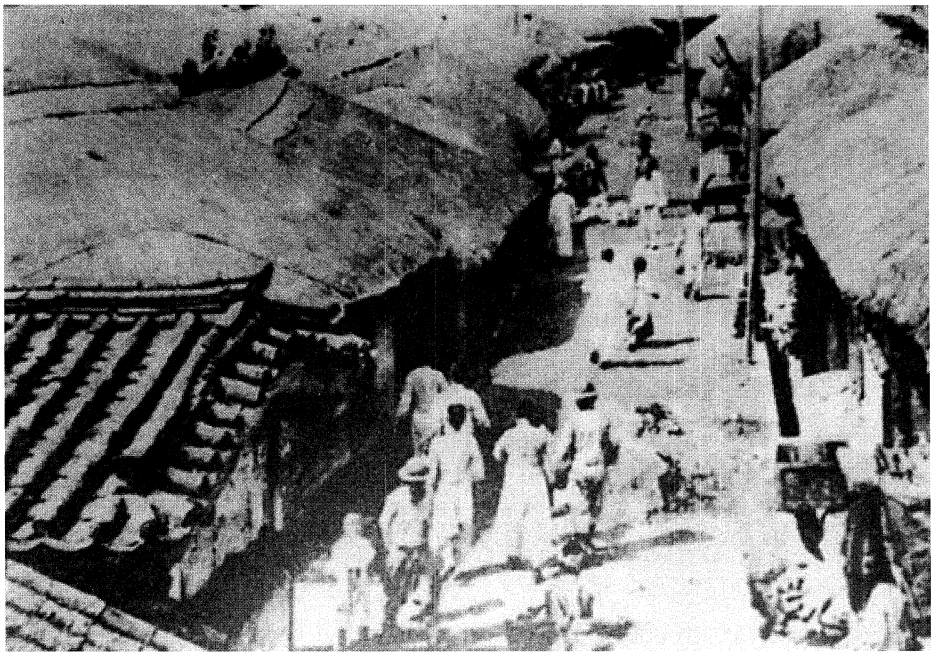
마돈나에 이어 남강 · 미네르바 · 오아시스 · 고향 · 코롬방이 문을 열었고, 에덴 옆에는 김광조(金光祚)부부가 나란히 라아뿌룸이라는 다방을 열어 이계원(李啓元) · 윤길구(尹吉九) · 이진섭(李眞燮) · 강문수(姜文秀)를 비롯한 방송국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부산 피난시절에 남포동의 스타 다방에서 약을 먹고 자살한 시인 전봉래가 살다시피 하고 있었다. 원 동 순루 근처 초입에 김연실(金蓮實)이 낙랑(樂浪)을 열어 옛 향수를 느껴 손님이 모여 들었다.

또 소공동에서 하루삥을 하던 장만영(張萬榮)이 충무로에 옮겨와 비엔나라는 이름으로 다방 문을 열었다. 다방 안의 정면에서는 조병화의 유화(油畵)가 걸려 있었고, 김기림(金起林)·김용호(金容浩)·김경린(金璟麟)·선우휘(鮮于輝)·승정균(承鼎均)·김광균(金光均)·김병욱(金秉旭) 등이 모였으며, 장만영이 산화장이라는 출판사를 내고 호화판 시집을 발간하여 신인들의 얼굴이 비엔나에 많이 나타났다.

비엔나 건너편 골목엔 휘가로라는 다방이 새로 문을 열었다. 전봉래가 라아뿌룸에서 이 집으로 옮겨와 아침부터 밤까지 살다시피 하였다.

또한 일제 때부터 서울역 앞에 있던 명곡다방 돌체가 명동 한복판으로 진출하여 음악광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이 시기 즉, 1947년은 명동의 황금시기였다. 돌체·휘가로를 비롯하여 무궁원·명동장의 주점에는 명동의 순수파들로 연일밤 터져날 듯 대성황이었다.

오상순·서정주(徐廷柱)·김광주·조지훈(趙芝薰)·김동리·구상(具常)·임긍재(林肯載)·김초향(金草鄕)·임서하(任西河)·김중희(金重熙)·최봉식(崔鳳植)·김진수(金鎭



명동거리의 다방·바·대포집…(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壽) · 김병욱 · 김수영 · 임호권(林虎權) · 조연현 · 김창수(金彰洙) · 고병순(高炳舜) · 고흥상(高興相) · 김종윤(金鍾潤) · 조덕송(趙德松) · 최기덕(崔起德) · 임광빈(林光彬) · 최금동(崔琴桐) · 김정한(金定漢) · 최병욱(崔炳郁) · 김진기(金鎭岐) · 박고석(朴古石) · 손응성(孫應星) · 정전여(鄭銓汝) · 조병화 · 이진섭 등이 드나들었다.

6 · 25전쟁 직전까지는 문예싸롱과 모나리자 · 낙랑 · 담담 등이 유명다방이었다.

명동 건너편 경향신문사 옆에 플라워라는 널찍한 레스토랑 비슷한 다방이 문을 열어 김동리, 조연현, 유동준을 비롯해 청년문협 사람들과 신문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다방이 넓고 커서 출판기념회의 대부분을 이 집에서 열었고 성황을 이루었다.

김동리의 『황토기』, 서정주의 『귀촉도』, 조병화의 『버리고 싶은 유산』을 비롯해 많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홍효민의 『인조반정』 출판기념회는 싸움이 나고 소동이 벌어졌다.

남대문로변 미도파백화점 앞에는 '대지'라는 양품점이 있었다. 이 양품점의 주인은 상해에서 돌아온 청년 박거영이 장사에 밝고 시를 쓰기도 한다는 소문이 났다. 아래층은 보기 드문, 처음 보는 물건들이 진열된 양품점이었고, 2층은 박거영이 베푸는 술자리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놀이터여서 매일 밤 많은 사람들로 떠들썩하였으며, 작품 낭독회가 열렸다. 이 당시 박계주 · 최인규 · 김영수 · 최영수 · 이용악 · 이병철… 등이 '대지' 2층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어댔다.[107]

1945~1948년 당시의 다방은 시민의 유일한 위락장소이며 사교장이었다. 경영주는 사업이기보다 도락(道樂) 혹은 취미로 영업하고 있었다는 점에 현재의 다방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다. 당시 유명했던 다방을 소개한다.

연예인들이 많이 출입한 다방으로는 화신백화점의 우측건물에 있었던 「서라벌」다방과 명동의 사보이 호텔 뒷골목에 있었던 「휘가로」다방이 있었다. 또한, 영화인들이 주로 많이 출입한 다방은 한때 영화배우로 유명했던 김연실(金蓮實)이 열었던 「낙랑」과 영화감독 이병일이 경영하던 명동 2가에 있었던 「신신」등이 있다. 김연실이 경영하던 「낙랑」은 과거 본인이 경영하였던 당시를 잊지 못하고 추억을 되새기고 싶은 사람들은 추억을 찾아 모여들었다. 김연실은 카메라맨 김학성(金學聲)의 누이인데 김학성은 영화배우 최은희와 결혼식을 올려 유명하였다.

여기서 1945년~1961년 사이에 확인된 명동과 충무로에 위치한 다방과 이곳에서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자.

◆ 명동

- 초원(草苑)다방 : 김동석(金東錫)의 시집 『해변의 시』 출판기념회 · 문학가동맹소설부(文學家同盟小說部)의 소설 간담회
- 휘가로다방 : 해군종군화가(海軍從軍畵家) 「양달석 개인전」 · 김혁림(金赫林) 회화전 · 한국음악가협회의 종합음악대연주회의 회원권 예매장소 · 한국작곡가협회의 동남아세아 음악대회에 참석하는 김세형(金世炯) 환송회
- 담수(淡水)다방 : 나운영(羅運榮)작곡집 『다윗의 노래』 출판기념회 · 「덴마크 음악과 영화의 밤」 · 정말(丁抹)(덴마크)서 보내온 레코드와 필름으로 · 오영진(吳泳鎭)의 미국 영화연극계 시찰보고 강연회
- 돌체다방 : 국제오페라협회 정기(토요) 레코드감상회 「쇼팽의 밤」 「하이든의 밤」, 「춘희」 「브람스의 밤」 외 · 28회 서울법대졸업생음악회 김소영(金昭影) 「새로운 언어」의 출판기념회 · 양주동(梁柱東)의 「문학강연회」
- 춘초(春初)다방 : 고 홍난파(洪蘭坡)의 추도회
- 월궁(月宮)다방 : 「국제 펜 클럽 한국센타」에서 주최하는 「문학의 밤」
  - 사회 : 이하윤(異河潤)
    현 국내시의 조류(潮流) : 김광섭(金光燮), 헤밍웨이론 : 조용만(趙容萬),
    자작시 낭독 : 변영로, 역사소설의 방향 : 김기진(金基鎭),
    고전문학의 현대적 의의 : 양주동
- 목동다방 : 나운영의 『반주법』 출판기념회
- 청동(靑銅)다방 : 국제극예술협회(國際劇藝術協會)(ITI) 연차대회와 오영진의 환영회
- 담담(淡淡)다방 : 극작가 유치진의 사극집(史劇集) 『자명고(自鳴鼓)』 출판기념회
- 봉선화 : 「해양문화사」 주최 해양시화전(海洋詩畵展)
- 무명(無名)다방 :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의 고의동(高義東)회장 도미(渡美)환송회
- 모나리자 : 조선일보사 주최로 김청풍(金淸風) 화백(畵伯)의 소품전
- 문예싸롱 : 사바동인(娑婆同人) 시화전
- 마돈나다방 : 석영(夕影) 안석주(安碩柱)의 시나리오집 『여학생』, 『희망』 출판기념회

◆ 충무로

- 올림픽다방 : 오장환(吳章煥)의 시집 『병든 서울』 출판기념회
- 대도회(大都會)다방 : 서라벌예대 「문학의 밤」
- 산유화(山有花)다방 : 김명순(金明順) 수예전
- 레인보 : 일본대학 예술과동창회
- 미림(美林)다방 : 「우시회」 주최로 제14회 「시의 밤」

위에서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열거하였지만 이 외에도 이름있는 다방은 많았다.

다음으로 1940년대 말 다방의 풍속도에서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시 사회문제였던 실업자의 온상(溫床) 역할을 다방이 한 점이다. 당시 다방의 풍속도는 다음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947년 11월 23일자 동아일보에는 「다방—아침부터 출입 빈번, 다방은 안식처」라는 제목 밑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전한다.

거리의 항구요, 실업자 모리배의 「오아시스」라는 다방. 오늘도 다방에는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도취하여 담배연기로 안개 끼인 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50원 씩 하는 한잔의 커피를 앞에 놓고 벽만 바라보는 실업군상(失業群像)의 일당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100여 개 소나 되는 다방이 있는데 시내 명동 모 다방 조사에 의하면 매일 평균 드나드는 사람의 수는 350여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내 전 다방의 출입자 총수를 따지면 무려 3만 여 명이나 되는 셈이다. 그들 중에 매일 같이 오는 사람, 남들은 일터로 나가서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시간에 다방으로부터 다방을 찾아다니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한 집에 100여 명이나 될 것이라고 하니 한심한 일이다. 이들이 꿈꾸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진한 커피연기에 마취되어 혈식이 없는 실업자의 안식처가 과연 다방 이외에는 없는가? 조선의 다방이 그들의 소일장소로 변한 것은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서구(李瑞求)도 『세시기』에서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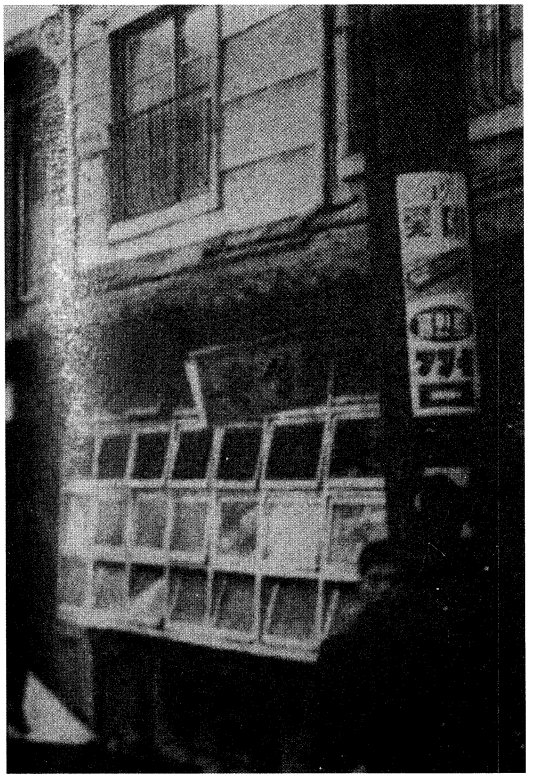
초창기의 다방은 영리가 아니요 멋이요, 그 멋을 알아주는 손님은 고객이 아니라 동지 같던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차 값을 떼일까봐…감시의 눈초리를 게을리 하지 않는 요즈음의 다방은 거의 살벌해 간다. 옛날 주인이 손수 끓여주던 차는 맛도 구수하더니 마담의 방침에 맞추어 코오피의 질을 적당히 다루는 쿡

의 입장도 난처하지만 그래야만 운영이 된다는 마담의 고충도…(생략)

광복과 정부수립과 6 · 25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기는 100여 만 명이 넘는 막대한 실업자를 낳게 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고등실업자 즉 룸펜이라 지칭되던 이들은 다방을 무대 삼아 무위도식(無爲徒食)하여 사회의 지탄(指彈)의 대상이 되었다.

4) 음식점 및 유흥업소 흥행

(가) 대포집



은성 술집(1966년)
-「명동20년」에서

「명동장」·「무궁원」은 이마를 맞대고「돌체」다방 건너편 좁은 골목 안에서 막걸리를 파는 집이었다.「무궁원」에는 주로 공초 오상순, 시인 조지훈, 서정주, 소설가 김동리 그리고 구상, 임긍재가 자리잡고 있었고, 화가 최재덕이 그림을 넉넉하게 팔지 못하여 항상 이 집 신세만 지었다.「명동장」은 임광빈, 최금동, 조덕송, 최기덕을 비롯해서 쟁쟁한 기자들과 화가 박고석, 손응성 그리고 시인 조병화와 이진섭이 주로 거주하는 술집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탭댄스를 지도하던 박선봉씨가 취미삼아서 낸 선술집이 있었는데 이름이「딱총집」이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딱총소리와 같다고 해서 이름을 지은 대포집인데, 이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적인 문제로 문을 닫고 말았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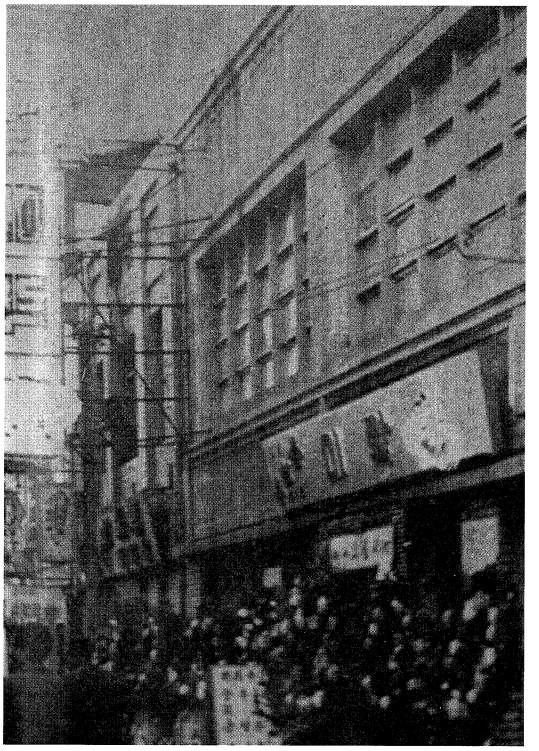
한「백화정」에는 이진섭이 자주 들렸다.

(나) 중국 음식점

광복 직후 지금의 유네스코회관 자리에는 중국요리집 셋이 나란히 있었다. 그 셋은 '중화정' · '동순루' · '덕화루'로 명동에서 중국요리 맛이 좋기로 유명한 집이었다. '중화정'은 주먹왕 사하라와 김두한이 자주 들었던 곳이고, '동순루'는 글쓰고, 연극인들이 자주 모인 곳이었다. 이후에 제일백화점이 들어선 자리에 '동해루'라는 중국집이 짜장면으로 유명하였다. 이는 인천의 댄디족들이 몰려올 정도였고, 인천 사람 말고도 상해와 만주 땅에서 돌아온 귀국 동포들이 모인 장소였다. 이러한 중국집은 명동파의 아지트였다.

(다) 일본 음식점

1949년 일식집 '미락'이 문을 열었다. 이집은 초밥과 덴동 그리고 오뎅으로 유명한 집이었다. 그러나 오뎅집 '신라'는 주로 월탄 박종화, 석천 오종식, 청천 김진섭 등이 연일 머물던 곳이고 또한 성악가 이인범, 소설가 김광주 등이 이 집을 즐겨 찾았다.



일식집 미락(1966년)
-「명동20년」에서

(라) 요릿집 : 요정

1887년 개업한 이몬로, 즉, '정문루(井門樓)'가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일본식 고급 요정(料亭)이었다. 이 요정은 일본공사관 아래 주자동에 있었고, 두 사람의 식모 겸 작부를 두었다. 그 다음에 '개진정'은 이보다 조금 늦게 진고개의 2정목에서 개업을 했고, 남산정은 주자동에, 송본루는 공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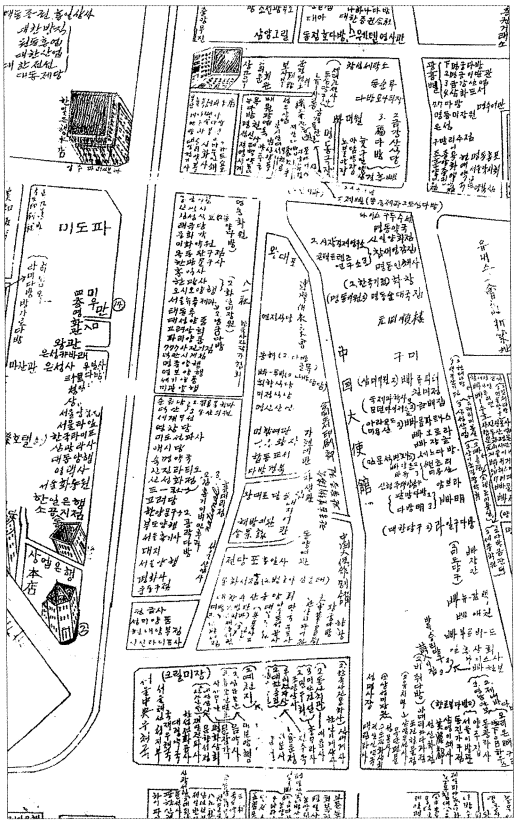
정문 북서쪽에 있었다. 이것이 청일전쟁 전에 서울에 있던 일본식 요릿집으로 경술국치 후에는 진고개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의 요릿집과 환락가가 더욱 번창하였다.[108]

진고개에 일인들의 요릿집이 번창해지자 일인들은 요릿집에 나가는 게이샤를 다루기 위해 오키야(置屋)이라는 것을 1906년에 개설했는데, 오카베란 사람이 개설한 청수석이 바로 그것으로 이것은 경성 권번(券番)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생제도를 본따서 권번에 흡수해 버렸다.

요정은 객실을 갖추고 음식을 장만하여 아리따운 접대부로 하여금 술을 파는 곳이다. 카바레나 나이트클럽처럼 한 장소에서 여럿이 멋대로 함께 노는 것과는 달리, 팀 중심으로 오붓하고 은밀하게 술을 마실 수 있다. 분위기부터가 자기 집 안방과 같아서 마음 편히 손님과 친지를 접대하기가 좋은 곳이다. 술집치고는 고급에 속하며 미희(美姬)들이 손님과 짝지어 앉아서 술을 따른다. 고객은 주로 저명인사 · 정치인 · 고급공무원 · 실업가 등 비교적 부유층이 자주 이용한다.

초창기의 요정은 목욕 · 이발 · 다방 · 식당 등도 겸해 돈 있는 사람이 출입하기에 무척 편했다고 한다. 일단 들어가면 목욕도 하여 훤해지고 얼큰해서 나오게 마련이었다. 목적도 향락과 사교 중심이어서 근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드는 기생을 호출해 놀았고 호기를 부렸다.

광복 이후부터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지고 미녀들이 직접 요정에 소속되어 웃음과 애교를 팔았다. 마음만 맞으면 잠자리도 같이 할 수가 있어 흥취가 더하였다. 그래서 명망 있는 재산가들이 주지육림(酒池肉林)에 빠져 새시대의 자본가로 변신하지 못한 채 몰락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명동 일대 상점 안내도 (1961년)
-「서울안내」(제3호) 명동편의 일부

1960~1970년대 당시 고급요정으로는 풍림(중구 명동 57)이 유명하였다. 이곳에서는 송년회 · 신년회를 비롯, 회갑잔치 등 단체손님도 받았다.

그러나 술꾼들은 대형 요리집보다 아늑하고 가정적인 소규모의 요정을 즐겨 찾았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부터는 도심지에 허가없는 비밀요정이 많이 생겨났다. 이 같은 요정의 특징은 집이 여염집처럼 되어있고, 각기 단골손님을 가지고 영업을 이어갔다. 손님이나 주인이나 서로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이름 그대로 비밀요정의 구실을 하였다. 대개 하룻밤에 한 팀씩 밖에 손님을 받지 않았고, 손님들은 내집 안방처럼 벗고 앉아 술상이 차려질 때까지 농담을 주고받거나 화투를 쳤다.

접대부는 대개 유경험자이지만 풋내기 행세를 하고 때로는 여대생 노릇도 하였다. 당시는 아르바이트 여대생도 있었고, 유명 탤런트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니 자연 특수층만 드나들기 마련이어서 그 덕분에 요정은 탈세도 쉽게 하였다. 1967년 8월에는 치안국에서 비밀요정의 적발을 강력히 한다고 나섰으나, 번번이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어 늘 결과는 용두사미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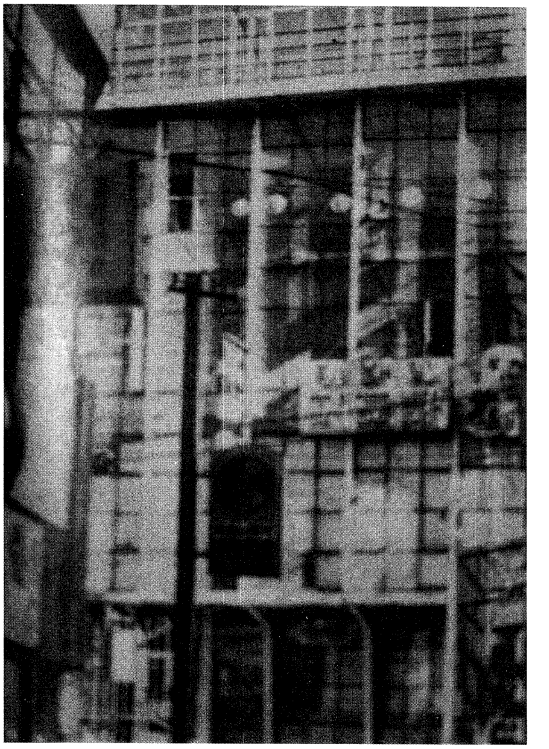
(마) 카바레(cabaret)

카바레는 미군이 서울에 진주한 뒤에 생겨났는데 지금 신세계백화점(新世界百貨店) 건물에 처음 개업하였다. 이 백화점은 광복 전 일본인이 경영하던 미쓰코시백화점(三越百貨店)이었다. 이 귀속건물(歸屬建物)을 당시 한국사람이 미군인들의 유흥장소로 빌려서 주로 미국인들을 상대로 경영하였다. 이 카바레는 그 당시 제일 큰 것이었고, 얼마 후에 작은 규모로 서울 시내 여러 곳에 생겨났다.

카바레는 땐스 · 홀이나 무대를 마련하고 밴드와 댄서를 항상 두어 손님에게 춤을 추게 하든가 쇼를 하는 술집이다. 17~18세기 파리에 있었던 「샤노아르」「퀸 뤼스 죠커」 등의 카바레는 당시 예술가들의 사교장의 기능을 가졌다.

서울에 있는 카바레에는 댄서가 한국여인들이었고 고객은 주로 미국인들이었다. 당시 댄서가 아니면서 미국인들과 사교상 춤을 춘 한국여인 중에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남편을 두고도 탈선하여 이혼하고 미국인과 동거하는 이도 더러 있었고, 그로 인하여 타락한 여인도 있었다. 이때부터 한국여인의 춤바람은 불기 시작하였는데, 최근까지도 건전하지 못한 춤바람은 가정파탄을 가져오게 하였다.

나이트클럽은 회현동 일대에 주로 많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명동 · 무교동 · 용산 방면에도 많이 있었다. 나이트클럽은 댄서를 두지 않고 동반한 손님이 음식을 드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에서는 카바레까지 포함하여 나이트클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나이트클럽도 음식보다는 춤추러 가는 이가 대부분이었다.



금강산 맥주홀(1966년)
-「명동20년」에서

(바) 카페(Cafe)와 빠(Bar)

카페는 커피점이라는 뜻이다. 17~18세기에 프랑스와 영국에서 유행하여 일종의 사교장이 되었던 것인데, 형태는 빠와 비슷하다. 이 카페는 빠—걸(여급)을 두고 음식의 서비스를 하는 일종의 유흥장인 것이다.

빠는 본래 술만 마시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카페와 빠의 구별이 분명하지가 않아, 카페와 빠라는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똑같이 여급(女給)을 두고 술을 파는 술집이었다.

카페와 빠는 광복 전에도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광복이 되자 또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명동 일대에 많이 있었다. 당시 주로 많이 마셨던 술은 청주였으며, 맥주도 마시기는 하였으나, 구입하기가 어려워서인지 마시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 빠나 카페에는 탁자를 앞에 두고 의자 하나에 한 사람씩 앉게 되어 있고, 여급은 손님 옆 의자에 앉아 술을 권해 따라 주고, 서비스의 대가로서 약간의 팁(화대)를 받았다. 그 당시 카페나 빠를 출입하는 이들은 노인들보다는 젊은이들이 많았으며, 대개 초저녁부터 요정에서 술을 마시다가 밤이 깊은 후에 2차 술로 가는 이가 많았다. 그래서 술 먹는 이들 간에는 '초저녁은 요정이요, 밤늦게는 카페 · 빠' 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맥주홀은 1952년 서울 수복 후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서울 명동 일대와 무교동 일대

에 많았다. 맥주홀이란 맥주만 파는 업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맥주, 안주의 단가(單價)가 붙어 있어서 주머니 형편에 따라 술을 마실 수 있고, 또 손님에게 강요가 없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빠나 카페만큼 술값이 비싸지 않고, 또 안주도 양이 많고 값이 싸서 이용하는 이가 많았다. 더구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는 여급이 없으므로 팁 같은 것은 줄 필요가 없어, 적은 돈으로 친구들과 담화를 나누며 즐길 수 있는 곳이라 한때 대성황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 맥주홀은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술과 안주를 날라다 주는 종업원은 젊은 여자들이었으나 영업 규정상 손님 옆에 앉든지, 술을 따라 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여자종업원은 단골손님의 요청으로 남 몰래 주는 약간의 팁을 손님들로부터 받아 주인 몰래 잠시 앉기도 하고, 술을 따라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점차로 맥주홀의 영업규정은 해이해지고, 문란해져 맥주홀 원래의 성격과는 달리 일반 빠나 카페와 같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사) 영화관

영화관은 종래 일본인들이 경영해 오던 단성사(團成社) · 약초극장(若草劇場) · 서울극장 · 중앙극장(中央劇場) · 황금좌(黃金座,국도극장) 등을 광복이 되자 미군정시(美軍政時) 한국인이 접수 임대하여 경영하였다. 영화는 주로 미국영화가 상영되었는데, 광복 전까지는 35m/m 흑백영화이던 것이 이때부터는 35m/m 천연색 영화가 들어왔고, 정부수립 후부터는 입체적인 감각을 돋구기 위하여 만들어진 70m/m 시네마스코우프(와이드 스크린의 일종)라고 하는 대형 천연색영화가 들어와 상영되었다. 미국영화 외에는 프랑스 · 남미(南美) · 중국영화도 간혹 들어와 상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심지의 장력(張力)을 완충하는 곳이 바로 명동과 무교동 일대의 유흥가였다. 특히 도심지의 노른자위인 명동은 유행의 원천지였다. 양화점 · 옷가게 · 백화점 따위가 즐비해 윈도우 쇼핑하기에 안성맞춤이었고, 다방 · 유흥음식점 · 카바레 · 나이트클럽 · 극장 · 호텔 등 각종 위락시설이 골고루 잘 갖추어져 있어, 언론인 · 실업가 · 예술인 · 샐러리맨 · 학생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아침부터 붐볐다. 당시에는 이 거리에 멋쟁이들이 패션쇼라도 하듯 거리를 누벼 이곳에서 유행하는 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마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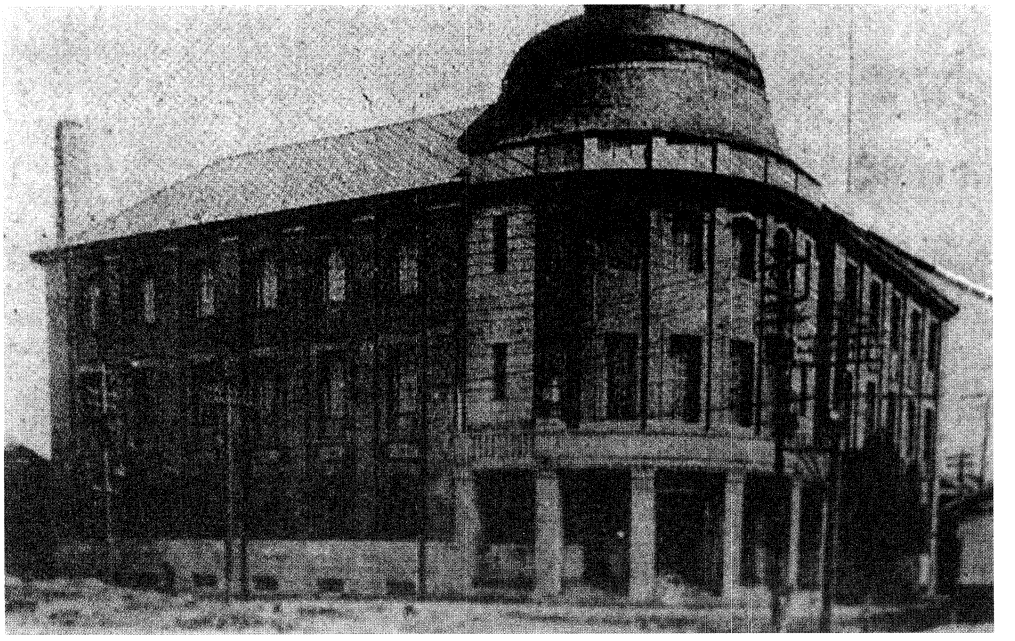
이처럼 여러 풍속의 유행이 무질서하게 범람한 것은 광복과 6 · 25전쟁 전후 10여 년간으로 서구문화가 쏟아져 들어온 영향으로 일제 때의 그 잔재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근대

발전과정에 있어 소화하지 못한 채 외형만 받아들인 과도기의 현상에서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문화유적의 변천

1) 경성주식 현물시장

1920년 <조선회사령>이 철폐되자, 일본으로부터의 자금이 조선으로 대량 유입하였고, 이런 상황에 맞추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 현물시장의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건물은 을지로 2가 199번지에 1921년 8월에 착공, 1922년 12월에 벽돌조 4층 건물로 준공되었다. 모퉁이에 현관을 설치하고, 그 꼭대기에 돔을 얹어, 당시의 공회당 또는 은행건물 등에서



일제 때 증권거래소(京城株式 現物市場)
-「중구지(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모든 선을 직선화 하는 등 보다 모던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2) 일본생명빌딩

일본의 각종 금융기관들이 조선에 지점 또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들의 사옥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것이 1920년대 들어서 빈번해졌다. 일본생명의 사옥도 1923년 경성 내에서 일본인 본거지 중에서 가장 북쪽으로 진출했다고 볼 수 있는 을지로 입구 네거리의 남동쪽 가각(을지로 2가 198번지)을 차지하며 건축되었다.

바로 이전 시대까지 유행하던 르네상스 양식에서 벗어나서 근대적 표현을 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이 건물은 이 시대 변화의 대표적 건물이라 할 수 있다. 벽돌조의 3층 건물로 1층은 화강석으로 수평줄 눈을 강하게 넣은 러스티케이션을 사용하였고, 2 · 3층은 적벽돌 치장 쌓기로 한 묶음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면서도 2 · 3층 사이에는 흰 띠가 점점 이어져 있어 리듬감을 주고 있다. 모서리 땅의 이점을 살려 가각에 주 출입구를 설치하였고, 캐노피를 비롯한 입구성을 강조하는 주변요소는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3) 동아증권주식회사

지금의 외환은행 본점 남쪽 을지로 2가 195번지에 있었던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1934년에 벽돌조와 철근콘크리트조의 2층 건물로 지어졌다. 41평이라는 좁은 대지에 꼭 필요한 기능만을 담은 간단한 지점 건축물의 대표적 예이다.

건물 본체의 1층은 영업장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부속실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당시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객장의 면적이 상당히 여유있게 마련되어 있었다. 정면의 주 출입구 외에도 배변에 부 출입구를 복도로 연결시켜 보안에 만전을 기했음을 알 수 있다. 2층에는 배면 쪽에 응접실과 숙직실을 두었고, 영업장 상부는 정사각형으로 2층 바닥을 뚫어 상하가 통하도록 하였다 정면우측의 옥탑 형태로 보이는 것은 내부기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

한국전력 본사 건물(1966년)
-「명동20년」에서

로 모서리 부분을 강조하고, 더욱이 좁은 대지에 소규모로 세워진 건물의 부피를 크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옥탑의 탑신 부분에 수직 창을 두고 창의 상부를 아치로 마무리 짓는 등 건물 본체의 무장식 띠창 등과는 상반되는 요소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국제주의 기법을 숙달해 가는 과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4) 혼마치(本町)빌딩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출물 중 빌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역시 그 이전까지의 건축은 대부분 양식주의 건축이 주류를 이루었고, 게다가 관공서 건축물이 대부분이어서 건물의 명칭에 건축주의 의지 또는 그 속에 담기는 내용이 그다지 투영되지 못했으리라 여겨진다. 이 혼마치빌딩은 빌딩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처음 사용된 건물로서 1924년 6월부터 1925년 6월에 걸쳐서 충무로 2가에 철근콘크리트조와 목조 · 조적조가 혼합된 지하 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옥상에는 옥탑이 있어 아직 근대식 건축물 초보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역시 양식주의 · 르네상스를 기초로 한 절충주의의 잔영을 볼 수가 있다. 설계의 의도의 기록에는 최신식 디자인을 위하여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였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지 않다.

5) 경성전기회사 사옥

한성전기회사→한미전기회사→경성전기회사로 이어지는 이 회사는 사세가 커지자 근대적

건물로 사옥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 건물은 을지로 2가에 1927년 8월 착공, 1928년 12월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졌다.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독립 기둥을 근간으로 하는 본격적인 근대식 사무용 빌딩이다. 당시 유행하던 시카고파 외관을 띄고 있으며, 약간의 장식적 요소가 있는 르네상스의 입면 구성문법을 기초로 한 근대식 건축양식을 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전력에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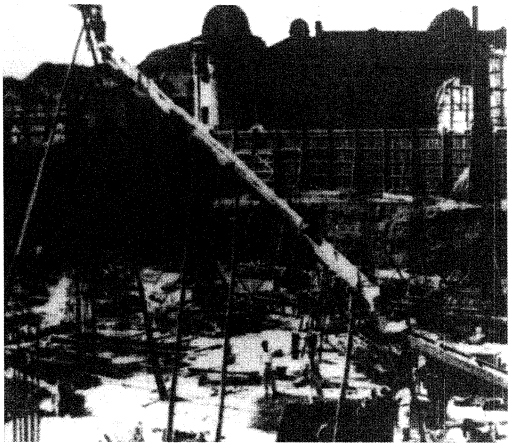
6) 치요다 생명보험상호회사 경성지점

이 건물은 명동 1가 59번지에 1932년 2월부터 1933년 6월에 걸쳐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명동 지역 중 북서쪽 이면도로의 안쪽에 세워진 이 건물은 부정형의 대지를 잘 이용하여 중앙 집중 코어 형식으로 평면을 계획하였다. 남쪽에 공지를 조금 남겨 차고 · 펌프실 등 서비스 기능을 두었고, 전면 도로 쪽에 주현관을 두고 이곳에 엘리베이커 홀이 면하도록 하였다. 1층에서는 전면도로에 면한 쪽에는 임대 점포를 두었고,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사무실로 계획하였다. 2층은 보험회사의 영업장 및 복장실 · 응접실 · 외근 직원실과 일부는 병원으로 구성되었고, 3~4층은 임대사무실, 4층은 직원식당 · 레스토랑 · 주방 · 기관실, 옥상은 옥상정원으로 되어있었다.

외관의 1층은 점포의 진열장으로 인해 큰 구획으로 구성되며, 그 주변을 화강석으로 마감하여 저층부를 묵직하게 구성하려한 흔적이 보였다. 2 · 4층은 한 스팬을 세 개의 창으로 구획하고, 하나의 창은 다시 아래 취흥의 창들과 수직으로 연결되면서 최상부에서 아치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경쾌함을 보여주었으나 현재 남아있지 않다.

7) 아사히(朝日)빌딩

아시히빌딩은 1935년 충무로 1가 53번지에 철근 콘크리트조 4층 규모의 건물로로 지어졌다. 국내 최초의 임대 업무용 건물로 지어진 이 건물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현대식 건물이었다. 원통형 계단실의 벽면구성방법이라든지, 각층의 창틀 샷시를 기둥보다 바깥쪽에 위치시켜 수평적으로 연결시킨 것 등 정면의 2~4층 부분의 벽명을 하나의 판으로 인식되게 동일재료로 평활하게 처리한 수법 등이 설계자가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제는 철거되어 그 터는 제일은행 구 본점의 뒤뜨락이 되었다.



미쓰코시(三越)백화점 신축공사(1929년)
-「신세계 개점 70주년 기념 화보집」에서

미쓰코시(三越)백화점 매장 내부(1930년)
-「신세계 개점 70주년 기념 화보집」에서

8) 미쓰코시(三越)백화점

일본의 상업자본이 조선으로 몰려들면서, 유통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미 조선에서 활동 중이던 미츠이물산은 충무로에서 소규모 백화점을 운영하다가 본격적인 백화점 건물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1926년까지 경성부청이 사용하다가 빈터로 남아 있던 충무로 1가 52번지를 부지로 택하여, 1929년 3월부터 1930년 10월에 걸쳐 철근 콘크리트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였다. 백화점의 이름은 미스코시백화점이었다. 건물의 양식은 르네상스식을 주조로 하는 절충식이었다. 전체적 외부 마감은 흰색 타일이나 중앙과 좌우의 현관부에 있는 화강석 장식과 4층 굴곡부의 발코니, 옥상 파라핏의 수평대는 이 건물에 중후함을 안겨주고 있다. 옥상에는 정원을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 현재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9) 공동상업빌딩

이 건물은 1937년 충무로 2가 63-1번지에 철근 콘크리트조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금의 세종호텔 서쪽 불럭에 해당하는 이곳은 조선시대 왕가의 별궁이 있던 곳으로 1900년대 초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남산 기슭에 몰려 있던 일본인들이 조금씩 북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서 상점가가 된 곳이다. 키타무라 모자상회 · 무사시야구두점 · 타카키 포목점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상점 건물로, 메이지제과 매점과 가까이 있으면서 모던한 디자인으로 충무로의 모습을 가꾼 대표적 건물이었다.

1층의 외부 마감은 인조석이고, 2 · 3층은 타일과 컬러스톤을 사용하였다. 장식은 모두 배제하였으며, 2층과 3층 사이에 3층의 슬래브가 돌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틸 프레임을 사용하여 본격적인 커튼 월 수법을 채용하였다. 도로를 따라 전체적으로 긴건물의 매스나누기와 또 그에 따른 개구부와 벽체의 비례가 바람직하게 책정되었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10) 모리나가 캔디스토아

중앙우체국 옆 충무로 길로 조금 들어간 곳에 중앙 우체국 담장에 이어서 모리나가 제품판매점이 1940년 벽돌조로 세워졌다. 메니지제과 매점이나 키타무라상회 등은 주 도로에 면한 건물의 외벽을 최대한 개방적으로 디자인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1층의 점포와 쇼윈도우를 제외하고는 폐쇄적으로 계획하였다. 특히 건물의 외곽에 타일로 띠를 둘러놓았는데 벽면 재료가 견고하지 못하였기에 테두리를 타일로 굳게 잡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2층 사무실 부분에 나 있는 창 외에는 폐쇄적이며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1층 주 출입구 부분이 건물 외곽선 보다 안쪽으로 물러나 있는 것은 과거 출입구에 캐노피와 경사로 등을 두어 입구를 강조하던 것과 비교하면 근대식 외관 표현수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시대로 들어서면서 외벽의 마감처리로 타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쟁을 위하여 대부분의 물자가 군수품으로 동원되고 물자가 부족하던 창 넓은 벽면을 마감 처리하는 데에 적절한 재료로 인식되어 갔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 있지 않다.

11) 메이지제과(明治製菓) 매점(賣店)

메이지제과 매점은 과자상점답게 모던한 멋쟁이 건물로 1930년 당시 상점가 밀집지역인 충무로 2가 63-1번지에 건축하였다. 철골과 철근 콘크리트조의 3층 건물이었다.

폭이 좁고 깊이 방향으로 길이가 긴 대지의 전면 부분을 도두 창으로 처리하였다. 2층과 3

층 사이의 발코니 풍의 수평 띠는 이 건물을 상업건축답게 더욱 경쾌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면과 좌측 벽면에서 수직으로 뻗어 올라간 장식탑의 밑둥 부분은 데 · 슈타일의 분위기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세워진 건축물 중에서 규모는 작지만 가장 세련된 표현을 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평면적으로는 도로 쪽 절반은 영업장 · 객장으로 사용하고, 뒤쪽은 제빵 · 제과의 작업장으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작업실 부분의 중앙에는 닥은 중정이 있어 채광과 환기에 유의한 점이 눈에 뛴다. 설계는 일본 동경에 있던 모리야마(森格之助)사무소에서 하였다. 현재 남아 있지 않다.

12) 전(前) 국립극장

타마카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담당하여 명동 1가 54번지에 1935년11월부터 1936년 10월에 걸쳐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로 관객 1,1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연극상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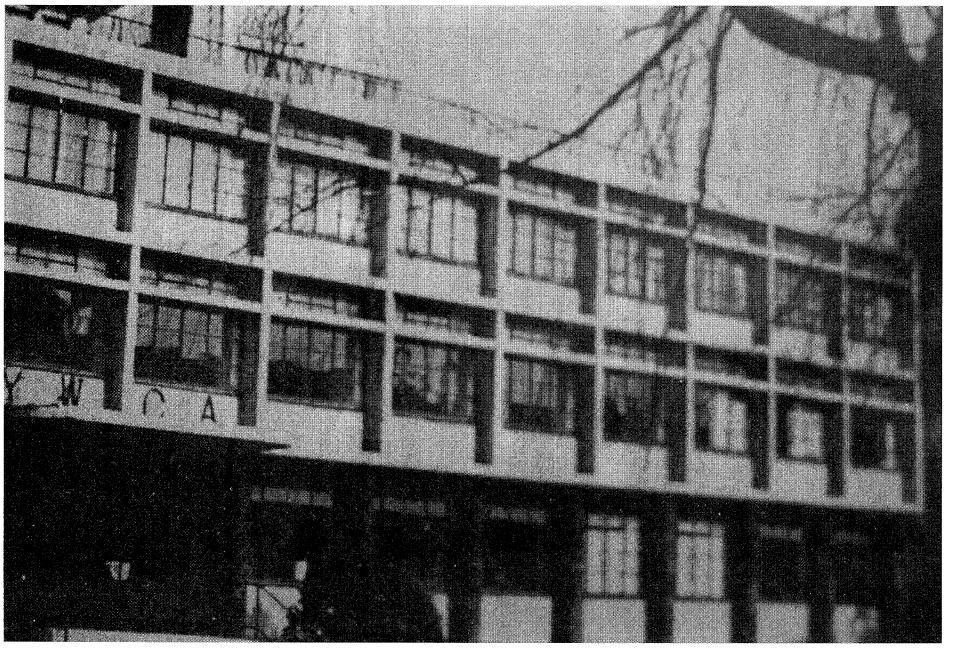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대의 금융가 옛 국립극장 주변

극장을 건설하였다. 객석은 1층(664명), 2층(354명), 3층(160명)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층에는 로비 · 복도 · 끽연실 등이 여유 있게 마련되어 있다. 외관은 후기 르네상스 또는 마레리즘적인 절충주의 냄새도 풍기고 있다.

1936년에 준공된 후 1945년에는 시공관으로, 1955년에는 국립극장으로 개칭하였으며, 1971년에 7월까지 중구 장충동 2가 산 14- 67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국내 유일한 국립극장이었다.

당시의 건물은 2층 콘크리트 건물로 객석은 800석이었고 1년에 5편 정도의 연극을 공연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은 「호동왕자」, 「햄릿」 등이 있으며, 장민호, 김동원, 주선태씨 등 연극인이 활동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국립극장이었으며 현재는 대한투자금융이 입주하여 금융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109]

13) 기독교여자청년회(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건물(1966년)
-「명동20년」에서

젊은 여성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 조직, 약칭 YWCA 라고 한다. 그 목적은 1877년 영국에서 처음 조직되었으며, 그후 이 운동은 전세계로 전파되어 1894년에 세계 YWCA가 설립되었다. 한국에서는 1922년 창립되었는데 창립자는 김활란, 김필례, 유각경이다.[110] 1924년 세계 YWCA위원회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대한 YWCA는 창설 당시 성경연구와 금주계몽, 공창제 폐지운동을 과제로 삼았고, 1920~1930년대의 국산품 장려운동과 농촌계몽을 하여 왔으나 30년대 중반부터 일제 군국주의의 탄압이 노골화함으로 활동을 크게 제약을 받다가, 마침내 일본YWCA동맹에 합병당하여 조선 YWCA로서 의 활동을 중단하였다.

1945년 민족의 광복과 더불어 우리의 YWCA운동이 재개 되어, 1946년 3월 서울 명동 1가에 회관을 마련하고 재건이사회를 열어 대한YWCA로서 정식으로 다시 출범하였고, 1947년 10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YWCA협의회에 우리대표가 참석함으로써 세계YWCA와의 유대도 다시 회복하였다. 1950년대 전쟁 미망인을 위한 사회사업, 공장과 농촌지역의 불유여성들을 위한 활동범위를 넓히는 등학생 · 청소년 및 여성운동에 앞장서 왔다.

14) 유네스코회관

명동 2가 50~16번지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건물이 있다. 유네스코는 1945년 11월 런던에서 제정된 유네스코 헌장에 의해 설립된 유엔의 중요한 전문기구의 하나이며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하나이다. 유네스코의 목적은 교육과학 및 일반 문화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제휴에 의해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이를 통하여 세계평화를 달성하려는데 있으며, 가입은 유엔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전문기구로는 총회 ·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본부는 파리에 있다.[111] 한국은 1950년 6월에 가입하였고 1953년 7월에 한국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위원들은 교육 · 과학 · 문화 및 홍보관계기관들의 대표 35명과 국회위원 6명, 정부대표 4명, 각 분야별 지도가 15명 등 60명으로 당시 구성되었으며, 이는 교육부 장관이 원장이며 총회 · 위원회와 사무국의 부속기관이 있다.

〈 김일림(金逸林)〉

Ⅳ

6·25전쟁과 명동

제4장 6 · 25전쟁과 명동

(1) 폐허화한 명동(1950년~1960년)

1) 사라진 도심의 변화상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공산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일제히 포문을 열고 사격을 개시하여 서울 점령을 목표로 탱크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미아리고개를 넘어 서울에 들어온 것은 6월 28일 새벽 1시경이었다.

공포와 절망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서울시민들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어야 하였다. 미처 피난길에 오르지 못했던 여류 시인 노천명(盧天命)은 당시의 상황의 일면을 시로 잘 표현해 주고 있다.

> 사나운 이리떼 사뭇 밀려와
> 아무 영문도 모르는, 정녕 아무 영문도 모르는
> 평화스런 양의 우리를 뛰어넘어 들던 날
> 죄 없는 백성들 처참히 물려 쓰러지고
> 포악 잔인한 앞에 어미는 자식 감추고
> 아내는 남편을 감추며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었다.[112]

이른바 숙청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체포 심문하고,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학살하는 참극을 연출하여 서울을 위시한 공산군 점령지역에서 학살 128,936명, 사망 224,000명, 납치 84,532명, 행방불명 303,312명, 부상 229,625명이었다. 이는 동족의 손에 의하여 저질러진 우리 민족사상 최초 최대의 참변이었다.

파괴된 명동성당 부근(1951년)
-「다시 돌아와 본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은 동년 7월 1일에 다시 소위 전시동원령(戰時動員令)을 공포하여 1914~1932년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이른바 의용군을 편성하여 전투지역에 내세웠다. 또 남녀 시민을 강제동원하여 군수물자의 운반, 도로와 교량복구작업에 내세우고, 우마차 등 수송수단은 물론, 양곡 · 식품 등을 강제동원 또는 약탈하였다. 이를 위해서 밤중에 호구조사라는 명목으로 가택수색을 자행하니, 문자 그대로 생지옥이었다.[113]

따라서 서울의 잔류시민들은 밤낮으로 공포에 떨고 기근과 고난에 허덕여야 했고, 군중대회에도 나가야 했으며 북한의 「인간사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루 아래나 천장에서 숨어살아야 하였다.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북한의 감시를 피하여 근교의 농촌이나 친척 · 친지의 연줄로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하였다.

종교계의 수난도 형언할 수 없었다. 많은 교직자들이 체포, 감금되고 불교의 승려들은 노력동원에 강제 징용되기도 하였다. 공산군은 성당과 수녀원을 총검으로 접수한 뒤 성직자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성모마리아상을 총으로 쏘고, 명동성당 지하실에 들어가서는 신부들의 유골을 발굴하는 만행까지도 서슴치 않고 자행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국군과 연합군이 상륙함으로써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 서울이 북한군으로부터 다시 탈환한 것은 9월 28일이었다. 그러나 명동일대와 을지로일대는 앙상한 건물 잔재만 남긴 채 잿더미로 변하였다. 이는 연합군의 포화와 공습 폭격으로 파괴되었지만 북한공산군이 후퇴하면서 방화(放火)하였기 때문이었다. 사진작가 성두경(成斗慶)의 『다시 돌아와 본 서울』에 수록된 1951년초에 찍은 사진을 보면 폐허화한 명동일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연합군은 후퇴를 하게 되어 수도 서울은 1951년 1월 4일 다시 한번 공산군의 수중에 함락되었다. 1 · 4후퇴로 서울의 거리는 공백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중공군 점령하의 서울은 적막감을 자아냈다. 1951년 2월 10일부터는 유엔군의 일부 병력이 한강 남안, 즉 동작동 · 영등포구청 앞까지 진출하여, 서울 재탈환의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리하여 서울은 1 · 4후퇴 후 70여 일만에 비교적 평안한 속에서 재수복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조인(休戰調印)이 되어 평화가 찾아오자, 이제까지 경

폐허가 된 명동(1950년)

제적인 면에서 남성들에게만 의존해 오던 여성들이 직접 직업전선에 뛰어들면서 활동에 편리한 양장을 더욱 많이 착용하게 되었다. 이 무렵 서구문명의 적극적인 유입으로 손질이 간편한 나일론(Nylon)의 실용성이 널리 소개되어 양장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54년부터는 차츰 신문 문화면에 여성에 관한 기사가 늘어나고 명동에 양장점도 늘어나면서 세계 패션소식을 비롯하여 국내 디자이너에 대한 기사가 실렸으며, 차츰 일반 여성들에게 양장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심어 주었고, 양장을 권유하는 경향이 농후해지면서 활동하기 편리한 양장을 하는 여성의 수가 부쩍 늘었다. 이 때의 스커어트는 짧아지면서 좁아졌고 일부층에서는 홀태바지를 입고,[114]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힙 라인 밑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맘보바지에 햅번 스타일의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유행을 이루었다.

1956년의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이승만(李承晩) 대통령과 자유당은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패배할 우려가 높자, 관권(官權)과 사이비 당원을 동원하여 야당계 인사들을 연행, 등록을 방해함으로써 그들의 진출을 억압하였다. 이에 야당계 의원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관권 개입반대를 외치며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시위, 농성 등의 방법을 통해 여당의 조직적인 탄압에 저항하였다.

자유당은 차기의 정부통령 선거에 앞서 대공사찰(對共査察)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야당의 언론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킨 '2 · 4 파동'이 있었다. 이 보안법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1959년 1월 30일 밤에 민주당원들은 명동 시공관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8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115]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1960년의 정부통령의 선거에서는 기필코 승리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다. 민주당에서는 신 · 구파의 대립을 극복하고 대통령후보에 조병옥, 부통령후보에 장면을 지명하여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자유당은 선거에 승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부정선거 공작을 기도하였다. 그러자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의 데모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1960년 4 · 19혁명으로 비화(飛火)하게 되었다.

4월 19일, 서울시내의 대학생과 중 · 고등학생들은 3 · 15 부정선거 규탄과 학원의 자유보장을 내걸고 일시에 시위에 돌입하고, 이와 같은 시위는 곧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서울 등의 5개 도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4월 21일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4 · 19 혁명으로 인한 희생자는 민간인 사망자 111명(뒤에 130명으로 증가), 부상자 740명이었다.

4월 25일, 민주당은 이승만대통령의 하야(下野)와 정부통령재선거, 내각책임제 개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내 각 대학교 교수단은 이승만대통령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14개 조항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시위에 돌입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오전 10시에 하야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12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제1공화국은 붕괴되었다.

이승만대통령의 사임으로 수석 국무위원인 허정(許政)외무장관이 자동적으로 대통령 대행으로 취임하여 허정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어 민(民) · 참의원(參議院) 양원합동회의에서 윤보선(尹潽善)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장면(張勉)국무총리가 민의원에서 인준(認准)됨으로써 4 · 19혁명이 일어난 지 100여일 후인 1960년 8월에 제2공화국의 역사적인 출범을 보게 되었다.

2) 전란이 할퀴고 지나간 모습

1 · 4후퇴 후 재수복된 서울의 모습은 더욱 황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정부건물 4,967동이 파괴되었고, 은행 · 학교 · 병원 등 공공건물도 수 없이 불타버렸다. 6 · 25전쟁 직전까지 서울의 개인주택은 191,000여 동이었는데 그 중 29%에 해당하는 55,082동이 잿더미로 변하였다. 이러한 주택의 피해는 전국 피해의 54%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서울이 입은 전화(戰禍)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상 · 하수도와 도로, 교량 등의 피해로 서울의 도시로서의 기능은 거의 마비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서울이 재수복된 지 3일 만인 3월 18일에 서울시행정 건설대 300여명이 김태선 서울시장의 인솔로 입경하였다. 그러나 이때 민간인의 출입은 통제되어, 미군 민사처(民事處)에서 발급한 도강증(渡江證)이 있어야만 한강검문소를 거쳐 서울에 들어올 수 있었다. 따라서 큰 거리에서도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왕래하는 시민을 찾아볼 수 없었다. 큰 건물은 앙상한 뼈대만이 남아있고, 남은 민가들도 대부분이 텅비었으니, 보이느니 전쟁이 할퀴고 간 참상 뿐이었다.

따라서 먼저 들어온 시청직원들도 다동(茶洞) 쪽에 남아있는 민가에 분숙(分宿)하면서 낮에 시청에 출근할 정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 해 7월에 부산에 있던 서울행정처가 폐지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정이 환원되며 각지에는 출장소를 두었는데 이 무렵에 서울 인구는 강북지역에 32만, 영등포지역의 13만 명으로 모두 45만명에 불과하였다.[116]

6 · 25전쟁이 발발한 다음 해 김태선시장이 이기붕시장과 교체 되어 「서울특별시 행정건설대」를 이끌고 서울에 재입성했을 때의 서울시의 상황은 그야말로 폐허였으며, 당시의 도시 행정의 어려움과 공백상태는 다음과 같은 김태선시장의 회고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1951년 6월말인가 보다. 서울복귀의 임무를 띠고 한강을 넘어서던 때가 엊그제인 듯하다. 몇 안되는 구 · 시청직원들을 이끌고 황무지와 같은 서울로 돌아왔을 때는 무척 심신이 처절하였다. (중략) 사람 하나 만나기가 어려운 위에 가끔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반가운 것이었다. 곳곳에 흩어진 흙벽돌 밑에 시체가 묻혀 있어 혼자 거리를 걷기가 무서울 지경이었다. 가끔 전쟁의 흔적이 가득 묻은 군용트럭만이 사납게 거리를 지나가곤 하였다.

몇 안되는 시청직원을 거느리고 우선 봇짐을 풀 데가 없어서 지금 다동 어느 집 한간을 빌려 그곳에다 냄비를 걸고 자취를 하게된 것이 서울복귀의 첫날밤이었다.

그러나 이튿날부터 형편없는 폐허의 거리를 새로 세우고, 쓸고 치우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막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서울에 남아있던 시민이란 추산으로 불과 5만을 헤아릴까 말까하는 그야말로 무인지대나 마찬가지였다.[117]

취임한 김태선시장의 서울복구작업의 첫 사업은 시내 곳곳에 가매장된 시체를 망우리(忘憂里) 공동묘지에 이장시키는 것이었다. 인부를 고용하여 한 수레에 2,000원씩 시체를 옮기게 하였으나, 며칠 후 확인하면 대부분의 시체가 망우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청량리 밖 논두렁에 모두 내던져져 있었던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미군의 식량협조를 얻어 시체 이장 작업자에게는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한사람에 6홉의 쌀배급을 현장에서 주기로 하고, 시체 이장 작업을 하였다고 김태선시장은 술회하고 있다.[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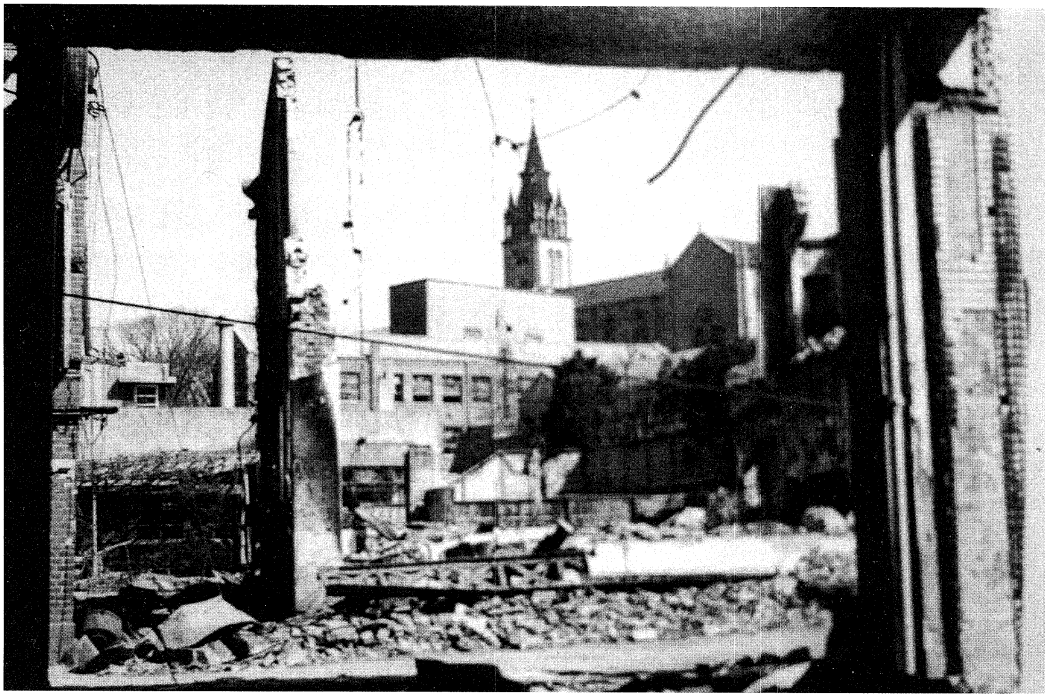
휴전 후 정부는 기아선상(飢餓線上)의 국민생활을 염려하여 국민생활보호법을 기초(起草), 종래의 임기응변적인 구호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입법을 서두르기까지 하였다.

한편 휴전 후 새로운 삶의 의욕이 넘쳐흐르던 서울시민들은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미군물자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속칭 양키시장, 미군 피 · 엑스(PX)거리가 형성되기 마련이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자리는 1954년 11월까지 미군 피 · 엑스로 사용되었으므로 회현동으로 올라가는 오른쪽 언덕 일대는 이로 인해

번화하였다. 처음엔 굉장히 단속이 엄했으나 단속의 눈을 피해 피 · 엑스 물건이 시중에 나돌았다.

여기서 6 · 25전쟁 후의 명동 모습을 알 수 있는 글이 있다.

서울 수복 후 폐허의 명동은 골목골목마다 전상(戰傷)의 아린 자욱이 역력했고, 기울어진 빌딩, 허물어진 집들 벽을 의지해서 대포집이며, 싸구려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연탄가스 냄새가 자욱한… 그리고 어둠침침한 가게 아닌 가게 안엔 드럼통이 옹기종기 놓여있어 그것들을 끌어안고 밤새 넉넉지도 못한 안주에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곤 이유도 없는 기염을 토하며 자기를 달랬던 곳, 명동은 그러한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을 불러들였던 것 같다… 어둡고 창백한 하루하루 허기에 지친 마음을 이끌고 명동은 늘 우리들을 반겨주었던 곳이기도 하였다. 그 곳에서 우리는 친구를 만났고, 예술을 얘기했었고, 그때 전후(戰後)의 사상을 논하기도 하였다.[119]



폐허로 변한 명동성당 부근(1951년)
-「다시 돌아와 본 서울」에서

페허로 변한 명동성당 부근(1951년)
-「다시 돌아와 본 서울」에서

수복 후 서울의 밤거리는 가로등이나 네온사인이 없어 캄캄하였다. 명동입구에서부터 문예서림을 지나 명동극장, 국립극장 쪽만 남고, 건너편 동순루를 비롯해서 많은 건물들이 포연(砲煙)에 얼룩진 채 부서졌다. 충무로로 이어지는 거리도 폐허로 변하였다. 명동장과 무궁원, 돌체, 피가로도 덩그라니 빈터만 남았다.[120] 명동입구에는 밤이 되면 포장을 치고 손님을 부르는 야시(夜市)가 벌어져 남과 북의 사투리로 물건을 사라는 장사아치의 말씨가 시원한 여름밤이면 한결 더 정이 가고 부드럽고 시원스레 청각을 흔들어 준다.[121]

명동은 6 · 25전쟁 직후 탈출구 없는 삶에 짓눌린 한 남자의 삶을 강렬하게 웅변한 유현목 감독이 제작한 영화「오발탄」(1961년)의 주요무대이기도 하였다.[122]

3) 옛모습을 찾기 위한 몸부림

6 · 25전쟁 직후에는 서점이나 극장이 한 두 곳이 생김에 따라 시인이나 소설가, 연극학도는 물론 영화감독 등 글 깨나 읽고, 쓸 줄 안다는 사람은 명동에 모두 모여들었다. 1955년 청

년실업가 김동근(36세)이 재산을 털어 가난하고 외로운 예술인을 위해 3층은 회의실, 2층은 문인들의 집필을 위한 방으로 꾸민 동방살롱이 현재 외환은행 본점 북쪽에 만들어져 모든 예술인은 이 곳을 사랑방으로 하여 출입하였다. 이 당시 조병화 · 김광주 등의 명동파 문인들은 명동극장 인근의 모나리자 다방에 모였으나 주머니가 가벼운 문인들은 차를 마시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석고상'이라고 칭하여 다방에서 눈총을 받았다. 그러자 모나리자 다방의 문인들은 눈총을 받지 않는 동방살롱으로 옮겼다. 그러나 안타깝게 동방살롱을 만든 김동근 사장은 이듬해 1956년 8월 19일 마포강 밤섬에서 개최된 '문화인 사육제'에 참석하였다가 나룻배가 전복하여 가족과 함께 익사하였다.

6 · 25전쟁으로 명동 2가 지역은 거의 잿더미로 변했으므로 정부는 1952년에 토지구획정리 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1956년경에는 충무로를 대신하여 명동 1 · 2가가 새로운 쇼핑 중심지로 바뀌었다.[123]

1955년경부터 사교춤이 도심을 휩쓸었다. 남성 · 여성 할 것 없이 사회문제화 할만큼 사교춤이 유행되었다. 당시 문교부(文敎部)에서는 당시 성행되고 있는 사교 '땐스' 문제에 관하여

땐스의 보급은 불가피한 필지(必至)의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공개교습의 정식 인가문제를 참작하고 있었으나 땐스가 미치는 사회적인 폐단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여론과 교육적인 영향을 검토중에 있다.[124]

땐스 교습소를 정식 인가해 주기로 합의하였던 문교부당국이 15일 돌연 "학술적인 것이 아니므로 인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서울시 당국의 요청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조치에 이른 것은 국무회의(國務會議)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125]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땐스의 범람문제가 국무회의에서까지 논의되었음을 말해준다.

6 · 25전쟁 전과 그 이후의 서울의 거리는 비정상적으로 세계 유행의 진원(震源)에 못지않는 화려함이 있었다. 곳곳에 고급요정, 비밀 땐스홀이 성행하였다. 이 당시 세칭 '박인수사건' '자유부인사건' 등은 이 때의 세태를 너무도 잘 증명해 준다.

또 하나는 요정과 다방의 범람이다. 요정의 범람은 일제와 6 · 25전쟁이 가져다 준 풍물이었다. 미풍(美風)으로 오고가는 대접이 아니라 먹는 것의 대부분이 모두 이해관계가 개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요정은 나날이 그 수가 늘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만큼 상식 밖의 일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당시 신문들의 보도를 보면[126]

조간신문을 피는 노인(1966년)
-「명동20년」에서

신문지면을 통해 알려지는 밀무역(密貿易)과 오직사건(汚職事件)의 대부분이 요정이나 다방「마담」과 관련이 있으니 이들을 가리켜 사회악의 온상이라고 일컬어도 무방할 것 같다. 이 달갑지 않은 「온상」이 당국에 등록된 숫자만 보아도 음식점이 12,516 개소에 다방이 1,004 군데나 되니 이것은 그런대로 나은 편이고 실제로 온상 중의 왕자를 차지하는 「무허가 요정」이 주택지를 침입, 큰 소리치고 있는 현상은 법치국가의 체통을 의심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라고 통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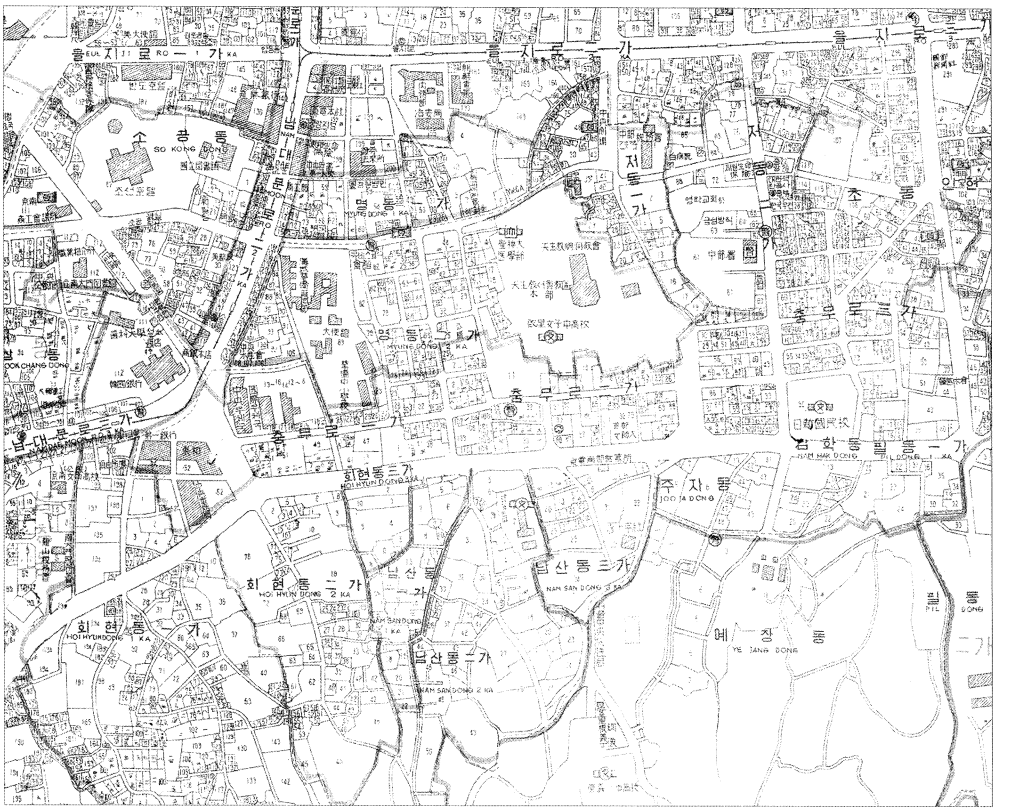
전후의 서울에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각종 음성적 직종, 즉 대표적으로 밀창(密娼)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는 6 · 25전쟁으로 인하여 무의무탁(無依無託)한 여성, 전재미망인(戰災未亡人)들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여성, 서구 풍조에 휩쓸려 전락된 여성들이 많이 생겨나 이들은 하나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1955년 12월에 시내 각처의 사창굴을 단속하고, 또 1956년 1월에는 '사창근절대책위원회(私娼根絶對策委員會)'를 조직하여 창녀 및 포주들을 단속하여 일부 창녀를 갱생원

(更生院)에 수용, 선도하게 하였다.

또 하나는 각종 신분증이 범람하였다. 특히 6 · 25전쟁 이후 북한 공산주의자와 구별하기 위해 「시민증」·「도민증(道民證)」을 비롯해서 「국민병수첩(國民兵手帖)」은 물론 「통행증」·「출입증」·「단체원증」 등 헤아릴 수 없는 각종 증명서를 가지지 않고서는 자칫 잘못하면 공산당으로 오인 받기가 쉬웠다.

일반 시민들은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으레 시민증이나 수첩이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다. 이 무렵 신분증은 시민의 방파벽(防波壁)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만큼이나 귀중하게 다루어졌다. 술을 마시고 돈이 없을 경우 국민병수첩 등을 저당 잡히는 새 풍속이 시작되었다. 학생은 학생증, 농민은 도민증(道民證), 자수한 자는 자수증을 가져야 활보할 수 있었다. 당시는 신분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세가 큰(?) 사



명동 일대 지도(1960년)
-「대서울정도」에서

람이었다. 이를 기회로 신분증에 붙일 사진, 용지 등을 가지고 직업으로 삼는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였고, 이 때문에 위조증명서를 가지고 사기하는 무리까지 등장하였다.[127]

이 무렵 울고 웃으며 마련된 새 언어(?)가 유행되었다. 이들 유행어는 당시 사회를 풍자한 단어들이 대부분이었다. 우선 미군은 코쟁이에서 양키 양서방, 지아이(GI)등으로 불리었고, 미군과 관계된 여자명칭은 양부인, 양공주, 유엔사모님 등으로 불리어졌다. 또 문학작품을 통한 신용어로는 자유부인을 비롯해서 25시, 부조리(不條理), 싸르트르, 실존주의, 씨네마스코프, 입체영화, 오일, 파마, 코주부, 고바우, 주태백 등이 유행되었다.

정치방면을 살펴보면 건달장관을 비롯해서 사사오입(四捨五入), 발췌안(拔萃案), 거수기(擧手機), 관제민의(官製民意) 등을 대표로 들 수 있고 냉전, 제2세대 등도 유행대열에 올랐으며, 사회성을 띤 것은「사바사바」와「국물」이 단연 으뜸이었다. 도둑을 얌생이로, 훔친다를 빼빈다로 불렀고, 종로3가를 서종삼군(서울 종로3가)으로, 깡패를 어깨 등으로 불러 당시 사회상을 일부나마 대변해 주는 느낌을 주고 있다.

1958년 9월에 명동에 차량 일방통행제를 실시하자 상가의 매상이 30~40% 정도 매상이 줄었다고 상인들이 울상을 지었다. 이 당시 명동 백하(白河)다방에 들른 이기붕 국회의장은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128]

(2) 복구재건기의 명동(1961년~1969년)

1) 경제성장기의 명동

민주당정부를 무능 · 부패 정부로 규정하고 5 · 16군사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소장과 일단의 장교들은 계엄령을 선포, 삼권을 장악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 이를 통해 입법 · 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를 행사하였다.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은 2년 7개월간 군정을 실시하였다.

5 · 16군사정변 이전의 명동의 밤거리는 프랑스 파리의 어느 환락가로 착각할 만큼 화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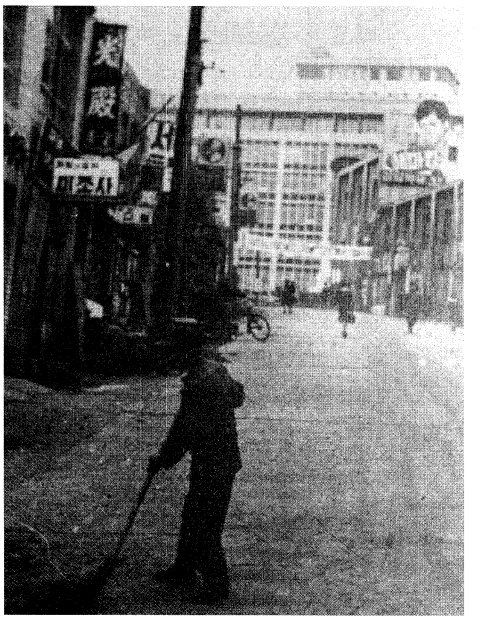
였고, 활개치는 명동의 어깨 때문에 밤길을 마음놓고 걷지 못했으며, 일본 노래곡이 귀를 찔렀으나 그 이후의 거리 모습은 5 · 16군사쿠데타 이후에 고요해졌다.[129]

또한 군사정부는 국민운동본부를 설치, 생활간소화 · 가족계획 · 문맹퇴치사업을 벌이는 한편, 친선방문외교 · 초청외교 등 적극외교의 자세를 보였다. 획기적인 경제조치의 하나로 단행된 통화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따라서 이 당시 명동에는 재건복 옷차림이 주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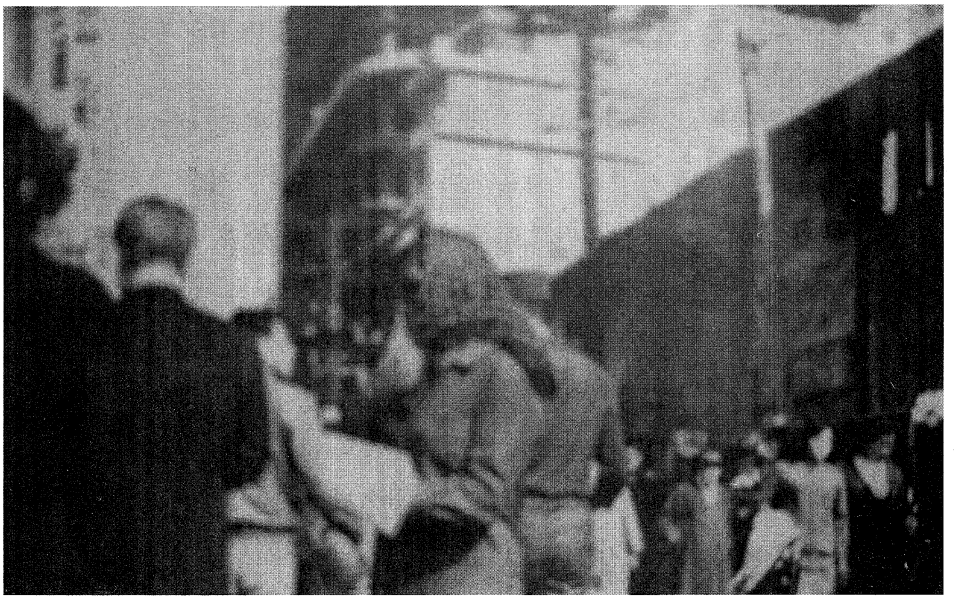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은 1963년의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 야당의 윤보선(尹潽善)을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제3공화국의 통치권자가 되었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작업은 경제발전과 한 · 일국교정상화였다. 박정희대통령은 이미 군정기간인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한 · 일국교정상화는 '친일외교' · ' 흑막외교' 라는 비난을 받아 국민의 대일감정을 자극하여 '6 · 3사태' 등 한때 정국의 위기까지 불러일으켰으나 박정희정부는 반대의견을 물리치고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을 정식으로 조인하였다. 한일회담 타결, 월남파병 등으로 미국으로부터도 신임을 얻은 박정희는 강한 집권욕을 드러냈는데, 그 결과는 1968년 3선(三選)개헌으로 나타났다.

광복 이후부터 1980년초까지 서울시에는 밤 12시~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성탄절과 12월 31일밤은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으므로 이 때는 젊은 청춘남녀들과 주당(酒黨)들의 날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3년 12월 성탄절 전야에 명동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많은 아베크족들이 몰려들어 오후 3시~밤10시까지 약 2만 명이 드나들었다. 명동의 호텔, 뮤직 홀, 다방 등은 만원이어서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은 열을 지어 서기도 하였다.[130] 1990년대에도 성탄절 전야에는 성탄절을 즐기려는 젊은이들과 선물을 사려는 이들 10만여 명이 오후 5시부터 명동에 운집하여 주차장이 북새를



명동거리 청소(증현 : 1960년)
-「명동20년」에서



명동거리에서 선전문을 배부하는 여인(1966년)
-「명동20년」에서

일으켰다. 이에 경찰과 청소년단체는 이들에게 조기 귀가를 종용하는 방송을 하거나 계몽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하였다.[131]

1970년대의 명동의 기능은 첫째, 최신 유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둘째, 약속의 장소와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며 셋째, 새로운 유행과 상품을 쇼핑하고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피부로 느끼면서 여가시간을 선용하는 장소였다.[132]

2) 문인 · 예술가들의 집합처, 명동

6 · 25전쟁으로 서울의 모든 곳이 폭격으로 황폐화되었을 때 명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폐허로 변한 명동은 1952년 정부가 전재복구재건을 위한 토지계획정리 추가지구로 고시(告示)하면서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피난하였던 사람들도 명동으로 다시 나왔다.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명동에 주소를 둔 사람 곧, 상주인구는 얼마되지 않는다.[133] 그 중에 절반이 넘는 수효가 20대의 젊은층으로 그들은 대개의 상가 경영인들에게 고용되어

명동을 잠자리이자 일터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동을 종래에는 한국 제일의 번화가, 사치와 유행의 1번지로 불리었으나 요즈음은 대형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므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물결로 항상 혼잡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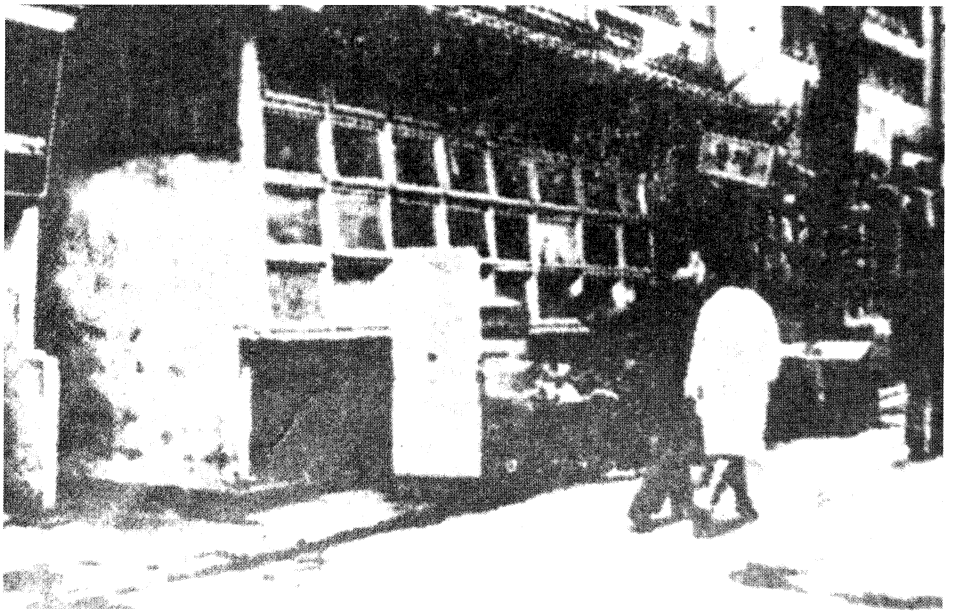
명동1 · 2가는 조선말부터 일본인에 의해서 충무로와 함께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일제 때는 기생집과 요리집이 즐비했던 유흥가로, 광복 전부터 6 · 25전쟁 직후까지는 세계정세와 전세(戰勢)파악을 위한 정보 제공처였다. 6 · 25전쟁이 끝난 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문인들의 집합처가 되었다.

1950년대 당시 충무로 입구를 거슬러 명동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가노라면 수 없는 다방이 늘어서 친구를 만나고 예술을 이야기하고, 전후(戰後)의 사상을 논하면서 젊고 분출할 곳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유일하게 기쁨을 나누는 곳이 다방이었다.

1956년 봄에 추억의 아름다운 노래 '세월이 가면'을 작사한 박인환(朴寅煥)이 31살의 나이를 일기로 죽음을 맞은 곳도 명동이었다. 1960년대의 젊은 여류문인 전혜린이 독일로 유학가기 전까지 수시로 들락거렸던 돌체다방도 1970년대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옛날의 추억을 살려주는 다방과 문인들도 모두 사라졌다. 명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명동시장(明洞市長)」·「명동백작(明洞伯爵)」이란 애칭으로 불리었던 소설가 이봉구(李鳳九 : 1915~1983)이다.[134] 명동이 문화예술인들에 의하여 빛나던 황금시대에 이봉구는 명동거리에 젊음을 묻은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명동의 밤거리(1966년)
-「명동20년」에서

자칭 '명동백작'인 이봉구도 김관식 · 서정주 · 구상 · 황순원 등과 함께 1960년대까지 명동에서 사라져 원로로서 명동을 지키고 있었다.[135] 이봉구는 명동에 대해 충무로와 함께 "8 · 15 광복 전만 해도 일본 사람들의 거리였지만 명동의 비좁은 뒷골목의 어느 지역 나지막한 다방과 술집만은 이 땅의 꿈 많은 예술인들의 터전이었으며, 고독과 인내와 지조와 양심과 청춘의 낭만 속에 살



문인·예술가들이 드나들던 은성 술집(일명 봉구주점)
-「명동야화」에서

아오던 당시 예술인들의 울분과 탄식이 서려있는 지역이었으나 조국의 근대화로 인하여 명동이 상업지구로서 번화해 진 것"이라고 회상하였다.[136] 명동을 사랑하여 그곳에서 살다시피 한 인물이 한 두 명이 아니겠지만 이봉구처럼 명동에 애착을 갖고있던 사람은 드물다. 이봉구는 탈랜트 최불암 모친이 주인이던 명동입구의 은성(銀星) 술집에 매일 들러 한 모퉁이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셨으므로[137] 그모습을 '은성의 풍경화'라고 하였다. 성품이 온화하고 조용하며 마음이 따뜻한 그는 글을 쓸 때는 정열을 기울였는데 주량은 매우 약해서 술 한잔 마시고 소금을 안주로 대신하였다. 당시에 은성에는 기라성 같은 문인, 화가, 언론인들이 모였다.

이봉구는「조선일보」에 1965년 8월 1일부터 '명동 20년'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하여 이를 .1966년에『그리운 이름따라—명동20년』(유신문화사)이라는 저서를 냈다. 그는 흘러간 시대의 인물들과 명동거리들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렇게 명동거리에 인생을 묻었던 이봉구도 1960년 초에 변해가는 명동이 세태에는 어쩔 수 없었던지 아니면 친구들이 모두 떠난 명동이 낯설어서였던지 이런 말을 남기고 명동거리를 떠나 버렸다.

"가는 길 오는 길, 쉬는 곳 머무는 곳이 거의 같아서 자주 만나던 우리의 명동파들은 1960년초 우리들의 명동이 막을 내림과 동시에 명동을 떠나게 된다."

1982년에 67세의 이봉구는 "명동이 구경이나 하고 지나치는 통로가 아니라 머물러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명동의 대로변의 패션가가 유행을 이끌며 낮의 화려함을 장식한다면 풍성한 대화와 낭만이 가득찬 술집과 다방 등 유흥가가 뒷거리에 마련되어야 명동의 낮과 밤이 조화를 이루고 활기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제언하였다.[138]

이봉구의 문학비는 그의 묘소가 있는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상산리에 1983년 11월 27일에 세워졌다. 문학비의 제막식에는 고인의 가족과 송지영 · 정비석 · 조병화 · 조경희 등의 문인이 참석하였다.[139]

1963년경에 명동에는 60여 개의 바 · 캬바레가 지붕을 맞대고 성업을 하였는데 5 · 16군사쿠테타 직후의 불경기로 많은 업소들이 폐업하거나 인근의 다동 · 무교동쪽으로 옮겨 갔다.[140]

197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오비스 캐빈(OB's Cabin)에서 햄버그 스테이크를 먹으며 통키타 노래 듣는 게 최고의 호사였다고 하는데 이 당시 명동거리는 통키타음악과 청바지에 생맥주가 넘실거렸다.[141] 1970년 명동입구 코스모스백화점 건너편에 금수강산에는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등이 무대에 섰고, 1970년대 중반에는 중앙통(통키타 거리)에 셀브르가 세워져서 이문세, 전영, 신형원 등이 통키타 가수로 출연하였다.[142] 현재 셀브르는 원래 위치에서 밀리오레 건너편 골목 안, 명동 2가 328번지로 이전하여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1960년대는 서구의 복식인 양장이 급속히 산업화 · 도시화가 추진되던 우리 나라에서 양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로서, 복식문화로 패션화를 이루었다기보다는 아직 서구의 유행을 무조건 수용하며 모방하는 시기여서 미니스커트 · 색드레스 · 핫팬츠 · 판탈롱 등 영패션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명동을 주제로 한 대중가요가 1950년대~1960년대에 널리 애창되었다. "서러운 일 많아서 서울이드냐/신문 파는 저 소년 저무는 충무로……" 라는 가사의 「저무는 충무로」(김초향 작사, 이봉룡 작곡)는 1950년대에 가수 한복남이 불렀고, "궂은비 오는 명동의 거리 가로등 불빛따라 쓸쓸히 걷는 심정……"(이철수 작사, 라음파 작곡)의 「명동 불루스」는 1950년대에 가수 고운봉이 불러 힛트하였다. 또한 "봄비를 맞으면서 충무로 걸어갈 때/쇼윈도 그라스에 눈물이 흘렀다.……"의 「서울야곡」(현동주 작사, 작곡)은 탱고 리듬으로 가수 현인이 불러서 널리 알려졌는데 1970년대 중반 인기가수 전영이 이 노래를 다시 불러 크게 힛트하였다.

명동을 주제로 한 노래에는 속칭 명동의 상송「세월이 가면」을 빼놓을 수 없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면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1956년 이른 봄 동방싸롱 앞 빈대떡집에서 박인환(朴寅煥)이 작사하고, 이진섭(李眞燮)이 작곡하였으며, 임만섭(林萬燮)이 노래를 불러 즉흥으로 만들어진「명동샹송」은 이 후에 사람들 입에 회자(膾炙)되어 명동의 노래가 되다시피 하였다.「목마와 숙녀」라는 유명한 시를 남기고 30세의 한창 나이에 그가 사랑하던 거리에서 통음(痛飮)한 끝에 그의 시 귀절처럼 술병처럼 쓰러져버린 시인 박인환! 그의 일화는 아직도 명동거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다음에 1968년에 발표한「비내리는 명동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다. "비내리는 명동거리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사나이 두 뺨을 흠뻑 적시고 말없이 떠난 사람아…"(백영호 작사, 작곡)라는 이 노래는 비운의 가수 배호(裵湖)가 불렀다. 원래 이 노래는 영화「비내리는 명동거리」에서 주연을 맡은 김희라가 먼저 불렀지만 허스키 가수 배호가 레코드를 취입하여 힛트하였다.「돌아가는 삼각지」로 인기가수에 오른 배호는 1967년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에 취입하였다.[143] 이어서 텔레비전이 없던 1960년대에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가인「진고개 신사」(심영식 작사, 김호길 작곡)를 들 수 있다. "미련없이 내뿜는 담배연기 속에/아련히 떠오르는 그 여인의 얼굴을…"의 노래는 가수 최희준의 독특한 허스키 보이스로 당시에 크게 힛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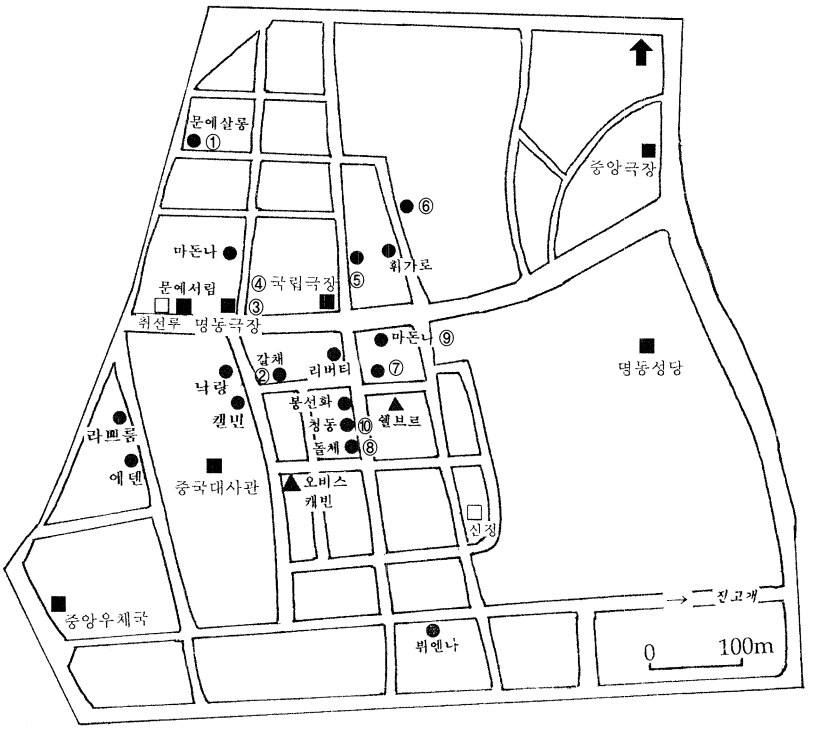
그 밖에도 1960년대에 가수 오영남이 부른「명동나그네」(김석야 작사, 이봉조 작곡)가 있다.[144]

1955년에는 동방싸롱이 문을 열어 명동의 1950년대 후반기를 풍미하게 되었다. 한때 문단(文壇)은 모나리자파, 문예싸롱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모나리자파는 제각기 하나의 비조직성의 문인 예술가들이고, 다른 싸롱그룹과는 성격이 달랐는데 이 모나리자파가 이 동방싸롱으로 대거 이동해 왔다. 시인 조병화는「동방싸롱-명동소묘」에서 "동방싸롱은 한국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다방이다./예술가들은 담배를 많이 피운다./예술가들은 돈을 귀찮게 생각한

다./예술가들은 오로지 사랑에 산다./…동방싸롱은 한국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그리운 다방이다.…" 라고 표현하였다.

이 시기에 활동한 디자이너들은 주로 명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기성 디자이너 최경자 · 노라노 외에도 젊은 신인 디자이너들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앙드레 김, 미스박테일러의 박윤정, 로라의 한계석, 조세핀 조의 조세핀조, 쎄실의 김복환, 뉴스타일의 정창문, 조타의 박광현, 이사베라의 김정수, 블론디의 이선옥, 이외에도 김비함 · 도재은 등이 소규모 양장점 규

문화 예술가들이 모였던 명동지역



① 모윤숙 시인의 문예빌딩에 문예출판사와 문예살롱이 들어있어서 문인들이 많이 모였다.
② 갈채다방:문예살롱이 문을 닫고 옮긴 집
③ 은성:명동의 유명 술집. 문화인들의 안식처였고, 이봉구 소설가가 노상 버티고 앉아 있었다.
④ 모나리자:영화인들이 주로 모였다.
⑤ 소심:음악이 좋아서 많은 문인들이 모였다.
⑥ 동방싸롱:자유문학을 중심으로 모였다.
⑦ 보리다방:기자들과 젊은 문이들이 모였다.
⑧ 돌체:유명한 음악감상실
⑨ 금꿩다방:화가들이 주로 모였다.
⑩ 청동다방:공초 오상순 시인이 지키던 다방

모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기존 몇몇의 명동에 있던 양장점과 함께 명동 패션가의 정착에 공헌하였다.

3) 명동 보물 발굴 사건

현재 우리은행 명동지점 옆의 명동 2가 48-2번지(200평) 자리에 일제 때 보석상을 하던 일본인이 광복이 되자 금 · 백금 · 다이아몬드 · 비취 · 루비 · 진주 등 시가 4억 5,000만환에 해당하는 보물함을 묻고 일본으로 떠났다는 이른바 보물 발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용산구 한강로에 거주하는 이순녀(李順女)와 용문동에 거주하는 김영조(金榮祚) 시민이 1961년 9월 22일 이를 발굴하겠다고 서울시에 허가서를 제출하면서 일어났다.[145] 명동 땅속에 4억 5,000만환 보물이 묻혀있다는 이 신판 '보물섬' 이야기는 5 · 16군사쿠데타 초기에 장안의 큰 뉴스였다. 허가원을 낸 두 사람은 광복 이전에 보석을 묻고 간 일본인과 친교가 있는 부산의 강화(姜華)씨로부터 들은 정보를 믿고 신청을 한 것이다. 강화씨는 10년 전 일본에 있는 친구 한 사람이 마산에서 만나자 하여 보석함을 묻었다는 일본인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드디어 발굴허가를 받은 두 사람은 9월 26일 7시 30분에 간단히 고사(告祀)를 지내고, 중앙정보부의 입회인을 기다리다가 경찰과 관재국(管財局)직원의 입회로 오전 9시 경에 15명의 작업인부를 동원하여 발굴작업을 벌여 1시간 만에 보석함이 들어있는 방공호 입구를 찾자 이들은 환호성을 울렸다. 이 날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경찰은 부근 일대의 교통정리에 진땀을 흘렸고, 이 부근의 시민들은 보석함이 발굴 여부를 놓고 내기를 걸기도 하였다. 당초 발굴허가는 9월 27일 오전 10시까지 25시간이었고, 5시간동안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당시 발굴 시한까지 4m를 더 팠으나 보물함은 찾지 못하였다.[146]

그러자 발굴인 김영조는 경성택시 자리를 발굴하겠다고 서울시에 다시 신청하자 관재국은 4,500만환을 공탁(供託)하라는 통보를 함에 따라 신판 '보물섬' 사건은 막을 내렸다.[147]

4) 복구되는 명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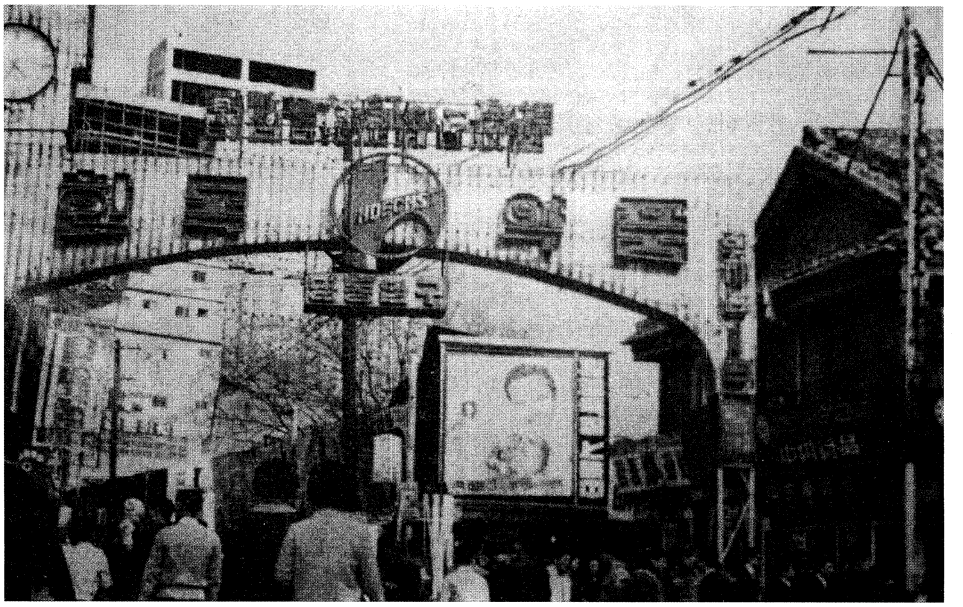
전후의 서울 도시개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몫을 담당했던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다. 명동지구와 관철지구 등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오늘날과는 달리 전쟁으로 파괴된

기존 시가지내의 구획정리사업이 주종을 이루었고, 신시가지의 형성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은 서교지구와 동대문지구의 2개 지구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2개 지구의 사업집행도 제3공화국에 이르러 완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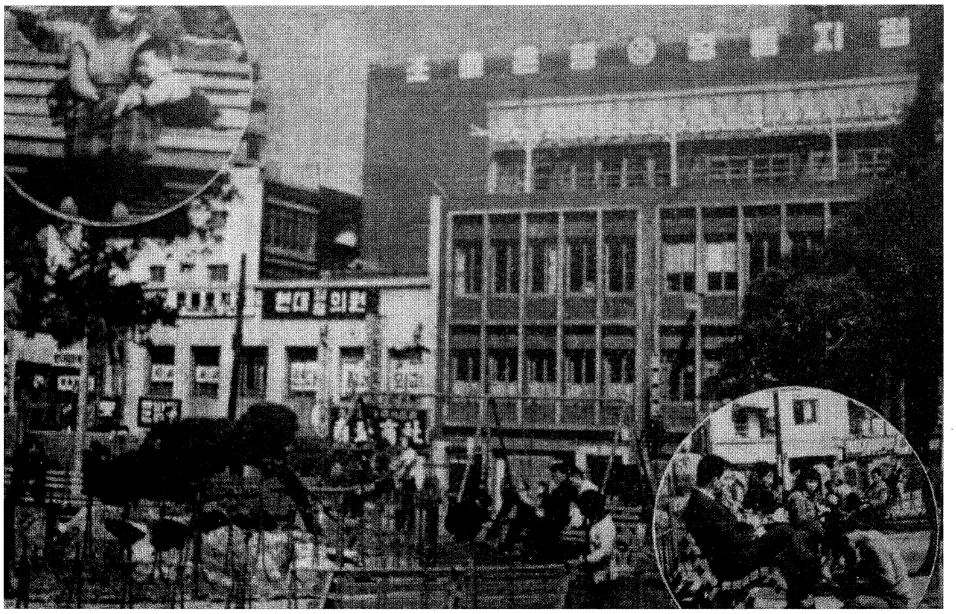
1967년 7월 21일(건설부고시 제515호)에 동대문아동공원 998㎡와 명동아동공원 2,779㎡를 도심의 시가지 발전과 상업지역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폐지하였다. 이 때 명동공원과 대체하는 아동공원으로 남산동 2가의 전일 서울병무청이 위치하고 있는 국유지 2,644㎡를 퇴계아동공원(退溪兒童公園)으로 신설하였다.

현재 유투존(Utoo zone)이 들어있는 제일백화점은 전일에 명동공원이 있었다. 6 · 25전쟁 직후에는 명동공원은 폐허로 변하였으므로 빈터에 벽돌담을 쌓고 돌팍을 중심으로 주변에 무성한 잡초를 쳐다보며 술을 마시던 술집, 명월관(明月館)이 있었다. 이 곳을 찾은 젊은이들, 예술가들은 지붕도 없고 방도 없고 빈터 벽돌담에 앉아 달 아래서 술을 마셨으므로 이와같이 불렀다.[148]

그 후 명동공원은 젊은이들의 미팅 장소였다. 미팅의 짝을 정하는 이벤트가 이곳에서 이루



명동입구(1966년)
-「명동20년」에서경성우편국 낙성식 (1915년)



명동공원(1966년)
-「명동20년」에서

어졌는데 제비로 또는 소지품으로… 짝의 외모에 따라 일그러지는 얼굴, 기쁨에 찬 흐뭇한 표정 등을 볼 수 있었다.

1966년 8월에 서울시는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내 15개 어린이공원과 시장을 불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149] 1968년 8월, 746평을 공개입찰하여 제일물산에 평당 46만원씩 3억 4,254만원에 매각되었다.[150] 이 자리에는 명동 거리의 패션 중심지인 제일백화점이 들어섰다. 최근 고층의 제일백화점 건물에는 유투존이 세들어 있다. 유투존은 고객 확보를 위해 2000년 1월에 100년 전 명동거리를 다녔던 인력거를 등장시키기도 하였다.[151] 제일백화점은 패션업체인 '신원'이 소유하고 있는데 2002년 6월 6일 산업은행 자회사인 코람코(기업구조조정 부동산관리회사)에 811억원에 매각하는 가(假)계약을 맺었다고 보도되었다.[152]

1956년도의 서울시 예산 중 건설관계 사업비 누계는 51억 6,400여 만환(圜)으로 복구비에 집중 투자하였다. 이 해의 특기할 만한 것은 명동아동공원, 수표아동공원, 묵정공원 등 근린공원의 신설이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명동 · 후암동 등과 청계천변의 무허가 집단거주지 주민

을 이주 정착지 조성사업을 1961~1972년 사이에 추진하였다. 즉 도로확장공사나 청계천변의 복개공사에 따라 약 1만 7천여 가구가 정릉동 · 미아동 · 수색동 · 거여동 · 마천동 등지로 집단 이주되었다.

1961년 초에 신축된 건물로 특히 규모가 크고 문제성이 있던 건물로는 우남회관(후에 시민회관) · 성모병원 · 유네스코회관 · 김포국제공항 청사(현 국내선 건물)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건축가 · 기술자에 의해 국산 재료로 지은 이 건물들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동입구에 유네스코회관(UNESCO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명동 2가 5-14)이 1966년 12월에 준공되었다. 이 터는 당시 중화민국정부의 소유였던 것을 분양하였다. 이 당시 명동지역 주민들은 이 터를 중화민국정부가 일본인에게 분양하였다고 하여 신경이 날카로웠다고 전한다. 이 건물은 1959년 3월에 착공하였지만 재정문제로 장시일에 걸려 1966년 12월에 준공하였다. 철근콘크리트조 13층, 총 4,500평의 이 건물은 명동 성모병원과 마찬가

유네스코회관 앞(1966년)
-「명동20년」에서

명동 지하도 공사(1966년)
-「명동20년」에서

지로 알루미늄 커어튼월이지만 늄판을 접어서 장식적으로 하여 표면에 변화를 주었다. 유리를 페어글라스로 한 것은 당시 흔하지 않던 예이다.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 국민들 사이의 교육 · 과학 · 기술 · 문화 등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이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평화의 수호 역시 인간의 마음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헌장과 같이, 글자 그대로 평화의 상징이며 평화를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이다.

1966년 10월에 명동입구 지하보도가 개설되었다. 이 지하보도는 김현옥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교통난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착공된 것인데 1966년 4월 19일 광화문 지하도와 같은 날에 착공되어 10월 5일에 준공되었다. 공사비는 5,890만원이 소요되고, 길이 120m, 높이 2.5m로 건설된 이 지하도는 공사비의 3배가 넘는 2,100만원을 보상비로 지불하였다.[153] 명동입구 지하보도는 1978년에 확장하여 지하상가로 개조함에 따라 오늘날 명동입구 지하상가가 되었다. 따라서 그 폭과 연장도 달라졌는데 지하보도 때에는 10m이던 것이 지하상가에서는 29.2m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당시 8개의 출입구 중 미도파백화점 지하층과 직접 연결 설치된 1개의 출입구는 공사 중 미도파백화점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정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미도파백화점의 부담으로 시공되었다.

1964년 경만 해도 명동에는 60여 개의 바 · 캬바레가 지붕을 맞대고 성업하였는데 1965년 경부터 5 · 16 이후의 불경기가 온 데다가 비어홀이란 이름의 저렴한 술집이 교통이 편리한 무교동 · 서린동 · 다동에 생기면서 유흥가의 상권이 명동에서 옮겨갔다.[154]

1967년 6월 30일 서울에 온 험프리 미국 부통령은 오전 7시경 아침 산책을 하기 위해 숙소인 조선호텔을 나와 명동에 이르러 명동파출소에 들러 잠시 머물렀던 일도 있다.[155]

명동, 충무로 1 · 2가 일대를 드나드는 차량이 하루 1,000 대에 이르고 무단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자 경찰은 1967년 6월 20일부터 업소나 사무실에 입주한 업체 220 대 정도에게 차량통행 허가증을 발급하여 차량통행을 대폭 제한하기도 하였다.[156]

그러나 차량통행 제한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명동의 상인들은 서울시에 진정하여 이를 해제하였다.[157] 1973년에는 경찰이 휴일에는 명동 지역에 차량통행을 금지하였으므로 30여 만 명의 보행자들이 도로를 메웠다.[158]

〈 박경룡(朴慶龍)〉

5) 서울의 명소, 명동

서울에 대중음식점으로 유명한 집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용두동의 「형제추어탕」과, 그 건너편에 「곰보추어탕」집이 있었고, 설렁탕으로는 종로 화신백화점 옆 골목의 「이문식당」과 명동에 「한일관」 등이 있다.

1945~1960년 당시의 다방은 시민의 유일한 위락장소이며 사교장이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 글이 있다.

수없이 흩어져 있던 대포집들과 달리 그곳엔 그런 대로 음악도 있었고, 한낮에는 몇 시간씩 잡담과 기염을 토해낼 수 있는 장소를 주기도 했었다. 이르되 다방- 그것도 주로 우리들 가난한 예술 지망생들이 들끓는 곳이 이 곳 저 곳에 몇 군데 생겨났다. 충무로 입구를 거슬러 명동으로 이르는 좁은 길을 가노라면 수없는 다방이 있었고, 모든 사회적인 접근과 헤어짐- 지난날의 이야기와 내일을, 소란함과 담배연기에 잠긴 채 하루를 보내고 또한 떠나곤 하는 것이었다.[159]

이 당시 경영주는 사업이기보다 도락(道樂) 혹은 취미로 영업하고 있었다는 점에 현재의 다방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당시 유명했던 다방을 소개한다.

연예인들이 많이 출입한 다방으로는 종로의 「서라벌」다방(화신 우측건물 2층)과 명동 사보이 호텔 뒷골목의 「휘가로」다방이 있었으며, 영화인들이 주로 많이 출입한 다방은 영화배우 김연실(金蓮實, 카메라맨 金學聲의 누이)이 경영하던 「낙랑」과 영화감독 이병일이 경영하던 「신신」(명동 2가)이 있었다.

명동의 고전 명곡다방(名曲茶房)으로 이름난 곳이 「돌체」다방이다. 일제 때부터 서울역 앞에 있었던 서울다방의 전신(前身)인 이 다방의 주인은 하(河)사감으로 2,000매의 고전음악 레코드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돌체에

선술집(1960년대)
-「서울잡학사전」에서

는 음악인만이 아니라 문학인들도 많이 모였다.

그리고 명동에는 여대생들이 많이 모인 음악다방으로 태백다방(환선서적빌딩 : 명동2가 현 태극당 맞은편 3층)이 있었고, 고전음악다방 「르네상스」, 정치가 교수들이 많이 모이던 곳으로는 현 그랜드호텔 옆의 「보리수다방」과 「청탑」(현 유네스코회관 부근), 그리고 커피맛으로 유명한 명동의 「브라질」 등이 있었다. 그리고 명동1가 6번지에는 이 당시 미혼남녀의 맞선 장소로 사용되었던 로얄호텔의 커피숍이 있어 명동의 낭만을 더욱 돋우면서 관광업계의 일익도 담당하였다.

6 · 25전쟁으로 시공관 외에는 모두 파괴되었던 극장 혹은 영화관이 1951년 5월부터 하나 둘씩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이 해 8월 30일 명동극장이 개관하였다. 이 극장은 정부에서 청소년의 다각적인 선도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48년에는 학생영화관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명동입구의 취천루 옆(명동 스포츠타워)의 건물이다.

명동 한복판인 현재 현대투자신탁(명동1가 54번지) 건물은 명치좌(明治座 : 메이지좌)→국제극장(國際劇場)→시공관(市公館)→예술극장→국립극장 등 여러 번 명칭이 바뀌어 왔다. 명치좌는 1935년 일제 때 개관한 이후 1973년까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전당 역할을 하였으며, 명동이 오랫동안 예술의 거리로서의 명성을 지켜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160] 명치좌는 1935년 일본인 이시바시(石橋良祐)가 건립하여 주로 일본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오늘의 스카라극장의 전신인 약초극장(若草劇場 : 와까구사게끼조)과 더불어 서울의 일류극장 구실을 하였다. 명치좌는 광복 후 적산(敵産)으로서 한동안 국제극장으로 고쳤다가 서울시가 접수하여 시공관으로 개칭하였다. 고전풍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이 공연장은 명동의 얼굴이었다. 모든 기풍있는 공연, 오페라, 연극, 리사이틀이 이 곳 무대에 올려졌고, 아름답고 수준 높은 레퍼토리가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한편 1957년 6월에 서울로 환도한 국립극장은 대지 505평, 건평 749평, 객석 1,180석의 3층 시공관(市公館)을 국립극장으로 정하고, 신협(新協 : 新劇協議會의 약칭)을 다시 전속극단으로 불러들이는 등 재정비에 나섰다. 신협은 1950년 1월에 국립극장의 전속극단으로 창립된 단체로 그 해 5월에 개관기념 공연으로 유치진의 〈원술랑〉 공연을 가져 6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시공관은 1959년 6월 1일에 '국립극장'이란 간판을 달아 공연장으로서의 본격적인 구실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11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립극장이 공보부로 이관됨에 따라 시공관이란 명칭은 없어졌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의식하던 정부가 1973년 장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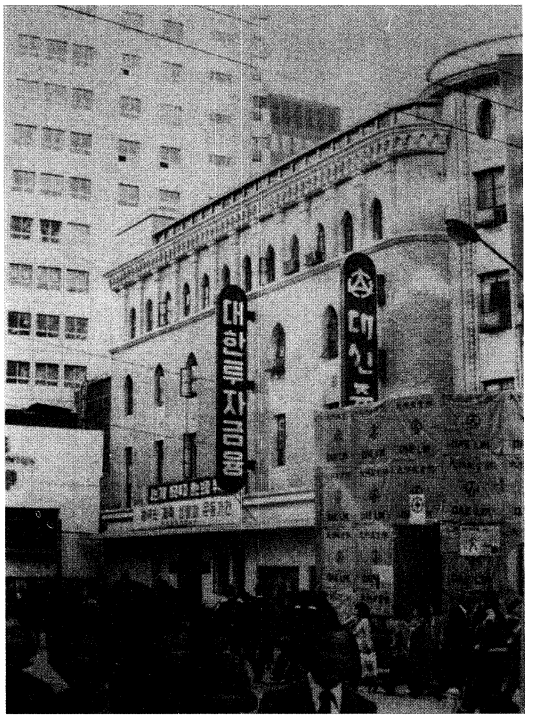
에 대규모 국립극장을 건립하였다.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하면서 시공관 건물은 예술극장으로 개칭되어 대관극장(貸館劇場)으로서 일반 연극단체 등에게 매우 중요한 공연장 구실을 하며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1976년에 연금특별재산으로 총무처로 넘어가 극장으로서의 수명은 1975년 말로 끝났다. 이 해에 정부는 공개입찰로 21억 1,100만원에 대한투자금융에 매각되었다.

4 · 19혁명과 5 · 16군사정변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문교부 소관의 국립극장이 공보부로 이관되었고, 설치법도 크게 바뀌었다. 극장건물도 대폭 수리되었고, 1962년에는 전속극단으로 국립극단이 정식으로 발족하였으며, 이어 국립국극단(國立國劇團) · 국립오페라단 · 국립무용단이 발족되어 그 해 3월 재개관기념예술제를 열었다. 정부는 '국립극장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는 등 의욕에 찬 재출발 의지를 보였으나, 1960년대에는 부족한 예산과 민족예술에 대한 인식 부족, 정책 부재 등의 이유 때문에 대관(貸館)으로 겨우 공연장 구실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공적을 남기지 못하였다.[161]

예술극장으로 명칭이 바뀐 시공관 건물은 제3공화국 때인 1974년 8월 야당 신민당의 전당대회(全黨大會)가 열리기도 하였다.[162]

그 후 시공관 건물은 대한투자금융, 현대투자신탁건물이 사용함으로써 연극 · 영화 · 음악의 요람지였던 명동은 자본시장으로 바뀌어졌다. 1975년까지 예술극장이 있었기에 명동문화와 상권은 번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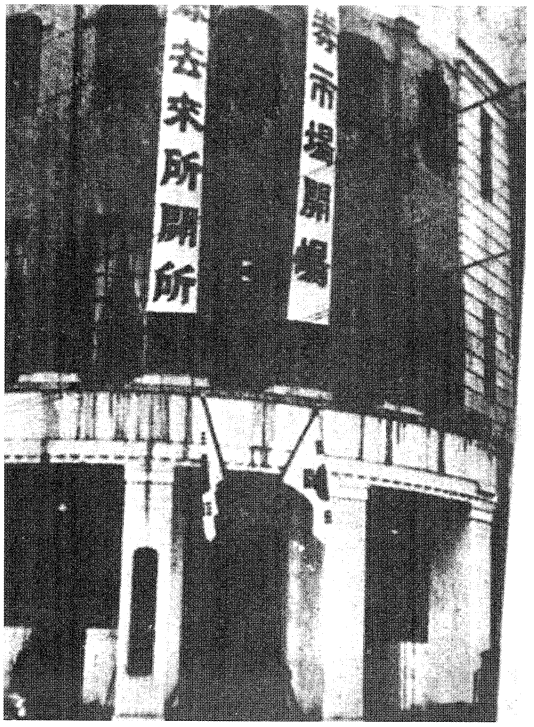
2002년 7월 15일 「조선일보」 사회면에 "옛 국립극장 시공관을 살리자"는 기사가 실렸다. "6 · 25의 폐허 위에서도 배고픈 연극인들이 모여들었던 명동 시공관(市公館)을 살려야 합니다."라고 명동상가번영회 김장환(金璋



시공관(국립극장 : 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煥 · 73)회장과 연극인 박웅(朴雄 · 62)은 옛 국립극장인 시공관 건물의 복원을 위해 건물매입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공관은 2002년 4월에 작고한 가수 현인이 1946년에 힛트한 '신라의 달밤'을 처음 불렀던 곳이고, 1950년대 초 가수 윤복희가 7세 때 데뷔한 곳이며, 1956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장면(張勉) 당시 부통령이 권총 피격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김장환회장은 1995년 명동 상인들과 함께 예총 등 문화단체를 찾아가 시공관 복원을 위한 모임을 처음 갖고, 서울시 · 문화관광부 · 기획예산처 등을 찾아다니면서 담당 공무원들을 설득하였다. 이들은 국립극장 시공관을 살리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2001년 6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모금운동도 벌였다.

이 건물이 최근 매물로 나오고, 올해 문화관광부가 기획예산처에 건물 매입을 위한 400억원 예산을 요청하면서 복원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웅은 "예전 600석 규모였던 시공관이 복원되면 공연 무대로 제격"이라고 말하였다. 김회장과 박웅은 시공관 앞마당에 무명 예술인을 위한 야외 공연무대를 만들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163] 시공관 건물은 1999년 정부에서 '보존건물' 지정을 받았는데다 건물 소유주인 대한종금이 파산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64]



증권거래소의 개소
-「명동야화」에서

유민영은 『한국극장사』에서 '냉방장치가 없어 1960년대 중반에는 여름과 겨울에 한 달씩 휴관하기도 했으며, 시설 노후로 대낮에도 쥐와 벼룩이 들끓었지만 그래도 국립극장은 공연 예술의 사랑방으로 굳건히 존재하였다.' 고 하였다.[165]

명동은 증권거래소가 여의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각 은행지점과 단자회사 · 증권회사가 밀집하여 금융거리로 변모하였다. 현재도 메트로호텔이

자리했던 부근에는 사채(私債)시장들의 사무실이 즐비하여 한국의 자본 중심거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증권거래소건물은 현재 SK증권금융센터로 변하였다. 1962년 1월 당시만 해도 36 개였던 증권회사가 1963년에 60개로 늘어나고 1원 45전짜리 9억 9,000만주를 증자하자 투자고객은 1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 당시 하루 장내(場內) 300 명, 장외(場外) 100 명의 고객이 모이는 명동의 증권거래소에는 증권파동이 몇 번 불면서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생겨 1,000여 명 투자자들의 고함과 노성(怒聲)이 명동 증권가를 살벌하게 만들었다.[166]

〈 박경룡(朴慶龍)〉

(3) 대중문화예술의 중심지, 명동

1) 대중문화의 변화상

(가) 유행 · 패션의 거리

광복 이후 우리 옷에 대한 애착심이 많이 일어나 한복을 착용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한복은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이 치마 저고리 보다는 편한 양장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6 · 25 전쟁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일상복을 한복에서 양복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때부터 한복은 일상복 보다는 예복으로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명절이나 관혼상제의 전통의상으로 되어 갔다.

1953년 휴전과 더불어 평화가 되돌아오자, 이제까지 경제적인 면에서 남성들에게만 의존해 오던 여성들이 직접 직업전선에 뛰어들면서 활동에 편리한 양장을 더욱 많이 착용하게 되었고, 이 무렵 서구문명의 적극적인 유입(流入)으로 손질이 간편한 나일론(Nylon)의 실용성이 널리 소개되어 양장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장의 보급량에 비하여 양장의 완전한 착용법과 액세서리 선택은 아직 미숙하고 유치한 상태였다.

1954년부터는 차츰 신문 문화면에 여성에 관한 기사가 늘어나게 되었고, 명동에 양장점도

명동거리의 여인(1958년)
-「서울의 옛모습」에서

늘어나면서 세계 패션소식을 비롯하여 국내 디자이너에 대한 기사가 실렸으며 차츰 일반 여성들에게 양장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심어 주어 양장을 권유하는 경향이 농후해지면서 활동하기 편리한 양장을 하는 여성의 수가 부쩍 늘었다. 이 때의 스커어트는 짧아지면서 좁아졌으며 일부층에서는 홀태바지를 입고,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힙 라인 밑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맘보바지에 햅번 스타일의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당시에 대유행이었다.

1955년에는 당시 하나 뿐인 여성잡지 『여성계』와 10월호에 발간된 『여원』으로 두 개로 늘어나면서 『여원』 11월호에는 첫 패션모드의 소개가 시도되어 여성패션 발전에 적극성을 띠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해부터는 서구의 패션스타일이 급속도로 빠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크리스띠앙 디오르가 발표한 A라인은 어깨를 좁히고 가슴을 강조하지 않고, 허리는 약간 하이 웨이스트(High Waist)로 하여 차츰 밑으로 퍼져 내려가는 형이다. 디오르는 그 외에 상의를 부풀리고 스커어트를 좁힌 Y라인과 상의와 하의를 반듯하게 내려가게 하여 허리를 강조하지 않은 H 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때까지 어떤 한가지 실루엣만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유행을 이루던 시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실루엣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유행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 H라인의 영향으로 위, 아래가 비슷한 넓이의 스트레이트 실루엣(Straight Silhouatte)의 슬림(Slim)한 코우트가 많이 입혀졌다. 이때부터 차츰 봄 · 가을에 스프링 코우트(Spring Coat)를 많이 입기 시작하였고, 또한 앙상블(Ensemble)로 점퍼 스커어트 위에 볼레로를 입거나 원피스 드레스 위

에 반코우트를 입는 식의 변화 있는 착장법(着裝法)이 유행하여 다양한 패션스타일을 이루었다. 당시에 디오르(Dior)가 마그네트 라인(Magnet Line)을 발표하여 칼라의 깃이 넓은 오우버 코우트에 꼭 끼는 맘보바지가 유행하였다.

1956년에는 한국 최초의 패션 쇼(Fashion Show)가 개최되었다. 5월 26일 · 27일 양일 간에 걸쳐 동화백화점에서 서라벌양재전문학원의 커스툼 쇼(Costom Show)가 있었고, 이어 10월에는 최초의 개인 패션 쇼가 디자이너 노라노씨에 의해서 반도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패션 쇼는 한국 여성 복식계가 좀더 적극성을 띠면서 여성들에게 양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 하나의 이정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하겠다.

1957년에는 스커어트 길이가 다시 짧아지고 소매도 좁고 짧아짐에 따라 장갑과 모자에 액센트를 주는 경향이 일어나 차츰 액세서리에 관심이 높아져 핸드백과 구두를 같은 색으로 조화시키는 모드가 등장하였다. 하이 웨이스트의 프린세스 라인(Princess Line) 원피스는 약간 변화되어 플레어나 주름을 잡아 폭 넓게 입는 스커어트와 함께 가는 벨트나 굵은 세시(Sash)로 강조하여 허리를 가늘게 보이도록 하는 스타일이 유행되었다. 타이트 스커어트와 슬랙스, 하프 코우트 등은 양 옆을 터지게 만들어 입는 방법도 유행하였다. 앙상블도 계속 입혀졌고, 세퍼레이트 (Separate)도 유행하여 원피스와 조끼, 스커어트와 블라우스 또는 그 위에 조끼나 점퍼, 자켓, 카아디건(Cardigan)등을 입기도 하였다. 겨울 코우트는 H라인의 박스형이 주류를 이루었다.

1958년에는 서울신문사 후원으로 뉴스타일사가 주최하여 한국 최초의 패션 콘테스트(Fashion Contest)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국산복지를 사용하고, 사계절을 통한 각종 한복 및 양복을 출품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패션 콘테스트의 영향으로 국내의 양복에 대한 보급율도 높아졌다. 이때의 의복 자체는 간단한 모양이지만 지나치게 노출된 부분이 많아져서 전후파 혹은 「아프레 걸」(appret girl)이라 하여 한때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와서 40대 미만인 여성은 대부분 양복을 입게 되었다.

1959년에는 국내에서 많은 양의 나일론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나일론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따라서 나일론의 대표적인 특징은 공기처럼 가볍고 크리노린(Crinoline)만큼 넓게 그 모양을 내어 주는 패티 코우트(Petti Coat)를 받쳐 입는 플레어 스커어트 (Flare Skirt)와 프세스 라인의 원피스가 많이 입혀졌다. 또한 허리에 개더나 턱을 풍부히 잡아 아랫단으로 내려오

면서 점점 좁아지는 항아리형의 치마도 출현하였다.

1960년에는 샤넬(Cabrielle Chanel)이 발표한 샤넬 슈우트(Suit)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행하였는데, 샤넬 슈우트는 카아디건형의 심플한 자켓과 무릎 밑까지 오는 길이의 타이트 스커어트로 한벌을 이루는 간단한 형으로 어떤 연령층이나 무난히 소화될 수 있는 잇점 때문에 널리 퍼졌다. 코우트는 실용적인 평범한 스타일과 스포티한 감각의 컬러지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이 해에는 타이트 스커어트 뿐 아니라 개더스커어트, 플레어스커어트도 함께 입혀졌으며, 슬렉스는 여전히 꼭끼는 스타일로서, 길이가 약간 길어졌다. 소매의 모양도 새틴 슬리이브(Satin-Sleeve)와 함께 라그란 슬리이브(Raglan sleeve), 프렌치 슬리이브(French Sleeve) 등이 함께 유행하였다.

젊은 층에서는 세퍼레이트가 주류를 이루어 다양한 개성을 나타내었다. 1960년대의 젊은 층의 의상으로서는 첵크 무늬의 테일러드 자켓과 타이트 스커어트, 블라우스와 플레어 스커어트의 세퍼레이트, 스웨터와 스커어트, 블라우스와 스커어트에 스웨터를 걸친 스타일, 파티드 자켓에 플레어 스커어트 등 다양한 의상형태이다.

1960년대에는 서구의 복식인 양장이 급속히 산업화 · 도시화가 추진되는 우리나라에서 양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로서, 하나의 한국만의 복식문화로서 패션화를 이루었다기보다는 아직 서구의 유행을 무조건 수용하며 모방하는 시기로서 미니스커트 · 색 드레스 · 핫팬츠 · 판탈롱 등 젊은층의 패션이 유행한 시기로 대부분이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당시에 활동한 디자이너들도 모든 패션문화의 거점지인 명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기성 디자이너 최경자 · 노라노 외에도 젊은 신인 디자이너들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앙드레 김, 미스 박테일러의 박윤정, 로라의 한계석, 조세핀 조의 조세핀조, 쎄실의 김복환, 뉴스타일의 정창문, 조타의 박광현, 이사베라의 김정수, 블론디의 이선옥, 이외에도 김비함 · 도재은 등이 소규모 양장점 규모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기존 몇몇의 명동에 있던 양장점과 함께 명동패션의 정착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패션문화들이 1970년대 명동에는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 쏟아지는 환호와 박수갈채처럼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잠시 머물다가 밤이면 텅 비어 버리는 명동거리는 화려하면서도 또한 애잔하다.

주말이 따로 없이 인파로 넘실거리는 명동에서 만큼은 개개인 모두가 근사한 첨단유행의

메신저로 보인다. 지금은 많이 변했다지만 명동은 예술과 유행, 환락이 함께 숨쉬는 거리였다.

1970년대 명동은 서양의 최고급 패션잡지에서 눈요기나 할 수 있었던 발렌티노, 구치, 이브생롤랑, 피에르가르뎅, 니나리치 등 별 보다도 더 찬란하게 반짝이는 이름들이 명동에 버젓이 나와 있었다. 진열장마다 파리와 뉴욕에서 방금 유행 중이라는 의상과 구두, 핸드백들이 고상한 조명 아래서 명동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파리에서 들여온 세계적인 상품이 아니다. 주루당상표가 버젓히 붙은 구두도 세리의 머풀러도, 구치의 악어가죽 혁대와 빽도 모두 다 국산이고 한결같이 가짜들이었다.

명동에는 첨단을 걷는 멋쟁이들이 있고, 순 외제만 걸친 여성들도 많지만 구멍 뚫린 허가받는 유행의 사각지대이다.

이처럼 명동에는 가짜 아닌 진짜들은 모두 한결같이 값지고 또 그럴싸한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모두들 가지고 싶어하여 명동을 드나들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장사꾼들이 가짜를 만들어 내고, 이것들이 가짜인줄 알면서도 진짜인양 마음속에 위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167] 사람들이 함께 숨쉬고 함께 울고 웃는 곳이 명동의 감춰진 단면이었다.

명동의 양화점(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나) 명동의 다방과 유흥점

① 다방의 변천

한말에 이르러 개화의 물결을 타고 커피와 홍차 등이 보급되면서 우리의 다도문화(茶道文化)에도 많은 변화가 왔다. 서양 외교사절을 통하여 유행된 커피 마시는 풍속은 고종을 비롯한 당시 상류층 개화파 인사들에게 널리 퍼져나갔다.

커피는 가배차 · 가비차(加比茶) 또는 양탕(洋湯)이라고 불렸는데, 이와 더불어 홍차도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차들이 보급됨에 따라 근대 형태의 다방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근대적인 기능과 형태를 갖춘 다방이 등장한 것은 3 · 1운동 직후부터이지만, 개항 직후 외국인에 의하여 인천에 세워진 대불호텔과 슈트워드호텔의 부속다방이 우리 나라 다방의 선구가 되었다.

1902년 독일계 러시아인 손탁(孫澤, Sontag)이 정동에 지은 손탁호텔에는 서울에서 최초로 호텔식 다방을 두었다. 그 뒤 일본인이 경영하던 '청목당(靑木堂)'이라는 2층의 살롱이 서울에 나타났고, 1914년 조선호텔이 생겨 일제강점기의 최고급 호텔 겸 다방의 기능을 하였다.

이 때쯤 이미 서양문물이 많이 보급되었고, 일본이나 서구로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들이 나름의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다방이 본격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었다.

1923년을 전후하여 근대적 의미의 다방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명동의 '후타미(二見)'와 충무로의 '금강산'이라는 일본인 소유의 다방이 그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뒤 1927년 이경손(李慶孫)이 관훈동 입구에 '카카듀'라는 다방을 개업하였는데, 이경손은 우리 나라 최초의 영화감독으로 「춘희」·「장한몽」 등의 영화를 제작하였고 그가 직접 차를 끓여 더욱 유명하였다.

1929년 종로2가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 회관 근처에 '멕시코다방'이 개업했는데, 주인은 배우 김용규(金龍圭)와 심영(沈影)이었다. 의자와 테이블 등 실내장식을 화가 · 사진작가 · 무대장치가 등이 합작함으로써 문화인들의 종합작품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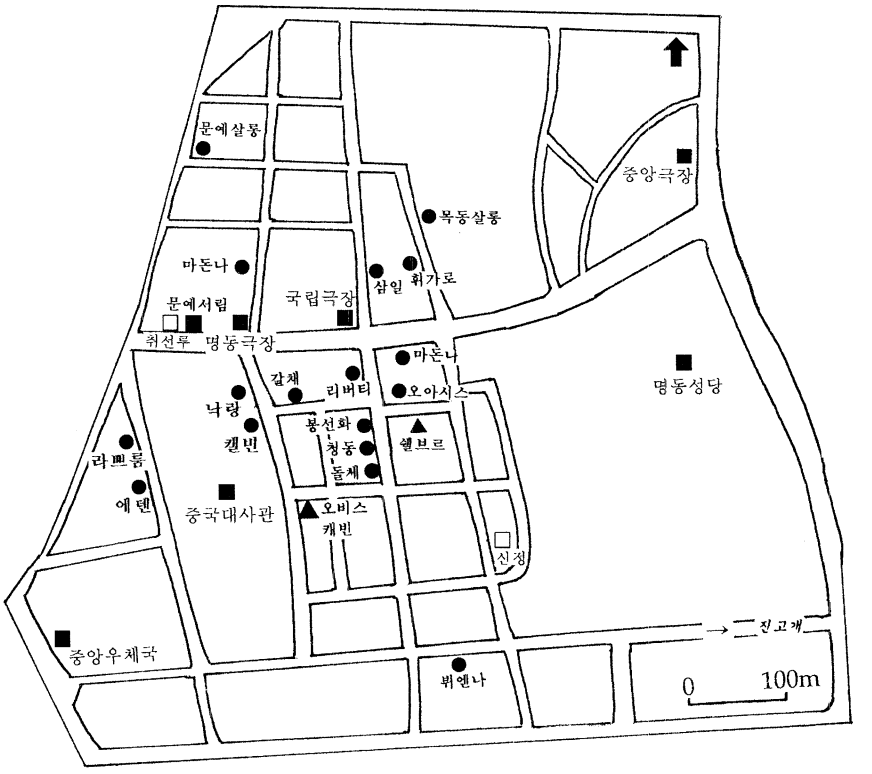
1930년대에는 소공동에 '낙랑파라'가 등장하면서 초기 동호인의 문화애호가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영리면에도 신경을 쓰는 본격적 다방의 면모를 갖추었다.

요절한 천재 시인 이상(李箱)도 다방사업에 많이 관여하였는데, 실내시공만 하였다가 팔

아넘긴 '식스나인(6 · 9)', 1933년 종로에서 부인과 함께 개업한 '제비', 인사동의 '쓰루[鶴]', 1935년 직접 설계하여 개업 직전에 양도한 '무기(麥)' 등이 그것이다.

당시의 다방은 영리(營利) 위주의 상업다방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유행되던 멋이었는데 그것은 다방 주인 자체가 문화인(영화감독, 배우, 화가, 음악가, 극작가, 언론인, 시인 등)이고, 손님 또한 이와 같은 계층이어서 가능한 풍토였는데 이러한 변화의 시대적인 전환점이 광복과 6 · 25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기였다.

6 · 25전쟁 직후의 다방의 풍속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다방이 본래의 기능, 즉 차를 마시고 쉬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종합예술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대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전쟁으로 인한 건물파괴와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모든 문화활동을 원만히 할 수 없었던 것



명동 일대의 다방(1960년)
-「서울육백년사(Ⅳ)」에서

이 이 때의 상황이었으므로 과도기적으로 그런 기능을 대행할 장소가 필요한 것이었다.

확인된 구술(口述)과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의하면 광범한 분야에 걸친 문화활동이 다방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주로 그림 · 영화의 밤 · 문학의 밤 · 출판기념회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외에도 독립투사추모회 · 환영회 · 송별회 · 동창회 · 요리강습회 등과 같은 것도 열렸다. 다방이 본래 기능 이외에 문화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과도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50년대 다방은 당시 사회문제였던 실업자의 온상(溫床) 역할을 한 점이다. 광복과 정부수립 그리고 6 · 25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기는 100여만 명이 넘는 막대한 실업자를 낳게 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특히 고등실업자 즉「룸펜」이라 지칭되던 이들은 다방을 무대 삼아 무위도식(無爲徒食)하였기 때문에 사회의 지탄(指彈)의 대상이 되었다. 1947년 11월 23일자 동아일보에는「다방—아침부터 출입 빈번, 다방은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사를 전한다.

일제 때에도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가였으며 문화의 거리였고 그 후 시기에도 여전히 명동은 서울의, 아니 한국문화예술의 중심지였다.

지금은 소비문화의 중심지, 환락의 거리, 지분(脂粉) 냄새가 가득한 거리로 변해버린 명동이어서 그 당시 명동거리에 정과 한을 쏟았던 명동파(明洞派) 문화인들의 발자취는 지금 거의 찾을 길 없지만 전설같은 추억담만은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6 · 25전쟁이 발발하고 9 · 28수복, 1 · 4후퇴 등의 와중(渦中)에서 환도 후의 명동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잡초만 무성한 곳으로 변해 버렸다. 이 폐허 속에 봄이 오자 대구로 피난 갔던「모나리자」가 제일 먼저 문을 열었고, 이어「신한(新韓)」「올림피아」 등이 문을 열어「상해(上海)에서 돌아온 리루」라는 당시 유행하던 음악 속에서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어 코주부 김용환(金龍煥)부부가「금붕어」를, 또「돌체」가 다시 열려 다시 얼마간 명동은 활기를 띠게 된다. 1955년에는「동방싸롱」이 문을 열어 명동의 1950년대 후반기를 풍미하게 되었다. 한때 문단(文壇)은「모나리자」파,「문예싸롱」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모나리자파는 제각기 하나의 비조직성의 문인 예술가들이고, 다른 싸롱그룹과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이「모나리자」파가 이「동방싸롱」으로 대거 이동을 해 온 것이다. 문인들 외에도 김승호(金勝鎬) · 주선태(朱善泰) · 최남현(崔南鉉) 장민호(張民虎) · 김동원(金東園) · 이해랑(李海浪) · 박암(朴岩) · 유치진(柳致眞) 등이 진을 치고 있었다.[168]

명동은 서울의 문화예술의 중심을 이루었고 그리고 다방은 이 명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기(知己)끼리 모여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쉬는 장소로서의 기능에서 머물지 않고 훨씬 적극적으로 명동의 문화를 이끌어 갔다. 즉, 다방에서 음악회, 그림 및 사진전시회가 열렸고 시낭송회 문학토론회 등의 문학행사도 열렸고 때로는 연극무대와 영화관이 되기도 하였고 기타 동창회, 간담회 등이 열리기도 하는 등 음악 · 미술 · 문학 · 사진 · 연극 등의 모든 문화예술의 무대로써 '종합예술(綜合藝術)의 장(場)'으로서 활용되었던 것이다. 명동거리에는 「청산(靑山)」「청탑(靑塔)」「은하수」「비너스다방」「라쁘륨다방」「에덴다방」「낙랑다방」「칼멘다방」「갈채다방」「오아시스(전원)다방」「대성다방」「몽블랑다방」「고향」「삼화다방」「시온다방」「백구다방」 등이, 충무로에는 「뷔엔나다방」「동화다방」「미림다방」「무선회관」등이 유명하였고, 싸롱 · 그릴 등에서도 끽다부(喫茶部)가 따로 있어서 다방과 같은 기능을 대행하였고, 「지미그릴」「성하그릴」「싸롱 보아그랑」도 명동의 명물이었다.

이러한 다방들이 변화되어 1970년대의 다방들은 산토스, 모카, 카페로얄, 에스프레소, 비엔나 커피 등 이름도 생소한 원두커피가 아니면 명동다방들은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당

1980년 무렵의 명동거리
-「서울백년」에서

시 명동의 사람들은 국산 멕스웰 커피엔 모두들 고개를 돌리는 붕어족들이었고, 웬만큼 맛좋고 향내 짙은 커피 아니면 전혀 마시질 않는다.

명동은 다방에서 시작해서 다방으로 인해 번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기서 다방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 감격시대 : 광복되자 마자 제일 먼저 연 봉선화다방처럼 베토벤합창을 듣던 시절

㈁ 낭만시대 : 전숙희, 손소희의 마돈나, 장만영의 뷔엔나, 그리고 피가로, 금붕어 갈채, 돌체, 모나리자, 동방살롱 시대

㈂ 대중시대 : 청자와 심지, 그리고 본전다방의 출현으로 다방도 젊은 이들의 기호에 맞게 변한 시대

1960년대 말에서부터 1975년 초에 이르기까지 명동다방에서는 히피문화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는 장발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이들이 괴상하고 망칙한 음악에 취해 대마초나 마리화나 한 두 개피쯤은 피워봐야 명동을 안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명동은 젊은이들이 출렁이는 환상의 골목으로 변했고, 다방이란 다방도 모두가 이들 차지였다. 가장 특징적인 다방이 심지다방이다. 이곳에는 자욱한 담배 연기와 찢어지는 듯한 음악과 번쩍거리는 환각조명 속에서 젊은 남녀가 넋을 잃은 채 소파 한구석에 쳐 박혔거나 아예 바닥에 벌렁 누운 채 정신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장면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심지다방은 명동 2가 53번지에 있었으며, 1972년 2월 12일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도심지의 퇴폐성 다방에 대한 수습작업이 벌어졌다. 내용은 마약 암거래와 음란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심지다방은 장발청소년과 히피성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동 중심가의 호화판 다방이었다.

1972년 2월 10일 서울시내 다방은 모두 3,044개소로서 1970년과 1971년에는 사이에 하루평균 2개씩 다방이 늘어난 셈이다. 2 년 간 증가 수를 보면 1970년에는 2,673개소, 1971년에는 3,044개소나 된다.[169]

심지다방 폐쇄 이후 명동의 다방, 음악감상실 등에 15일부터 한글-영문으로 「장발족은 출입금지」라는 공고문을 내세우는 일까지 벌어 졌다.

바로크 음악감상실은 충무로 1가 24번지에 있었으며, 나슈빌, 그리고 젊은 고객이 붐비기로 유명한 꽃다방, 청자다방, 뉴중앙다방 등에서는 종업원이 직접 출입문을 지키고 괴상하고도 망칙한 고객을 사전에 들이지 않았다. 본전다방은 서울에서 제일 큰 다방으로 유명하며,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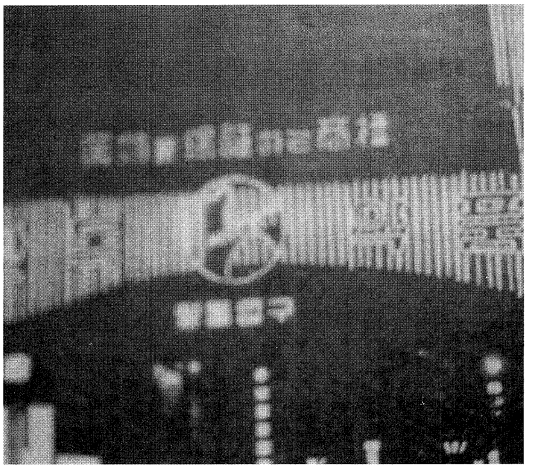
무로 1가 24-4에 위치해 있었으며 당시에 자율규제를 하였다.

당시의 다방의 풍속도는 콧수염 기른 이장희와 감미로운 목소리의 윤형주, 어니언스와 개그맨 고영수 등 젊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작곡을 발표하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다방은 열띤 젊은이들의 발광으로 뒤범벅이 됐고, 무대 찾아 헤매는 젊은 연예인들의 리사이틀 홀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풍경은 1975년 대마초 사건이 돌풍처럼 몰아침으로써 광란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막이 내려졌다.

② 통기타 살롱거리

1970년대 명동 거리에는 통기타 음악과 청바지에 생맥주가 넘실거렸다. 명동 유네스코회관 뒤쪽 패션골목을 걷다보면 2002년 현재 '재팬 혼모노'라는 간판이 걸린 4층 빌딩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1970년대 '한국의 내쉬빌'로 이름을 떨친 통기타클럽 '오비스 캐빈(OB's Cabin)'이 있던 자리다. 음악에 얽힌 이 건물 역사는 음악다방 원조격인 1960년대 중반 '심지 다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다방은 그 시절 "없는 원판이 없다"는 명성을 날리며 팝송

「세시봉」에서 노래하는 가수
-「명동야화」에서



네온싸인이 번쩍이는 명동입구(1966년)
-「명동20년」에서

마니아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였다. 주말이면 평화봉사단원과 미군들까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심지다방 주인은 자유당 시절 정치깡패로 유명한 이정재의 동생 이지재(작고)씨였다. 그는 6 · 25때 원판만 싸들고 피난길에 올랐다는 음악 애호가였다. 심지다방을 성공시킨 그는 젊은이들 사이에 통기타 붐이 이는 것을 보고, 1969년에 '오비스 캐빈'을 열었다. 무교동 '세시봉' 시대를 마감한 송창식, 조영남, 윤형주, 김도향, 서유석, 김세환, 양희은 같은 통기타 1세대들이 대거 무대에 섰다. 세련되면서도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잘 살렸던 '오비스 캐빈'은 문을 열자마자 젊은이 명소로 선풍적 인기를 모았다.

'오비스 캐빈'이 대성공을 거두자 1970년 명동입구 코스모스백화점 건너편에 '금수강산'이 들어섰다. MC 이종환씨가 관여해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을 무대에 세웠다. 이들은 '오비스 캐빈'과 '금수강산'을 오가며 노래하였다. 명동 통기타 시대는 1970년대 중반 '쉘부르'가 문을 열면서 전성기를 이루었다. 젊은이들 사이에 식을 줄 모르던 생맥주 붐도 한몫하였다. 후발주자인 '쉘부르'에는 이문세, 남궁옥분, 전영, 신형원 같은 통기타 2세대들이 주로 출연하였다.

'오비스 캐빈'은 약 300평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의 규모로 모든 운영체계가 직영으로 되어있어서 그 넓은 곳에 연일 사람이 끈이지 않았으니 앉아서 돈을 끌어 모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이곳에서 노래를 불렀던 가수로는 송창식, 윤영주 그리고 양희은, 김세환 등이 있었고,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방송국에 진출한 것이나 다름없는 반드시 거쳐가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모든 가수들이 여기를 통해서 방송국에 진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당시 명동은 '오비스 캐빈'과 사보이 호텔에서 모든 사교적인 모임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명동 통기타 살롱들은 급속히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디스코를 출발로 거세게 불어닥친 가요계 유행 변화 탓이었다. 당시 통기타 가수들은 하나 둘 무대를 잃어갔다.

우리 대중음악사에 젊음의 낭만이 가장 넘쳤던 시절로 기록될 1970년대 명동 통기타 시대

의 그 현장들은 이제 경찰의 눈을 피해 명동 뒷골목을 숨어 다니던 '장발 세대'의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가무'의 주인 민경호의 말에 의하면 당시의 명동은 현재처럼 10대와 20대들이 오가는 장소가 아니라 최소한 35세 이상 거의 40대, 50대들이 드나들던 장소였다. 그리고 19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지성인들이 드나들던 장소였다고 하였다.

③ 유흥점

ㄱ) 카바레

가장 유명한 카바레는 대연각 자리의 고미파(高美波)를 들 수 있다. 김광수 악단이 출연하였는데, 입장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35세 이상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이곳은 최상급의 사교장으로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드나들던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 이전에는 남자는 양복과 여자는 정장 투피스 혹은 한복으로 정갈하게 차려입어야 하였다. 남자는 머리에 반드시 기름을 발라서 차분하게 넘겨야 했고, 여자는 품위있게 고대를 하거나, 한복인 경우에는 쪽을 반드시 져야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녀가 서로 껴안고 춤을 추면 곧바로 퇴장시킬 정도로 규칙이 엄격하였다고 한다. 사교장의 예의를 철두철미하게 했던 이유는 외국인에게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ㄴ) 빠(Bar)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흥가하면 명동을 떠올리던 것이 점차 무교동으로 그 판도가 바뀌었다. 명동이 5 · 16군사 쿠데타 이후에 불경기에 허덕일 때 많은 미희들이 무교동으로 직장을 옮겨갔으며, 이럴 때 무교동에서는 나이 어린 아가씨들을 뽑아 아르바이트를 시켰으며, 처음에는 손님 자리에 앉지 않고 선 채로 서비스를 하였다. 비어홀이란 간판을 붙였기에 세금은 빠의 절반만 물면 되었고, 아가씨들에게는 한 푼의 보수를 주지 않아도 손님의 팁으로 받아쓰도록 했던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술값이 매우 싼 편이었기 때문에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러한 체제가 무교동에서 인기를 끌게 되자 명동에서도 경쟁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마담과 웨이터들은 무교동의 아가씨들을 모셔오기에 바빴고, 그래서 그 이전만큼은 못되지만 약간의 만회를 할 수 있었다. 당시 폐허의 명동벌판에 본격적인 시설과 분위기를 갖춘 명동의 빠는 명동 재건의 본부 같은 역할을 하였다.[170]

ㄷ) 오락장

오락장으로는「회전당구」(빠찡코)가 1963년경 명동에서 성업한 적이 있다. 이는 재일 교포가 재산 반입을 가장해 들여온 것으로 5 · 16군사쿠데타 후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관광호텔 등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오락용으로 허용되었다.

(다) 기타

① 명동 레코드점

명동에는 음악면에서 30년이 넘는 대한음악사, 베토벤음악사, 25시 등이 있다. 최근에는 회현 지하상가에 중고 LP점들이 들어서면서 명동은 음악의 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한음악사는 악보전문점이며, 이를 운영하는 신재복은 명동상인들 누구나가 인정하는 명동의 터주대감이다. 그는 지난 50년 지금의 로얄호텔 자리 판자집에서 나무간판을 내걸고 시작한 대한음악사를 백병원 맞은편으로 옮겼다가 다시 지금 명동성당 아래 골목 입구로 옮겨와 53년째 명동을 지켜온 인물이다. 이곳은 음악서적을 전문적으로 다룬다.[171]

부루의 뜨락은 전화로 주문이 가능하며, 음악 마니아들이 찾는 전문점이다. 이는 고어인 간판 부루의 뜨락은 음악의 뜰이란 의미이다. 이는 명동 한국이동통신 맞은 편에 위치해 있으며, 1층에는 팝, 째즈, 메탈, CD , 2 · 3층에는 클래식 CD, 4층에는 팝 클래식 LP가 구비돼 있다. 1950년대 라디오나 턴테이블도 판매한다. 명동 길가에 위치한 분점에서는 시계, 화병 등 고색 창연한 서양 골동품을 판매한다.[172] 베토벤 음악사는 달러골목 시절부터 영업을 하였으며, 약 30 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② 명동공원

서울특별시는 1966년 각종 공사 소요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면서 명동아동공원을 다른 지역 약 30개소와 함께 불하하기로 하였다.[173] 건설사업에 과잉의욕을 보였던 서울시는 바닥난 시금고를 메우려고 도심지 유일의 녹지대인 명동공원을 불하함으로써 가족이나 놀이터가 없는 어린이들을 거리에서 내쫓는 결과를 빚었다.

명동공원은 약 746평이 서울시에서 공개입찰에 붙인지 1년 만인 1968년 8월 26일, 평당 46만원씩 3억 4,254만원에 제일물산사장 김해동과 계약을 맺었다.[174]

③ 명동의 터주대감들

명동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명동의 산 역사이고, 상징들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주로 찾던 미팅장소인 케익 파라의 홍종명, 이 거리에서 제일 먼저 양화점을 차렸던 달러골목, 자현여관 여주인 민양근, 미즈백화점 주인이며 세계적인 바이얼리니스트 정경화양의 아버지 정준채, 제일상화의 박기옥, 명동통장을 지냈던 한충석, 톰보이 스토아의 이상호 등 줄잡아 꼽아보아도 20여명 남짓한 터주대감이 아직도 건재하다.

엘리자베스 다방은 음악도 없는, 게다가 열 평 남짓한 좁은 다방이었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자유당 거물들인 이기붕, 장경근, 최인규 내무장관 등 정계거물들이 자주 들러 제 2의 경무대라고 하였다. 이 곳의 주인 조춘형도 명동의 터주대감에 속한다. 그리고 최후까지 이 거리에서 살았던 은성마담 이명숙(최불암 어머니)과 '은성의 풍경화'라고 불렀던 이봉구[175]도 빼 수 없는 인물들이다.

명동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인과 이름이 바뀌지 않는 것들이 몇군데에 있다. 취천루(1960년대), 신정, 대한음악사(1950), 가무(1975), 포엠(1975), 이성우 양복점, 해물탕집(1960), 쉘브르 등이다.

중국 요리집은 계성여고 후문 앞에 있다가 없어진 동해루, 중앙우체국 근처에 있는 대성관, 달러골목이 헐릴 때 함께 없어진 중화각 등은 모두 한군데에서만 40년 이상 버티어 온 명동의 산 역사들이다.

2) 문화예술의 메카

명동거리는 6 · 25 이후 한국 문화예술의 메카였다. 1976년 예술극장이 문을 닫기 전까지는 문화의 거리로 사랑을 받았다.

(가) 공연장 및 무대

광복 전 이야기는 접어두더라도 한국의 문화예술의 메카였던 명동은 폐허의 거리에서 문인도, 화가도, 연극인도 이 명동에서 살았다. 육신은 비록 가난했어도 정신만은 그렇지 않았다. 차 한잔에 정이 오고가는 음악에 취할 수 있었으며, 해가 저물면 대포잔을 마주치며 인생과 예술을 토로할 수 있었다.

명동극장 앞(1966년대)
-「명동20년」에서

명동거리에 정과 한을 쏟았던 예술인들의 발자취는 수주 변영로, 명동백작 이봉구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문인 화가라면 누구라도 명동의 낮과 밤을 잊지 못한다. 1960년대 예술인들의 장소로 막을 내리면서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앉아서 주로 만나서 마시고 이야기한 시기라면 제 2세대는 직접 예술무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제 2세대는 1976년 예술극장이 막을 내리기 전까지를 말한다. 제1기는 1960년대 초반까지, 제 2기는 1976년 이전까지로 1970년대 소극장이 생기면서 연중무휴로 웃음과 휴식을 제공해 주었다.

삭막하던 명동에 1975년 삼일로 창고극장이 만들어지고, 1978년 엘칸토 예술극장이, 1980년에는 떼아뜨르 추(秋)가 개관되면서 조금씩 예술의 정취가 묻어나고 있었다.

① 엘칸토예술극장

엘칸토예술극장은 구 예술극장 바로 옆에 마련되어 젊은이들이 주로 모이는 소극장이다. 이는 연중무휴, 장기공연이 특징인 이곳은 객석이 150석이지만, 연간 8만~9만 명의 관객이 운집할 만큼 활기를 띠고 있었다. 관객들의 대부분은 학생과 직장여성들이며, 이 당시는 주로 가벼운 터치의 코미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명동 유일의 연극무대로 자존심을 지켜온 엘칸토 예술극장은 건물 소유주가 극장을 포함한 3층 건물전체에 전세보증금을 2배 이상 올려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끝을 맺었다. 이 극장은 1930년대 일본인들이 한국투자금융 자리에 세웠던 명치좌(明治座) 이래 이어져 온 명동연극의 맥을 있는 공간이었다. 명치좌는 광복 후 시공관, 국립극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공연을 계속했으나 19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사함으로써 문화중심이 황폐화되었다. 그 이후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엘칸토 김용운 회장이 1978년 엘칸토 예술극장을 설립하면서 5년 간 끊어졌던 명동의 명맥을 희미하게나마 다시 이어왔다.

개관기념 공연작 극단 맥토의 「아담 이브 그리고 그 이후」를 시작으로 당시 공연중인 극단 판의 다가포까지 총 180여 작품이 이 극장을 거쳐감으로써 엘칸토극장무대에 서지 않으면 극단도 아니다란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연극계인사들은 만성적 적자, 낡은 기자재 등 악조건 속에서 지금까지 극장을 운영해 준 것만도 고맙지만 기업과 문화의 이상적 만남으로 인식되어 온 문화공간이 없어져선 안 된다고 안타깝게 생각하였다.[176]

② 창고극장

창고극장은 삼일로 고갯길로 오르면 2층 양옥을 개조한 국내 유일의 창고극장이다. 젊은 연극인들이 땅을 파서 만들어 졌으나 금방 재정문제로 문을 닫았다. 이 지하극장은 그 후 정신과 의사 유석호 박사가 인수하여, 원로 연극인 이원경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창고극장은 다양한 현대연극의 실험장으로 많은 문제작을 공연했고, 당시 이해랑, 이원경 등이 배우예술원을 개설하여 연극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은 연극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추송웅의 빨간 피터의 고백 등 일련의 혁신적인 작품 등이 공연되었고, 우리 연극사에 큰 획을 긋는 공연장으로서 자리 매김하였다.

창고극장은 매번 재정문제로 폐 · 개관을 거듭하다가 1980년대 말에 다시 열었으나 그 당시는 모든 연극이 혜화동으로 옮겨간 뒤였고, 다시 1990년에 다시 폐관하였고, 1997년에 다시 열어서 현재까지 연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소극장 연극역사를 지켜내자는 취지로 연극인 홍순창, 이창환이 중심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③ 설파

설파는 1981년에 충무로 입구에 자리잡았으며, 이곳에서는 월 1회 열리는 「토요일 오후와 시」라는 모임도 과거 명동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시도이다. 약 16명의 시인들은 시인회의 동인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모임은 대학생들과 문학동호인들을 모아 놓고 시 낭송과 토론을 가졌다.

④ 떼아뜨르 추

떼아뜨르 추는 사보이 호텔 건너편에 있었으며, 이는 연극인 추송웅(秋松雄)의 집념의 결

실이다. 여기에는 차와 음식을 들며 연극을 감상할 수 있는 카페식 극장으로 이렇게 추송웅은 명동의 명물로 등장하였다.[177]

⑤ 코리아 극장

코리아 극장은 1977년 실험극장이 에쿠우스를 유치, 2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아 명동에 연극의 붐을 일으켰으며, 이에 힘입어 1978년에는 극단 민중의 '우리집 식구는 아마도 못 말려' 등 5편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었다. 1980년대 이후 연극이 침체에 빠지자 영화만을 상영해 오던 코리아가 1984년부터는 연간 3~4편의 연극을 공연할 계획을 세우자 연극인들이 1978년의 호황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예술극장이 사라진 후 쓸쓸해진 명동에 코리아극장의 신춘무대는 이 거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관심거리가 되었고, 이는 명동의 자존심이란 명동개발사업에 극장 공간이 꼭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극인들의 염원이다.[178]

(나) 동방싸롱

1955년 대한중석 옆 3층 건물 아래층에는 애환 서린 낭만의 넘쳐흐르는 문화인들의 다방인 동방싸롱이 만들어졌다. 주인 청년 실업가 김동근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땅의 가난하고 외로운 예술인들을 위해 건립한 동방문화회관을 마련하였다. 3층은 회의실, 2층은 집필실, 아래층은 문화인을 위한 살롱으로 제공되었다. 이 땅에서 처음으로 국가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젊은 사업가로 인해 이루어졌다.

1950년대 당시 문단은 모나리자파와 문예싸롱파의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상태였다. 그 이후 모나리자파는 제각기 하나의 세계를 가진 비조직성의 문인예술가들이고 다른 싸롱 그룹들하고는 질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모나리자 파가 이 동방싸롱으로 대거 이동해 옴으로 인해서 동방싸롱파가 형성되었다.[179]

따라서, 6 · 25전쟁 이후 동방싸롱은 많은 문화인들의 의지처가 되었다. 그러나 사장 김동근이 사망하고, 동방싸롱의 주인도 4번째 바뀌면서 이름도 또한 목동으로 변경됨으로써 동방싸롱의 시대도 막을 내렸다.

(다) 문예서림

흔히 일반적으로 명동을 평가할 때 책방이 단 한 곳 밖에 없다는 비유를 곧잘 하곤 한다. 적어도 옛날 이 거리와 이웃한 진고개에 고서점이 즐비했고, 문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곳에 책방이 단 한 곳 뿐이라는 것은 명동의 변천사를 한눈으로 알 수 있기에 족하다. 광복 후에는 명동거리에도 10여 군데의 책방이 들어섰으나 10년을 넘기기 못하고 모두들 문을 닫고 말았다.

문예서림은 광복 후 처음으로 「문예」「신인」이라는 대중 오락잡지가 발간되었다. 사장은 문예서림의 주인이 김희봉이고, 편집책임은 방송드라마 작가 김희창이었고, 여기자는 조경희와 이은휘가 활약을 하였다. 문예서림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편집실이 문예서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서울, 그 서울에서도 한복판에 있는 평당 2천만 원 짜리 금방석 위에 은행금리도 나오지 않는 책장사를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동을 지켜보는 사람은 문예서림의 김희봉이었다.[180] 그는 명동의 터주대감이며 명동의 역사를 지켜본 마지막 파수병이다. 이는 늘 아침 10시에 나와서 가게를 지키다가 오후 2시면 당뇨병 때문에 일찍 집으로 돌아가거나 병원에 갔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의 미련일지도 모른다. 그라고 그 당시 명동의 땅 한 평이 2천만 원인 것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그의 우직하고 한편으로는 미련스럽게 40년을 이 땅에서 견디며 버텨왔다. 그는 책을 팔아서 큰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유행 따라 변하는 옷을 사 입는 것보다 책을 사면 수 십 권을 살수 있을 돈을 마구 뿌리는 젊은이들을 조금치도 원망하지 않았다.

문예서림(1982년)
-「명동야화」에서

〈 김일림(金逸林)〉

(4) 금융권의 중심지, 명동

1) 금융의 메카

당시 남대문로는 한국의 월가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행 본점을 비롯, 조흥은행 · 상업은행 · 제일은행 · 국민은행 · 서울은행 등이 집중해 있었다. 즉 남대문로 일대는 한국경제 중추신경의 핵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

(가) 조흥은행[181]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조흥은행은 명동에 3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명동에서 가장 오래된 조흥은행 지점은 충무로 지점이다. 조흥은행 충무로 지점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1921년 2월 21일 – 경성부 본정 2정목 92번지에서 한성은행 본정파출소로 개점.
1921년 7월 18일 – 본정 2정목 89번지로 이전.
1921년 9월 1일 – 본정출장소로 승격.
1924년 8월 1일 – 본정지점으로 승격.
1943년 6월 10일 – 경성부 구설치에 의하여 소재지가 경성부 중구로 변경.
1943년 10월 1일 – 한성은행과 동일은행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출범할 때 본정지점으로 됨.
1946년 10월 1일 –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를 중구 충무로 2가 89번지로 변경등기.
1947년 4월 1일 – 조흥은행 충무로지점으로 명칭 변경.
1949년 8월 15일 –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89로 주소변경.
1951년 1월 4일 – 6 · 25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
1952년 2월 11일 – 임시로 부산시 중앙동 소개점포에서 영업재개.
1953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43으로 복귀. 원점포는 전쟁으로 소실.
1954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89(원점포)로 신축이전.
1971년 4월 9일 – 환지로 인해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2-12로 변경등기.[182]
1999년 12월 1일 – 폐쇄. 명동지점으로 업무통합.[183]

조흥은행 충무로지점 연혁을 살펴보면 1950, 1960년대 은행의 일반적인 변천을 알 수 있다.

정부 수립 후인 1948년에 시중에는 조선은행, 식산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상호은행, 신탁은행, 환금은행 등 8개의 은행이 있었다. 이들 은행은 6 · 25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인출하여 다액의 예금인출을 예상하고 준비하였으나, 일반인의 현금인출은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금융기관 대표자들은 6월 25일 비상회합을 갖고 평소와 같이 거래를 계속하여 예금지불은 고객의 요구에 응하여 평소와 같이 지불하며, 재난지구에서의 피난 동포에 대해서는 통장과 인장만 있으면 대불하되 동일인으로 본지점에 한하고, 생활자금 용도로 1주일에 5,000원 한도로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행동요강을 각 금융기관에 시달하였다.

6 · 25전쟁이 일어나고 3일째 수도 서울의 함락이 임박했던 6월 27일-금융기관 대표자들은 회합을 갖고, 각 금융기관별로 단독행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의 경우 정부를 따라 부산으로 본부를 옮겼다. 조흥은행은 1950년 9월 6일 부산지점에 임시본부를 설치하고 피침을 모면한 지점들에 대한 제반 지시, 연락과 피난민 거래에 대한 예금 및 대출거래를 취급하고, 피난 직원에 대한 급료도 지불하는 등 은행 업무가 임시로 이루어졌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10월 3일 시중은행의 서울점포에 대한 영업 재개가 허용되어 조흥은행 임시본부도 10월 4일 서울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정부가 부산으로 수도를 옮기고,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은 별 진척이 없어 정국은 안정을 찾지 못했으나 경제안정을 위해 재정금융면에서의 긴축정책은 점진적으로 산업부흥책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한강

조흥은행 명동지점(1966년)
-「명동20년」에서

이북지역에 7개 금융기관에서 1개 점포씩 1951년 1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허용하여 조흥은행의 경우 가장 규모가 컸던 서대문 지점이 복귀하였다. 충무로 지점은 당시에 복귀하지는 못하였다가 1954년 5월 10일 전화로 소실되었던 자리에 신축 이전되었다. 당시 명동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1965년 11월 15일 조흥은행은 사세 확장으로 명동 1가 32-5번지에 명동지점을 개점하였는데, 초대 지점장은 이강원이었고 개점당일 예금액이 1억 8,000만원이었다.[184] 이후 조흥은행 명동지점은 1972년 8월 7일 명동 1가 59-1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77년 11월 7일 명동 1가 53-1번지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동의 조흥은행 세번째 지점은 중앙지점이다. 중앙지점은 1968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3번지 영업부 중앙예금취급소로 개점하였으며 개점당시 지점장은 김동호였다. 그후 1970년 2월 16일 중구 초동 21-9번지로 이전하여 5월 4일 중앙지점으로 승격하였다. 1978년 7월 18일 충무로 3가 60-1번지(극동빌딩)으로 이전하여 현재(2002년)에 이르고 있다.[185] 조흥은행 중앙지점은 1998년 8월 1일 1998년 상반기 경영종합평가 특별그룹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1년 9월 25일에는 2001년 상반기 경영종합평가 중부지역본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186]

(나)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서민들의 은행이며 명동에 본점을 두고 개설된 은행이다.[187] 현재의 국민은행은 국민은행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국민은행법과 국민은행 이전에 서민금융을 담당한 한국국민은행법에 기초한 한국국민은행이 있었다.

근대적 의미의 서민은 봉급생활자나 임금노동자 및 영세민 등 일반대중과 영세상공업자와 영세 자영업주 같은 기업서민을 말하는데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자신들을 서민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서민금융이란 국민의 주종을 이루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을 말하는 것이며, 서민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거나 혹은 생산요소 중 가장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생활안정 없이는 원활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할 수 없는 만큼 국가정책상의 배려와 보호가 요구된다.

서민금융은 그 대상이 경제력이 약한 영세상공인이거나 일반서민이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전담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서민금융은 자금조달(수신)이 어려운 반면에 상대적

으로 자금수요(여신)가 크며 자금수요의 평균적 규모가 낮은 동시에 장기의 할부상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융자가 요청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영세자금의 취급에 따른 비용과 신용조사 및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손(貸損)의 위험성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특수성에 비추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민금융의 특수성 때문에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단기의 상업금융을 취급하는 일반금융 기관이 시민금융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전담기관이 필요하였다.

한국국민은행이 설립될 당시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은 1961년 9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서민에 대한 혜택은 극히 적었고 단지 5개의 무진회사만이 그 주된 역할을 맡아왔다.[188] 일반은행은 단기 상업금융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신용이 불안정한 소액의 서민금융은 자연 도외시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5 · 16군사쿠데타 이후 정부는 기존의 무진회사 등 건전한 회사를 서민금융전담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한국국민은행법을 제정하고 한국국민은행을 발족하였던 것이다. 한국국민은행이 설립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서민금융전담기관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한국국민은행은 설립된지 5개월 후인 1962년 7월경부터 원활한 서민금융을 위하여 현행 국민은행법을 개정하든가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1962년 12월 7일 새로운 국민은행법이 제정 · 공포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1963년 2월 1일자로 새로운 국민은행이 구 한국국민은행의 본 · 지점 57개 점포를 동시에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명동에는 국민은행 본점과 명동지점이 있다. 두 곳 모두 국민은행이 개설될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국민은행 본점은 현재의 롯데백화점 건너편 남대문로 2가 9-1번지에 있다. 현재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2002. 11. 1)되어 국민은행 명동본점이 되었다. 여의도 주택은행 본점은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이 되었다. 국민은행 명동지점에 대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3년 2월 1일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02-1에서 광교지점으로 개점.

1978년 6월 12일 – 중구 을지로2가 148-28로 이전 및 을지로지점으로 명칭 변경.

1984년 4월 16일 – 중구 을지로2가 101-1로 이전.

1987년 11월 16일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33-1번지 청휘빌딩으로 이전 및 명동지점으로 명칭 변경.

1988년 4월 20일 – 을지로 출장소 신설.

2002년 현재 명동2가 50-14 유네스코 빌딩 1층에 소재.[189]

(다) 한국상업은행

한국상업은행은 대한천일은행이 1911년 1월 조선상업은행으로 개칭한 이후 1950년 초에 상호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상업은행은 명동에 3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190]

◇ 충무로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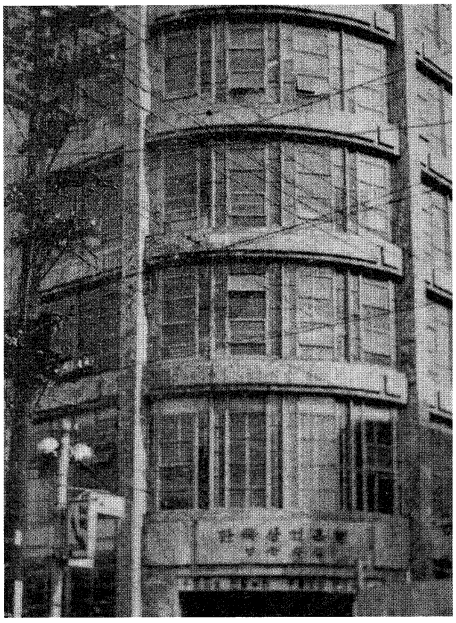
1957년 5월 6일 – 충무로 2가 49-11 조양빌딩에서 개점

◇ 명동지점

1960년 5월 16일 – 명동 2가 33-2에서 개점

◇ 퇴계로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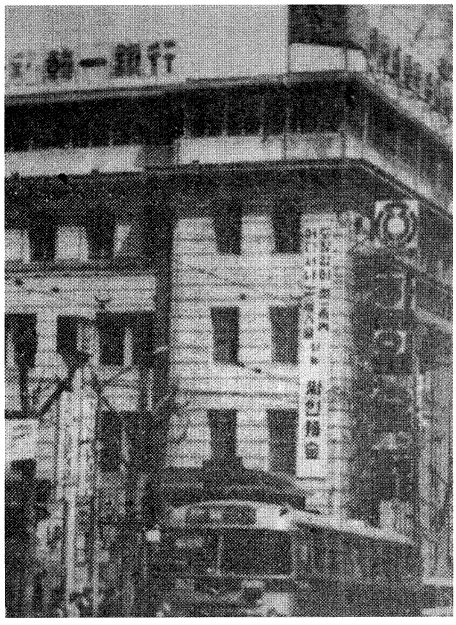
1975년 6월 5일 – 충무로 1가 24-1에서 개점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명동지점(1966년)

(라) 한일은행

한일은행은 광복 후 두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창립되었다. 한일은행의 전신은 1932년 12월 설립된 조선신탁주식회사와 1937년 8월에 설립된 조선중앙무진이었다. 이 금융기관들은 광복과 함께 각각 조선신탁은행(1946.10)과 조선상호은행(1946.2)으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조선신탁은 한국신탁으로, 조선상호은행은 상공은행으로 개칭되었다가 1954년 한국흥업은행으로 통합되었다. 한일은행은 한국흥업은행이 1960년 1월 상호를 변경하여 발족한 것이다. 한일은행의 명동에 있는 지점들은 중부



구 한일은행 본점(1966년)
–「명동20년」에서

지점, 을지로지점, 명동지점, 퇴계로지점, 을지로입구지점이 있다. 이들 중 중부지점은 아래의 연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중앙무진의 본점으로 개점한 곳이다. 한일은행의 명동 일대 지점들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 중부지점[191]

1937년 8월 14일 – 조선중앙무진(주) 본점으로 개점.
1942년 9월 1일 – 조선무진(주) 본점으로 명칭변경.
1946년 4월 1일 – 조선상호은행으로 개점.
1950년 6월 6일 – 한국흥업은행으로 변경.
1954년 10월 1일 – 한국흥업은행 중부지점으로 변경.
1960년 1월 1일 – 한일은행 중앙지점으로 변경.
1987년 현 주소 중구 저동 2-25번지.

◇ 을지로지점[192]

1950년 1월 4일 – 중구 을지로 3가 243번지에서 조선신탁 을지로지점으로 개점.
1954년 10월 1일 – 한국흥업은행 을지로지점으로 명칭 변경.
1962년 11월 12일 – 을지로 3가 116-1로 이전.

◇ 명동지점[193]

1967년 2월 7일 – 명동 2가 50-16번지에서 개점.
1972년 12월 20일 – 영업장 확장(제2영업장)

◇ 퇴계로지점[194]

1968년 9월 18일 – 충무로 4가 125-1번지에서 개점.
1977년 1월 4일 – 을류외국환업무취급 개시.

◇ 을지로입구지점[195]

1969년 8월 10일 – 중구 삼각동 114번지에서 개점.
1970년 8월 21일 – 삼각동 115번지로 번지변경.
1974년 3월 20일 – 을류외국환업무 개시.
1985년 7월 29일 – 을지로 2가 9-1로 이전.
1987년 11월 2일 – 점명 변경.

(마) 제일은행

제일은행은 1927년 7월에 설립된 조선저축은행이 발전한 것으로 1950년 5월에 한국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1958년 12월 현재의 제일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제일은행은 명동에 4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데, 명동지점, 제1지점, 충무로지점, 한국은행 지점이

다. 이들 중 한국은행 지점은 폐쇄되었다. 각 지점들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 명동지점

1969년 6월 27일 – 중구 충무로 2가 66-6에서 개업하였다.[196]

◇ 제1지점

1987년 10월 5일 – 중구 충무로 1가 53-1번지에서 개업하였다.[197]

◇ 충무로지점

1953년 12월 1일 중구 충무로 1가 39번지에서 본점(영업부) 충무로 예금취급소로 개업하고, 1962년 10월 25일에 현재의 중구 충무로 2가 64-5번지 한일빌딩으로 이전하였다.[198]

◇ 한국은행지점

남대문로 3가 110번지 한국은행 본점 내에 있었으나 폐쇄되었다.[199]

(바) 한국주택은행

1950년대 국내 주택사정은 광복 후의 해외동포의 귀환과 북한동포의 월남, 6 · 25전쟁 중의 피난민 유입 등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한 반면, 약 60만 호에 이르는 주택이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됨으로써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명동 또한 6 · 25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전후 복구사업 계획'에서 주거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1백만호 주택건설(안)'을 제시하여 전쟁으로 파괴 또는 소실된 주택에 대한 긴급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1956년까지 6,230호의 재건주택 · 복구주택 · 외인주택(外人住宅)이 건설되었으며, 1957년부터는 이제까지의 피난민 및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적인 주택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주택건설을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후 귀속재산처리적립금, 대충자금(對充資金), 일반재정자금으로 주택자금을 조성하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주택건설 · 개량 및 주택건설 기자재 생산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를 개시토록 하여 주택건설에 활기를 불어 넣게되자, 1960년 전제 주택보급률이 82.5%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주택보급률이 64.8%에 불과하였으며 복지 면에서의 양호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계상된 83만호의 주택건설과 주택투자자금의 조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전담기구의 설립이 요청되었고, 1965년 10월 14일 주택금고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967년 3월 30일 한국주택금고법안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1967년 7월 10일 중구 소공동 45번지 구 대한주택공사 사옥을 보수한 건물에서 한국주택금고가 개업하게 되었다. 2년 후인 1969년 1월 4일 법률 제2072호로 한국주택은행법이 제정 공포되어 이 법에 근거하여 명칭이 변경되었다.[200] 이후 1997년 7월 29일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은행과 합병되었다.

한국주택은행은 명동에 2개의 지점을 두었는데, 명동 2가 50-1번지에 명동지점을[201] 충무로 3가 57-8번지에 충무로 지점을[202] 두어 중부 지역본부에서 관리하였다. 현재는 국민은행 충무로지점으로 변하였다.

(사) 한국외환은행

이 은행은 외환업무를 전담할 은행이 필요해짐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다. 1966년 12월 17일 재무부장관이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으로 서봉균(徐奉均)을 초대 은행장으로 임명하고, 동년 12월 19일 한국외환은행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한편 1966년 12월 27일 초대 서봉균 은행장이 개업을 목전에 두고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후임에 홍승혜(洪升惠)가 임명되었고, 1967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남대문로 3가 110번지 한국은행 별관에서 직원 750명과 12부 1실 국내 1개 지점, 국외 4개 지점으로써 국내 유일의 외국환전문은행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203]

한국외환은행 본점 (전일 동양척식주식회사, 내무부 터)

1983년 내무부가 있던 을지로 2가 181번지 현재의 본점으로 이전하였다.

외환은행은 창립 당시 국내점포는 부산지점 단 한 개였다. 따라서 지방 등 원거리에 위치한 수출입업자의 경우 외국환취급은행이 지방에 없어 서울본점이

나 부산지점까지 일일이 찾아가야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점포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명동과 충무로에 수출입업체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지점이 설치되었다.

충무로지점은 1968년 9월 5일 개점하였다. 무역업자의 밀집지역이었던 충무로에 점포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내의 가용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갑류 외국환은행으로 승격된 시중은행에 우선하여 지역 수출입업무를 선점한다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11월 29일 인가를 받아[204] 중구 충무로 1가 25-5번지에 소재한 대연각 빌딩

에서 개점하였다. 그 후 1971년 12월 25일 발생한 빌딩화재로 인하여 당시 한국은행 별관 건물을 임차사용하던 남대문지점으로 임시 이전하여 2개월 영업하였고, 1972년 2월 28일 중구 충무로 1가 24-23번지에 위치한 은정빌딩으로 이전하였다. 대연각빌딩이 복구되자 명동지점과 영업권 중복 등의 사유로 1974년 7월 18일 현재 위치한 고려대연각빌딩으로 재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05]

명동지점은 1969년 12월 5일 개점하였다. 금융 및 무역의 중심가인 명동지역 소재 기업체의 금융 편의제공을 위하여 1969년 2월 13일 인가를 받아[206] 서울 중구 명동 1가 60번지 소재 계양빌딩을 빌려 개점하였다. 이후 1984년에 실시된 거래선 이수관실시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되자 동지점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고자 1985년 4월 15일 중구 명동 1가 7-1번지 소재 태흥빌딩으로 이전하여 현재 영업중이다.[207]

(아) 명동의 증권거래소

광복 이후인 1946년 1월에 미군정법령 제43조에 의해 조선증권취인소(朝鮮證券取引所)가 폐쇄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증권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조선증권취인소 상장주식 소지자들은 산발적인 점두매매(店頭賣買)를 행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1월 재무부 면허 제1호로 대한증권주식회사의 설립이 인가되자, 증권거래는 대한증권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6 · 25전쟁으로 서울에서의 증권거래는 잠시일 뿐 부산으로 피난가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매매대상 종목은 주로 지가증권(地價證券)과 건국국채에 한정되었다. 지가증권은 1949년 6월의 농지개혁법에 의해 지주에 대한 농지보상(農地補償)으로 발급된 것이었으며, 건국국채는 적자재정의 보전(補塡)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50년 1월에 발행되어 그 후 전쟁시의 전비(戰費)조달과 전후 세입 결함의 보상방법으로 계속 발행되었다. 한편 전란의 와중에서 국채를 대상으로 한 증권매매가 성행하게 되

한국 증권거래소(1966년)
-「명동20년」에서

자 무면허 증권업자들이 난립하였으며, 이들 무면허업자 중 고려증권주식회사가 1952년 8월에 인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53년 9월에 이르기까지 영남증권주식회사 · 국제증권주식회사 · 동양증권주식회사가 각각 정식 인가되었으며 이들은 대한증권주식회사와 함께 협회를 구성하는 모태(母胎)가 되기도 하였다.

6 · 25전쟁의 전세(戰勢)가 호전되어 감에 따라 그 동안 피난지인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들 증권회사들이 서울에 본점을 두거나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고, 정국의 안정에 힘입어 거래량도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적인 증권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당시의 5개 면허 증권업자들은 1953년 10월 16일 협회창립발기인회를 개최하고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게되자 1953년 11월 25일 대한증권업협회를 창립하였다. 증권업협회는 그 설립과 동시에 증권거래소의 설립을 의결하는 한편 거래소 설립이전의 매매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선 협회 회원간의 매매회합(賣買會合)을 준비하는 동시에 각 회사별로 증권시세를 발표하였던 것을 1954년 8월 1일부터 협회 회원간의 협정으로 매일 단일시세를 발표하였는데 협회의 결재 후 거래소가 설립되기까지의 이 같은 협회 주관 하의 증권거래실적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거래소 개설에 큰 자극이 되었다.

한편 거래소 설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53년 12월 당시 민의원 김영선(金永善) 외 21인이 증권법이라는 명칭으로 민의원에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안의 불비(不備)로 인해 재검토하여 제출한다는 조건부로 국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후 1955년 3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다시 재무부에 의해 '증권거래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법안통과는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정 이전의 조치로서 구 조선증권취인소령(舊朝鮮證券取引所令)에 의거 증권거래소

명동에 밀집한 증권회사(1966년)
-「명동20년」에서

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여 1956년 2월 11일 대한증권거래소의 설립에 이르게 되었고, 동년 3월 3일 명동 증권거래소에서 서울증권시장이 개장되기에 이르렀다.[208] 대한증권거래소는 일제강점기 극장건물이었던 메이지좌(明治座)를 개조하여 1979년 7월까지 사용하였다.

증권거래소의 개소 당시의 상장주식은 12개 사 13종목이었고 채권은 국채 3종목이었다. 증권거래소 개장과 함께 1호로 주식이 상장된 것은 한국상업은행이었다.[209] 동 상장종목은 거래소 설립 이전 증권업협회에서 매매되고 있던 주식 11종목에 증권거래소 출자증권과 연증주(聯證株)의 증금주(證金株)가 추가된 것이며 개소 당시 거래원수는 47개사로 거래종류는 실물거래와 청산거래의 두 종류였다. 개소 당일의 시세는 조흥은행 570원, 상업은행 220원, 조선공사 37원 등이었다. 한국상업은행주식은 제1호로 상장된 것이었다. 당시 증권거래소 당시 증권회사로는 부국증권(1954.8.25. 설립), 한양증권(1956년 설립), 신영증권(1956.2.25. 설립) 등이 있었으며, 명동 증권거래소 시대에 새로 생긴 증권회사로는 유화증권(1962. 설립), 국일증권(1962.6.1.설립. 현대증권의 전신), 삼락증권(1962.7.27설립. 대신증권의 전신. 자본금 2,000만원), 성도증권(1962.7.설립. 1977년 제일증권으로 상호변경, 1996년 한화증권으로 상호변경) 등이 있다. 한편 부국증권은 1974년 개업당시 본점이 을지로 2가 199-45번지에 있었는데, 1977년에는 명동 2가 20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79년에는 31-1번지로 이전하였다.

또한 증권거래소가 개장된 이후 수년간의 증권거래는 국채거래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는 6·25전쟁 후 적자재정의 보전을 위해 건국국채의 발행이 계속되었음에 반해, 당시 주식회사는 그 체제가 미숙하였고 수익성에 대한 보장도 불확실하였으며 종목과 수량 모두 미미한 수

준이었을 뿐 아니라 상장주식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건국국채는 상장된 후 시중의 고율 사채이자를 반영하여 시장 수익률이 연 100%에 달하기까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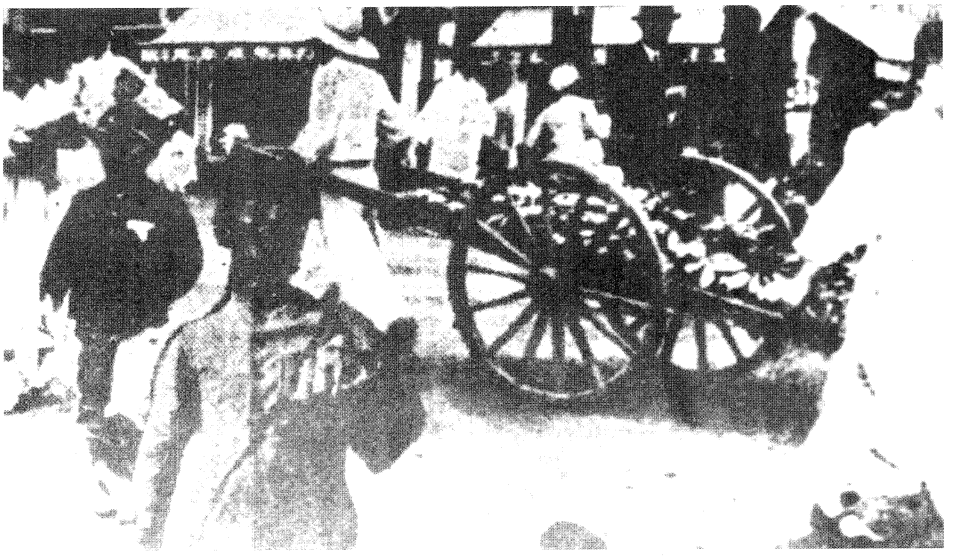
한편 증권회사들은 자금력이나 공신력이 미약한데다 당시의 청산거래제도를 악용, 증권시장을 투기장화하여 크고 작은 파동을 일으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나타났다. 1958년의 1 · 16 국채파동과 1959년의 대증권소동이 그 대표적인 예로 1 · 16 국채파동은 1957년 9월 재무부가 신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과 함께 18억환에 달하는 제11회 국채발행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롯된 국채의 발행 여부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책동전으로 번져 일어난 것이며, 대증권소동은 1959년 3월부터 동년 7월까지 사이에 대한증권거래소 출자증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업자들의 책동전을 말한다.

이와 같은 파동으로 증권시장의 공신력이 매우 약화되었고, 시장 기조도 크게 흔들리게 되어 이후 정부당국과 증권거래소는 매일 매일의 시장관리는 물론 증시체제의 정비를 위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근본대책인 증권거래법의 제정은 5 · 16군사 쿠데타 이후로 미루어져 1962년 1월 15일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었다.

2) 변모하는 상가

8 · 15 광복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명동일대에 있어서 도로망의 큰 변화는 없었다. 일제 때부터 세워진 단층 또는 2층의 일본식 목조건물이 주축이었던 것이 6 · 25전쟁 중에 중국대사관 동편과 충무로2가, 저동 등이 포격으로 파괴되어 수년간 그 자리에 천막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중국대사관 동편 사이길 등이 확장되었다. 또한 명동일대는 1952년 내무부 고시 23호로 전재복구 재건을 위한 토지구획정리 추가지구로 지정되었다. 1956년 8월 1일 착공하여 1956년말 준공되어 명동은 일제 때 번화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도시로 변모할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 후 명동에는 새로운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게 된다.

1952년 명동지역은 전후 복구사업으로 충무로와 명동2가 지역의 가로망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으나, 그 이외의 가로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 외곽도로 중 을지로와 남대문로의 변화는 없으나, 충무로 방면의 퇴계로가 일제 말보다 큰 폭으로 확장되었다. 내부도로 중 충무로 일대와



무우를 실고 가는 진고개 풍경
-「명동야화」에서

명동 2가 지역은 일제 때의 막다른 골목과 불규칙한 선형(線型) 가로들이 격자형(格子形) 가로로 바뀌어 중앙로는 10m로, 그 이면도로들은 4~6m로 확장되고, 명동로는 15m로 확장되었다. 반면 저동 1가쪽의 골목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전후 복구사업이 마무리되고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한 1955년경부터 건축물의 신축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6 · 25전쟁 당시 건축물이 거의 파괴되었던 명동도 전후 복구사업 이후에 활발한 건축활동이 일어나 주로 중소규모의 상업건축물이 명동의 대부분 지역에 산재하여 현재 명동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210] 당시의 중요한 건축물로는 충무로 1가 23-1번지에 있는 사보이호텔(1957)과 메트로호텔(1959)이 있었으며, 현재의 유투존 자리에는 명동공원이 조성되었다.

미군 PX가 현재의 신세계백화점에 위치하여 명동의 '달러골목' (1970년대 남대문로 가로확장으로 사라짐)으로 외화, 서적 등 제반 물자가 유출되었다. 특히 외국서적 중 의상, 신발, 양복 등에 관한 것이 재빨리 명동상가로 유출되어 유행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명동지역의 상가도 의상, 양복, 양화점 등의 판매업종이 자연 집중하게 되어 최고의 패션가를 형성하였다. 주점도 서구식 스텐드 바, 살롱, 맥주집이 현대식 건물에 들어섬으로써 명동은 명실공히 쇼핑과 사교, 유흥오락이 이루어지는 번화가로 변모되었다. 일제 때 쇼핑의 중심지였

카메라점이 늘어선 남대문로(1966년)
-「명동20년」에서

던 본정통(충무로)의 기능이 변모 약화되고 유흥오락가였던 명치2정목이 서서히 쇼핑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명동입구의 남쪽(코스모스 빌딩자리)에 27개의 서점이 입지했으나 6·25전쟁 후 양말류 등의 잡화상이 들어섰다. 그 건너편에는 시계점, 중국 호떡집, 서점, 식당 등이 있는 1차선 소로였으나 주점, 극장, 요식업소로 이어지는 통로였으므로 명동로도 충무로 못지 않게 보행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명동2가지역은 중앙로의 가로확장으로 유네스코회관, 성모병원, YWCA회관, 청휘빌딩 등 대형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다. 1960년대의 주요건축물로는 성모병원(1961), 오양빌딩(1962), 중국대사관(1963), 중앙극장(1963), 유네스코회관(1967), YWCA회관(1968), 한국전력사옥 별관(1968)이 있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계기로 산업의 근대화가 시작되자 한국경제는 상공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명동일대의 도심공간도 수도 서울의 과잉팽창에 따라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즉 인구의 공동화(空洞化)현상이 발생함은 물론 과열된 건축경기의 붐을 타고 고층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구획별, 노선별, 층별 업종변화가 이루어져 서울의 도심 핵심지역으로서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명동지역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적인 증가와 고층화가 시작되는데 3~5층 정도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시설물의 용도변화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남대문로 2가와 을지로 2가의 금융업무 시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중앙로변, 명동로변, 국립극장주변의 유흥오락 시설들이 점차 외곽지역과 유네스코회관 뒤편과 명동로 이면 도로변으로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그리고 충무로의 쇼핑기능이 점차 약화되면서 유행업종이 명동1가, 2가에 집중하게 되어 쇼핑 중심지역으로 변모하였다.

3) 백화점시대의 예고

(가) 매장 임대방식의 백화점

한국에 백화점이 나타난 것은 1906년 현 사보이호텔 건너편에 미쓰코시(三越) 경성지점이 설립되면서부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백화점이 대중화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1929년 박흥식이 종로에 순수민족자본으로 화신백화점을 설립하였는데 이때부터 백화점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백화점의 대중화 시기를 이때로 보는 것은 1930년대 문학작품에 백화점이 자주 소재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1930년대 한국문학작품에 나타난 백화점을 통해 도시문화를 다룬 이성욱은 그의 논문에서 백화점이야말로 근대도시경험과 운영원리의 압축모형이며, 당시의 사람들은 백화점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을 습득하였다고 한다.[211] 이렇듯 백화점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근대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설립되어 발전해가면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사고를 바꾸는 중요한 매개체 역활을 하였다. 그리고 이 백화점들은 주로 명동과 종로에 포진해 있었으니 명동을 이야기하면서 백화점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광복 당시 서울에는 5개의 백화점이 있었는데, 화신백화점 · 미쓰코시(三越) · 조지야(丁子屋) · 미나카이(三中井) · 히라다(平田) 백화점이었다. 이들 중 순수 민족자본에 의해 설립된 것은 화신백화점 하나로 종로네거리에 있었고, 나머지 4개의 백화점은 모두 일본인 소유로 현재의 명동 · 충무로 · 남대문로에 있었다. 그리고 광복 이후 천일(天一)백화점(1949, 종로구 예지동 189), 신신백화점(1950. 11. 15 개점), 시대백화점(1959. 8. 4 개점, 구 민우백화점)이 개업하였다. 이 외에도 이름만의 백화점이 전국에 걸쳐 많이 생겨나고 있었다. 광복 이후에는 원조물자와 밀수를 바탕으로 자본을 형성하고 축적한 신흥상인들이 나타났고, 상업계의 이러한 변화는 백화점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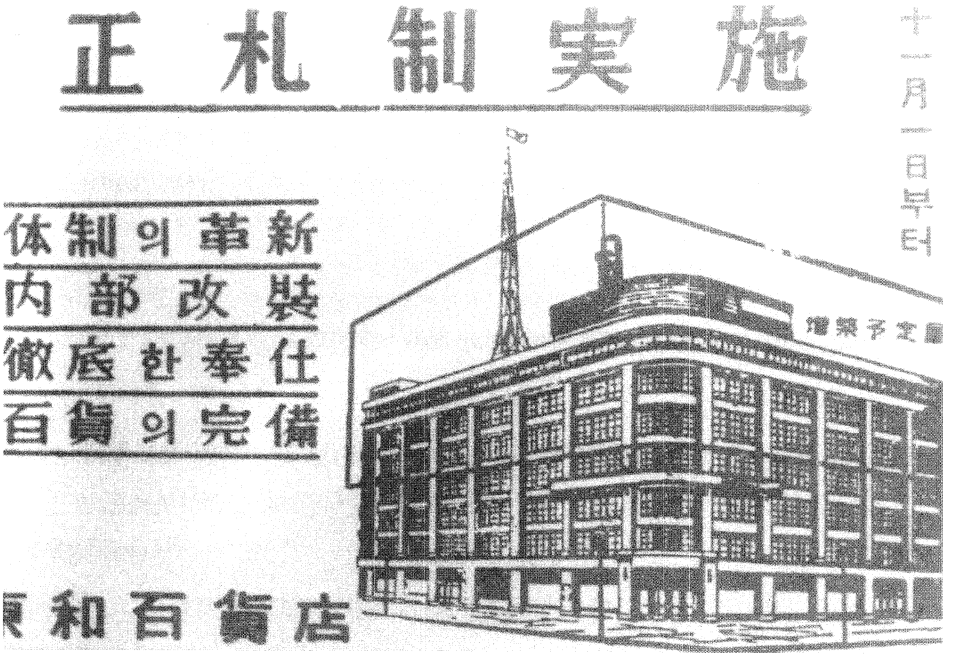
광복이 되자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명동 일대의 백화점들은 적산(敵産)으로 분류되어 국유재산이 되었다. 4개의 명동 일대 백화점 중 미쓰코시 만이 백화점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여 1945년 9월 15일 동화(東和)백화점으로 변경하고 국영기업체가 되었다. 제1대 관리인이었던 김계조는 두달이 채 못되어 사임하고, 종업원 대표인 방용하, 조영창, 박인흥 세 사람이 제2대 관리인이 되어 공동관리를 하게 되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15일 미군정청에서는 이두철을 제3대 관리인으로 정식 임명하였으며, 1949년 5월 10일에는 강일매가 제4대 관리인으로 임명

되어 1950년 6 · 25 전쟁이 일어나 영업이 중지되기까지 운영하였다. 서울이 수복된 후 1951년 7월 19일 동화백화점 본관건물에는 미군 피엑스(PX)가 들어서서 미군이 이용하였다.

조지야 백화점은 광복 후 당시 종업원 대표가 중앙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고 남은 상품으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후 1948년 미군정청에서 PX로 지정하고 인원, 상품 전량을 동화백화점으로 흡수 · 합병하였다. 동화백화점에 흡수된 중앙백화점은 정부의 적산 불하(拂下) 방침에 의하여 무역협회로 불하되어 당시의 최고 수준의 임대(賃貸)백화점으로 변신하였다. 당시 1층은 임대하고, 2 · 3층은 무역협회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충무로 1가 45번지에 있던 의류전문 백화점 미나카이 백화점은 광복 후 국유재산으로 되었으며, 건국 후 해군본부로 사용하였으나 퇴계로 확장공사로 건물 일부가 헐리고 이후 원호처가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백화점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 건물은 1970년 철거되었다.

이처럼 광복 당시 4개나 되던 명동 일대의 백화점 중 미나카이 백화점과 히라다 백화점은 문을 닫았고, 미쓰코시 백화점은 동화백화점으로, 조지아 백화점은 중앙백화점으로 명맥이 이어졌다. 명맥만 유지되던 명동의 두 백화점 역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임대백화점으로



정찰제를 실시한 동화백화점(1963년)

전락하였으며, 6 · 25전쟁 중에는 미군의 PX기능을 하게 되었다.

휴전된 후 1954년 11월 29일 관재청은 미군으로부터 동화백화점을 정식으로 명도받았고, 동화백화점은 1955년 2월 20일에 자본금 5백만원으로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사장은 강영원이었다. 지하에는 식품매장을 두었고 1층에는 잡화 · 소품, 2층에는 양품 · 의복을 팔았고 당구장이 있었다. 3층에는 동화극장과 카바레, 4층에는 후에 동화백화점을 인수한 동방생명이 임대하여 있었다. 동화백화점은 지하매장은 직영하였으나 나머지 매장은 임대방식으로 운영하였고, 4층은 동방생명에 사무실로 임대하였다.

동화백화점은 매장임대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당시 한국의 유통실정 때문에 취해진 백화점들의 일반적인 운영방식이었다. 당시 백화점들은 전쟁으로 생산시설이 붕괴되어 직영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단일품목 상품코너를 운영하였고, 나머지 매장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받아 운용함으로써 백화점은 매장 임대업으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동화백화점에는 1957년에 결혼상담소가 들어섰다. 이 결혼상담소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1957년 7월 20일자 신문 4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 사단법인 중앙부인회에서는 건전한 결혼을 중매하고자 시내 동화백화점에다 결혼상담소를 두고 성북구 돈암동 로타리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한다. 그런데 희망자가 전기상담소에 호적등본 일통과 자필이력서 혼인신청서 이통의 서류를 신입한 후 상대방에 적당한 후보자가 유할 시는 쌍방 희망에 일치를 본다음 보호자 동반으로 면회케 하여 당사자간에 필요한 조사를 행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성격 · 사상 · 생활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완전히 쌍방의 양해가 성립되면 건강진단서를 교환하고, 정식 중개인을 세워서 건실하고 명랑한 예식을 거행케 하리라 한다.[212]

1953년 6월 27일자 조선일보 신문에는 상이군경 결혼상담소가 신설되어 7월 7일경 10쌍의 상이군경 합동결혼식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1962년 3월 27일 기사에는 서울에만 4개의 결혼상담소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6 · 25전쟁이 휴전된 후 서울에 결혼상담소가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동화백화점에 생긴 이 결혼상담소는 초창기 결혼상담소 중의 하나로 보인다. 전쟁으로 인해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성사시킬 수 없었던 사회분위기가 결혼상담소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이해된다. 한편 당시의 결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결혼 당사

자의 성격과 사상 · 생활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상까지 살펴보는 것은 사상의 대립으로 일어났던 6 · 25전쟁의 결과였다. 또 건강진단서를 교환하는 현대적인 모습도 보여 이채롭다. 이 결혼상담소는 백화점이 매장을 임대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백화점은 국내 생산시설의 파괴와 부족으로 물자가 부족하여 주로 외제 상품을 취급하여 사치의 장소로 인식되었다. 또한 밀수품 판매로 시청과 세관에 적발되는 등 부정적인 면들도 있었으나, 정찰제를 실시하고,[213] 국산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실시하여[214] 국내 유통질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나) 직영방식의 백화점 등장

서울특별시가 편찬한『서울통계연보(統計年報)』를 보면 당시 백화점의 규모에 대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수가 1960년에는 7개, 1961년에는 796개로 기록되고 있는데 전자(前者)는 백화점 수를 나타내며, 후자(後者)는 백화점 내에 있는 총점포수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또 1960년의 연매장 면적(延賣場面積)은 4,153평이었는데, 1961년에는 무려 75.7%나 증대된 7,297평으로 늘어났다. 이로 보아 1년동안 어느 정도의 백화점이 증설된 것으로 보인다.

1961년에 백화점연합회는

실용성 있는 물품부터 정찰제 실시를 점차로 실시하자
도량형기의 자치감사제도를 실시하자
부정상표를 일체 배격한다
판매금지된 외래품을 팔지 말자
외래품을 점차로 국산품으로 바꿔 팔자[215]

고 결의하였다. 이는 5 · 16군사쿠데타 이후 들어선 군사정권이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1961년 7월 15일부터 외래품 판매금지를 발표하였기 때문이었다. 외래품 판매금지로 백화점의 점포가격은 폭락하였고 상당수 임대업자들은 백화점을 떠났다.

동화백화점은 백화점업계의 외래품 파동이 있기 석달 전인 1961년 4월 1일부터 국산품 매장이 들어섰으나, 외래품 판매금지 조치 이후 2층 매장은 반으로 줄었고, 고객의 수도 격감

신세계백화점(1966년)
-「명동20년」에서

했기 때문에 경영상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1962년 동방생명과 동화백화점간의 소유권 이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화백화점을 인수한 동방생명도 사세(社勢)가 흔들리기 시작하여 1963년 7월 15일에 동화백화점은 삼성그룹에 인수되었다.

삼성그룹은 1963년 11월 12일 동화백화점 상호를 신세계로 바꾸고 직영화를 시작하여 1969년에는 직영율을 8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오리지날 브랜드 '피코크'와 스토아 브랜드 '신세계'를 개발하였으며, 업계 최초로 정찰제, 환금환품제, 자유관람제, 포장 서비스, 신용카드, 전관 바겐세일, 대학생 및 주부 아르바이트 채용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유통업계의 근대화를 이루어 내었다.

신세계 백화점은 1964년 12월 인기스타 허장강, 태현실, 최무룡, 김혜정, 남석훈, 최지희 등 인기스타를 1일 점원으로 채용하는 행사를 벌였으며, 1967년 10월 23일부터 국내최초로 바겐세일을 실시하였다. 당시는 바겐세일이라는 용어가 생소했기 때문에 현수막에 '철지난 재고상품을 반값에 판다'는 문구와 함께 왜 그렇게 팔 수 있는지를 써서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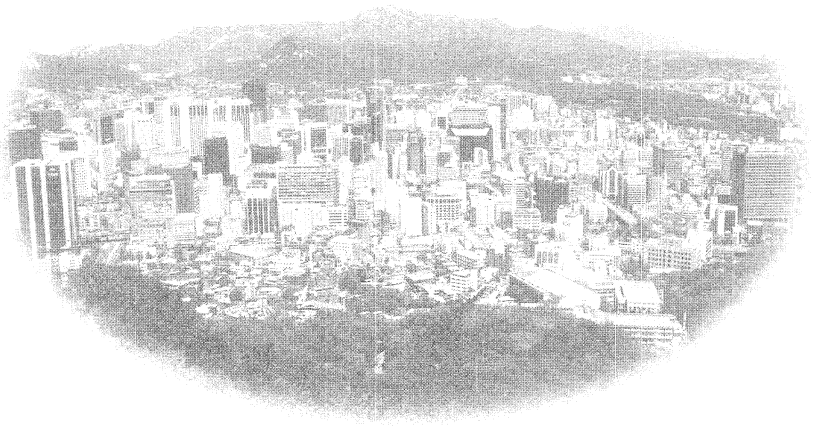
1960년대 백화점에서는 밀수품을 팔다가 적발되는 일도 많았고,[216] 백화점에 불이 나는 일이 자주 있어 1970년 1월에는 백화점 등 밀집지역에서는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1969년 7월 삼성그룹 관계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카드를 발급하여 신용카드제도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는 기록을 세웠다. 1974년에는 한일은행과 제휴하여 은행정기예금 고객을 대상으로, 1975년에는 직장인 대상으로 카드발급대상자를 확대하였으나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만한 환경이 형성되지 못하여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홍윤정(洪允靜)〉

V

한국 번영의 상징, 명동



제5장 한국 번영의 상징, 명동

(1)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한 명동(1970년~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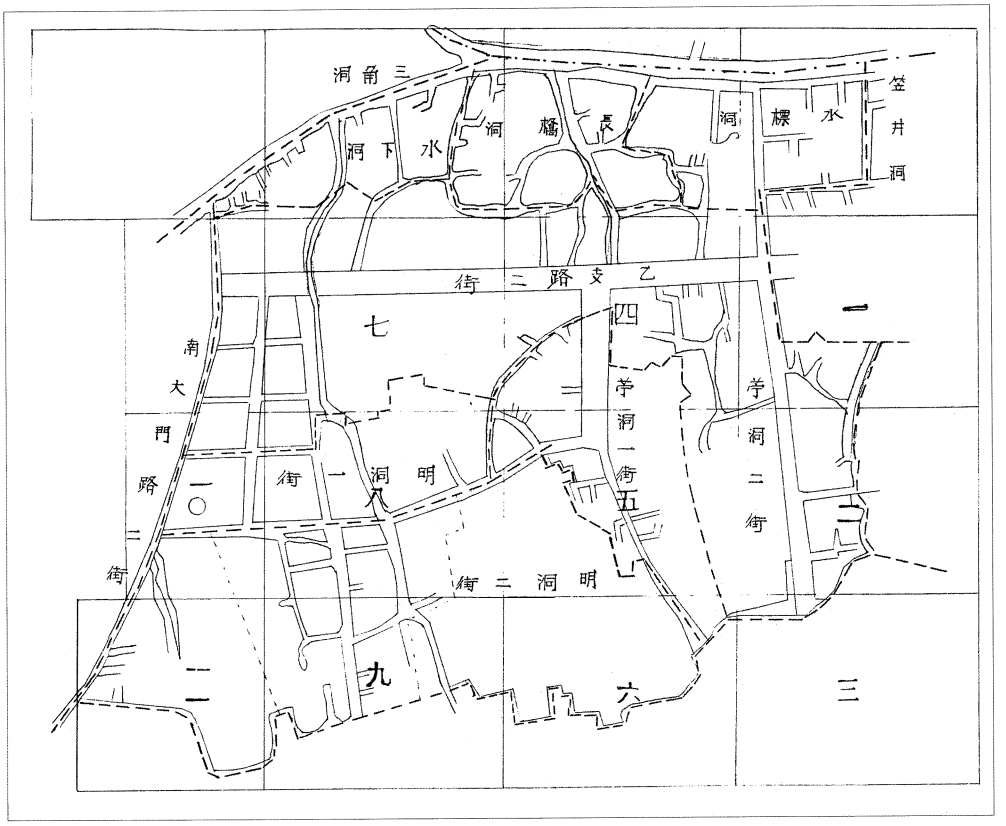
1) 유신체제기의 명동

유신(維新)헌법의 발효와 더불어 헌정 질서가 회복되면서 곧바로 제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고, 박정희 대통령은 별도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은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라는 원내 교섭 단체를 발족시켰다.

1973년 8월에 일본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김대중(金大中)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자칭 애국청년구국대원들에 의해 서울로 끌려 온 사건이 일어나면서 1973년 9월부터 반유신(反維新)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어 카톨릭교회가 인권 회복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반유신 운동을 전국적으로 이끌기 시작하였다. 카톨릭 사제들은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을 발족시켜 반유신 운동을 체계화하는데 앞장섰으며, 여기에 대학생들이 호응한데 이어 언론인들과 문인들이 뒤를 따랐다.

1973년 12월에 명동천주교회 미사 후 천주교인들이 민주헌법의 회복과 대일 굴욕외교 반대의 격렬한 가두시위를 폈다. 교회의 사회정의운동이 이처럼 행동적으로 격화되자 군사정부는 가혹한 탄압으로 대처하여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2호를 선포하고 개헌 운동을 탄압하였다.

제1야당 신민당은 1974년 8월 하순에 김영삼(金泳三)을 총재로 선출하고, 김 총재를 중심으로 보다 더 강력히 유신체제에 도전하였다. 1975년에 들어서면서 카톨릭의 민주화 운동은 더욱 거세어졌다. 구속자 석방과 인권 보장 및 민주주의의 회복 등을 주장해 오던 이들은 마침내 개헌과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217] 이러한 시점에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공산화됨과 아울러 인도차이나 3개국 전체가 공산화되었다. 북한의 김일성(金日成)은 크



명동일대 지도(1975년, 1/6,000)
-「중구청」 소장

게 고무되어 중국을 방문하여 남한의 공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언동을 보이자 한반도 정세는 극도의 긴장을 나타냈다.

이에 박 대통령은 5월 13일 남베트남의 패망을 계기로 삼아 「국가 안전과 공공 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하였다.

1972년 2월 서울시경찰국은 도심지 퇴폐성 다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여 제1호로 심지다방(명동 2가 53번지)을 폐쇄하였다. 이 다방은 환각제를 암거래하고 음란행위 등으로 청소년 범죄의 아지트로 적발되었기 때문이었다.[218] 그 이후에도 명동 · 무교동 일대는 퇴폐풍조가 만연한 곳으로 지목되어 그 일소를 위한 계몽 선전의 대상지로 손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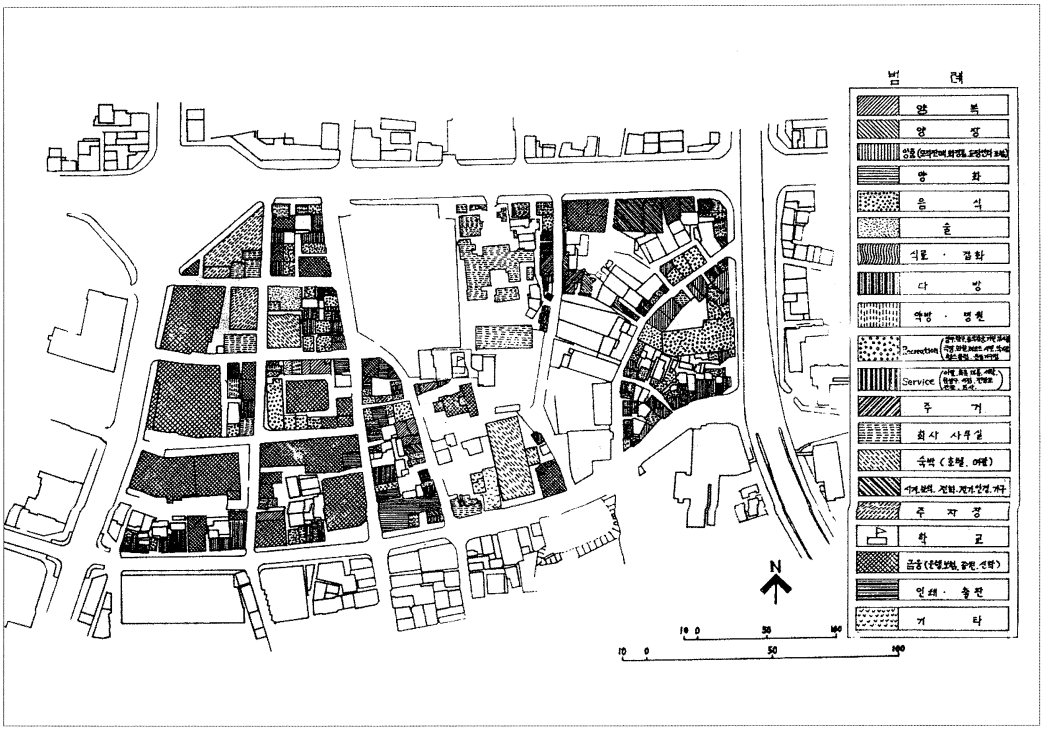
1972년 11월 24일 북한적십자사 대표 일행은 신세계 · 코스모스백화점을 돌아보고 나와서 명동을 들어서자 명동극장~국립극장 앞에는 2~3,000 명의 인파가 몰렸다.[219] 13년 뒤인

1985년 12월 3일 북한 기자 47 명을 포함한 일행 52 명이 세라톤 워커힐호텔을 나와 명동과 롯데쇼핑센터 등을 1시간 10분 동안 관광하였다. 이들은 인파로 붐비는 명동거리를 구경하면서 "이렇게 복잡한데서 어떻게 사느냐" "숨조차 쉬지 못하겠다"고 푸념을 하고, "취재 방해를 하려고 일부러 시민들을 동원한 게 아니냐"고 하였다.

1973년 12월에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는 3시간 동안 소공동 · 명동 일대를 돌아보며, 에너지 절약상태, 세모풍경 등 민정시찰을 하였고,[220] 그 이듬해 1974년 10월에도 구자춘 서울시장 등과 함께 명동거리를 돌아보며 민정시찰을 하며 사보이호텔 커피숍에서 일행들과 차를 들었다. 1980년 9월 밤에 전두환 대통령은 명동파출소를 들러 근무상황을 살피고 중앙극장 방면으로 나간 일도 있었다.[221]

서울에 있어서의 도심재개발사업은 1973년 소공재개발구역(小公再開發區域)을 비롯하여 12개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지정면적: 55만 4,581㎡)되면서 추진되어 왔다. 그 이후 1975년 2개 구역, 1976년 1개 구역, 1977년 5개 구역, 1978년 10개 구역, 1979년 2개 구역 등 총 32개 구역이 지정되었다. 이 시기에 지정된 도심재개발구역의 면적은 총 205만 4,205

명동거리(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명동지구 1층 이용 현황(1978년 2월)

㎡로서[222], 이 당시는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도심재개발사업이 촉진되었던 시기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은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의욕이 왕성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지정된 도심재개발사업 구역은 구역의 통폐합 · 분할을 통해 변경 또는 조정되었다. 여기서 도심재개발구역별 지정 내역과 구역의 변천내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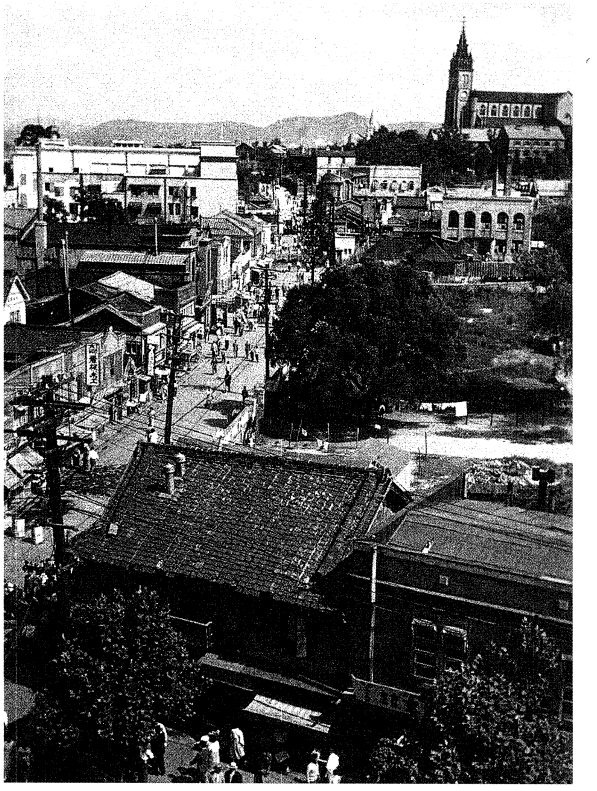
- 1977년 6월 29일(건설부고시 제123호) : 명동1가 주변 일대 71,000㎡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
- 1978년 9월 26일(건설부고시 제285호) : 명동2가동 · 충무로1가동 · 충무로2가동 · 저동 일대 95,850㎡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
- 1979년 10월 6일(서울특별시고시 제431호) : 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지연으로 인해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이 실효됨.

서울시는 1978년 11월 17일 명동입구~명동성당까지의 1만여 평을 제외한 명동 2가, 충무로 1 · 2가 등의 3만여 평의 지역을 재개발사업지구로 확정하고, 1979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기로 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즉 이 지역의 건물이 너무 낡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주차장 · 녹지 · 도로 등을 확보하고, 고층 빌딩의 건축을 억제하기로 하였다.[223]

1970년대에 명동에 세워진 주요 업무용 건물로 성보빌딩이 있다. 이 건물은 1972년 12월에 건립된 기준층 면적이 372㎡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건물이지만, 지하 2층 지상 18층의 위로 뻗은 날렵한 건물이다. 기준층의 구성은 한변을 약 18m로 하는 정사각형의 중심에 기둥이 한 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기둥은 사각형의 각 모서리에 'L자'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외부에서는 노출 콘크리트로 처리하여 구조적으로도 명쾌한 계획이다. 이러한 정사각형의 사무실에 사다리꼴의 코어가 붙어 있어 기능적으로도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주고 있다. 이 건물 역시 폭이 좁은 관계로 수평적인 띠창을 건물 전면에 두르고 있다. 지하의 구조물도 지상에서부터 파 내려가며 시설하여 공법상으로도 특이한 것이며, 대지 이용도를 극대화한 건물이다.

그 밖에도 명동에는 1970년대에 세워진 건물로 개양빌딩 (지상 15층, 지하 1층/유네스코회관 건너편) · 선경그룹빌딩 (지상 18층, 지하 1층) · 태흥빌딩 (정초일 : 1969. 3. 1/로얄호텔 옆) · 보림빌딩 (정초일 : 1969. 10/로얄호텔 옆) 등이 있다.

1973년에도 휴일에 명동 지역의 차량통행을 금지하였지만 1979년 6월 9일부터 주말에 명동지역 차량 전면 통제를 실시하



명동성당이 보이는 진고개 일대(1900년대 초)
-「사진으로 보는 서울(1)」에서

였으나 전일에 주차한 차량과 이를 위반한 차량의 운행으로 사람과 차량이 섞이어 혼잡하였다.[224]

2) 시위로 얼룩진 명동

1970년대 이후 명동 일대는 번화가인 관계로 시위의 효과가 큰데다가 경찰이 진압할 경우에도 시위자들이 피할 수 있는 치외법권인 명동성당이 위치한 관계로 이곳은 오늘날까지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1971년 5월 17일에는 민간복장 차림의 미군 30명과 한국인 4명이 조선호텔 앞에서 명동입구를 거쳐 국립극장 앞까지 오면서 '월남전 반대'를 외치며 연좌데모를 벌여 중부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미군은 군당국에 이관된 일이 있었다.[225]

그 외에도 명동에서 무장 탈영병이 살인, 인질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974년 5월 20일 오전 7시 30분, 방위병 이원모(李源模)와 그의 친구 2명이 총기를 들고 유네스코 회관 지하 다방을 점거, 손님 33 명을 인질로 삼고 군 · 경과 대치하였다. 이로 인해 명동입구~예술극장까지 차량과 행인의 통행이 통제되고 이 지역의 백화점,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고, 외환은행 등 4개 은행도 어음 부도 마감시간을 연기하였으며, 주변에는 구경꾼들로 붐볐다.[226]

또한 1980년 1월 26일 밤 10시 35분경 무장 탈영병 이철호 상병 · 정기식 상병이 명동 로얄호텔 지하 2층 고고클럽로얄에 들어가 손님과 종업원 135 명을 인질로 삼고 19시간 군 · 경과 대치하였다. 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범대장은 순직하였는데 공범 정 상병이 난폭한 이 상병을 사살한 뒤에 자수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다.[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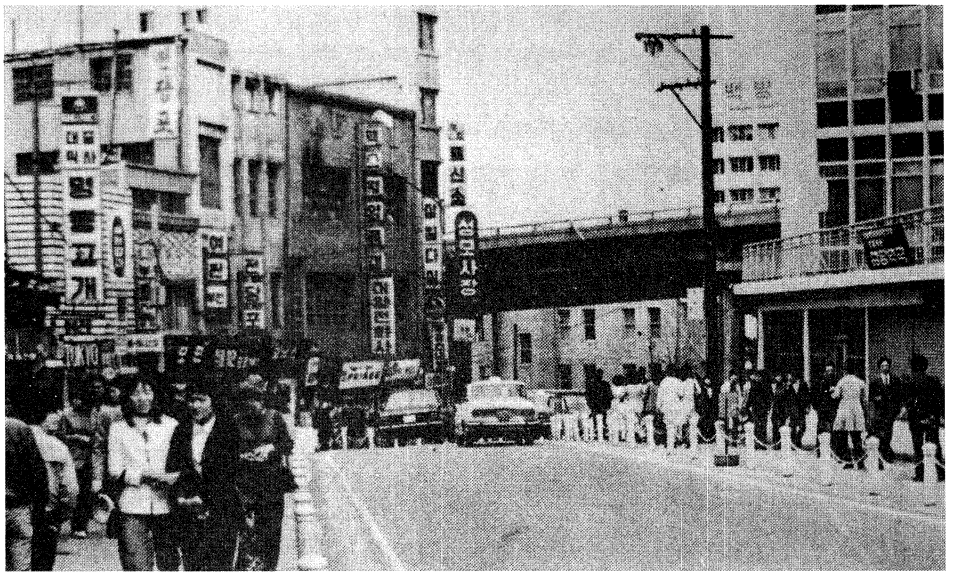
1989년 7월 18일 서울시와 경찰은 구청직원 500여 명, 경찰 1,650여 명을 동원하여 명동 일대 노점상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500여 명의 노점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점상 시설을 철거하였다.[228] 이 단속에 항의하여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집회를 가진 뒤, 7월 2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밤샘농성을 하다가 소속 회원 3,000여 명은 7월 22일 「노점철거 결사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로 나와 경찰과 맞서 투석전을 벌여 양측에서 30여 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다.[229]

1987년 2월 7일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고문으로 죽은 서울대학교 박종철군의 국민추도회가 명동성당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월 6일 밤부터 성당 주변을 삼엄하

게 경비하고 외부 인사의 출입을 막았으며, 인근의 학교는 7일 하루 휴교하기로 하고, 결혼식 등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게 하였다. 추도회가 시위로 번질 경우를 대비하여 3천 여 상인들은 철시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인근의 교통을 통제하는 등 오전 8시부터 9개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5개를 폐쇄하였다.[230]

1987년 4 · 13조치로 제5공화국 헌법을 고수하여 정권 연장을 획책하려는 집권당에 대항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6월항쟁을 전개하였다. 즉 6월 10일, 서울 등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3,854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시위 대학생 · 시민 500 여 명이 명동성당 안으로 옮겨가 철야 농성하고 11일에도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6월 15일 농성을 풀고 해단식을 가진 뒤 각각 학교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갔다.[231] 이 날 오후 8시부터 김수환추기경의 집전으로 전국의 사제 300 여 명과 수녀 · 신자 1,000여 명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미사가 명동대성당에서 있었다. 이와 같은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이 포함된 6 · 29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제5공화국은 종식되었다.[232]

1987년 11월에 명동상인들은 이 해 6월부터 시위가 빈발하여 장사하는 데에 지장이 많았으므로 「죽겠다 장사 안돼, 명동에서 데모는 절대 안된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행인들의 눈길



명동성당 앞에서 삼일로로 향하는 길(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명동고갯길의 인파(1966년)
-「명동20년」에서

을 끌었다.[233]

그러나 1987년 12월 16일에는 노태우대통령의 당선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재야인사 · 대학생 등 2,000여 명이 명동성당에 모여서 규탄대회를 갖고, 성당을 나와 유네스코회관 앞 부근에서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화염병 100여 개와 돌을 던지고 경찰에 대항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아 명동 일대는 가스와 화염으로 뒤덮였다.[234]

1988년 12월 3일 서울지역 18개 대학 1,500 여 명은 명동성당 입구에서 'KAL기 폭파 진상 규명 및 반민족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대회'를 갖고 명동일대로 나가 가두시위를 벌였고, 1989년 6월 3일에는 '이철규(李哲揆)군 사인규명-노태우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11일째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중인 재야인사 · 대학생 등 600여 명이 로얄호텔까지 촛불시위를 벌였다.

또한 1989년 8월 15일 오후에 26개 카톨릭 단체 회원 및 대학생, 일반인 800여 명이 명동성당 앞마당에서 '문규현신부와 임수경양 구속 처벌에 반대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명동 로얄호텔 앞까지 나가 연좌시위를 벌였다.

민자당 창당대회가 열린 1990년 5월 9일 오후에 이를 반대하는 대학생 약 2만여 명이 도심에서 시위를 격렬하게 벌임으로써 이로 인해 을지로 명동 광화문 일대가 3 시간 동안 마비되고, 밤 11시경 명동성당에 500여 명이 들어가 철야 농성하였다.[235] 1990년 10월 10일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는 시위가 오후 6시경 명동성당 입구에서 야당의원, 재야인사 등 70여 명이 규탄대회를 갖고 명동성당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의 제지로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대학생들은 명동 · 을지로 일대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236] 1991년 5월 14일 오후에도 강경대(姜慶大)군 장례식날 시위대는 오후 8시경에 명지대에서 도심으로 진출하여 명동성당 주변, 을지로입구, 종로2가 일대에 2만여 명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237]

1992년 2월 22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민자당 심판과 민중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한양대학교에서 열고, 오후 9시경 200여 명이 서울역에서 명동에 진출하여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238] 1995년 6월 16일 4개 종교인 500여 명이 문민정부가 종교기관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에 항의하여 조계사에서 집회를 가진 다음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하였다.[239] 1996년 7월 22일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회원 50여 명은 명동성당 앞에서 재벌언론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240] 1999년 12월 10일 민주노총과 한국농민회총연맹 등 51개 재야-시민단체회원 2만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다음에 1만여 명이 백화점과 명동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241]

20001년 3월 관광특구 명동 운영위원회는 중부경찰서와 명동성당 등의 관계기관에 집단시위가 명동 내에서 빈발하고 명동성당에 집단시위대가 상주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진압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관계로 명동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찰병력의 철수와 시위대를 퇴거시켜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242]

2002년 2월 25일 명동성당측은 성당 내에서 파업 농성 중인 철도 · 발전 · 가스노동조합 집행부와 한국 · 민주노총 관계자 50~60 명에게 25일 오후 6시까지 성당에서 나가도록 퇴거 요청서를 전달하였다.[243]

3) 명동사건

1976년 3월 1일 오후 6시, 명동성당에서 20 명의 사제(司祭)가 공동 집전한 3 · 1절 기념미사와 기도회에서 전 대통령 윤보선(尹潽善)과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金大中) · 함

석헌(咸錫憲) · 정일형(鄭一亨)을 비롯한 저명한 재야 인사들이 참석, 유신철폐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여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한 것이 명동 3 · 1절 기도회 사건으로 일명 '명동사건' 이다. 이 날 미사에는 700 명의 신자들이 참례하였다.[244]

이 기도회의 마지막 순서에서 ①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②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③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 과업이다 라는 내용의 '3 · 1민주구국선언' 을 낭독하였으나, 그 배경에는 1월 23일 원주기도회사건 및 원주선언, 2월 16일 전주기도회에서의 김지하 관련 발언과 유인물 등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1976년 3월 10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20 명의 재야 지도급 인사들을 정부전복을 선동하였다는 혐의로 입건하고, 김대중 · 문익환 등 11 명을 구속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호인단 총사퇴 등으로 파란을 일으켜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특히 함세웅 · 문정현 · 신현봉 세 신부를 체포,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기독교장로회, 교회협의회, 전남노회, NCC구속사건대책위원회 등 17개단체에서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245] 이후 교회는 NCC계 인사들과 조직을 중심으로 군사정부와 긴박한 격돌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야당은 사실상 외면하고 여당과의 협조를 계속하였다. 이는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와 1976년 8월에 판문점에서 북한 경비병들이 도끼로 미군 경비병을 죽인 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로 유신 반대 의지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신체제에 대한 압박은 1977년 1월에 취임한 민주당 출신의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이상주의' 를 표방하면서 한국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고, 유신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여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계획을 발표해 한국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1978년 5월 18일에 실시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박 대통령을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246]

신민당은 1979년 5월에 전당대회를 열어 김영삼(金泳三)을 새 총재로 선출하였다. 그는 '선명 야당' 의 노선을 강조함으로써 정국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신민당이 여야 제휴 체제를 벗어나 여야 대결 체제로 전환하자, 그 동안 정부와 여당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침묵했던 세력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 한 예가 YH 무역회사 폐업 결정에 반대하는 농성을 신민당 당사에서 벌이자 이를 경찰이 폭력으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1명의 여공(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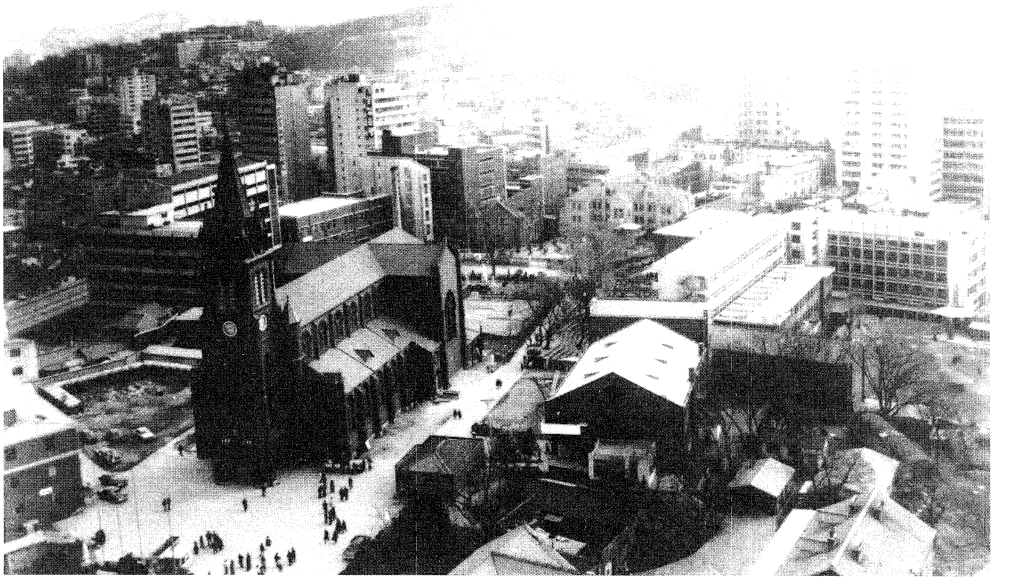
工)이 죽었을 때 이제까지 중립적인 시민들도 정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4) 명동 결혼 위장 집회

1979년 11월 24일 명동 YWCA강당에서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씨올의 소리 대표 등이 이른바 '명동 결혼위장 집회'를 갖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가두시위를 벌이다가 18명이 구속되었다. 이에 수도경비사령부(首都警備司令部)는 계엄령 포고령 위반으로 이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247]

또한 정부는 김영삼의 당 총재직과 국회의원직을 박탈하여 국회에서 제명시켰다. 이에 김영삼총재의 지지 기반인 부산과 마산의 학생들과 시민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면서 이른바 '부마사태(釜馬事態)'가 일어났다. 당황한 정부는 우선 이 지역에 대해 비상계엄령 또는 위수령(衛戍令)을 선포하고 물리력으로써 상황을 제압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마사태에 자극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도 반정부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유신체제의 존속 여부로 정부의 지도층은 분열하여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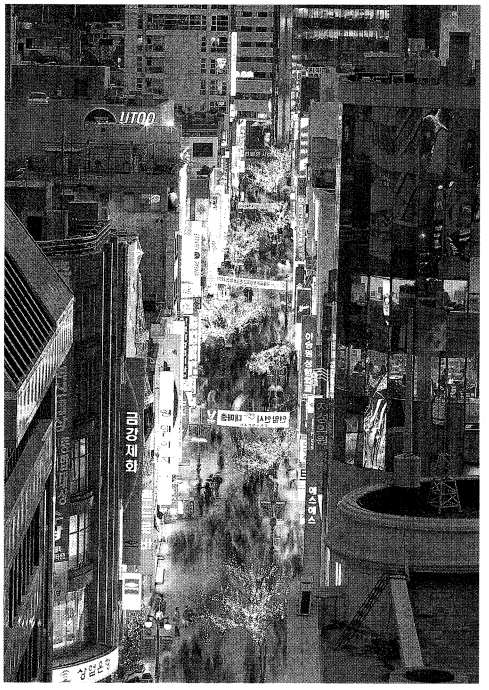


명동성당 정문(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시해(弑害)한 10 · 26사태가 일어났다. 10 · 26사태가 일어나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최규하(崔圭夏)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었으며, 권력은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全斗煥) · 노태우(盧泰愚) · 정호용(鄭鎬溶)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신군부(新軍部)로 넘어갔다. 신군부는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12 · 12 사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재강화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소집해 최규하(崔圭夏) 대통령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과도정부로 최 대통령정부가 출범하였다.

10 · 26 사태는 자연히 민주화운동을 더욱 촉진시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계속된 전라남도 광주시 일원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 민주화운동을 신군부는 유혈로 진압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낳았으며,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신군부는 곧바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를 설치하여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1980년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유신체제는 실질적으로 끝났다.[248]



양화점이 즐비한 중앙로(2002년)

5) 변화하는 명동

명동은 증권거래소(시공관 자리)가 1979년 여의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각 은행지점과 단자회사 · 증권회사가 밀집해 있어 금융거리로 변모하였다. 현재도 이곳에는 사채(私債)를 거래하는 사무실이 즐비하여 우리나라 자본의 중심거리임을 보여준다.

서울 도심지의 장력(張力)을 완충하는 곳이 바로 명동과 무교동 일대의 유흥가인데 특히 도심지의 노른자위인 명동은 유행의 원천지였다. 양화점 · 옷가게 · 백화점 따위가 즐비해 윈도우쇼핑하기에 안성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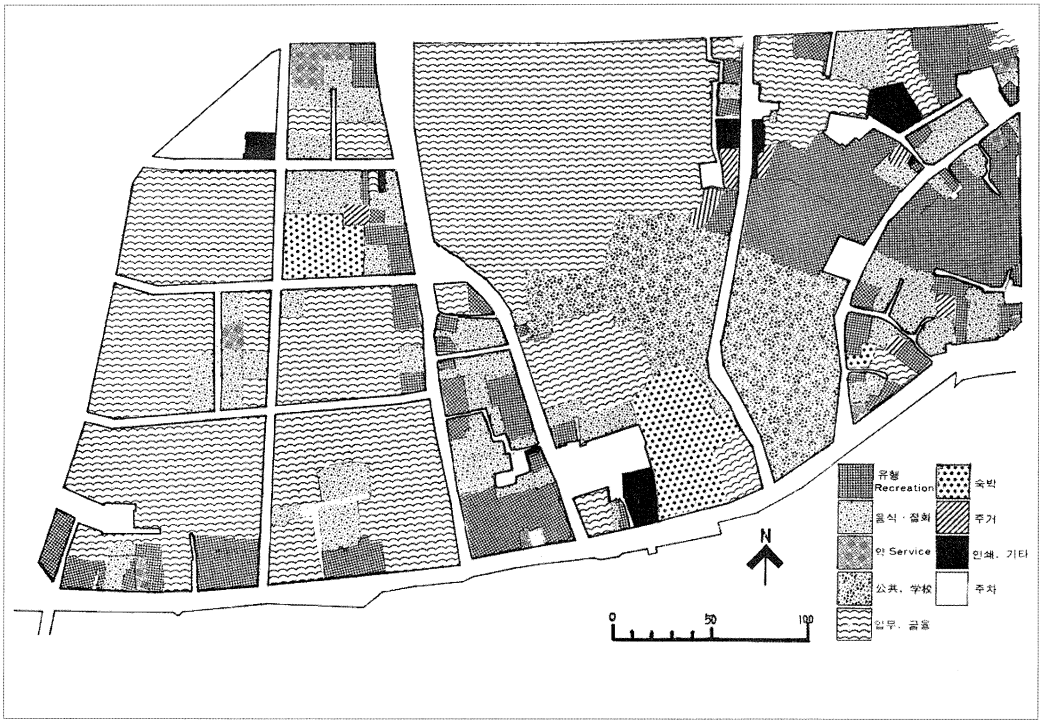
춤이고, 다방 · 유흥음식점 · 카바레 · 나이트클럽 · 극장 · 호텔 등 각종 위락시설이 골고루 잘 갖추어져 있어, 언론인 · 실업가 · 예술인 · 샐러리맨 · 학생 등 각계 각층의 톱 클라스 직업인들로 아침부터 붐볐다. 최첨단(?)의 멋쟁이들이 패션쇼라도 하듯 거리를 누벼 이곳에서 유행하는 것은 전국으로 확산되기 마련이었다. 1978년에 명동지역 내부의 토지이용 형태를 조사하여 5개 블록으로 구분하였다.[249] 제1블럭(명동 1가 서쪽지역)은 금융업소 · 식당 업종, 제2블럭(명동 1가 동쪽지역)은 사무소 · 일반 주점 업종, 제3블럭(명동 2가 서쪽지역)은 카페와 미용원 업종, 제4블럭(명동 2가 중앙지역)은 여성의류 · 구두 · 가방 업종, 제5블럭(명동 2가 서쪽지역)은 종교시설이 강한 블록으로 보았다.

1970년대에는 구두의 수공업적 생산 단계를 벗어나 반자동 · 기계화가 실현됨으로써 대량생산에 의한 기성화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생산 원가를 낮춤으로써 가격이 저렴해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러자 1974년부터 싸롱화라는 고급 구두가 생겨났다. 이것은 일상용이라 할지라도 더욱 부드럽고 발이 편하고 매끈하다는 이유로 명동 · 충무로 일대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비교적 고가(高價)로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서양화가 김한은 「명동 소고(小考)」라는 글에서

> 이리하여 양장점이 눈에 뜨게 늘어났고 대형 쇼우윈도우에 매력 넘치는 마네킹이 등장하였고, 화려한 차림의 여인 군상(群像)이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하였다. 드럼통 대포집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명동거리도 눈부시게 달라지면서 규모가 번듯한 음식점, 요리집, 술집들이 등장하였다. 문인, 예술가들의 안식처로 여기던 음악다방도 뒤로 밀려나가고 화려한 유행의 홍수가 넘실대며 흐르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즐비하게 자리잡고 극치(極致)를 이룬 가게들, 분수처럼 용솟음 치는 젊음

명동의 인파(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명동지구 토지 이용 현황도(1979년 2월)

의 물결 속에서 그 옛날의 자취를 찾아보려는 것은 그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노릇인가. 명동의 얼굴은 옛 화장기 없이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는 없었으나 맑은 눈망울과 시(詩)를 노래하던 그 때와는 엄청난 골을 지닌 채로 신선하고 발랄하고 패기 넘치는 하루하루를 딛고 간다. 주말쯤 미도파백화점 건너 입구로부터 바라보면 사람, 그것도 젊음으로 꽉 메워져 밀리듯 흐르며 꿈틀거리며 흐른다. 그 곳엔 지금은 예술도 시도 그림도 음악도 없다. 다만 최첨단의 유행을 안고 뜻도 모를 랩음악을 듣는 듯 그저 왁자지껄하기만 하다.[250]

라고 표현하였다.

광복 후부터 1980년초까지 서울에는 통행금지가 실시되었지만 성탄절 전야에는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으므로 1960년대초부터 명동 일대에는 오후5시부터 밤 12시까지 명동성당의 자정미사에 참석하는 신도 외에 2만명~3만명의 젊은 아베크족들이 모여들어 이곳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에 1980년 성탄절 전야에 도심지 지역정화위원들은 밤 10시부터 일찍 귀가

를 종용하는 가두 캠페인을 벌였고, 경찰은 오후 3시부터 명동 · 다동 일대에 차량통행을 금지하였다.[251]

6) 영화예술의 요람 충무로

제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제 때 충무로 일대에는 일본인들이 특히 많이 살았으므로 동명을 제정할 때 이곳을 일본 혹은 본국을 뜻하는 의미에서 혼마찌도오리(본정통 : 本町通)라 부르던 것을 광복 후 이순신장군의 시호인 충무공을 따서 충무로1 · 2가로 고친 것이다. 또한 충무로1 · 2가는 1955년 4월 18일에 충무로1 · 2가동사무소 관할구역에 편입되었으나 인구 감소로 1970년 5월 18일부터는 명동동사무소의 행정관할구역에 속하고 있다.

갑신정변(1884년) 이후부터 충무로에 일본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거류 지역을 형성하였고, 자국에서 가져온 근대적 상품을 진열해 놓자 당시 개화가 늦었던 한국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여기에 가면 고양이뿔도 살 수 있다' 고 할 정도로 희한한 물건들이

일제 때의 충무로 1가(1930년대)
-「중구지(하)」에서

영화의 거리, 충무로(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많았다. 이 거리는 일본인들의 게다짝(나막신) 소리로 시끄러웠다. 1930년대 충무로 1 · 2가는 귀금속, 의류, 모피, 요정, 사무소 등의 다양한 상가가 형성되었다. 이로써 일제 때 충무로에는 쇼핑상가의 중심이 되었으나 6 · 25전쟁 후인 1956년경부터 쇼핑상가는 명동으로 바뀌었다.[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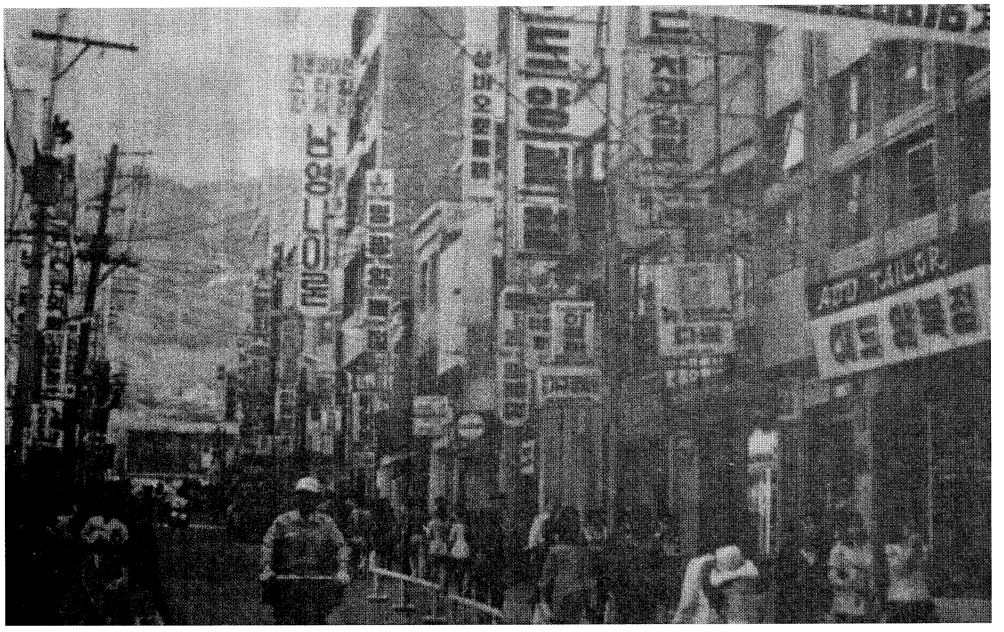
일제는 충무로 일대에 은행과 경찰서 · 우체국 등을 설치하여 조선 통치와 수탈을 위한 주요기관을 도시 한가운데에 모았다. 1920년 경 경성부는 전일의 한성병원 자리(명동 2가 25번지)에 공설 전당포(典當鋪)를 개설하였다. 월 이자는 7%로 매우 높았는데도 한국인들은 일본인촌에만 혜택을 준다고 경성부에 항의하였고, 일본인 질옥(質屋)조합에서는 이자를 싸게 정하였다고 항의하였다.[253]

일제는 태평양전쟁에 대비하여 퇴계로 · 삼일로 등을 개설하였는데 이로 인해 충무로 1 · 2가는 일제 때보다 6 · 25전쟁 이후부터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부상(浮上)하였다. 충무로는 일제 때부터 구획정리가 되어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바둑판 형식의 근대적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고, 현재도 명동에 접한 까닭에 수많은 인파가 언제나 북적거린다.

충무로 일대는 8 · 15광복 후 국산 영화예술을 비롯한 각종 영상산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

아 '한국의 헐리우드'로 불렸다. 광복 이후부터 1956년까지 명동에 영화인들이 자리하였지만 땅값이 치솟자 1957년부터 일본 적산가옥이 많은 충무로로 옮겨 영화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곳은 식당 많고, 여관이 많아 숙식을 하면서 영화를 제작하기에 적합하였다. 1960년대 후반 한국영화 전성기에는 모든 영화사가 이 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아스토리아호텔, 라이언스호텔, 지금 대원빌딩 자리에 있던 대원호텔 등은 새벽 촬영이 잡힌 배우들이나 스탭들이 묵으며 기다리던 대기소였다. 한 때 이곳에는 여관이 400여 개가 넘었다고 한다. 또한 영화관계자들이 다방을 사무실로 삼아 제작에 관계하였는데 초설다방에는 몇 백명이 북적였으며, 카운터에 시나리오를 맡기거나 찾아가기도 하였다. 임권택감독의 회상기에는 물김치 잘하던 초막집, 스카라극장 뒷편에 감자국집, 순대국집, 사랑방칼국수집에서 제작회의를 열기도 하였고, 우울할 때면 술로 마음을 달래던 의지처가 충무로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극동빌딩, 쌍용빌딩 같은 대형 건물이 들어서고 도심 개발이 되면서 영화사들은 땅값이 더 싼 사무실을 찾아 충무로를 떠나기 시작하여 강남에 자리하였다. 1997년 현재 이 곳에는 20여 개 영화사가 있으나 영화를 활발하게 제작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빈자리를 인쇄소와 광고 디자인회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도 요즈음 지방 영화배급업자들에게 영화 시사회가 여전히 충무로 시사실에서 열리고, 인근 다방에서 상담과 계약이 진행된다. 극동빌딩 지하 극동커피숍은 영화업자들의 사랑방이다. 영화 광고-포스터디자인 전문회사나 인쇄소 등 영상관계업

각종 영화 포스터
-「서울의 옛모습」에서



명동의 양복점 거리(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소가 집결된 곳은 아직도 충무로에 있다.[254]

충무로1가에는 한국은행 앞 광장의 분수대를 바라보는 곳에 신세계백화점과 서울 체신청 빌딩이 있고 신세계백화점 뒤에는 중앙전화국이 있어서 서울의 통신사업 핵심지구이면서 상업중심지임을 알려준다. 이곳과 명동 뒷골목에는 한때 일본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이 집중되어 있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2~3집만 남아있다. 충무로 2가 진고개에는 세종서점이 있고, 길 건너편에는 45년간 명동에서 맞춤 양복을 해온 이성우(李成雨)양복점(충무로 2가 12-12번지)이 있다. 이성우는 17세에 양복점 점원으로 출발하여 몸에 맞는 것보다 마음에 맞는 양복을 지으라는 양복업계의 대부 이용화를 만나 눈을 떠서 1957년에 명동 통키타 거리(중앙통)에 양복점을 개업하였다. 그는 1992년 8월 15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장인(匠人) 정신으로 맞춤양복업계의 이름을 날리고 후진 양성에 힘써 12명의 양복부문 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였다. 그간 33인 대표 이갑성옹, 이용희장관, 이후락중앙정보부장, 김우중 회장, 문태준장관 등이 이 양복점을 단골로 맞추었다고 하며, 2002년 6월에 이곳으로 이전, 명맥을 이어 가고 현재는 그의 아들 이상범(李相釩)이 기술을 배워 대를 이어가고 있다.[255]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퇴계로변에는 대연각빌딩이 세워져 있다. 이 빌딩은 대연각호텔로 사용되었는데 1971년 성탄절 오전에 큰 불이 났다. 이 대화재 때 많은 투숙객이 구조를 기다리다가 비상구가 없는 관계로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등 참혹한 장면을 보던 근방의 시민들이나 TV로 중계를 보던 시청자들이 안타까운 비명을 내었다. 이 화재로 156 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하는 외에 피해액이 8억 원으로 집계되어 호텔화재 사상 최악의 것으로 알려졌다.[256] 대연각호텔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 곳에 우리나라 최고급 사교장인 고미파(高美波) 카바레가 있었다. 이곳은 출입이 까다로와서 단정한 맵시와 정장 차림한 신사 숙녀만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충무로에는 빅토리아 호텔이 있고, 양품점이나 일용품상 · 귀금속상 · 음식점 · 가구상 등이 모여 있으며, 명동과 연결되어 있어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상가와 환락가의 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그리고 한국통신공사 연구개발단과 의료보험조합(충무로 21-1)이 소재하며, 사우디 항공사(충무로 25-5번지)가 있다.

한편 1996년 12월 11일 중구청은 21세기 중구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때 남대문시장~명동지역은 쇼핑몰, 충무로를 영상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영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현재 신세계백화점(충무로 1가 25-5)이 위치한 곳은 개항 후 일제가 침입하면서 일본영사관이 자리했고, 을사조약 후에는 경성이사청이 위치하였다. 그 후 충무로입구와 이 자리에는 낙천지(樂天地)라는 상품전시장이 한때 자리하였다.[257]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전시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고, 오락장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영화관, 소규모 곡예단이 들어서 살아있는 쥐와 뱀을 입으로 깨물어 먹는 것을 보이거나 고래 뼈를 놓고 보여주기도 하였다. 밤에도 전등을 켜고 보여 주어 이

대연각호텔 화재(1971년)

곳은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또한 김천대(金千代)라는 일본인이 상을 걸고 '술마시기 대회'를 열어 한국인 형제가 청주 5~6되를 거뜬히 마셨는데, 일본인은 서너 되를 마시고 나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미쯔이(三井)재벌이 1927년에 이곳에 미쓰코시(三越)백화점을 세웠다. 이 백화점 옥상에는 정결하고 위생적인 대식당이 마련되어 고객들이 많았다. 광복과 함께 적산(敵産)으로 분류된 미쓰비시백화점은 동화백화점으로 상호를 바꾸었는데 관리인은 미군정청에서 임명하였다. 1954년 11월 29일 관재청에서 미군으로부터 정식 명도(明渡)를 받은 후 동화백화점은 민간인이 경영하다가 1962년 9월에 동방생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이듬해 삼성그룹이 동방생명을 인수함에 따라 이 백화점도 삼성그룹 소유로 되어 1962년 11월 12일 신세계백화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신세계백화점 4 · 5층은 민간 텔레비전의 선구자인 동양TV방송사가 사용하였다. 동양TV방송은 1962년부터 개국 준비를 하다가 1964년 5월에 신세계백화점으로 사옥을 옮겨 동년 12월 7일 오후 1시 30분 우리나라 최초의 TV 전파가 발사되었는데 1년 후 중앙빌딩으로 옮겼다.

동양 텔레비젼 방송(동화백화점 : 1964년)
-「동명연혁고(Ⅱ)」에서

현재 충무로1가 중앙우체국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인 충무로 1가 51번지에는 일제 때 히라다(平田)백화점이 있었다. 이 백화점은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팔았는데 아무리 작은 상품이라도 고객이 원하면 자택으로 배달해 주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용하였다.[258]

현재 충무로입구에는 전국의 모든 우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 중앙우체국(충무로1가 21번지)이 위치하고 있다. 중앙우체국은 석조로 고딕식과 르네상스식을 혼합하여 건축한 건물로 외관이 매우 아름다웠는데 6 · 25전쟁으로 파괴되었다. 3층 건물로 복구했으나 1980년에 철거하고 현 청사를 건립했으며, 이 건물 4층에 우정박물관이 있다. 우정박물관은 1938년 덕수궁 옆 체신부 자리에 세운 체신박물관에서 비롯되는데 1945년에는 현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체신국청사 1층으로 이전하였으나 1950년 6 · 25전쟁으로 청사가 소실되면서 박물관도 불타 버렸다. 1972년 견지동에 남아있는 우정총국 건물에 체신기념관을 설치했으며 1980년 서울 중앙우체국 건물을 신축하면서 1985년 5월 1일 동 건물 신관 4층으로 이전하였는데 복잡한 중앙우체국의 부설에서 독자적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우정박물관에는 대한민국 우표 1,690종 5,000여점을 비롯한 우표 15만점과 구한국시대의 통신자료 · 실체엽서 · 실체봉피 등의 우취문헌과 우정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세종호텔 (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신세계백화점 서쪽, 충무로1가 53번지에는 제일은행 제일지점이 있는데 1989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 보완 단장을 끝냈다. 원래 이곳은 구 제일은행 본점이 있었으나 업무의 확장으로 본래의 자리에서 공평동사옥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이 건물은 경성부청사 터의 일부를 매입하여 삼월백화점이 들어서고 난 다음인 1933년 9월 27일 기공하여 1935년 12월 2일에 완공하였다. 총건평 2,014.9평으로 공사비는 100만원이 들었다. 건물의 설계는 1932년 현상공모의 당선작인 평림금오(平林金吾)의 작품으로 중후한 석조 붙임 기둥을 4층까지 뻗도록 하여 웅장한 감은 주었으나 출입구가 작은 것이 흠이다.

충무로2가는 충무로1가보다는 번화가로서의 환경은 뒤떨어지나 명동 2가 · 퇴계로와 접하고 있어 매우 번화하며 퇴계로변에는 세종호텔(충무로 2가 61-3번지)이 자리하고 있다.

(2) 「명동상가 번영회」 창립 이후의 명동(1982년~2002년)

1) 제5공화국 이후의 명동

1980년 4월 사북(舍北)탄광 노동자 파업, 5월 전국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7일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5월 27일 계엄군을 광주(光州)에 투입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

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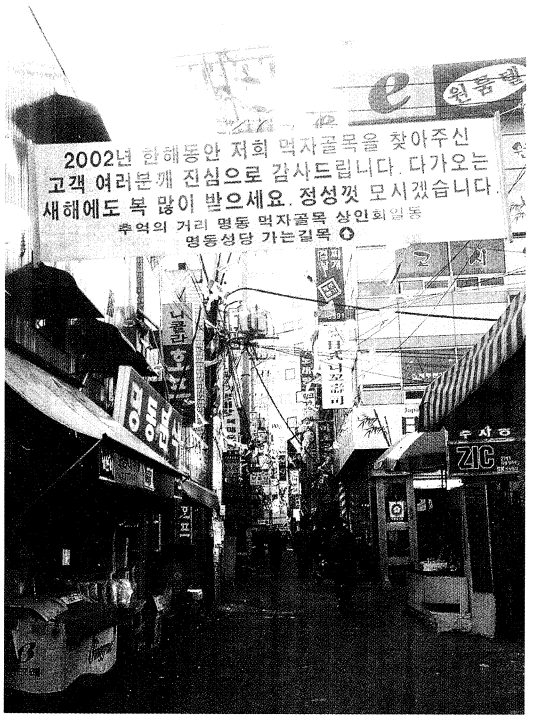
제5공화국은 유신 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과감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1인 장기집권을 배격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하였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대통령의 일반법관 임명권을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고, 군인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는 등 유신잔재 청산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분야에서는 지난날 성장제일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저물가 · 저금리 · 저환율의 3저(三低)정책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 안정 우선정책을 추진하였다.

외교분야에서는 1983년 1월,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가 방한하였고, 11월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방한하는 등 정상외교를 벌이는 한편, 소련 ·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스포츠분야에서는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이었다. 이 정권은 물가안정, 서울올림픽대회 유치 등의 업적을 남겼으나, 극심한 부정부패와 민주화운동탄압,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 당시 제5공화국 헌법을 고수하여 정권의 연장을 획책하려는 집권당에 대항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1987년 6월항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이 포함된 6 · 29선언을 쟁취함으로써 제5공화국 종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1987년 9월 12일 여야합의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2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됨으로써 제6공화국의 법통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12일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야권의 3후보를 누르고 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제6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명동일대에는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관계로 이들을 정리하는 데에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다. 이곳 일대에는 1980년 초부터 노점상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9년에는 포장마차 30 개, 손수레 555 개, 좌판 21 개 등 611 개가 자리하고 있었다.[259] 한편 아시아경기대회를



명동 먹자골목(2002년)

앞두고 중구청이 노점상의 일시 철수를 요구하여 이들이 이에 응했으나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후에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자 1986년 10월 20일 노점상인 200여 명이 충무로 대연각 빌딩 옆에서 영업행위를 요구하며, 농성하다가 해산하였다.[260]

1970년대까지 명동거리는 밤이면 술잔을 기울이기 위해 모여들고 유흥업소의 휘황한 불빛이 불야성(不夜城)을 이루어 서울의 유흥가를 대표하였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는 소비문화의 대종인 패션가로 변모하였다. 유네스코회관 뒷길을 따라 늘어섰던 유흥업소들은 자취를 감추고, 대학생과 샐러리맨들의 사랑을 받던 대포집들도 다른 업종들이 들어서기 힘든 후미진 골목길로 밀려났다. 천문학적인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에 수지를 맞출 수 없어 구두, 의복, 양품점 등에 자리를 물려주고 떠났다. 1970년대 초반 통키타문화의 요람지로 송창식 · 이장희 · 김세환 등의 포크송 가수들을 배출했던 '오비스 캐빈'도 1978년부터 캬바레로 변신하였다가 재팬 혼모노타운이 되었고, 돌체 등의 음악감상실도 자취를 감추었다. 1950년대 초 문인들이 즐겨찾던 모나리자 다방과 지미 그릴 자리에는 증권회사가 들어섰다.[261]

유행과 상권의 중심지인 1980년대의 명동은 화려한 네온싸인 불빛 조명과 수많은 인파로 북적대지만 '낮의 도시'로 변해갔다. 유행에 뒤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고급 양품점과 양화점을 기웃거리는 한낱 사치의 거리로 바뀐 명동은 전일과 달리 증권회사가 일찍 문을 닫고, 의상실과 제화점의 조명도 9시가 되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하고, 모든 상가가 문을 닫은 밤 12시 이후부터는 통행하는 차량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 적막한 거리로 변해갔다.[262]

제6공화국은 경제분야에서는 연평균 8.5%의 실질성장률을 이루었으나, 물가상승 · 부동

산투기 등으로 서민층의 불만을 샀다. 재벌 소유집중 완화,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 실시 등 각종 개혁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표류하였다. 외교 · 통일 분야에서는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러시아 · 동유럽 ·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정식 수교하였다. 1989년 4월 문익환(文益煥) 목사의 방북과 6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임수경(林守敬)의 평양축전 참가 등으로 통일열기가 고조되자 정부는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 1992년 2월 평양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6공화국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특히 1987년 6월항쟁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6 · 29선언과 그 후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강제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2월 25일 민간인 출신의 김영삼(金泳三)이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문민정부(文民政府)가 탄생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 창조'를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과감하고도 중단없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월 27일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비롯하여 정당법 ·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였으며, 행정기구의 축소개편을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12 · 12사건에 관련된 '하나회' 출신 장성들을 전역시킴으로써 군의 문민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로 1997년 11월 IMF(국제통화기금)체제를 초래하였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에 중심적 정치기반을 둔 새정치국민회의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연합은, 독자적으로는 여당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음을 판단하고 김대중을 단일후보로 하는 연합전선을 폈다. 이로써 정권을 쟁취한 양당은 1998년 2월 25일 김대중의 제1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을 국무총리로 하고, 내각 각료를 안배 구성한 공동정부를 구성하였다.

새 정부는 출범 초반, 구 여권의 국회의원을 대거 영입하여 국회 내의 안정세를 확보하여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외환위기 탈출 등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해 갔다. 김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 및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였으며, 2000년 6월 13~15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대로 평양을 방문하여 6 · 15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2) 명동상가 번영회 창립과 명동축제 개막

명동은 1970년대에는 통키타와 청바지문화를 이룩한 곳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민주화를 위한 열망으로 끊임없이 시위대가 점령하는 지역인 동시에 전투경찰이 터뜨린 매케한 최루탄 냄새가 그칠 날이 없었던 곳이었다. 그러자 1982년부터 이 지역의 상인들이 모여 결성한 명동보존위원회는 명동을 「평화의 거리」로 선포함으로써 전쟁을 방불하는 전투경찰과 시위대의 쫓고 쫓기는 장면을 재현하지 않고 대화국면을 유도하기로 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명동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였다. 1991년 명동상인 2,000 명의 청원으로 중구의회에서 명동을 「평화의 거리」로 지정, 선포하였다.[263] 또한 명동상가번영회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명동의 날'을 제정하여 지역의 특성을 한껏 부풀린 「명동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재 명동상가번영회는 유투존 동쪽의 지암빌딩에 자리하고 있다.

명동축제(1993년)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서울시는 1984년부터 도심상가를 국제 수준으로 단장하기 위하여 구 국립극장 앞~퇴계로에 이르는 350m 명동거리의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地中化)공사를 완료하고, 보도와 차도를 단장하는 외에 가로등을 정비하였다.[264] 또한 426개 점포의 외장을 밝은 색상의 대리석이나 타이로 바꾸는 외에 쇼윈도도 다층형으로 교환하여 거리가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265] 또한 서울시는 1985년 1월에 코스모스백화점~명동성당 사이의 500m의 명동로를 우수광고물 전시가로로 정비하여 간판 재료, 도안 기준을 새로 정하고, 건물별로 광고물의 규격 · 형태 · 색상 · 부착 위치 등을 규제하기로 하

였다.[266]

서울시는 명동 일대 주요도로의 차량통행을 금지함에 따라 1989년 9월 20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 100여 개를 도로변에 설치하였다.[267]

2000년 10월 20일은 '문화의 날'이었으므로 명동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명동입구~한빛은행 명동지점 사거리에서 마당극 3편, 마임 거리공연을 펼치기로 하였다.[268]

3) 관광특구로 지정된 명동

1981년 12월에 「조선일보」는 '문화의 거리'로 명동을 소개하였다.

명동의 얼굴은 많이 변하였다. 전후(戰後)의 허무와 페이소스가 흐르던 거리, '만남'의 자리와 '애환'이 설킨 추억의 명동은 아니다. 사치와 향락이 난무하는 대신 문화와 예술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달라지지 않은 것은 젊음이 있는 것뿐이다. 1976년 예술극장이 폐쇄되기 전까지만 해도 명동은 전후 제2세대들의 문화의 거리로 사랑을 받아왔다. 1981년 현재 명동은 제3세대의 거리로 변하였다.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고

유행과 패션이 넘쳐나는 명동 중앙로 야경(2002년)

충무로 2가(진고개 : 2002년)

소비지대로 변하면서 환락과 사치가 범람하고 있다. 보이는 것은 소비문화일 뿐 예술이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269] …충무로 2가로 옮긴 '설파'는 차와 경양식을 파는데 1981년 5월부터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시낭송회를 연다.

전일에 덕수궁 부근에서도 보였던 명동성당의 뾰족탑은 명동 곳곳에 세워진 고층빌딩으로 가려졌지만 여전히 근엄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명동지역은 오래 전부터 서울의 중심지이자 번화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중심가로서의 면모에 손색이 없다. 몇년 전까지 평일 70여만 명, 주말 100만 명 이상이 명동을 드나들었지만 2000년에는 평일 130만 명~150만 명, 주말 150만 명~200만 명이 드나드는데 명동은 현실을 토론하는 젊은 지성인의 광장이면서 거대한 욕망의 거리로 꿈틀거린다. 그러나 최근 밀리오레 · 아바타 등의 대형 패션 매장이 들어선 까닭인지 1999년에 여고생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쇼핑하기 위해서 명동이 서울에서 가장 즐겨 찾는 곳(22.2%)으로 나타났다.[270] 이로써 청년문화의 중심지였던 명동은 점차 '10대의 거리'로 변모하고 있다. 1990년 1월 심야에 경찰은 500 명을 투입하여 명동 등 지역의 청소년 유해업소(전자오락실, 소극장,

만화가게, 숙박업소)를 기습 단속하였다.[271] 명동은 1990년대 이후에 서울의 대표적 상권을 강남구 압구정동 등에 넘겨주었으나 2000년에 들어서서는 명동을 찾는 일본 관광객이 증가하여 대표적 상권을 다시 찾았다. 1998년 IMF 이후 고급 의류 제조사들이 매장을 대거 퇴장하자 그 빈자리에 10~20대 취향의 중저가 패션점이 들어오면서 국내외의 많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272]

명동은 패션의 거리로 유명하지만 사채(私債)시장의 대명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얼마 전까지 명동의 사채시장은 장외(場外) 주식의 메카로 탈바꿈하였는데[273] 2000년까지만 해도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들은 익명성(匿名性)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코스닥(kosdak)과 같은 제3시장은 거들떠 보지는 않고 장외(場外)시장에만 관심이 컸다. 2001년부터는 장외(場外)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업소들이 주식시장의 본바닥인 여의도나 부동자금이 많은 강남지역으로 대거 이전하여 여의도에 50여 개, 강남에 70~80여 개가 성업 중이고, 명동지역에는 10여 개만 남아있는 정도이다.[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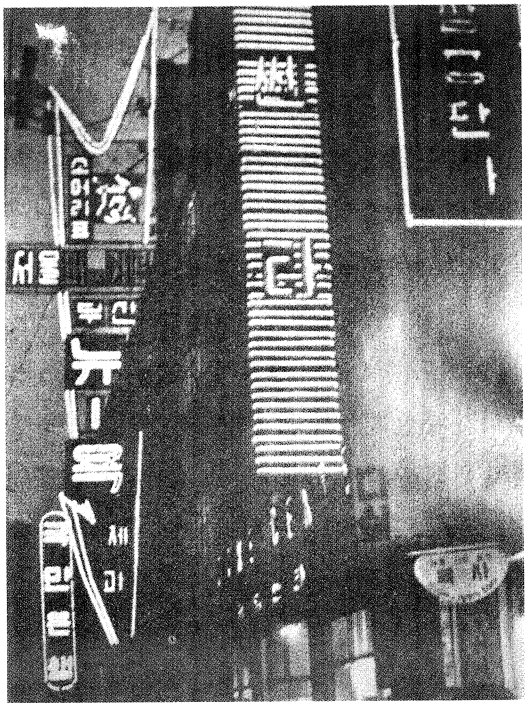
증권거래소가 여의도로 이전한 후 증권회사들은 떠났지만 아직도 각 은행지점과 단자회사, 사채업소의 사무실이 즐비하여 금융거리로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다. 1982년, 거액어음 사취(詐取) 파동 이후 사채시장은 일시적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명동의 사채업자들의 사무실 100여 개가 들어서 활발히 영업하고, 월 1.6%~3%의 금리로 거래하였는데 월말에는 하루 거래액이 거의 1,000억 원 규모이며, 평일에는 최소 500억 원 정도였다.[275] 1993년 8월 13일 '검은 금요일'로 불리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주식가격이 폭락하면서 명동의 사채시장은 일시 마비상태에 빠졌다. 월 1.4%의 금리를 준다고 해도 응하는 전주(錢主)가 나서지 않았다.[276]

1992년 11월 15일에 한국상업은행 명동지점 이희도(李希道)지점장이 송파구 방이동 기자촌 아파트 307호에서 동맥을 끊고 7층으로 올라가 투신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이희도지점장이 예금 수신고를 올리기 위해 거액의 사채자금을 조성하여 거래하다가 손해를 입자 이를 메우기 위해 250억원의 CD를 무단 발행함에 따라 고민 끝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277]

명동입구에 위치한 아바타빌딩은 명동의 상징이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빌딩이다. 이 건물 자리는 1970년 이전까지 중화민국 대사관 소유로 한성화교 자치부 건물이 있었다. 그러나 1965년 7월 1,000여 평의 이 터가 정규성에게 매각하였을 때 700여 명의 화교들이 중화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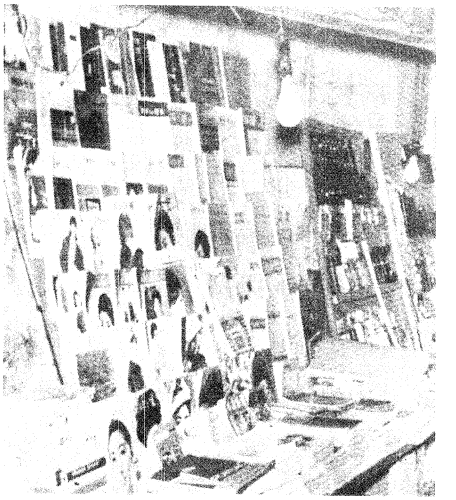
대사관으로 몰려들어가 대사관의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는데 이는 정규성이 일본의 조종을 받는 재일교포라고 오해하였기 때문이다.[278] 1970년에 코스모스백화점이 세워졌는데 1980년대 이후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상권에 눌려 영업이 부진하여 부채가 950억원에 이르렀으므로 1992년 11월 28일 대협건설 등 4개회사 컨소시엄에 1,015억원에 매각되었고,[279] 다시 1997년에 제일은행이 경매에 붙여 북두칠성그룹에게 611억 원에 낙찰되었다.[280] 2002년 2월 22일 복합쇼핑몰 아바타가 7,200평의 1,000 개의 매장으로 개장되었다. 이 쇼핑몰은 의류, 수입명품 등 패션 매장으로 상가를 임대분양하는데 100% 전세등기를 해주고 있다.[281]

아바타빌딩 앞에는 광복 후 10여 군데에 서점이 있었으나 세월이 갈수록 하나씩 문을 닫았다. 일제 때부터 고서점인 금강당이 6 · 25전쟁 전까지 명동에 있었고, 명동입구에는 광복 후부터 신간서적을 파는 문예서림이 1980년대 말까지 남아있었다. 이 서점에서는 광복 후 『신인』과 『문예』라는 대중오락잡지를 발행하였다. 이 당시 이 서점 내의 편집실에는 윤백남, 김래성 등의 많은 문인들이 출입하였다.[282] 현재는 충무로 1가 진고개에 규모가 큰 세종서적이 있고, 외환은행 명동지점 부근에는 대한음악사(명동2가 2-12)가 자리하여 40여 년 동안 음악도와 음악애호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피아노책, 기초 바이올린책 등 악보를 진열하여 손님을 맞고 있는 대한음악사는 이 음악사를 초창기부터 이용하던 음악도들은 이제 학부모가 되어 자녀들의 음악책을 사기 위해 드나든다.



밤을 밝히는 네온싸인(부산뉴욕제과, 1966년)
-「명동20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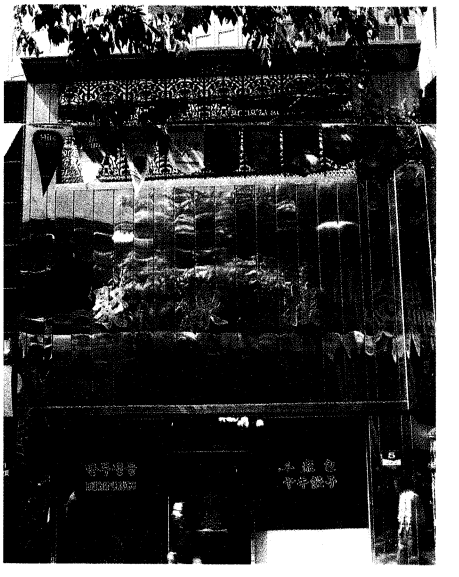
남대문로(보신각~남대문~서울역) 변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므로 인파로 뒤덮인다. 1980년대 이전까지 이 도로변에는 귀금속 · 시계점 · 카메라상점 등이 즐비하였고, 달러 골목으로 일컫는 남대문로 뒷골목에는 달러와 일화(日貨) 등을 사고 파는 암매상이 진을 치고



일본서적을 파는 명동 뒷골목(1966년)
-「명동20년」에서

있었다. 이 골목은 우리나라 제일의 사채(私債)시장으로 유명하였는데 이곳 일대의 다방에는 하루종일 기업 어음이나 개인 어음을 할인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또한 일본잡지와 책을 파는 노점 등도 즐비하였는데 남대문로가 확장되면서 뒷골목은 사라져 버려 정금사를 비롯한 귀금속 · 시계점 외에 부산뉴욕 · 태극당 · 고려당제과점 등의 유명 제과점이 모두 철거되고, 일본서점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명동입구의 문예서림 · 명동극장이 자리한 옆에는 호떡으로 유명한 중국집 취천루가 있다. 70여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한 취천루는 주위가 모두 빌딩숲으로 변했지만 조촐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일제 때 중국인을 무시한 일본인들도 이 집을 드나들었고, 광복 후 마카오 신사와 모던걸들의 발길이 잦았다. 6 · 25전쟁 이후에는 허기에 지친 문인 · 예술가들의 발길이 잦았다. 이웃에 명동극장, 시공관에서 영화가 끝난 후에도 이곳에서 쉬어갔고, 남녀학생들의 데이트 장소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심지 유흥업소에서 연탄 사용을 금하자 불로 굽는 호떡 대신 고기만두를 팔고 있다.



명동 2가에 자리한 취천루(2002년)

현재 명동의 중앙로 등 남북 방향 길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1996년 10월부터 명동의 중앙로 일대(1.2㎞)는 차 없는 거리를 1시간 이상 늘리고, 화강석으로 바닥 포장을 다시 하고 벤치, 소규모 분수,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젊은이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283] 현재 유네스코회관의 남쪽길을 '역사의 거리'로 북쪽길을 '공연의 거리'로 명명하

여 도로면에 표지판을 붙여 놓았고, 전의 예술극장의 남쪽길인 중앙통을 '통키타 거리'로, 북쪽길을 '주점의 거리'로 명명하는 외에 외환은행 명동지점의 북쪽길을 '다방거리'로, 남쪽길을 '이상(李箱)의 거리로 명명하였다.

1993년 12월 4일 오후 1시, 번화가인 상업은행 명동지점 앞의 가설무대에서 장관, 국회의원, 정당대표, 박홍 서강대학교 총장, 민간사회 대표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과 100 명의 인기스타들이 참여하여 대규모의 불우이웃돕기 가두 자선모금 공연과 패션쇼를 벌였고, 한국미화중앙협의회 회원들의 '사랑의 구두닦기'와 화가들이 '자화상 그려주기'로 모금활동을 하였다.[284]

1997년 1월 10일 오후 7시 30분경 충무로 2가 명동상가 앞길에서 소매치기들을 체포하려다가 경찰관이 칼에 찔려 쓰러지자 인근 악세서리 가게 종업원 이근석(李根石 :24세)이 이들과 맞서다가 복부를 찔려 곧바로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출혈과다로 숨졌다. 서울시는 장례를 구민장(區民葬)으로 치르자고 제의했으나 부모는 사양하였다.[285] 그러자 서울시는 의인(義人) 이근석의 시민정신을 기리기 위해 위령비를 현장에 3월말까지 세우기로 하였다.[286]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명동 2가 83번지) 앞에는 중국차와 중국 인삼과자 등을 파는 상점이 있어서 유명하였다. 중국대사관 담을 따라 충무로쪽으로 올라오면 한중문화협회(명동 2가 105번지)가 있고, 한중화교학교와 한중신문사가 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자리는 광복 후에 주한대만대사관으로 사용되다가 1992년 8월 24일 한국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 주한대만대사관은 철폐하게 되어 화교(華僑)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의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가 내려지고, 그 이듬해에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 입주하였다.

명동 중국대사관 부근 일대는 차이나타운으로 100여 년간 한국 화교 상권의 중심지였다. 현재는 화교가 격감하여 이곳에는 중국 서점, 여행사, 상점 3~4 곳만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화교(華僑)는 19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군을 따라 40여 명의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이 효시이다. 대한제국 때는 300여 명의 화교가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다가 1970년대에는 12만 명에 이르렀으나 법적인 차별과 한국인의 배타적인 민족성, 1992년 중국과의 수교로 인하여 2000년말에는 2만 1,806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서울에 8,000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한 때 화교는 명동, 북창동, 소공동 일대의 상권을 장악했으나 회현동, 연희동, 연남동 등으로 밀려났다. 특히 1992년 우리나라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의 국교를 체결함에 따라 대만 국적의 화교들은 입지가 좁아져 '난민(難民)' 신분의 임시 체류자가 되었다.[287]

한편 연극부문을 보면 1976년 예술극장이 폐쇄되기 이전까지 명동은 연극의 중심지였다. 예술극장 주변의 1번지 다방, 명동 입구의 은성 술집에 가면 언제든지 연극인을 만날 수 있었고, 1980년 초에는 엘칸토예술극장 옆의 희랍다방과 근처의 옛집, 석굴암, 대부집 등의 술집이 연극인들의 만남 장소로 애용되었다.[288] 1976년 예술극장이 문을 닫은 후 연극은 유랑생활을 하게되어 1975년 명동에 삼일로창고극장, 1978년 엘칸토예술극장, 1980년 살롱 떼아뜨르 추(秋)가 개관되면서 예술의 정취를 심어나갔다.

1975년에는 명동문화의 맥을 이으려고 삼일로 창고극장이 만들어졌다. 삼일로변 계성초등학교 옆의 2층 양옥 지하를 파내어 만든 국내 유일의 이 창고극장은 1976년 정신과 의사 유석진이 구입하여 연출가 이원경에게 기증하였기 때문에 미담으로 널리 알려졌다.[289] 젊은 연극인들이 땀흘려 만든 이 극장은 다양한 현대 연극의 실험장으로 많은 문제작을 공연하고 연극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옛 예술극장 옆에 위치하였던 엘칸토예술극장은 1978년 엘칸토 김용운회장이 마련한 것으로 젊은이들이 주로 모이는 소극장이었다. 객석은 150석이지만 연중무휴, 장기공연이 특징인데 연간 8~9만 명의 관객이 운집하였다.[290] 1994년까지 17년간 180여 편의 연극이 무대에 올라 명동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1979년 3월, 충무로 사보이호텔 건너편에는 연극인 추송웅(秋松雄)이 차와 음식을 들며 연극을 볼 수 있는 살롱 카페 떼아뜨르(추)를 세워 명동의 명소가 되었다.[291] 여기에서는 '대머리 여가수' '타이피스트'를 무대에 올려 화제를 모았으며 우리나라 소극장운동의 본산이었으나 자취를 감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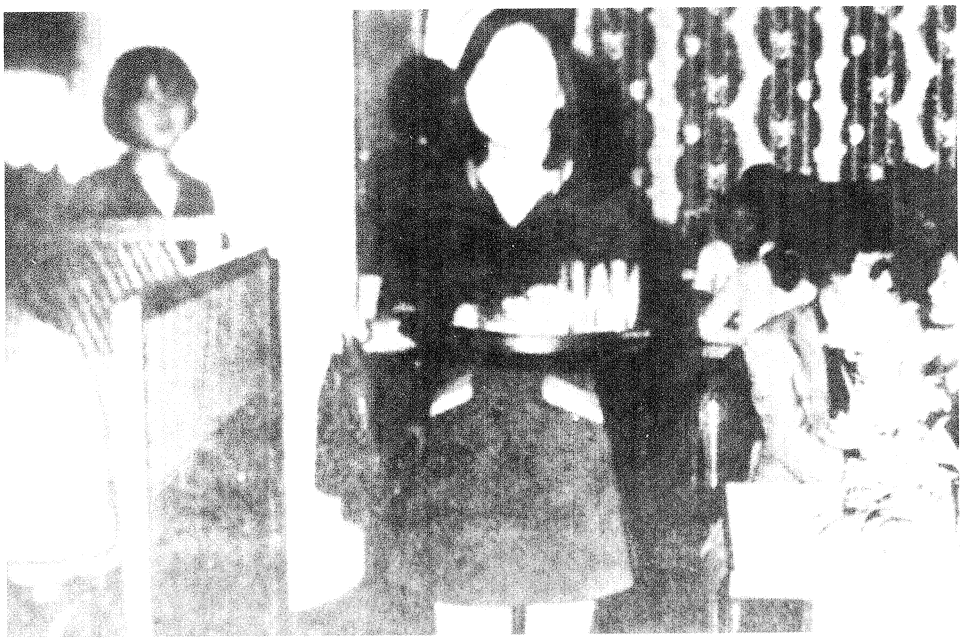
문화관광부는 2000년 3월 27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10만여 평의 명동지역을 비롯한 남대문시장 · 북창동지역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292] 즉 명동~세종호텔~신세계백화점~남대문시장~프라자호텔~롯데호텔~을지로입구역~중앙시네마극장~세종호텔까지의 19만 1,638평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이다. 관광특구 인근에는 숭례문 · 덕수궁 · 러시아공사관 · 한옥마을 등의 문화재와 정동극장 · 호암아트홀 등의 공연장이 밀집되어 다양한 관광코스로 개발하기가 용이하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 명동 운영위원회(회장 : 김장환)가 구성되어 2000년 4월 6일부터 문화관광부 · 서울특별시 · 중구청 등의 협조로 명동의 특성을 살려 무대를 마련하여 한 달간 관광특구 축제를 개최하였다. 관광특구 명동 운영위원회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

해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관광홍보자료 제작 배포, 종사원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명동 일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가을 정기전이 끝나면 두 학교 학생들의 뒤풀이 장소가 되었다. 동대문운동장에서 모든 경기가 끝나면 두 학교의 학생들은 으레 종로나 을지로 등을 거쳐 명동을 향해 모여들었다. 유네스코회관 앞에서 명동성당까지 양교 응원단이 도열하면 "입셀런트 체이호…" "아카라카칭 아카라카쵸…" 양교의 교가와 '친선의 노래' 양교 총장의 격려가 끝나면 와와와! 술집으로 몰려갔다. 고려대는 막걸리집으로, 연세대는 맥주집으로 가거나 양교가 합세하여 맥주집이나 맥주집으로 몰려가 술의 연 · 고전(고 · 연전)을 펼쳤다.[293]

2000년부터 명동 · 동대문 일대에는 일본인, 러시아인, 중국인 등이 안과나 성형외과를 찾는 '병원쇼핑'을 하고 있다. 특히 명동의 안과에는 매월 10여 명의 일본인들이 라식수술을 받으러 오고, 명동의 성형외과에는 매주 20~30 명이 박피수술 등 피부관리를 하기 위해 찾고 있다.[294]

명동 일대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지가(地價)가 가장 비싼 지역이다. 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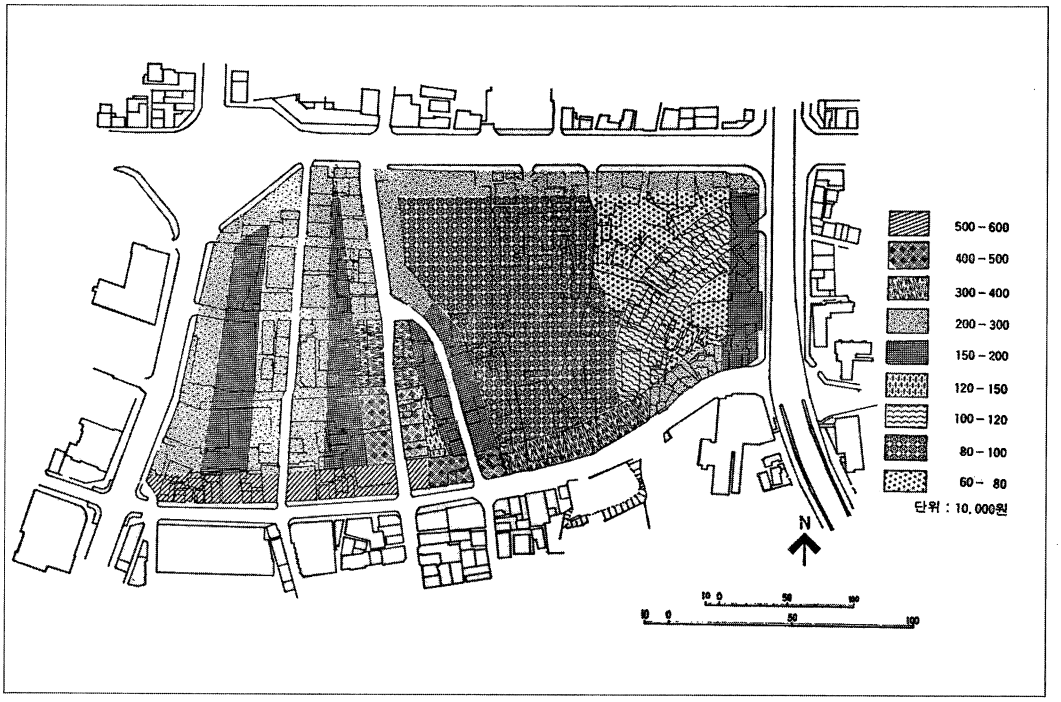


1980년대 맥주집
-「서울잡학사전」에서

부터 2002년까지 명동 상업지역의 토지가격을 건설부 공시지가나 한국감정원의 발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동의 토지 가격 변동

일자	위치	토지가격(평당)	기관	비고
1977. 7. 14	명동1 · 2가 상가지역	6,000,000원	한국감정원	「조선일보」 '77. 7. 15
1978. 6. 26	〃	10,000,000원	〃	〃 '78. 6. 27
1979. 12. 13	명동1가 국립극장 부근	13,000,000원	건설부	〃 '79. 12. 14
1982. 4. 1	명동1 · 2가 상가지역	21,962,000원	한국감정원	〃 '83. 7. 13
1983. 4. 1	〃	25,000,000원	〃	〃 '83. 7. 13
1984. 4. 1	〃	32,010,000원	〃	〃 '84. 10. 31
1986. 7. 9	명동 2가 33-2(상은 명동지점)	60,000,000원	건설부	〃 '86. 7. 10
1987.	명동 2가(신탁은 본점)	70,000,000원	한국감정원	〃 '87. 9. 8
1989. 12. 29	명동 2가 33-2(상은 명동지점)	109,753,000원	건설부	〃 '89. 12. 30
1990. 8. 18	〃	118,800,000원	〃	〃 '90. 8. 19
1991. 2. 27	〃	142,150,000원	〃	〃 '91. 2. 28
1992. 6. 3	〃	142,149,000원	〃	〃 '92. 6. 4
1993. 5. 24	명동 2가 33-1(명동 청화빌딩)	140,160,000원	〃	〃 '93. 5. 25
1994. 6. 29	〃	133,223,740원	〃	〃 '94. 6. 30
1995. 3. 16	명동 2가 33-2(상은 명동지점)	132,232,000원	〃	〃 '95. 3. 17
1997. 9. 12	〃	40,000,000원(㎡)	〃	〃 '97. 9. 13
1998. 2. 27	〃	132,232,000원	〃	〃 '98. 2. 28
1999. 6. 30	〃 (한빛은 명동지점)	109,091,400원	〃	〃 '99. 7. 1
2000. 6. 29	〃	110,000,000원	서울시	〃 '00. 6. 30
2002. 1. 1	〃	110,083,140원		〃 '02. 7. 5



명동지구 지가분포(地價分布 : 1978년 2월)

현재 명동사무소는 명동 1가 · 2가, 충정로 1가 · 2가, 저동 1가, 남산동 1가 · 2가 · 3가 등 8개 법정동과 남대문로 2가와 예장동 일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곳은 일제 때 경성부 각정(各町)에 총대제(總代制)를 실시한지 17년 후인 1933년 10월 3일 정회(町會)를 설치할 때 명치정 1정목 · 2정목정회가 설치되었다.

광복 후 1946년 10월 명동 1가 · 2가동회로 바뀌었으며, 명동 1가 · 2가동회는 명동 1 · 2가와 충무로 1 · 2가 일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참고로 1947년말에 조사된 현재 명동 관할구역의 각 동의 행정을 살펴보면 저동 1가는 저동 1가 동회, 남산동 1가 · 2가 · 3가 지역은 남산동회가 설치되어 관할하였다. 이 당시 명동 1 · 2가 동회는 4개 법정동을 관할했는데 세대수는 1,221세대, 인구는 7,527명(남자 4,037명, 여자 3,490명)이었다.[295]

1953년 3월에는 명동1가 54번지에 명동 동회가 설치되어 명동 1가 · 2가 지역을 관할하였다. 그 후 1955년 4월 18일「동 설치 조례(洞設置條例)」에 의해 동장 관할구역의 행정동제

가 실시됨으로써 명동 1가는 명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이 되었고, 주민 감소로 인해 1970년 5월 18일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변경조례]에 의하여 명동 1가, 명동 2가, 충무로 1가, 충무로 2가는 명동사무소 관할구역이 되었다.

1975년 10월 1일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변경]으로 동의 통폐합이 실시되면서 명동사무소의 관할 아래 있던 명동 1가를 비롯하여 명동 2가, 충무로 1가, 충무로 2가와 함께 남산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이던 남산동 1가, 남산동 2가, 남산동 3가와 초동 관할의 저동 1가가 명동사무소의 관할구역으로 통합되면서 명동사무소를 1977년 12월 29일 중구 저동 1가 14-1번지에 신축하였다. 이어서 198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중 개정조례에 의하여 예장동 일부 지역도 명동사무소 관할구역으로 통합되었다.

1994년 6월의 명동파출소에서 관할하는 명동 1가 · 2가 · 저동 일부의 상주 인구는 2,342명이었고, 하루 평균 유동인구 50만 명의 소공동 상주인구는 4명이었다.[296]

현재 명동사무소는 남산동 2가 9-6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1999년 12월말 현재 명동사무소 관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명동의 동사무소 관할구역

동명	면적(㎢)	가구	인구	통수	반수	관할구역
명동	0.91	1,179	2,957	13	58	저동1가, 충무로1가, 충무로2가, 명동1가, 명동2가, 남산동1 가, 남산동2가, 남산동3가, 예장동 8번지의 8, 10 18, 21, 22, 37~39, 49~60, 66~92, 96~102, 104, 107~141, 144, 150, 151, 156, 170 177, 장교동, 무교동, 다동, 태평로1가, 을지로1가, 을지로 2가, 남대문로1가, 삼각동, 수하동, 수표동, 남대문로2가 10 1, 11의 1, 4, 12의 1, 3, 4, 13, 14의 1, 3~6, 15의 1, 3~6, 55, 60, 62의 1

*자료: 행정자치부, 『地方行政區域要覽』, 2000, 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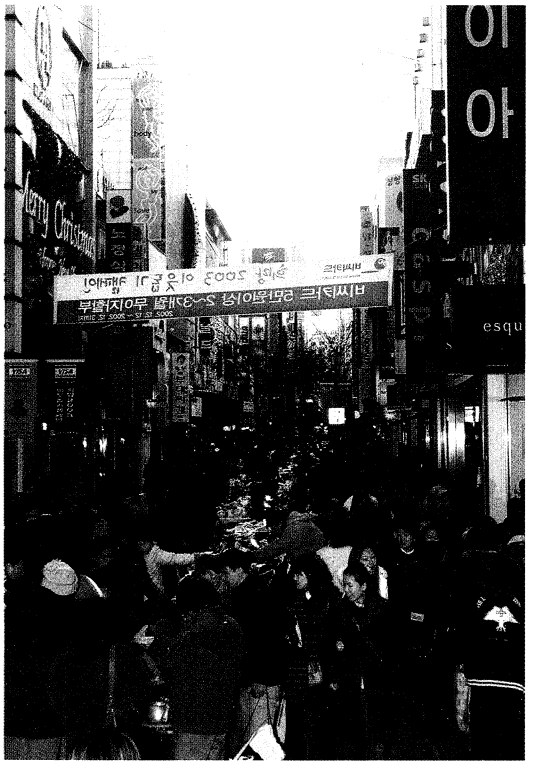
〈 박경룡(朴慶龍)〉

(3) 번영의 상징, 명동

1) 패션문화의 중심지

(가) 최첨단 패션유행의 집결지

1990년대 중반 패션계에 복고풍이 일었다. 서울의 명동이나 강남 혹은 대학가 등에는 1960~70년대 유행했던 판탈롱바지에 동그란 테안경을 끼고 뒷 굽이 두꺼운 블록힐 구두를 신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하였다. 패션디자이너들은 1992년도 봄 여성 의류는 판탈롱바지나 1950~60년대 미국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입었던 폭이 좁고 단정한 바지에다 몸에 붙는 재깃 스타일 등의 복고풍이 유행하였다. 안경은 역사 속의 인물들이 즐겨 썼던 테의 작고 동그란 안경이 유행이다. 테의 색은 밤색과 노랑 색을 배합한 호랑 무늬 등 고풍스런 색상에다 좀 낡아 보이도록 표면처리 됐다.


명동 중앙로 인파(2002년)

1990년대 중반에 명동은 문화예술인의 거리, 유흥의 거리, 패션의 메카, 단골 시위장소로 세월 따라 변해왔는데 이젠 젊은 유행정보 발신지로 다시 만개하고 있다. 현재 명동에는 대형 패션전문점이 확산되고 있다. 단일 브랜드 판매에서 벗어나 다양한 브랜드를 갖추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쇼핑이 특징이다.[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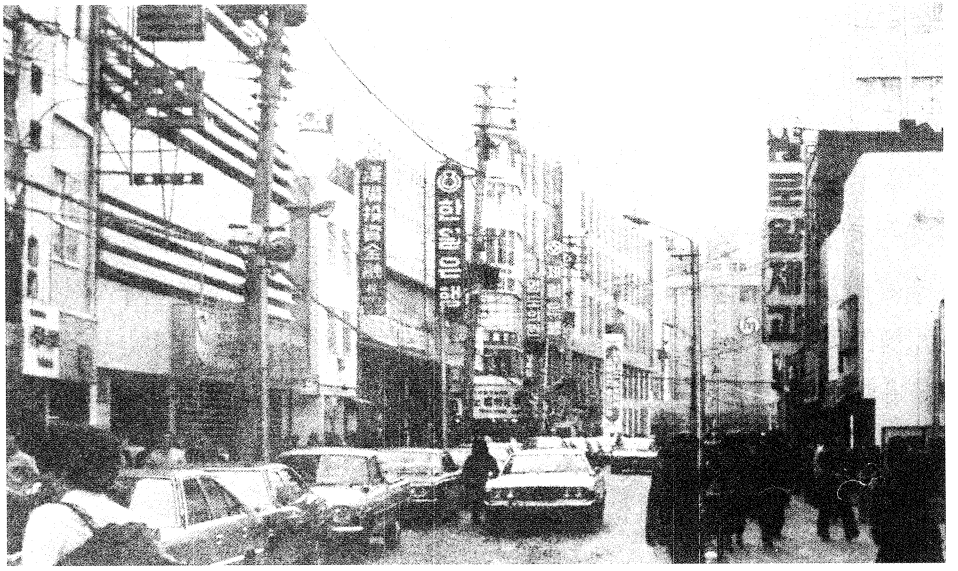
1990년대 말부터 최근의 명동에는 정말 많은 쇼핑샵들이 몰려 있다. 롯데, 신세계, 미도파 등의 백화점을 비롯해서 밀리오레, 유투존 등의 대형 쇼핑 공간

과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패션 샵들까지도, 게다가 작은 리어카에 그득하게 물건을 올려놓은 채 거리로 나오는 많은 노점상까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쇼핑 할 수 있는 공간천지이다. 때문에 명동은 서울 패션의 중심지로서 지금까지 오랜 명맥을 유지하며 역사를 길러온 곳, 명동에는 대형 매장 뿐 아니라 명동역과 을지로 입구역 주변으로 자리잡은 지하도에까지 엄청나게 많은 패션 샵들이 자리를 잡고있으므로 패션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7년의 명동의 패션백화점하면 유투존, 재팬혼모노, 트렌드 20 등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명동지대는 이 시대에 첨단 패션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패션거리 명동은 1990년대 들어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거리 중의 하나다. 특히 국제금융위기(IMF) 이후 주요 고객이 젊은 전문직 여성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상권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형 의류매장들을 개성 있게 꾸미는 편집매장 바람이 불면서 거리풍경 또한 다채로워지고, 또 젊어졌다.

대규모 편집매장이란 대형 의류브랜드 직매장들이 매출부진으로 물러난 명동지역에 소규모 신감각 브랜드를 앞세운 중소업체들이 한가지 대형브랜드로 토털매장을 꾸미는 것이 아니



명동에서 남대문로 방향을 바라 본 모습(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라 저마다 다른 느낌의 중소 브랜드들이 힘을 합쳐 전체 매장을 재구성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또한, 1998년에는 일일 점포매장이 늘어났다. 이는 1층 기준 전체 1,000여 개의 점포 가운데 브랜드 철수 후에 약 15% 정도에 해당하는 약 150여 개에 달하므로 임대가 나가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임시 행사장으로 이용하는 업체들이 등장하였다. 이는 하루 단위의 평당 5~6만원씩 받고 빌려주는 일수 매장과 수익금의 20%를 떼어주는 일세 매장형식의 일일 점포들이 등장하였다.[298]

(나) 양복, 양장, 양화점의 변화

① 양화점

1970년대 명동이 점차적으로 패션 점포가 한 두 집씩 들어서면서 양화점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먼저 칠성제화가 들어섰다. 그 다음이 금강, 엘칸토, 에스콰이어 등 각종 이름 있는 양화점들이 명동에서 자리잡고 있었다. 초기에는 살롱화가 유행이었지만 1980년대 접어들면서 대량으로 출시되는 기성화가 유행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두 역시 복고풍(復古風)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유명구두 메이커들은 구두 앞 부분에 한 단을 덧붙여 불룩하게 한 플랫폼 스타일에 뒷 굽이 두터워 약간 투박스런 느낌을 주는 구두를 전체 물량의 30% 이상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두는 1990년대 명동에서 한창 유행하던 스타일 들이다.[299]

그러나 1998년의 구두 소재는 인기몰이 구두는 통가족이다 라는 등식은 이젠 통용되지 않았다. 운동화에서 사용하던 천, 가공새미를 비롯 심지어 스판, 모직을 이용한 구두가 신경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과거에는 통가죽을 선호했으나 요즘엔 구두도 계절에 따라 사시사철 변하는 의상에 맞춰서 가볍게 신고 버릴 수 있는 패션소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통가죽은 그 계절에 유행하는 의상에 따라 디자인을 변화시키기엔 가공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300]

② 양복점

양복점으로서 들어선 순서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양복점들은 이성우, 이용화, 이성호 양복

점들이 유명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양복감을 보거나 양복을 해 입기 위해 명동으로 왔다. 이성우 양복점은 과거에는 현재 중앙길에 해당하는 엘칸토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충무로의 고궁 옆에 자리하는데 최근까지 맞은 편에 65-4번지에 있다가 현재 있는 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이용화 양복점은 중앙길의 아디다스 자리에 있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멋쟁이들은 옷을 해 입기 위해서는 명동의 유명한 양복점으로 모여들던 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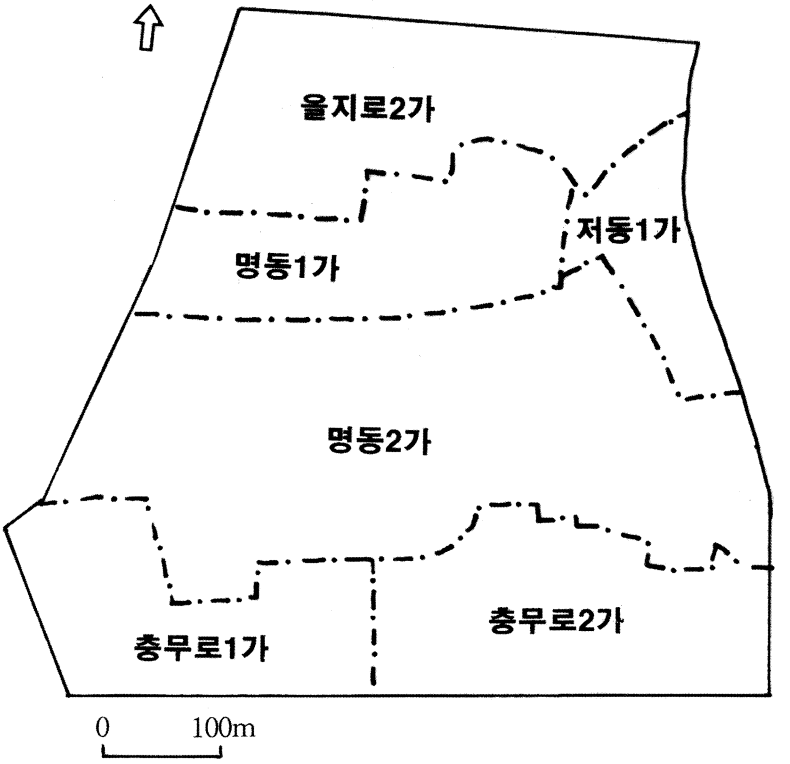
그러나 남성복에 대해서는 1980년대 말경부터 명동에는 남성복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토탈 패션들이 속속 등장하여 여성들만의 패션이 유행하는 명동거리의 모습에 변화를 주고 있다. 1985년 캠브리지 삼풍이 명동점을 개점한 것을 시두로 1987년 10월에는 한창의 서울 트레이드 클럽, 1988년 3월에는 삼성물산 SS숍, 4월에는 다시 캠브리지가 충무로점과 X-게이트를 연이어 개점하여 명동에 남성패션시대의 문을 열었다. 당시에 벌써 남성패션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 곳에 들어 와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는 모두 구미식의 토탈패션을 겨냥하여 한자리에서 신사복 정장은 물론 구두, 양말, 혁대, 지갑, 와이셔츠, 넥타이, 모자에 이르기까지 남성용품일체를 판매하고 있으며, 적당한 휴식공간까지 갖추는 최신식 형태이다.[301]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차츰 기성복이 점차 유행함에 따라 하나둘씩 양복점이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과거 유명했던 몇몇 양복점만 남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기성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양장점

양장점으로 유명했던 송옥 양장점은 명동 2가 51-1에 위치하였다.

송옥은 광복 전 일제 때 디자이너인 부인과 함께 종로 2가에 송옥 양장점을 설립하고 6·25전쟁 때는 부산시 남포동으로 이전했다가 1966년에는 명동 2가 51-1인 현 주소지에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장점은 여성패션계를 대표하는 고급양장점으로 장안의 화제를 모았고, 서울시내의 고관부인이나 배우들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도 서울에 올라와 몇 벌씩 맞춰 입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들면서 유행이 바뀌자 심씨의 송옥 양장점은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사양길을 걸었다. 따라서 1977년 7월에는 송옥 피복공업주식회사로 명칭을 바꿔 기성복을 취급하였다. 송옥은 그



명동 일대 행정구역도(2002년)

동안 KAL 등 국내 유수 기업체에 여종업원 유니폼 등을 단체로 공급해오다가 경영 악화로 1979년 7월, 7억원을 갈취해서 해외로 달아났다.[302]

이상과 같이 행정구역상 9만평 남짓한 명동에 1,600여 개의 패션점이 몰려, 최신 유행의 젊은 패션의 시험장, 명동에 자리 잡은 옷가게, 액세서리가게 구둣가게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유투존, 밀리오레, 재팬 혼모노, 오렌지 카운티와 같은 패션 복합매장들이 가세하면서 더욱 화려해 졌다. 또한 80개가 넘는 미용실, 42개에 이르는 성형외과에서 하루 수 백명의 머리와 얼굴을 다듬는다.

명동을 찾는 사람들은 평일 평균 1백만 ~1백 20만명, 토~일요일에는 1백 50만 ~2백 만명으로 불어난다. 사람들만큼이나 이유가 다양하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명동은 영업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판매 전략의 시험대이다.[303]

한국 유행의 첨단지역으로서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명동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 아직도 굳건히 살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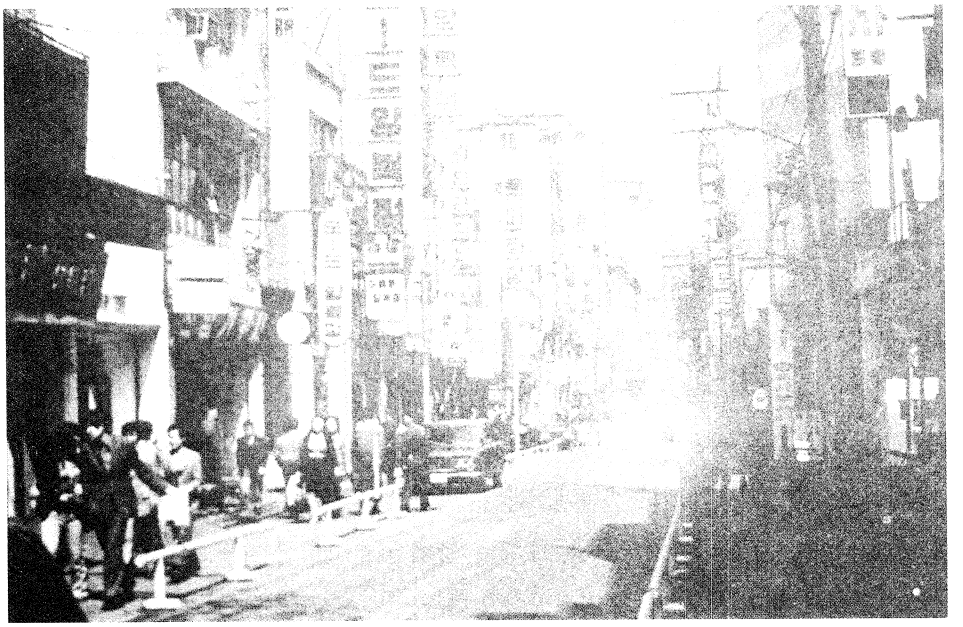
2) 문화적 명소와 관광지화

(가) 명동 축제

① 명동거리축제

명동거리축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신도시, 강남개발 등으로 인하여 상권이 이동됨에 따라 명동의 상권이 위축되자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축제를 통해 패션문화의 창출지로서 낭만과 멋, 유행의 대명사로 불리던 명동의 이미지를 되살림으로써 명동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1982년 "명동의 낭만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시 '명동보존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명동을 다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즉, 1983년 아시안 게임과



명동거리(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명동상가를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명동지역 시범상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도 및 차도 개설, 가로등 설치, 상하수도, 조경사업 등 공공시설물을 정비 정돈하였다.

1984년에는 '명동지역 시범상가 조성계획' 진행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5일을 '명동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제1회 명동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1987년 3월에는 88올림픽과 더불어 외래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을 국제적인 쇼핑도시로 부각하고, 지속적인 명동의 이미지 쇄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명동의 날을 명동축제로 확대시켜 매년 봄, 가을로 2회씩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1987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린 축제의 주제를 '상권신용지대본야, 패션문화명동대본야(商圈信用之大本也, 패션文化明洞之大本也)' 등의 구절을 내세웠으므로 상권 재탈환을 다짐하는 명동상인들의 자세를 알 수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유행의 발상지로 사시사철 흥청대던 명동거리는 1980년대 들어 서울 곳곳에 대형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문을 열면서 명동의 상권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상인들은 이 같은 침체에서 벗어나 명동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이목을 명동으로 끌어들이는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명동상가 번영회(김장환 회장)는 1987년부터 매년 11월 10일에서 30일 까지 명동축제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상인 뿐만 아니라 명동에 근거지를 둔 단체들도 명동 재탄생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나섰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측은 정기 명동축제 때마다 문화행사를 맡겠다고 제의했고, 이 기관의 주관으로 시 낭송 대회, 예술인 경연대회, 명동을 주제로 한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였다. 1989년 4월 명동축제 기간에는 고적 퍼레이드, 야외패션쇼, 민속놀이 노래자랑, 연예인쇼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가을 9월 9일부터 25일까지는 대체적으로 유네스코 회관 앞에서 가수들의 공연, 꽃마차행진. 미인선발대회 등을 벌였다. 이상과 같이 매번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통 열흘 이상 열림으로써 타 지역 축제보다 그 기간이 길다.

명동축제 기간 내내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격일행사 또는 며칠에 한번씩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고, 경연대회나 선발대회 등은 축제기간 동안 수시로 예선전을 열어 축제의 마지막날에 본선과 시상식을 거행한다. 하루 중 축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은 주로 오후 시간대 (정오에서 밤 10시 사이)에 편성되어 있다.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거리퍼레이드, 상품세일 쇼,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맥주 및 음료 무

료 시음 대회, 헤어쇼, 피자 먹기 대회, 미스명동선발대회, 패션쇼 및 메이크업 쇼, ○×퀴즈대회, 시민노래자랑, 풍선 터뜨리기 대회, 오리리 예술단 축하공연, 영상음악 쇼, 바디 페인팅 쇼, 삼익악기 특별 연주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연대회 및 게임이 있고, 인기가수 공연, 전통국악공연, 공개방송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한편 규칙적인 것은 아니지만 명동 최고 사원 선발대회나 명동 지역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 등 명동을 지켜온 사람들의 위로나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명동축제의 상업적인 면을 보완하고 있다. 또 시대에 발맞추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여 국제금융위기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시민들의 머리 무료로 잘라주기 행사를 하였고, 국산농산품 애용차원에서 쌀국수 빨리 먹기 대회, 국산 농수산물 먹기 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축제 공간의 주무대는 한빛은행 명동지점의 바로 앞에 설치되었다. 대형아치와 플랭카드, 청사초롱, 만국기, 주무대, 에드벌룬, 벤허 등이 축제의 거리를 온통 덮고, 거리 곳곳에서는 기업의 판촉전이 진행된다. 평화의 거리로 선포된 명동1 · 2가를 위시하여 충무로 1 · 2가, 저동 · 남대문로 · 을지로 일부가 축제가 열리는 공간이 된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본 무대에서 진행이 되고 기업체들의 치열한 홍보전(맥주 및 음료 시음 등)이 명동길과 중앙로 곳곳에서

화려한 명동축제(2001년)

벌어진다. 명동의 거리 전역은 청사초롱과 만국기, 벤허 등으로 장식이 되고 거리 퍼레이드로 축제가 시작됨을 알린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명동상가 번영회'라는 이름 아래 명동 지역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주최하고 있다. 이들은 명동축제의 개최에 있어 핵심적이다. 우선 축제를 개최하는데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한다. 또 축제 기간동안 각 업소 및 매장은 자체행사 및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쇼를 전개하거나 행사를 실시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취한다.

현재 명동상가 번영회는 명동 지역 점포주들로서 회장 1명, 부회장 6명,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축제기간에는 행사를 주관, 기획, 진행을 하고 평상시에는 명동 거리의 문제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동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1년에 한 번 정도 모든 회원들과 총회를 열고 임원들끼리는 수시로 모임을 갖는다. 그 외에 정부기관 및 지역단체에서 흔히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하는데 중구청은 후원금 보조와 축제 당시 교통통제 및 거리청소 등의 역할을 하고, 명동뉴스신문사는 미스명동 선발대회를 주관한다.

명동축제는 2002년(제 29회) 5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38일간 "월드컵 코리아 명동(Worldcup Korea Myungdong)"이라는 주제로 명동 전역에서 개최되었다.

명동 지역의 축제 행사 내용

회수	년도	월별	비고
제 1회	1984년	12월	명동의 날
제 2회	1985년	12월	명동의 날
제 3회	1986년	12월	명동의 날
제 4회	1987년	9월	명동축제
제 5회	1987년	11월	〃
제 6회	1988년	3월	〃 (올림픽 기간 및 장애자 올림픽)
제 7회	1988년	9월	〃 (〃)
제 8회	1988년	10월	〃 (〃)
제 9회	1989년	4월	〃
제 10회	1989년	9월	〃
제 11회	1990년	3월	〃
제 12회	1990년	9월	메리노 울 명동축제(국제양모협회)
제 13회	1991년	3월	명동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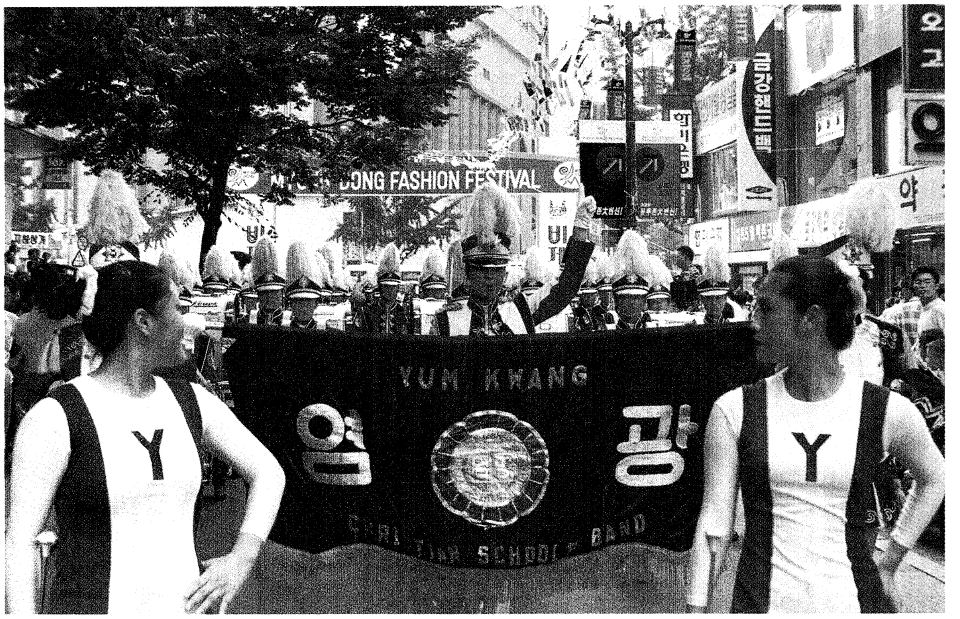
제 14 회	1992 년	3 월	〃
제 15 회	1992 년	9 월	〃
제 16 회	1993 년	3 월	〃
제 17 회	1993 년	9 월	〃
제 18 회	1994 년	3 월	〃 (월드컵축구 본선진출기념 이라크팀 초청)
제 19 회	1994 년	9 월	〃
제 20 회	1995 년	3 월	〃
제 21 회	1995 년	9 월	〃
제 22 회	1996 년	3 월	〃 (월드컵 개최 기원)
제 23 회	1996 년	9 월	〃
제 24 회	1997 년	9 월	〃
제 25 회	1998 년	3 월	〃 (경제 살리기)
제 26 회	1999 년	9 월	새천년 맞이 명동축제
제 27 회	2000 년	6 월	세계화 관광특구 대축제
제 28 회	2001 년	4 월	2002 서울 월드컵 성공 명동축제
제 29 회	2002 년	5 월	"16강 성공" 제 29회 명동축제
제 30 회	2002 년	10 월	명동축제(명동국립극장 복원 확정)

② 명동 유네스코거리 축제

유엔이 2001년을 문명간 대화의 해로 정한 것을 기념하여 인류화합의 꿈을 펼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의 축제가 2001년 10월 11일 개최되어 13일까지 이어졌다. 장소는 명동거리와 명동유네스코 회관에서 이루어졌다. 서양의 핸드벨 연주회, 우리나라의 사물놀이 등이 공연되며, 다양한 문화와의 만남을 표현한 미술작품 전시회도 있었다. 여러 나라 음식과 의복문화 놀이문화를 체험하고 세계지도를 만들어 보는 등 관객이 참여하는 행사도 많다, 마지막 13일은 세계로 떠나는 자전거 여행이란 원형 구조물을 주최측과 시민들이 함께 세웠다.[304]

③ 명동 청소년 거리축제

2001년 9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명동 청소년 거리축제가 매주 토요일 명동입구 ~ 유네스코회관 ~한빛은행 명동지점 사거리에서 열렸다.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명동거리 청소년 축제는 장기적으로 명동을 국제청소년 거리로 선포하여 국내외 청소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



명동축제(1997년)

고, 세계적인 명소를 만든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명동 청소년 거리축제는 참여마당, 테마전시마당, 벼룩마당, 캠페인마당, 공연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명동거리축제, 퓨전축제, 짜가축제, 한가위축제, 황당축제, 세계문화축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명동거리에 청소년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305]

(나) 명동관광특구

① 관광특구지정과정

서울시 관광개발계획 연구에 따르면 먼저 도심지역은 600년 고도(古都) 서울의 역사적 문화자원을 고스란히 담고있는 광화문 일대를 관광거점으로 삼아 명동, 이태원까지 아우르며 역사문화 관광 및 쇼핑관광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관광지로서의 서울권역 개발은 오는 2006년까지 향후 5년간 기본계획으로 마련된 것이서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동북아 중심도시의 하나로 관광상품과 자원개발만 뒷받침된다면

관광도시의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2000년 3월 27일 명동 · 남대문시장 · 북창동지역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이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부는 2월 21일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행정자치부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침내 관광특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충무로에 있는 세종호텔 옆 도로에서부터 퇴계로 길을 따라 신세계백화점, 남대문시장, 프라자호텔, 시청 앞 롯데호텔, 지하철 을지로 입구역, 명동 외환은행 본점, 중앙시네마극장에서 다시 세종호텔까지의 도로 내에 있는 19만 1,638평이다.

명동은 남대문과 북창동을 연계하는 관광특구를 추진하였다. 중구에서는 한국 특유의 시장 분위기를 갖고 있는 남대문 시장과 첨단 패션 및 고급쇼핑거리인 명동 등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 지역 개발 방안을 마련한 세종 경영 연구원은 명동을 고급패션 쇼핑거리로 육성할 방안을 내어놓았다. 즉 외국인들을 위한 고급면세점을 유치하고, 중국대사관에 인접해 있는 음식점, 약재, 중국서점이 밀집한 리틀 차이나 타운을 조성한다. 관광객들이 산책하며 간단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노천카페거리를 만들고 퍼레이드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② 역사문화탐방로 확정

역사문화탐방로로 남대문 · 명동 중심지구가 확정되었다.[306] 이 곳의 볼거리는 남대문 시장거리 → 명동거리 → 명동성당 → 충무로 영화골목 → 남산 한옥마을을 잇는 쇼핑거리와 남대문 → 남산 길 → 안중근의사 광장 → 남산식물원 → 팔각정 → 남산타워로 이어지는 탐방로가 만들어졌다.

명동과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시장문화 개발로 관광 쇼핑명소로 부각될 쇼핑거리에서는 우정박물관, 중국대사관, 타임켑슐 광장도 만날 수 있다.

명동은 서울 중심지역의 대표적 상권으로 고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상의 이유만으로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또 중심거리의 주변에 형성된 상가들을 중심으로 최첨단 하이패션 및 고급쇼핑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펼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307]

관광특구협의회는 2000년 6월 2일 세종호텔에서 모여서 임원을 선출하였다.[308] 협의회는

명동 · 남대문 · 북창지역 관광특구(2000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즉,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구역별 특성화 및 특화상품개발, 관광서비스 향상 및 자율방범 대책,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교통소통 주차공간 확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문화행사, 관광특구의 장기적 육성방안, 관광특구 개발과 육성 공로자 포상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309]

③ 한국 관광명품점

명동이라고 해서 젊은 신세대적인 감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명동 유일무일의 한국적인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한국 관광 명품점"이다. 한국을 방문한 모든 여행객들에게 한국문화의 참모습을 전하는 이곳 한국 관광 명품점에는 작은 소품인 노리개, 열쇠고리부터 도자기, 의류까지 모두 한국의 문화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특별하게 옷이나 기타 액세서리 등을 마련할 공간은 아니지만 외국인에게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싶을 경우, 전

통미가 살아 있는 이곳에서의 쇼핑은 꽤 인상적인 선물 거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부모님 생신이나 선생님과 친지에게도 격식 있는 선물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있는 모든 제품들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 그 이유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직접 연결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적은 돈을 들여 구입할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건물 3층에 문화공간 및 공연장으로 꾸며져 있어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며 일반인들에게는 휴식 공간의 역할도 한다.

1층은 캐릭터 상품코너 섬유, 수예 액세사리 코너, 의류, 섬유 코너, 2층은 무형문화재 코너로, 칠기, 목기, 화각 코너 생활한복, 전통가구, 3층은 편의시설 및 한국 전통차를 판매한다.

우리의 문화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문인들과 예술인이 흔적을 찾아 과거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명동문화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땅, 우리의 문화가 남아 있는 곳,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땅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30년 전의 금싸라기 땅은 한국에서 아직도 우리은행 명동지점 대지라고 한다. 많은 패션과 유행의 기원지가 옮겨갔다고 하지만, 서울의 밝은 동네 명동의 중요성은 또 다른 명동만의 문화 1번지로서 그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우리가 명동을 사랑할 때 우리의 후손과 외국인들도 명동을 아끼고 사랑할 것으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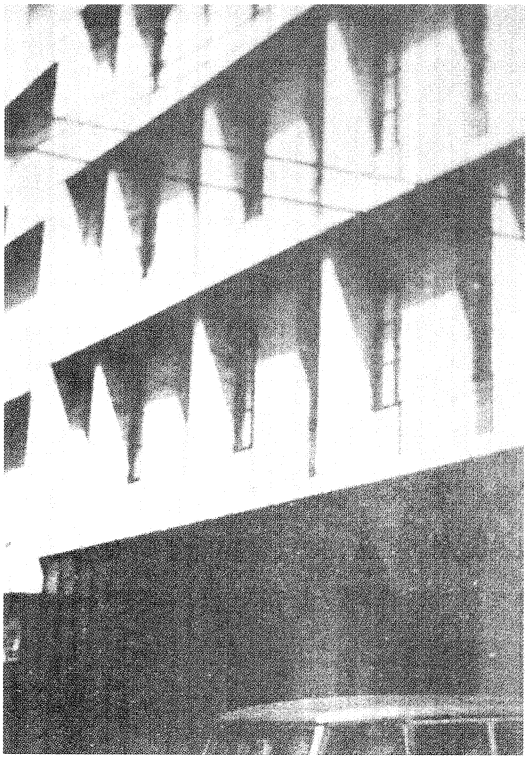
④ 명동의 호텔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호텔들이 한층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1966년 한국 최초의 민자호텔로 개관한 세종호텔은 세종대왕의 높은 성덕과 정신을 실현한다는 창업의지에 따라 명명하게 되었다. 특 2급의 호텔로 235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사보이 호텔은 1급 호텔에 속하며, 103개 객실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8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었다. 집안 대대로 3대째 계속해서 물려받아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명동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이다. 과거 일제 때와 1960년대에는 많은 어깨들의 본거지 역할을 해내었던 장소이다. 사보이 호텔은 최 회장이 경영하다가 현재는 그의 2세가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리모델링하여 분위기가 일신되었다.

로얄호텔은 1971년에 개관한 호텔이다. 특 2급 호텔로 31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 21층, 지하 1층의 규모이다. 최근 또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재건축 중이다.



메트로 호텔(1979년)
-「명동20년」에서

메트로호텔은 과거 증권거래소 뒤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아직 새롭게 변신하지 못하는 호텔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명동의 호텔의 시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연원이 오래되었다.

프리엠(Free M)호텔은 2002년 7월 6일 중구 충무로 2가 69번지에 자리 잡았다.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손님맞이 풍습을 계승하여 극진한 정성과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관광객들과 내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할 계획으로 만들어 졌다. 이 호텔은 국내 최초의 여성 전용 미용호텔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여왕으로 모시어 동양의 혼이 담긴 경락마사지, 사우나 및 전통먹거리 시설을 갖추어 차별화 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용호텔이란 슬로건에 맞게 프리엠 호텔에서는 피부관리 마사지, 미용실, 네일아트, 성형외과 등이 부족함 없이 갖추어져 있다.

또 전통가옥의 디자인과 함께 편안함과 아늑함이 느껴지는 온돌방 시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명동성당

① 천주교로 귀의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는 공산집단의 탄압으로 북한의 교회가 큰 고난을 겪게 되고, 일반 교우들도 이른바 반동분자(反動分子)라는 죄목으로 잡혀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니 이러한 생지옥을 벗어나려고 몰래 남한으로 계속 도망쳐 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교우 400여명은 날로 비참해지는 북한교회의 소식을 듣고, 1949년 11월 6일에 명동대성당에서 평양교우대회(平壤敎友大會)를 열고 많은 성금을 모아 신부 양성을 꾀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겨우 반년을 지나 6 · 25전쟁이 일어났다. 1950년에 들어서 남한공격을 꾀하였던 북한공산군은 교회에 대한 탄압을 더욱 심하게 하여 5월 15일에는 평양 서포에 있던「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녀원」이 몰수되어 수녀들은 갈 곳을 잃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서울의 여러 성당의 신부들은 1950년 6월 14일에 모임을 갖고 북한 교회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차례로 드리기로 결정하였다. 6월 15일에 명동성당, 16일은 중림성당, 17일에는 원효로성당, 18일에는 삼각지성당, 20일에는 잠실리성당, 21일에는 동자동성당, 22일에는 세종로성당, 23일에는 혜화동성당, 24일에는 제기동성당, 25일에는 홍제원성당, 26일에는 신당동성당, 27일에는 미아리성당, 28일에는 가회동성당에서 교우들로 하여금 각각 40시간의 성체조배(聖體照拜)를 드리게 하였다.

서울 교우들이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던 사이에 북한공산군은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범하여 왔다. 이에 앞서 공산군은 6월 24일부터 북한에 남아 있던 평양교구의 조인국(趙仁國) 신부들을 감금하였다. 이 11명의 한국인 신부들 중 김바오로 · 이광재 · 이경호 신부는 얼마 후에 총살된 것이 확실히 알려졌으나 다른 8명의 신부는 어찌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리고 남한을 침범한 공산군은 바로 그 날 강원도 묵호성당(墨湖聖堂)에서 애란인(愛蘭人) 레일러(Reiller) 신부를 총살한 것을 비롯하여 27일에는 춘천성당의 네델란드인 콜리어(Collier) 신부를, 7월 3일에는 서울 영등포성당의 이현종(李顯鍾) 신부를 총살하는 한편, 가는 곳마다 신부 수녀를 잡아 가두고 성당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 7월 2일부터는 춘천교구(春川敎區)에서 퀸란 구주교(具主敎)를 비롯하여 많은 애란인 신부가 잡히고, 7월 11일부터는 서울에서 교황사절 번방주교를 비롯하여 미국인, 프랑스인, 벨기에인, 한국인 신부, 수녀 등 수 십 명이 잡혔다. 7월 25일부터는 목포에서 광주교구장(光州敎區長) 브렌난(Patrick Brennan) 안 신부 2명의 네델란드인 신부가 잡혔고, 8월 3일부터는 대전교구(大田敎區)에서 프랑스인 · 한국인 신부 10여명이 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남북한에서 공산군에게 잡힌 성직자 · 수녀 · 신학생의 총수는 15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공산군은 8개국 사람으로 이루어진 한국 천주교회의 성직자들에 대하여 잔인한 야만 행위를 행하였음으로 6 · 25전쟁은 처음부터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공산당에게 잡힌 외국인 성직자들은 처음에는 서울 소공동 지역에 있는 삼화빌딩, 국립도서관 등에 수용되어 문초(問招)를 받다가 7월 19일부터는 기차로 평양으로 옮겨져서 또 문초를 받은 후 평양 시외에 있던 유치원에 수용되었는데 이들은 이곳에서 잡혀온 서울 주재 프랑스 영사(領事)와 영국 영사를 만나게 되었다.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이 명동성모병원이다. 1935년에 일본인이 경영하던 병원을 인수하여 성모병원으로 개원함으로써 출발되었다. 처음에는 중구 영락동에 있었으나 1946년 명동으로 이설되었다. 1954년 가톨릭대학 의학부가 개설되어 의학부 제1부속병원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흔히 성모병원으로 불리고 있다. 당시 성모병원은 332병상을 가진 전국에서도 최신의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었다.

② 명동성당 건축과 관련사건

한미수교 이후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비밀리에 예배를 보았고, 순교자 김범우의 집터에 성당자리를 잡았다. 당시에 외무대신이던 조병식의 인근 별장지 1만여 평도 사들였다.

명동성당을 짓는 과정 중의 일화를 보면 어느 날 공사현장에 한 대신이 군졸을 데리고 나타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이웃에 역대 임금의 어진을 모시는 영희전이 있었는데 그 풍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증거로는 한양지도인 수선전도에 '영희전 후록물괴상(永禧殿 後麓勿壞傷)'이라는 문자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글이 후에 써넣은 것이 탄로 나서 이 축조방해는 허사가 되고 말았다.

종현에서 명동성당의 조촐한 정초식이 열렸던 1892년 5월 8일, 흐리고 안개 낀 날이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머릿돌 밑에는 조선에서 활동한 성직자들의 명당성당을 짓는데 자원 봉사한 1천여 명 이상의 신도 명단이 봉함된 채 놓여 있었다. 한국천주교의 요람에 상징건물이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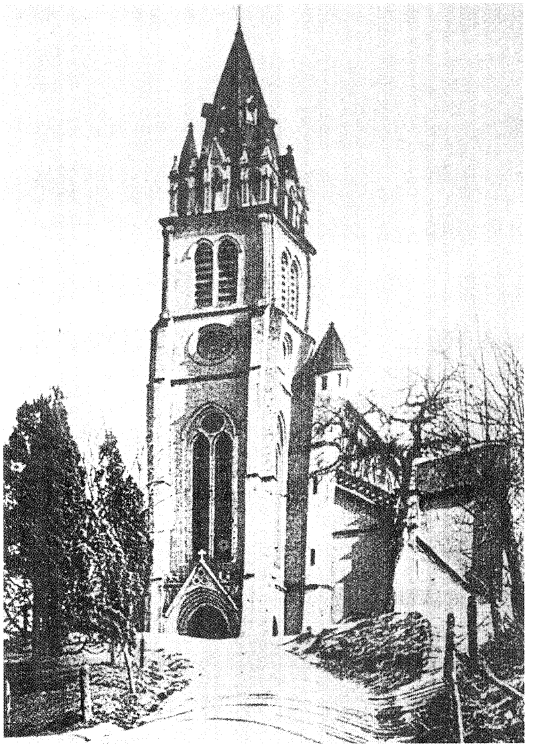
명동성당 건물의 설계 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의 프랑스 코스트(1842~1896) 신부이다. 그는 1885년 입국하여 조선 교구 부주교로서 약현성당 등 교회건축을 도맡았다. 1870년 싱가포르 요양소 건설에 참여하여 프랑스 건축가들로부터 설계를 배운 이색적인 신부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최대작품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1896년 벽체 공

사가 끝날 무렵 장티프스로 사망했다. 건축의 마무리는 프랑스 프와넬 신부가 뒤를 이어 건축을 마무리하였다.

건물의 평면구성은 라틴 십자형 삼랑식(三廊式), 고딕양식이지만 석조가 아니라 벽돌이기 때문에 장중함은 덜하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29종 이상의 이형벽돌을 사용하여 풍부한 장식적 섬세함을 살렸다. 늘어선 기둥과 스테인드 글라스 등 내부공간은 고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단순한 외관은 로마네스크 양식에 가깝다. 벽돌은 현 용산 우체국 뒤편 한강통연와소(漢江通 煉瓦所)에서 구워서 만들었고, 스테인드글라스는 프랑스 수도원에서 직접 운반해 왔다.[310]

6년의 대 역사 끝에 마침내 1898년 5월 29일 성신강림대축일, 조선교구장 뮈텔주교의 집전으로 축성식이 열렸다. 축성식에는 천주교를 가장 괴롭혔던 외부대신 조병직을 비롯하여 명사 고관 등 3천여 명이 참석하여 당시 조선에서 가장 높은 뾰족집의 출범을 축하하였다.[311] 성당이 준공된 후 기해박해, 병인박해 당시 순교자들 유해가 성당지하에 안장됐다. 지하묘역에는 지금도 앵베르 주교, 샤스당, 모방, 최경환 신부 등, 성인(聖人) 5인과 순교자 4인이 모셔져 있다. 이처럼 명동성당은 순교자들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믿음의 터전이었다.

명동성당 일대



초창기의 명동성당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종현본당은 명동성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9월 16일 한국순교복자 79위 현양 대축일 미사를 감격 속에 올렸으나 5년 뒤에 6 · 25전쟁을 만났다.

성당이 북한군 병영시설로 압수되고 지하묘역의 순교자 유해가 수색되는 수난을 겪어야 하였다. 당시 장금구 주임신부는 부상당한 국군을 문화관 지하실에 숨겨두고 마음을 졸였다. 공산치하였던 7월 2일, 피난가지 못한 신자들이 통곡 속에서 첫 미사를 드렸다고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명동성당은 한국카톨릭교회의 중심지에서 시대의 고뇌와 아픔을 대변하는 정치-사회의 중심무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유신정치가 절정에 달했던 1975년 2월 정의구현사제단의 인권회복 및 국민투표 거부운동이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다음해 3월 1일 민주구국선언문은 '3 · 1절 기도회사건'으로 불리는데 함세웅, 김승훈 신부 등 7명의 사제 외에도 함석헌, 윤보선, 김대중 등 재야인사들이 서명, 함신부 등 18명이 구속됐던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반정부사건이었다.

제5공화국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곳은 정치적인 무대로 자리잡아 드디어 1987년 6월 항쟁의 진원지가 되었다. 6월 10일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규탄 범국민대회로 시작된 명동성당사태는 학생 · 시민 등 6백여 명이 6일 단식농성으로 이어졌고, 김수환 추기경이 이들의 신병처리를 놓고 당국과 중재에 나서기도 하였다. 경찰집계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이 치열했던 1987년에는 127차례 연인원 6만 1천명이 이곳에서 집회를 가졌다. 명동성당은 해마다 1백여 건 내외의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성당 안은 아직도 어떤 경찰병력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금단의 성역이다.[312]

준공 이후에 주교관, 문화관, 사제관, 교육관 등을 잇달아 세우고, 1947년, 1973년, 1984년 세 차례의 복원공사를 거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1977년 정부에 의해 사적 제258호로 지정됐다.

③ 명동성당과 시위

민주화의 성지 명동성당이 농성자들의 텐트철거를 놓고 고민에 빠졌었다. 1998년 11월 27일 명동신자들 모임인 평신도사목협의회는 성당 구내에서 장기 농성중이던 한총련, 건설일용직 노조연맹 등 500여명의 농성텐트를 철거하자 이들은 교회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천막을 철거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한 뒤 5개 동을 재 설치 하였다.

명동성당이 농성자나 시위자에 대해 실력행사를 한 것도 처음이고, 집단적으로 반발을 산 것도 처음이다.

성당측은 장기농성으로 성당시설이 훼손되고 미사 봉헌 등 성당 업무에 장애를 받기도 하고, 겨울철을 앞두고 동사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철거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자들의 반응은 이만하면 성당 측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나이든 신도들의 측과 그래도

박종철 고문 치사 항의 집회시위(1987년)

철도노조 파업 시위(1994년)

명동성당인데 너무하지 않느냐는 젊은 신도 측으로 의견이 나뉘어 졌다.

농성자 처리로 명동성당이 골머리를 앓은 것은 오래되었다. 1997년 국제금융위기(IMF) 체제가 되면서 실직자들이 명동성당 구내에 천막을 치기 시작했고, 퇴출은행 노조원들이 몰려들어 방뇨와 음주까지 잦아지자 명동성당은 1998년 7월 23일 출퇴근 시위를 할 것을 제의하고, 농성은 2주일로 제한해 달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그 후 농성자들과 10여 차례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농성자들은 지난 민주화투쟁시대에는 명동성당이 사실상 농성자들의 성역을 만들어 주었는데 요즘은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자 성당 측은 핍박받는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313]

그 이후 명동성당에서 시위대들의 변모된 모습은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 사이버 지휘부로 등장하였다. 1994년 농성 때도 노트북을 사용했지만 주로 회견문이나 선전문을 출력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개인용 컴퓨터(PC)통신으로 행동지침을 하달하고 정보를 교환한 것은 1999년 4월 이후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고, 노조의 기자회견의 내용이 육성으로 흘러나오기까지 하는 명동성당내의 시위의 형식도 사이버(cyber)시대에 돌입한 것이다.[314]

그 이후 2000년에는 명동성당 측에서는 멋대로 시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당 측에 사전허가 없이는 시위나 농성을 원천 봉쇄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였다. 명동성당은 2000년

12월 26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서를 내고, 각종 단체에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할 때 장소가 명동성당으로 명기돼 있으면 명동성당의 동의서 첨부가 절대 전제조건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성당 측은 또 집회가 일어날 징후가 있으면 농성을 막기 위한 천막과 무대, 확성기의 반입을 성당수위실 밖에서 미리 봉쇄하고, 성당 측의 동의가 없는 집회는 진입로에서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하였다.

성당측은 한국천주교의 성지인 명동성당이 지난 수년동안 이익집단들의 농성장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특히 2000년 12월 17일부터 5박 6일간 있었던 한국통신 노조원 1만여 명의 천막농성은 성지에 너무 깊은 상처를 주었다며 시설보호요청 경위를 밝혔다. 그들은 1990년대 들어 명동성당에 1년 평균 300여건의 집회와 30여건의 장기농성을 벌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익단체의 농성장으로 전락하였다는 교회의 진단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315] 고 하면서 성지의 이용도 과거의 순수한 밝힌 뒤 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색된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서울 명동지역에 상인들은 명동성당 측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또한 중부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성당 인근에 경찰력 철수를 요청하였다. 공문에서 관광특구 명동운영위원회는 명동성당 부근에 집단 시위대와 경찰인력이 대치하고 있어 관광객 등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고, 쇼핑객들을 이산시키고 있다고 밝힌 뒤 관계당국에서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명동에서의 시위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하고 요구하였다. 중부경찰서 측은 현재 농성을 벌이는 민노총 지도부 중 일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서 경찰력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④ 카톨릭회관과 한국교회사 연구소

카톨릭회관은 성모병원이 이사하면서 새로 건축하여 들어선 건물로서 카톨릭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다. 이는 1986년 10월에 완공되었다.

한국교회사 연구소는 1964년 8월 17일에 카톨릭 대학 구내에 있던 옛 가르멜 수녀원 건물에서 창립을 본지 22년 만에 1986년 11월에 명동 카톨릭 회관 구내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 연구소는 한국교회의 역사적 유산 찾기에 계속 힘씀으로서 유형무형의 자료들을 발굴하여 세계에 유례없는 자생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순교자들의 사적을 증거하고, 현재 한국천주교교회의 정립과 미래의 발전, 토착화를 위한 연구소로 위치를 굳히고 있다.[316]

⑤ 명동성당 내 문화공간

명동의 문화복원 운동에 불씨를 지피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카톨릭 서울대교구 명동 주교좌 성당의 문화관이 2001년 9월부터 총 공사비 50여 억 원을 들여 개 · 보수 공사를 마치고 실내악 전문 공연장으로 탈바꿈하였다.

준공한지 62년이나 되는 문화관과 성물 판매소가 들어선 옆 건물을 합치면서 구 문화관 2층을 '꼬스트 홀'로 리모델링 하였는데 이는 명동성당을 설계, 건축한 프랑스 외방전교회 선교사 코스트신부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음악당은 문화의 1번지라 불리는 명동의 자존심을 살려준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객석 수는 5백 석으로, 40명 내외의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가능하며 홀은 직사각형 구조로 길이는 26.5미터, 폭은 16.9미터이다. 높이는 8미터의 천장은 약간 둥글게 처리한 삼각지붕 모양으로 음향 반사판 역할을 한다.[317]

명동성당은 본당에 꼬스트 홀, 소성당, 명례방까지 4개의 크고 작은 홀을 갖춘 아트센터로 거듭나게 된다. 성당 내의 꼬스트 홀은 명동을 찾는 외국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문화도시 명동이 주는 작은 선물이며, 이는 명동국립극장이 복원된다면 명동문화의 큰 축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명동성당은 지난 1996년부터 명동성당 1백주년을 맞는 1998년을 목표로 재건축과 부속건물 정리 작업을 벌여왔으나 활용공간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였다. 명동성당 측은 성당 구내의 계성초등학교와 계성여고를 서초구 반포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문화관이나 가톨릭 센터가 들어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318]

또한 성당전면을 가리고 있는 가톨릭 센터를 헐어 내어서 그 일대에 시민광장 등을 조성하며, 현재 대성당과 주교관만 남기고 문화관, 교육관등 부속건물을 헐어서 그 자리에 대형문화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변모될 것이다.

⑥ 기타사건

명동성당은 1898년 5월 29일에 축성되었는데 그동안 구청의 건축물 관리대장(구 가옥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채 관리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1962년 건축법상 그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각종 서류를 첨부해서 가옥대장을 만들도록 했는데 성당 측은 대장을 만들지 못하였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물의 기본구성요소는 물론 배치도, 평면도 등이 들어있어 건물전체의 용도와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이다. 이는 소유권 행사를 위한 등기설정에도 필수적이다. 성

당 측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성당 창립 백주년인 1998년 이전에 만들었다.[319]

1998년 3월에 명동성당은 실직자들을 위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실직자들을 위한 쉼터가 명동성당에 생겼다. 카톨릭회관 지하에 400여 평을 개조해서 평화의 집을 개방하고 있다. 이곳은 실직자들의 휴식처뿐만 아니라 직업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라) 국립극장

① 연혁

명동 한복판인 현재 현대투자신탁(명동1가 54번지) 건물은 명치좌(明治座 : 메이지좌)→국제극장(國際劇場)→시공관(市公館)→예술극장→국립극장이라고 여러차례 명칭이 바뀌어 왔다. 명치좌는 1935년 일제 때부터 1973년까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전당 역할을 하여 명동을 오래동안 예술의 거리로서의 명성을 지켜올 수 있었다.[320] 명치좌는 1935년 일본인 이시바시(石橋良祐)가 건립하여 주로 일본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오늘의 스카라극장의 전신인 약초극장(若草劇場 : 와까구사게끼조)과 더불어 서울의 일류극장 구실을 하였다. 명치좌는

명동의 구 국립극장(2002년)

광복 후 적산(敵産)으로서 한동안 국제극장으로 고쳤다가 서울시가 접수하여 시공관으로 개칭하였다. 고전풍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이 공연장은 명동의 얼굴이었다. 모든 기풍 있는 공연, 오페라, 연극, 리사이틀이 이 곳 무대에 올려졌고, 아름답고 수준 높은 레퍼토리가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대지 505평, 건평 749평, 객석 1,180석의 3층 시공관은 1959년 뒤늦게 환도한 중앙국립극장(극장장 서항석)이 본거지를 물색하던 중 시공관을 공동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그 해 6월 1일에 '국립극장'이란 간판을 달아 공연장으로서의 본격적인 구실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11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립극장이 공보부로 이관됨에 따라 시공관은 국립극장 전용공연장이 되면서 시공관이란 명칭은 없어졌다.

그 후 19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 신축건물로 이전하면서 시공관 건물은 예술극장으로 개칭되어 대관극장(貸館劇場)으로서 일반 연극단체 등에게 매우 중요한 공연장 구실을 계속할 수 있었으나, 1976년에 연금특별재산으로 총무처로 넘어가면서 극장으로서의 수명은 1975년 말로 끝났다.

시공관 건물은 국립극장 전용극장이 된 1963년 이후부터 1975년까지 13년 간의 대관공연은 연극만도 모두 295편에 이르렀고, 195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20년 동안 우리나라 공연예술(특히 연극)의 거의 유일한 전당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편 1957년 6월에 서울로 환도한 국립극장은 명동에 있는 1,180석의 시공관(市公館)을 국립극장으로 정하고, 재정비에 나서 신협(新協 : 新劇協議會의 약칭)을 다시 전속극단으로 불러들였다. 신협은 1950년 1월에 국립극장의 전속극단으로 창립된 단체로 그 해 5월에 유치진의 〈원술랑〉을 허석(許碩)이 연출한 개관공연을 가져 6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그 뒤 4 · 19혁명과 5 · 16군사정변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문교부 소관의 국립극장이 공보부로 이관되었고, 설치법도 크게 바뀌었다. 극장건물도 대폭 수리되었고, 1962년에는 전속극단으로 국립극단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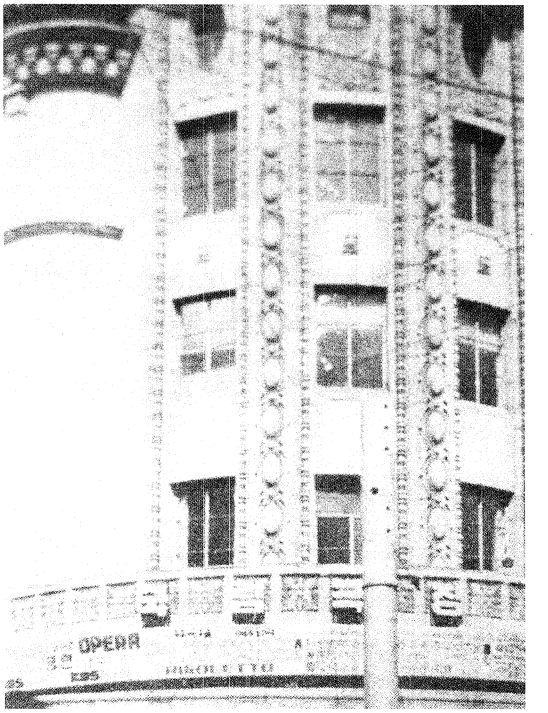
국립극단 발족에 이어 국립국극단(國立國劇團) · 국립오페라단 · 국립무용단이 발족되어 그 해 3월 재개관기념예술제를 열었다. '국립극장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의욕에 찬 재출발 의지를 보였으나, 1960년대에는 부족한 예산과 민족예술에 대한 인식 부족, 정책 부재 등의 이유 때문에 대관(貸館)으로 겨우 공연장 구실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공적을 남기지 못하였다.[321]

예술극장으로 명칭이 바뀐 시공관 건물은 제3공화국 때인 1974년 8월 야당 신민당의 전당대회(全黨大會)가 열리기도 하였다.[322] 그 후 시공관 건물은 한국증권거래소로 사용하다가 1979년에 여의도로 옮겨간 후 대한투자금융, 현대투자신탁건물로 되었다. 명동은 증권거래소가 여의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각 은행지점과 단자회사 · 증권회사가 밀집하여 금융거리로 변모했는데 아직도 사채(私債)시장들의 사무실이 즐비하여 한국의 자본 중심거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시공관 건물은 금융회사들에게 터를 양보하여 그 기능을 바꿈으로써 연극 · 영화 · 음악의 요람지였던 명동은 유행의 창조거리에서 자본시장으로 바뀌어졌다.

② 복원운동

한국연극협회는 1995년 3월 27일 세계 연극의 날에 명동 전 국립극장의 보존 및 공연공간의 확대와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물론 정부가 그 건물을 매입하여 공연장으로 환원시켜 준다면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한 투자금융의 신사옥을 지으면서 건물의 외관을 보존하고 공연장을 그 안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 한국건축가협회는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323]

2002년 7월 15일 「조선일보」사회면에 "옛 국립극장 시공관을 살리자"는 기사가 실렸다. "6 · 25의 폐허 위에서도 배고픈 연극인들이 모여들었던 명동 시공관(市公館)을 살려야 한다."라고 명동에서 35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상가번영회장 김장환(金璋煥 · 73)과 연극인 박웅(朴雄 · 62)이 옛 국립극장인 시공관 건물의 복원을 위해 나서 건물매입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국립극장(구 시공관, 1966년)
-「명동20년」에서

시공관은 2002년 4월에 작고한 가수 현인이 1946년 '신라의 달밤'을 처음 불렀고, 1950년대 초 가수 윤복희가 7세 때 데뷔했으며, 1956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장면(張勉)부통령이 권총 피격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김장환회장은 1995년 명동 상인들과 함께 예총 등 문화단체를 찾아가 시공관 복원을 위한 모임을 처음 가졌다. 그 뒤 서울시 · 문화관광부 · 기획예산처 등 안 찾아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발품을 팔며 담당 공무원들을 설득하였다. 이들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제출했으며, 모금운동도 벌이고 있다.[324]

이 건물이 최근 매물로 나오고, 올해 문화관광부가 기획예산처에 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면서 복원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웅은 "예전 600석 규모였던 시공관이 복원되면 공연 무대로 제격"이라고 말하였다. 김장환회장과 박웅은 시공관 앞마당에 무명 예술인을 위한 야외 공연무대를 만들려는 계획도 짜고 있다.[325] 드디어 문화관광부는 2002년 8월 23일 '명동 옛 국립극장"을 매입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200억 원을 확보하였고, 무대설비 등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2005년 10월에 재개관할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총 6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는 국고로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326]

시공관 되살리기의 의미는 김재기 추진위원장(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은 시공관을 되살리는 일은 번잡한 상업지역으로 전락한 명동을 다시 문화의 거리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공관이 공연장으로 복원되면 명동 인근의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명동상인들이 그동안 명동축제를 비롯해 야외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명동 되살리기 운동을 펼쳤지만 문화공간이 없는 명동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명동은 하루에 유동인구가 150만 명에서 2백만 명에 이르고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으나 본격적인 문화시설이 없는 형편이므로 시공관 복원은 명동이 문화도시로 다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③ 건축-문화적 보존가치

현대건축물의 개념에서 보면 유서깊은 예술극장 건물은 역사적 사실을 지닌 실체이자 더 광의로는 길이나 상하수도 정보통신망처럼 도시의 슈퍼 인프라라고 볼 수 있다. 명동예술극장 건물은 그 역사성이나 의미성에 더해 공공시설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될 성질이 아니다.

매각 당시 정부는 건물의 역사성이나 예술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고, 더욱이 공공시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도출하지 않은 채 잉여 건물의 처분에 따른 국고 수입만을 챙겼다. 당시 언론조차도 도시문화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여론 환기의 기능을 망각하고, 강 건너 불 보듯 이를 묵인하여 힘없는 예술인이나 시민들은 눈뜨고 공공재산 하나를 빼앗긴 꼴이 되었다.

이제 도시공간에 대한 공동체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립극장을 도시 인프라로 파악하는 전향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건축양식으로서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 건축가들은 국도극장(黃金座), 스카라극장(若草座), 단성사 등과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이 건물은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앞에 거론한 건물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단연 뛰어난 절충식 건축양식에다 일본에도 그 시기의 그만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세련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이다.[327]

또한 이러한 건축적 가치 이상으로 국립극장은 지닌 역사적 사실이야말로 보존의 당위성을 드러내 준다. 6 · 25전쟁 후 명동은 가난한 이 나라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이었으며 그 중심에 고색 창연한 예술극장인 있었기에 배는 고파도 정신은 풍요로웠다. 봄 가을이면 막을 올리는 연극 등 각종 공연들은 명동을 찾던 선남선녀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로 아로 새겨져 있다.

이제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 진 서울은 건물 속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명동의 국립극장의 보존은 서울의 문화적 자긍심과 예술인들의 자존심을 복원하는 시민운동의 발로라고 보아야 한다.

(마) 문화적 명소

① 한국YWCA

1922년 한국의 선각자적인 세 명의 여성 김활란(金活蘭), 김필례(金弼禮), 유각경(兪珏卿)에 의해 시작되어 청년운동 · 여성운동 · 기독교운동 · 회원운동 · 국제운동체로서 75년간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일해 오고 있다.

YWCA는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 평화 ·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회원YWCA를 연합, 통할하고 전국 운동체를 이루어 YWCA 활동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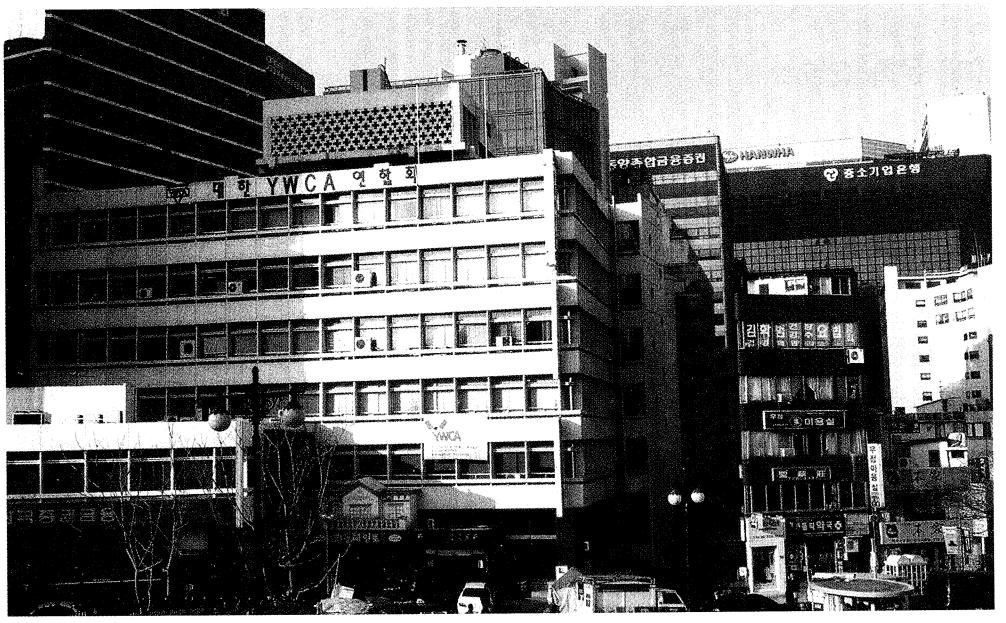
창립 초기부터 YWCA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애국사상과 계몽운동을 펼쳤으며 금주 · 금연 · 공창 · 조혼폐지 등의 사회운동을 벌였고 특별히 청소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청소

년 회원(어린이, Y-틴, 대학생)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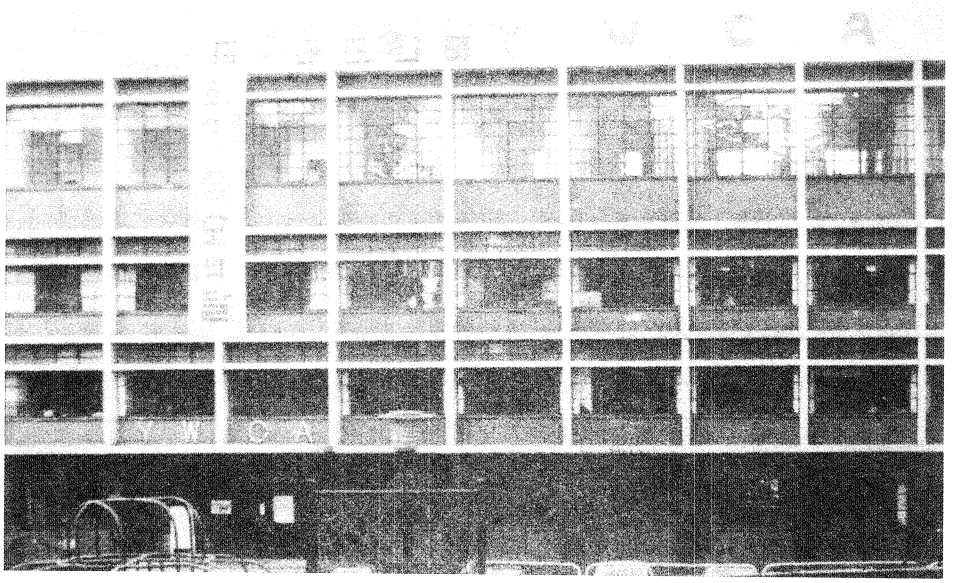
1945년부터 시작된 여성직업훈련사업은 1970년에 이르러 서울 Y독산동 근로여성회관을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직업개발 사업을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파출부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여성직업개발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도배 · 페인트 · 타일 · 감귤전정 · 제과제빵 · 요리사 · 환자 돕는 이 등 50여 종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12개 지방 YWCA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 31 개소를 지방 YWCA에서 무료직업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생활개선에 주력하였고, 소비자운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35개 지방 YWCA에서 소비자고발센터가 운영되어 연간 4만 6,000여 건의 고발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자연보호 · 자원절약운동으로 시작된 YWCA 환경운동은 1970년대에 수은건전지 수거운동 등 구체적인 실천운동으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물 · 공기 · 땅 오염방지를 비롯하여 자원재활용을 위한 물물교환 상설코너가 설치되었고 각종 환경캠페인을 전개하였다. 1988년에는 화장실 실태조사와 함께 화장실청결운동 전개,



한국YWCA(2002년)



기독교 여성봉사 단체 YWCA(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1990년대에는 쓰레기 줄이기 · 자원재활용 · 환경교육을, 1992년의 YWCA 아시아지역 환경회의 개최, 1994년 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 등 전국적으로 54개 지방YWCA에서 환경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1990년 5월부터 도덕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바른삶 실천운동은 "나부터 시작하자"는 구호 아래 밝은 가정,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장바구니들기운동 ·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장터 · 간소한 바른 결혼문화 정착캠페인 등이 계속 큰 호응을 받으며 펼쳐지고 있다.

현재 YWCA는 프로그램 중점사업으로 생명운동과 바른 생활 운동을 전개하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서는 가정과 자연과 인간의 질서회복,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직업개발 사업인 YWCA일하는 여성의 집, 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특별히 1995년 7월에는 '세계 YWCA 100주년기념 YWCA세계대회 및 세계 여성지도자회의(IWS)'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세계화정책에 부응하는 국제 운동체로서 한국 YWCA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현재 대한 YWCA연합회는 어린이부터 Y-틴, 대학생, 청년, 성인회원으로 구성된 350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54개 지회에서 16개의 복지관과 12개의 일하는 여성의 집, 27개의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은 크게 전국대회, 연합 회원회, 실행위원회, 행정 및 프로그램 위원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밖에 기획 · 인사 · 재정 · 홍보출판 · 지도력양성 · 청소년 · 직업개발프로그램 및 사회문제위원회 등의 조직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1997년 창립 75주년을 맞은 대한 YWCA연합회는 1998~2000년 3년 동안 생명운동 · 공동체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며 구체적으로는 폭력추방사업 · 여성지도력의 사회참여 ·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에 주력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②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 국민들 사이의 교육 · 과학 · 기술 · 문화 등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이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평화의 수호 역시 인간의 마음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헌장과 같이, 글자 그대로 평화의 상징이며 평화를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이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교육과 문화의 진흥,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염원하는 연합국 합의에 의해서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샌프란시스코회의가 끝난 5개월 후, 1945년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영국과 프랑스 공동주최로 런던에서 이 기구의 창설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44개국의 정부대표와 많은 옵서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표들은 연합국 문교장

유네스코회관(2002년)

관회의가 마련한 헌장 초안을 심의한 끝에 1945년 11월 〈유네스코헌장〉을 채택하였다. 조직은 총회 · 집행위원회 ·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원국의 국내위원회와 국제비정부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회원국은 188개국이며, 6개의 준회원국이 있다. 준회원국은 총회의 투표권이 없고 이사회의 직책을 맡을 수 없는 점 외에 회원국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주요활동은 각 국가 국민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국제협력의 추구, 대중교육과 문화보급의 추진 및 장려, 지식의 유지 · 증대 및 전파 등 그 활동영역이 광범위하다. 각국간의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판이 뒤따르기도 하였지만, 1950년의 제5차 총회에서 기본사업으로 이 기구의 항구적인 기능이라 할 일반사업과 회원국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수사업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 1949년 7월 5일 당시 대통령특사 겸 국제연합대표단장이었던 조병옥(趙炳玉)이 가입신청서를 주미 국제연합 연락관 아놀드를 통해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입신청은 절차에 따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심의와 이 기구 집행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당시 집행위원회의 의장이었던 모드(Mode,G.)에 의해 1950년 5월부터 6월까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개최된 제5차 총회에 인도네시아 및 요르단의 가입안과 함께 상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거수 표결에 붙여진 결과 참석회원국 총 32개 국 중에서 찬성 27표, 반대 1표, 기권 4표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가입하였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같은 해 6월에 이 기구의 5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가입이 승인된 뒤 뜻하지 않은 6 · 25전쟁의 발발로 국내위원회 설치의 겨를을 가지지 못하였던 정부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한국위원회의 설치에 노력하였다.

1952년 11월 제2대 국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유네스코헌장〉 준수서약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그 기반을 구획하였으며, 이어서 〈유네스코헌장〉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설치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국위원회의 성격 · 조직 · 기능 및 활동을 규정짓는 설치법의 초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초안이 완성되자, 설치준비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53년 7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설치령〉이 공포되어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3년 만에 국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설치령 공포에 이어 1954년 1월 30일 서울대

학교 강당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창립 이후 활발한 국내활동을 전개하였던 국내위원회는 1963년 4월 20일에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조직과 기능 면에서 보다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한국은 1987년 제24회 총회에서 집행위원국에 선출된 바 있다. 또한 1995년에 종묘, 불국사 석굴암, 팔만대장경이, 2001년에는 ≪직지심경요결≫ · ≪승정원일기≫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원래 이 기구는 여러 국민들 사이에 교육 · 과학 · 문화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며, 그 동안 문맹퇴치, 해양 및 환경개선연구, 고대문화유적복구, 각 국의 사상문학에 관한 문헌 번역소개, 대중매체 기술향상 등 20세기 후반 인류의 교육 · 과학 · 문화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제3세계 회원국들이 대거 가입하면서부터 정치색을 띠기 시작한 관계로 이 기구를 통한 동서대립의 양상이 첨예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화를 통한 위기극복의 의지가 강하게 표명되었고, 이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면서 차츰 제자리를 찾아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③ 중국대사관

㉠ 연혁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자리(명동 2가 83의 7)는 조선말에 포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살던 곳으로 그는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를 도맡아 하였다. 어찌나 무자비하고 가혹하였던지 저승에는 염라대왕, 이승에는 낙동대감이라하여 이경하를 낙동대감이라 불렀다. 박해받고 죽은 원한 품은 귀신들이 이 낙동대감댁을 울며 헤맨다하여 비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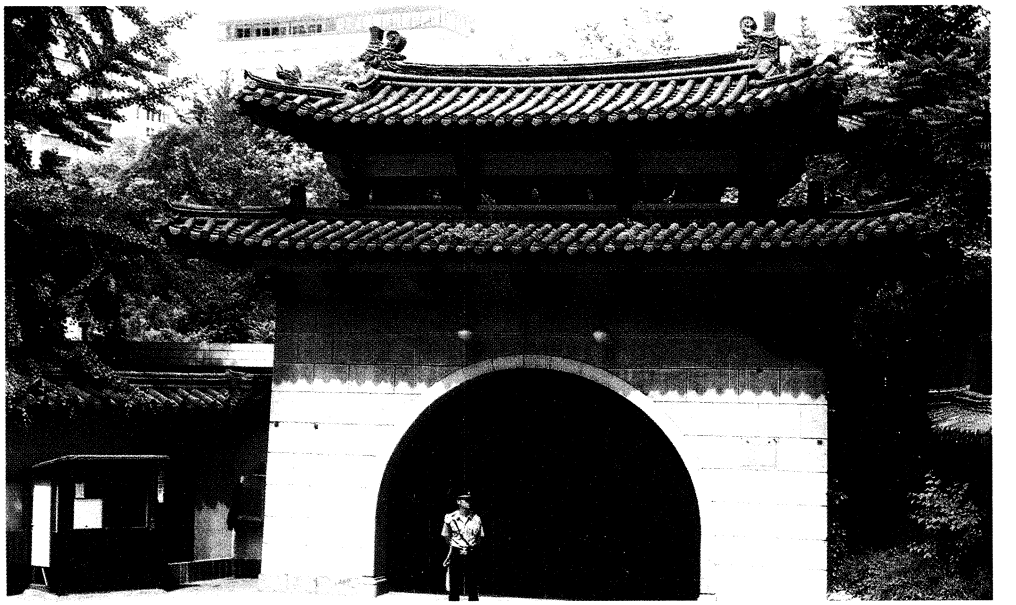
임오군란 이후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조청수륙무역장정에 따라 1883년 청나라 청국상무총판 진수당(陳樹棠)이 조선 정부에 중국총판상무위원공서(中國總辦商務委員公署)를 이곳에 설치한다는 제의에 따라 6,500평의 대지를 2천 냥을 지불하여 자리잡게 되었다.

이어서 원세개(袁世凱)는 통리조선통상교섭사의(統理朝鮮通商交涉事宜)라는 직함으로 이곳에서 머물면서 10여 년간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위엄을 뽐내었다. 그가 자리 잡고있는 낙동공관 인근에서 휘하 청병들의 횡포가 어찌나 심했던지 그 인근 거리를 '원대인진(原

大人陣) 앞'이라 하여 공포의 거리로 알려져 한국인들은 이곳에 나다니기를 꺼려하였다. 이곳은 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점으로 일본인이 차지하였으나 1920년대 중국과 일본의 국교가 재개되면서 중국인 소유로 되었다. 광복 후 중화민국 대사관으로 부활되었고,[328] 당시에는 부지가 6,400여 평에 달했으나 대만정부가 코스모스백화점 자리를 매각하고 지금은 대사관저의 2,973평과 1983년에 세운 대사관 옆의 한성화교학교 부지 2,173평 등 5,146평이 남아 있다.[329]

그러나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협정에 따라 한국과 대만은 1992년 9월 23일 오전 각각 대북(臺北)시와 서울에 있는 자국 대사관으로부터 완전 철수하였다. 대만은 이날 서울 명동의 대사관 열쇠를 한국 외무부 측에 넘겨준 뒤 한 대만간 연락업무를 맡을 참사관과 영사업무 담당자들만 남겨둔 채 모든 직원을 철수시켰다.[330]

따라서 한국은 정부수립 후 중화인민공화국과 냉전(冷戰)으로 국교가 중단되었다가 1980년대부터 경제적으로 무역, 스포츠 등 다각적 국제행사, 민간차원의 접촉과 교류가 시작되어 1991년에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북경에서 중국국제상회를 서울에서는 대표부를 개설하였다. 따라서 1992년에 8월 24일 한 · 중 양국 외무장관과 베이징에서 수교성명을 서명하고, 양 국



중국대사관(2002년)

가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수교 이후에 양국 정부는 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 해양수속협정, 세금이중부과 및 탈세방지에 관한 협정, 원자력 평화이해에 관한 협정을 잇따라 체결하여 양국의 국제무역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현재 중국대사관은 다시 건물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중국거리

현재 중국대사관 옆에는 한국 한성화교소학교가 있고, 학교 담장 아래 좌판 세 개의 간판없는 중국약재상이 있다. 한약재는 중국만의 비법(秘法)으로 가공된 약재들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약, 향료, 중국차, 소스, 정력제 등 각종 희귀한 약재들이 구경만해도 재미가 있다. 약재를 구입할 경우 주인이 친절히 설명을 붙여 주곤 한다.

여기에 서점도 한몫 분위기를 더해 주는데 이름하여 중화서국, 이는 이름에 걸맞게 중국 책만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한글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책은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없다. 중국 본토와 대만에 서 들여온 책들 뿐이다. 의학, 역학, 예술,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만날 수 있다. 그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의학과 역학이다. 워낙 방대한 분량의 책들이라 원하는 책이 없을 때는 주문하면 구해준다. 간판이 세월을 말해주듯 20년 이상의 전통은 수많은 단골을 낳았다. 유창한 중국어 실력의 아가씨가 원하는 책을 척척 골라주니 어휘력이 부족해도 구입에는 어려움이 없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을 위해 대만의 대중스타의 사진이나 음반도 함께 판매해서 중고생들도 자주 들린다.

또한 명동의 역사와 같이한 명동과자 전문점이 있다. 중국과자 전문점 도향촌은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주방장을 겸하는 주인아저씨는 과거 중국요리사에게 비법을 전수 받아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다.

과자의 종류는 약 20여 가지나 된다. 이중에서 월병, 도수, 부용고가 대표적인 과자이며, 도수는 2개 정도를 끓은 물에 넣고 끓이면 죽처럼 되는데 중국인들은 이것을 아침 대용으로 먹는다고 한다. 중국과자는 조리 때 물을 넣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제는 전혀 섞지 않는다고 한다.

④ 우정박물관

우정박물관은 충무로 1가 21번지의 서울중앙우체국 신관 4 · 5층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

우체부(19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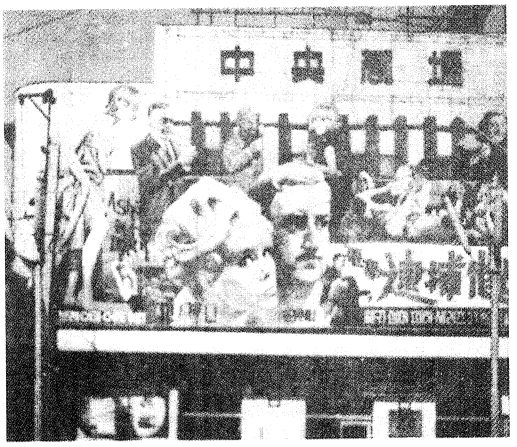
나라의 근대통신은 1884년 선각자 홍영식에 의해서 한성의 우정총국과 인천 우정총국 분국간에 우편업무를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갑신정변으로 업무개시 20일 만에 중단되는 비운을 거쳐 1895년 다시 우편사업이 재개되었으며 전신은 1885년, 전화는 1902년부터 실용화되었다. 우정박물관은 우정총국의 설치로 시작된 체신업무의 유서 깊은 사료를 와이드 칼라로 재현하고, 각종 사진 자료, 실물 등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전시하여 우정의 발자취 및 변천사를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자 설립하였다.

그 역사를 보면, 1938년 체신박물관을 개관하였고, 1945년 8월 체신부 청사 박물관으로 이전하였으나 1950년 6 · 25전쟁으로 청사를 소실하였다. 그 후로 1972년에 종로구 견지동에 체신기념관을 개관하여 잠시 있다가 185년에 서울중앙우체국에 임시우정박물관을 개관하여, 1994년에는 중수하여 재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2005년에 정보통신 종합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현재 제1 전시실은 통신의 역사, 전근대 통신, 한국 우정의 발자취, 우체통의 변천, 정보통신부 건물의 변천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제 2전시실에는 우표로 보는 우리나라의 역사, 우편 집배 업무용품, 한국의 우표와 엽서, 세계의 우표, 취미우표 판매에 관해 진열되어 있다.

⑤ 중앙씨네마

중구 저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극장은 종각역(지하철 1호선), 을지로 입구역(2호선), 명동역(4호선)에서 5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물은 외벽공사를 통해 깔끔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인테리어가 상당히 눈길을 끌만큼 인상적이다. 입구에 전자 게시판이 시간과 영화제목을 알려주며 매표소에선 작은 스피커를 통해 소통을 할 수 있다. 과거 서울 명동의 상징적 문화 공간으로 각인되었던 중앙극장은 4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1998년 11



중앙극장(1966년)
-「명동20년」에서

현재 중앙씨네마

월 28일 복합 3개관으로 재개관하면서 이름을 중앙씨네마로 바꾸었다. 중앙씨네마는 최근에 다시 5 · 6관의 두개 관을 추가로 열었다. 이 두개 관은 160석의 소형극장이지만 모두가 연인들만의 자리로 연인들을 위한 극장으로 차별화되었다. 그리고 의자의 시트가 훌륭하고 의자간의 간격이 넓어 편안하다.

중앙 씨네마는 특히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극장 로비는 카페분위기의 의자와 테이블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화장실은 상을 받은 만큼 깔끔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서 극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⑥ 세종서적 -명동문화의 자존심

1990년 명동유일의 서점이던 문예서점이 문을 닫게 되어 문화인들을 낙담시켰다. 지식인들은 1950년대 가난하던 시절부터 우리나라 문화의 등불이었던 명동이 산업화의 돌풍에 휘말려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게 되었다고 매우 실망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세종서적은 충무로 2가 61번지에 세종호텔 별관에 70여 평의 규모로 1990년 8월에 문을 열었다. 세종서적은 3년 만에 매장을 확장하고 8월 5일에 개장하였다. 4개 층 3백여 평의 서점과 1백여 평의 음반점을 합해 모두 4백여 평으로 매장을 대폭 확장하였다.

이 서점은 재 개장과 함께 지금까지 주고객이던 문예서점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국내도서 뿐만 아니라 수입도서도 취급하며, 주변의 회사원들의 고객을 인근의 대형서점

에 빼앗겼던 전문고급 독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당찬 영업전략을 세웠다. 관계자들은 명동의 비싼 땅값과 높은 임대료 등으로 서점이 자취를 감추어 버린 명동의 문화적 자부심을 걸고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됐다면서 세종서적을 명동, 나아가 서울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331]

(바) 기타

① 명동, 평화의 거리

명동일대가 화염병, 최루탄으로 얼룩졌던 1991년 당시 명동상인 2천여 명의 뜻을 받아들여 중구의회는 명동지역을 평화의 거리로 지정, 선포하였다. 이는 기초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조선일보 · 한국일보 등에서 대서특필되었으며, 이는 경찰, 학생들의 끝없는 대치상황을 대화국면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민뿐이라며 사명감과 함께 생업에 종사하는 명동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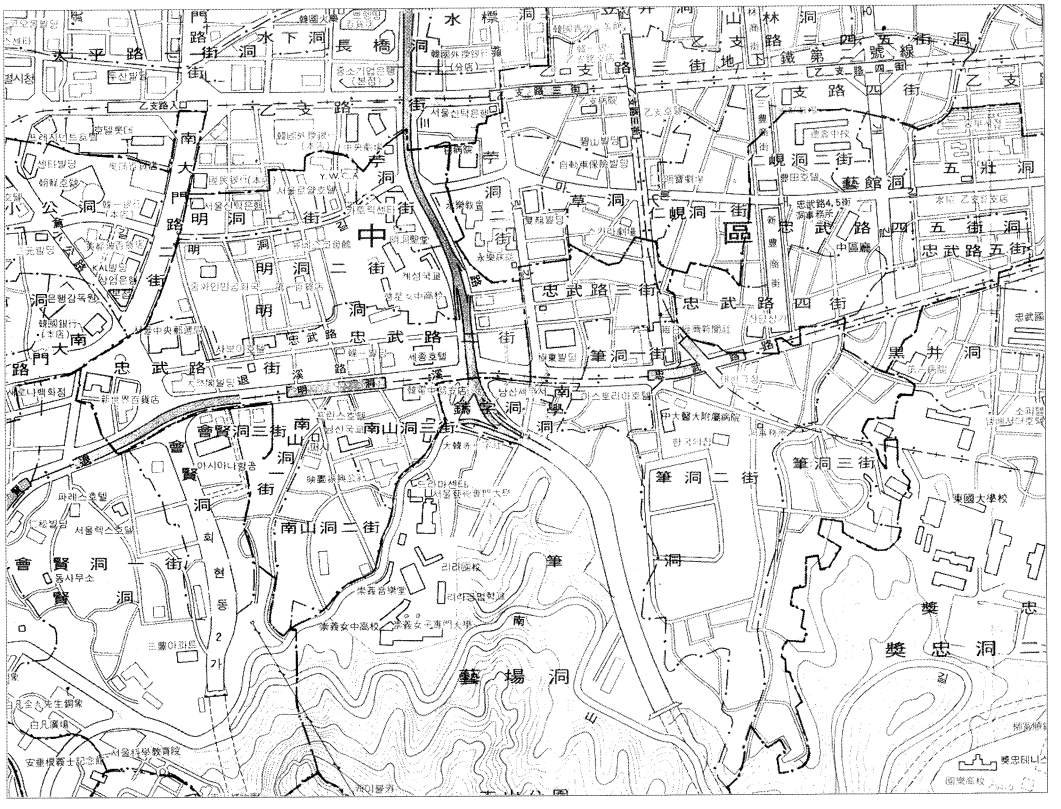
② 명동, 차 없는 거리

명동은 상인과 시민과의 사이에서 차 없는 거리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와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몇 번씩 번복되곤 하였다. 1973년 다시 명동은 2년 반만에 고유정취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명동은 원래 차 없는 거리로 고유한 멋을 지녀왔으나 1971년 4월 명동상인들의 끈질긴 진정에 따라 명동입구~코스모스 백화점~성모병원 앞으로 통하는 중심도로에 차량통행을 허용한 후 큰 혼잡을 벌여왔다. 따라서 1973년 9

명동거리(2002년)

월 16일부터 휴일에는 교통공해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내에서 가장 행인이 많은 명동거리에 대해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차량통행을 금지하기로 하였다.[332] 그 이후 또 1979년 6월 16일부터 차 없는 거리로 정하였다. 이는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휴식공간마련을 위해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저녁 12시까지 정하였다.

중구청은 1989년 9월 6일 노점상이 철거된 명동지역의 불법주차를 막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하기 위하여 20일부터 중심도로인 명동로와 충무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한 코스모스 백화점에서 삼일로로 이어지는 명동도로의 시영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그 대신 보도와 차도의 경계지역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명동일대에 새로 등장한 시민 휴식용 벤치를 서울시는 1989년 9월 20일부터 명동일대 주요도로의 차량 통행이 금지됨에 따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 1백여 개를 도로변에 설치하였다.[333]



명동 일대 지도(1993년)

당시 명동지역에 대한 차량통제는 이곳의 노점상이 철거된 뒤 크게 늘고 있는 불법주차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명동을 활기찬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였다.[334] 그러나 이전에 6백 여 노점상 자리에 불법주차만 가득할 뿐 철거전보다 오히려 더 복잡해서 시민들은 형평 잃은 처사라고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노점상들이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은 역시 서울 명동이다.[335] 프리미엄이 1,700만원 정도로 거래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붙박이 노점을 집중단속하곤 하였다.

③ 명동에 경찰견 출현

경찰견(警察犬)이 서울 명동에 최초로 투입됨에 따라 그동안 경찰들이 취객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다치던 일, 그 이외의 일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④ 누드쇼

영화홍보를 하기 위해 명동 상업은행 앞 사거리에서 1997년 10월 25일 개봉되는 누벨바그 영화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홍보를 위한 누드 바디 페인팅 쇼가 펼쳐졌다. 누드쇼에는 한국 누드모델 1명과 프랑스 주연 여배우 그리고 3명의 퍼포먼스 팀 등 모두 5명이 나와 40여 분간 영화의 내용을 재현했으며, 7백 여명의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뿐만 아니라 주위 빌딩에서는 회사원들이 창문을 통해 몸을 내밀며 이 광경을 구경하였다.[336]

현재 명동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건물이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을 수 없는 건축법에 있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을 헐고 다시 지으면 현재 건폐율을 적용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낡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동상가 번영회는 어떻게든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지만, 명동지역만 특혜를 줄 경우에 다른 지역과의 비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심 중에 있다. 명동이란 이름처럼 밝은 동네가 되려면 구석구석 낡은 집들을 허물고 보다 정돈되고 손님 맞을 준비가 된 명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현재 명동은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명동을 위해 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그 빛이 되살아나고 있다.

〈 김일림(金逸林)〉

(4) 활기를 되찾은 명동

1) 금융권의 변화

(가)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은 명동에 두 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 충무로 지점

1982년 12월 14일 : 명동 2가 83-5 코스모스빌딩 1층에서 개점.

1990년 6월 22일 : 현재(1997) 위치인 충무로 2가 64-5 한일빌딩 1, 2층으로 이전.

◇ 명동지점

1990년 7월 18일 : 명동 2가 코스모스빌딩 1층에서 명동출장소로 개점.

1993년 11월 12일 : 1997년 현재의 명동 1가 74-1번지로 이전.

1994년 12월 1일 : 지점으로 승격

(나) 한국상업은행

한국상업은행은 1972년 7월 13일 일반은행 중 국내 최초로 민영화 되었다. 그리고 1977년 9월 15일 은행권 최초로 서울~부산간 온라인이 가동되었다.

1990년 11월 1일 한국상업은행 명동지점은 국내은행 최초로 명동지점에 무인 365일 코너를 설치하였다.[337] 1992년 11월 15일에는 한국상업은행

명동성당이 보이는 진고개 일대(2002년)

명동지점장 사고가 발생하여 12월 2일에 김추규 은행장이 퇴임하고, 정지태 전무이사가 직무대행하게 되었다.[338]

1998년 7월 31일 한일은행과 합병을 공식선언하고, 8월 5일 합병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4일에는 합병계약서가 체결되었다. 9월 30일에는 합병승인 주주총회도 개최되었다. 1999년 1월 4일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열어 한빛은행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후 2002년 5월 20일 평화은행을 합병하여 우리은행으로 은행명을 변경하였다.

(다) 한일은행

1974년 신세계백화점과 제휴하여 은행정기예금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였고, 이듬해인 1975년에는 직장인 대상으로 카드발급을 확대하였으나 카드의 저변확대를 기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98년 8월 5일 한국상업은행과 합병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4일 합병계약서가 체결되었다. 1999년 1월 4일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통해 한빛은행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라) 한국외환은행

1978년 4월 한국외환은행에서는 비자 인터내셔날과 제휴하여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비자카드를 발급하였는데, 이것이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시초이다. 그러나 카드발급 대상과 가맹점의 제한으로 카드 보급이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1983년 구 내무부 자리에 본점을 신축하고 입주하였다.

(마)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1978년 무렵 국민은행 조사부에서 소비자 금융제도에 대한 연구개발을 거쳐 1980년 1월 16일 카드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9월 25일부터 카드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때 탄생된 '국민카드'는 범용성을 가진 최초의 실질적 은행계 카드였다. 이후 선발 5개 시중은행이 신용카드업무의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1982년 4월 은행신용카드협회를 공동출자하여 설립하고 같은 해 6월 은행신용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신용카드의 확산이 본격화하게 되었다.

(바) 중소기업은행

1961년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은 1990년 7월 24일 충무로 지점을 중구 남산동 1가 1-2번지에 개점하였다.[339]

(사) 신한은행

1982년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었고, 사채파동(私債波動)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채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제도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발표하였으며, 그 해 7월 28일에는 사채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단자회사 및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을 대폭 허용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금융자율화 정책으로 1982년 말까지 10개의 단자회사가 내인가를 취득하였고, 이 중 6개가 영업을 개시하였다. 제2금융권 설립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일반은행의 민영화와 대형화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1981년 한일은행이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을 신호탄으로 하여 1982년 9월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민영화되었고, 1984년 조흥은행도 민영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81년부터 신설은행의 설립을 검토하였다. 이때 정부가 신설을 검토한 은행은 재일동포 기업인들이 출자키로 한 신한은행과 미국 아메리카 은행(Bank of America)과의 합작은행인 한미은행, 그리고 중동계 은행 등이었다. 이 중 신한은행이 1982년 7월 7일 설립되었으며, 한미은행은 1983년 3월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중동계은행은 설립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1960년대 이후 설립

한국은행 앞의 조각 분수대(1979년)
-「한국의 여행」에서

이 규제되어 온 시중은행의 신설이 비로소 허용된 것이다.

재일동포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국내 교민은행 설립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다. 1973년 4월 10일 재일한국인상공회연합회 소속의 긴끼지구(近畿地區) 한국인상공회협의회가 오사카상공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교민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동포기업인들은 모국 투자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가 운전자금의 조달에 있다는 인식 아래, 오사카상공회가 추진해야 할 사업의 일환으로 재일동포의 힘을 모아 모국에 교민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1973년 9월 12일 모국진출 기업체를 지원할 '본국사무소 설립준비위원회'와 '교민은행 설립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74년 2월 5일 '재일한국인투자기업업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로 이름을 바꾼 후 1977년 8월 10일 한국에 단자회사인 제일투자금융(주)을 설립하였고, 1979년 4월 24일 주식회사 새서울상호신용금고(현 신은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였다.

이후 재일동포 기업인들의 은행설립 노력이 가속화 되어 1981년 9월 14일 제일투자금융 주식회사 3층 사무실에서 은행설립 발기인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주)신한금융개발의 본점소재지를 중구 을지로 2가 199-40번지로 정하고, 이사 이희건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튿날인 9월 15일 납입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신한금융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을 '은행업'으로 바꾸어 상호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다. 국내최초로 민간자본에 의한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은 초대 은행장으로 당시 한국증권거래소 전무이사였던 김세창(金世昌)을 은행장으로 영입하였다.[240] 신한은행은 명동에 명동지점과 충무로 지점을 두고 있다. 명동지점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341]

1982년 9월 13일 : 중구 명동 2가 83-5번지에서 개점.

1994년 1월 29일 : 1993년도 영업점 종합업적 평가대회 새싹대상 수상.

신한은행 충무로 지점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342]

1986년 2월 18일 : 중구 충무로 2가 62-10번지에서 개점.

1992년 11월 23일 : 중구 충무로 2가 65-4번지로 이전.

(아) 사채시장(私債市場)

사채시장은 금융기관의 융자가 아닌 개인 자금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사채시장은 자금의 수요 · 공급의 원리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공급량이 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 자금의 유통시장이다. 따라서 사채의 이자는 고리(高利)이다 .

사채시장은 주로 명동일대, 신사동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지역, 종로와 광화문을 일대 등 세 곳에서 주도해 왔다. 이들 중 명동 사채시장은 신용카드, 채권, 부동산 담보를 통한 대출이 주종인 다른 곳과는 달리 어음할인 중개상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될 때 가장 큰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광복과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한 명동사채시장은 5 · 16군사쿠데타를 거치면서 경제개발에 편승, 1970년대 초에는 '제3금융권' 으로 위세를 떨치기도 하였다. 사채시장은 1972년 8월 3일 사채의 고리를 단절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을 발동하여 월 3~4%의 고리를 3년 거치 5년 상환에 월 1.35%로 묶은 일이 있다. 당시 신고된 사채규모는 3,751억원으로 국내 여신의 35%, 5개 시중은행 대출금의 56.3%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그후 얼마간 사채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다시 유통량이 증가되었다. 그러다가 '큰손' 들은 1980년대 후반 당시에 활황을 보였던 부동산과 증시에서 큰 돈을 벌기도 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규모가 상당히 위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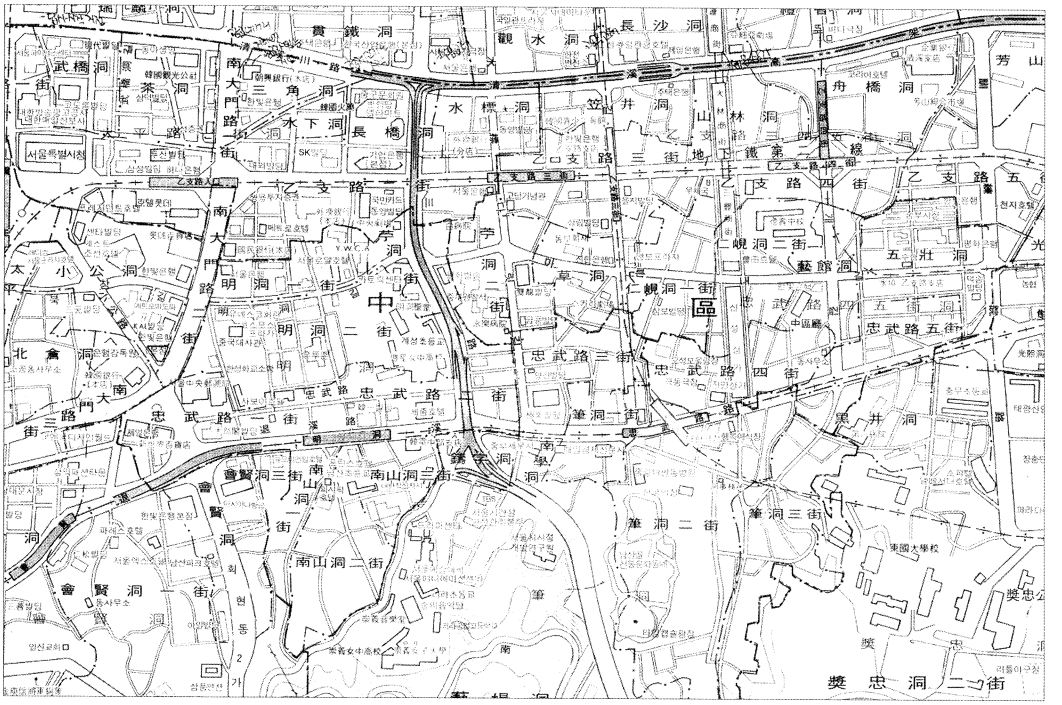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 사채시장은 1992년의 국민총생산 대비 9%에서 8.8.%로 소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1994년 사채시장의 규모는 국민총생산의 11.2%에 달하는 약 34조원이고, 사채금리는 연 24~36% 정도로 은행금리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동 사채시장은 하부조직인 현장수집상에게 국민주택채권, 전화채권 등을 몇 % 할인해 사도록 주문하면 하루만에 전국의 채권들이 현장수집상을 통해 명동의 채권사무실로 수집되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 지방에 있는 현장수집상들은 우편물로 채권을 부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명동에 모인 전국의 채권들은 국민주택채권, 지하철채권, 전화채권 등 같은 종류끼리 분류되어 큰 단위로 전문업자에게 매매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증권회사에 넘겨진다.[343]

2) 상가의 번영

1970년대에 서울시는 강북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책적으로 강남과 여의도를 부핵(副核)으로 집중 개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북지역은 각종 도시문제로 환경이 악화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다. 이시기 명동은 토지가의 앙등, 재개발붐, 건축규제완화, 자동차 통행(현 명동로)의 허가로 대형건축물이 대거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특히 남대문로 2가와 을지로 2가의 금융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간선도로변에 대형건축물이 상당수 들어서게 된다. 또한 명동2가 구역(명동2가 대부분과 충무1, 2가 대부분)이 재개발 구역으로 설정되어 도시계획안[344] 까지수립되었으나 주민의 반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퇴계로 부분에 면한 충무로 지역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1976년 3·1고가로의 건설로 저동 1가에서 충무로 2가에 이르는 도로가 크게 확장되면서 현재와 같은 도시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명동성당에서 구 내무부에 이르는 소로가 8m폭으로 확장되어 새로 생겼다. 또 재개발과 건축규제 완화로 대형건축물인 세종호텔, 신한은행, 중앙우체국, 국민은행, 외환은행이 간선도로변에 입지하게 되었다.



명동일대 행정구역도(2002년)

1970년대 명동은 재개발붐에 의해 외곽도로변과 중앙로변에 대형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주요 건축물로는 중앙우체국(1973)[345] 국민은행, 서울신탁은행[346] 코스모스 빌딩, 제일백화점[347] 로얄호텔, 세종호텔(구 수도여사대)이 있다.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되면서 토지가격이 앙등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투자수익이 비교적 낮은 유흥업종(술집, 다방, 싸롱, 음악감상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지만 이면도로와 저동로 지역에 상당수 분포하였다. 특히 1976년 당시 한국 예술의 요람지였던 구 국립극장이 문을 닫고 증권회사가 들어서면서 명동2가와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명동2가 구역은 업무시설과 유흥시설, 백화점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 한편 퇴계로에 면한 충무로 지역이 새롭게 금융지역으로 성장하게 된다.

1980년대에는 서울의 부핵지역인 영동, 잠실, 여의도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서 강북 도심부 환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개발, 도시설계가 본격화된다. 이 시기 명동은 1978년 재개발 사업이 계속 유지되지만 지역내 상인들이 연합하여 명동 보전위원회를 결성, 도시재개발을 저지시켜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변 도시설계[348]의 일환으로 저동 1가 일부와 을지로 2가 일부가 1983년 9월 30일자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1984년 4월 27일자로 사업계획결정이 완료되었다.[349] 이에 따라 을지로변은 고층건물화 되면서 재개발이 진행되었다. 한편 명동은 심각한 주차난과 강남지역의 상권확대로 기성품 중심의 대중 쇼핑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1980년대에 남대문로가 30m로 확장되면서 달러골목이 사라지게 되었고, 명동로 18m, 중앙로 10m, 충무로 10m, 중앙로 이면도로 5~7m, 중앙극장 뒤편도로 4~5m, 저동 1가의 소로 2~3m 등 비교적 다양한 가로들이 혼재하게 되었다. 한편 4개의 간선도로가 1중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중앙로가 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대형건축물이 속속 건설되었다.

1970년대의 재개발붐의 여파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시기에도 4개 간선도로변에 대형고층 건축물이 주변의 소규모 건축물을 잠식하게 된다. 주요 건축물로는 한국외환은행[350] 동양투자증권 · 대연각센타빌딩 · 쌍용투자금융 · 삼삼투자증권 등이 있다. 그리고 중앙극장 일대가 재개발 대상지로 계획이 완료되어 을지로변의 재개발 여파가 계속해서 명동 2가 지역으로 상향전진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명동은 4개의 간선도로가 1종 미관지구로 인해 고층 대형화되고, 내부 중앙로변 또한 고층화되었으나 비교적 명동2가 지역은 3~5층 규모의 중소형 건물이 존속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중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심각한 주차난과 강남지역의 상권확대로 유흥시설이 상당히 감소되었고, 명동2가 지

번화한 명동거리(2002년)

역의 고급양장, 양화점이 강남지역과 충무로 지역으로 자리를 내주게 되면서 기성품 중심의 대중쇼핑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명동은 아바타빌딩에서 명동성당까지 뻗은 300미터 길이의 중앙로와, 명동역 입구에서 을지로 입구까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이른바 300여미터의 패션거리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가리킨다. 명동의 중심지는 두 거리가 만나는 우리은행 명동지점앞 사거리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현재 명동에는 의상실, 제화점, 음식점, 레스토랑, 커피숍, 미용실 그리고 금융기관 모두 합해서 3,600여 점포가 있다. 이 중 의상실이 2,000여 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명동 중심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0.15평방킬로미터 정도이다. 그리고 적지않은 부분을 명동성당과 중국대사관, 화교학교가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좁은 면적에 수 천개의 상가가 들어선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일일 것이다. 명동을 찾는 인파는 하루 평균 100만명, 주말에는 150만명에 이른다. 그래서 명동은 남녀간의 첫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으면서, 아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 역시 가장 높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명동은 모여드는 인파의 남녀성비(性比)의 불균형이 심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남녀비율은 2대 8정도로 여성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주말 데이트를 나온 연인이 대다수였지만,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요즘은 여유롭게 손잡고 팔짱을 끼고 걸을 수가 없게되었는데 이는 여자들끼리 모여 쇼핑을 나서기 때문에 생

긴 현상이다. 좁은 면적에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명동의 특성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명동은 '패션의 1번지' '한국제일의 번화가'라는 명성을 압구정동을 비롯한 강남의 번화가에 빼앗긴 적이 있다. 외제 브랜드나 고가 패션매장이 강남 번화가나 대형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긴 때문이었다. 그 후 명동은 젊은 층을 상대로하는 중저가 의류매장이 들어서기 시작해 요즘의 명동은 10, 20대 여성의 거리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유투존, 브이 익스체인지, 트랜드20처럼 다양한 패션 의류점과 액세서리점, 화장품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한 건물에 모여 있는 대형 멀티숍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명동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만큼 땅값이 비싼 곳이다. 그런데도 고급 의류업체나 제화점에서 이곳에 판매점을 내는 이유는 이른바 명동매장이 '안테나 숍'으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해주기 때문이다. 안테나 숍이란 소비자의 기호와 선호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매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새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이곳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명동의 상권은 재편되면서 거리별로 전문화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신세계 백화점 앞 회현 지하상가에는 중고 LP레코드판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10여 개가 생겨 우리나라 '중고 LP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명동은 80년대 중반까지 만해도 음악 마니아들이 자주 찾던 곳이었다. 서울 중앙우체국 주변에는 용산전자 상가로 옮겨가기 전까지 고급 외제 오디오를 판매하던 상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오랜 연륜을 가진 악보 전문판매점인 대한음악사와 25시 음악사, 명동음악사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음악 마니아가 자주 찾는 부루의 뜨락도 이 주위에 자리잡고 있다.

1985년 명동2가의 11개 가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신발, 가방, 핸드백, 양품점, 양장점, 양복점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명동 2가에는 3~4층의 113동의 저층건물들에 총 227개의 상점이 들어서 있는데, 이들 유행업종이 130개의 상점으로 57.3%였다.[351]

명동은 1984년에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국제적 시범상가로 육성하려는 서울시 계획과 명동번영회가 주축이 된 「명동시범상가조성계획」이 추진되어 중앙로는 쇼핑몰 형식으로 개조되었다. 올림픽 이후에는 명동길 일대에 시간대별 차량진입 제한을 실시하고 노점상을 철거하는 등 명동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수준의 상점가로 조성하려 하였다.

쇼핑상가이며 예술의 거리였던 명동은 1970년대 일기 시작한 재개발붐으로 탈바꿈하였다. 외곽도로변과 중앙로변에 대형 고층건축물들이 상당수 들어서고, 명동2가와 중앙로를 중

심으로 업무시설과 유흥시설, 백화점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도심재개발과 이로 인한 이 일대 지가(地價)의 앙등으로 문인들이 자주 찾던 주점, 다방, 음악감상실이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거나 이전해 갔고, 1976년에는 국립극장이 문을 닫게 된다. 이 자리에는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이 새롭게 등장하여 명동은 한국의 「월 스트리트」로 변모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명동의 명성은 퇴락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1970년대의 재개발 붐 여파가 계속 진행되어 간선도로변이 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대형고층건축물들이 주변의 소규모 건축물을 잠식하게 된다. 내부 중앙로변 또한 고층화되나 명동 2가 지역은 3~5층의 중소형 건물들이 존속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상업활동에 있어서도 신도시 개발로 인한 상권의 분산으로 인해 고급 패션의류업체가 명동을 외면하기 시작하여 국내 톱 디자이너들의 매장이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의 강남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강남에 상권을 압도당하였다. 여기에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명동성당과 제일백화점을 중심으로 각종 정치 집회 및 시위가 상존하여 최루탄 가스가 명동거리에서 가실 날이 없는 시기를 맞이한다. 또한 한국 최고의 땅값을 자랑하는 우리은행 명동지점을 비롯, 대부분 지역이 평당 1억이 넘는 지가로 인해 명동내 점포 마련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절대부족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급 고객의 이탈로 명동의 상권은 위축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강남에 상권을 빼앗겼던 명동은 기성복 패션점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1990년대 들어 새롭게 활력을 찾고 있다. 특히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의 상권이 성수대교의 붕괴, 오렌지족의 쇠퇴 등으로 일시적으로 약화된 틈을 타 명동은 다시 쇼핑가 첨단 유행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1996년 명동의 유동인구는 평일 100~120만명, 주말 150~200만명으로 호황을 맞기도 하였다.[352]

1997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명동2가 명동 중앙로[353] 에 57개동의 건물중에 3~5층이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가로별로 건물의 입면을 재구성하여 층고를 맞춘 스카이라인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1983년 명동시범상가조성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층고가 비슷한 건물은 단일건물화하여 주변건물과 일체화를 꾀한 결과이다. 1997년 당시 명동 중앙로를 따라 22개의 전용건물과 35개의 범용건물로 구성되어 1층에 총 69개의 점포가 입점(入店)해 있었다. 이들 1층에는 의류, 제화, 패션잡화의 점포가 전체 점포의 85.6%로 '패션의 거리'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층 점포 69개 구성은 의류 30, 제화 20, 패션잡화

9, 음식판매 4, 은행 3개였다. 가장 많은 의류는 국산브랜드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중앙로 초입에는 국내 유수의 제화업소들이 모여있으며, 중심부인 유투존 주변에는 의류업, 퇴계로변에는 패션잡화매장이 많이 자리하였다.[354]

명동은 오래 전부터 명동을 살리려는 행정기관과 상가번영회의 활동이 있어 보행전용도로 위에 느티나무 가로수가 심어져있고, 보행자용 가로등시설이 되어있다. 중앙로는 1983년 명동시범상가 조성계획 당시 차도와 보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로 전구간을 화강암으로 포장하려 했으나 재원부족으로 시멘트 블럭으로 포장하였다. 한편 조명시설을 하여 야

명동상가 안내도(1995년)

간에도 쇼윈도우에 불이 켜져 있는 매장이 많으며, 이 쇼윈도우의 조명은 폐점 이후 인적이 없는 가로를 밝히는 기능도 하고 있다.

명동에는 단속을 피해 낮시간에는 은거하고 있다가 주말이나 밤시간에 주로 영업을 하는 노점상이 많이 있다. 손수레를 이용한 노점상 활동이 가장 많은데, 주로 보세옷, 가방, 악세사리 등 패션관련용품을 판매하거나 과일 등의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다. 명동의 상권은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한번쯤 찾게되는 서울의 명소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 (주)명동의류 법인이 설립되었다. 명동의류는 저렴한 가격, 편리한 쇼핑, 편리한 교환이라는 고객만족 3대 지침을 캐치프레이지로 내걸고, 1층은 잡화 란제리 코너, 2층은 화장품, 액세서리, 남성의류, 3층은 여성정장과 아동복, 4층은 여성 캐쥬얼 의류를 취급하고 있다. 명동의류는 원래 돈암동에서 의류점으로 출발하였는데, 1975년 명동에 진출한 의류전문 취급점포였다.

1994년 11월 엘칸토(주)에서 패션전문백화점 브이-익스체인지를 출범시켰다.

3) 백화점시대

1970년대 백화점 업계의 특징은 직영백화점과 임대(賃貸)로 운영되는 명목상의 유사 백화점 사이에 심한 우열의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직영백화점으로 출발한 신세계와 미도파는 오일쇼크에 의한 영향으로 구매력이 감퇴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상품의 전문화, 전문 경영인의 등용, 선진기법의 도입, 판촉전략의 수립 등으로 불황을 극복해 갈 수 있었다. 임대체제로 시작한 미즈, 가고파, 새로나, 제일 등의 백화점은 1년도 못 가서 도산하고, 주인이 바뀌는 등 부동산업자에 의한 백화점 경영의 무모함을 드러냈다.

백화점은 1975년 12월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상품권의 발행이 금지되자 침체를 겪기도 하였으나, 1977년 7월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상거래 질서 양양에도 큰 몫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재래시장의 혼란으로 고객이 백화점 등 근대화된 유통기구를 선호하게 되는 계기로 이어져 백화점은 점차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1980년대 10년간은 우리나라 백화점업계가 유통업계의 총아로 자리잡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점포수, 점포면적, 매출에서도 1980년 초에 비해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1980년에서 1983년 사이는 명동의 3개 백화점(신세계, 미도파, 롯데)이 백화점 업계를 3분하였는데, 이 때의 백화점 매장은 약 1만평 정도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백화점들은 복합시설을 갖춘 전생활 백화점을 지향하면서 롯데백화점은 명동본점을 신축하였다.

(가) 제일백화점

명동 제일백화점은 명동 패션의 메카였으나 현재로서는 제일백화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20년 정도 존속하였다고 한다.[355]

명동 제일백화점 강당에서는 매주 '맷돌'이라는 모임이 열렸다. 맷돌에서는 임문일, 4월과 5월, 이수만, 양희은, 전유성 등이 출연하여 노래를 불렀고,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면 언제나 무대 한 옆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이백천도 유명하였다. 당시는 요즘처럼 콘서트가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도 듣고 싶은 노래를 잘 들을 수 없었던 때였는데, 맷돌에서는 음료수 한잔 값의 입장료로 노래 부르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당시 대학생들에게는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곳이었다. 맷돌은 저렴한 입장료와 학교 발표회 같은 분위기로 유명하였다. 먼저 입장한 사람들은 위에 쌓여있는 의자들을 날라 자리를 만들고 앉아서 한잔씩 주는 음료수로 목을 축이며 노래를 듣기도 하고 나눠주는 악보를 보고 같이 노래도 부르던 모임이었다.

가수들도 와서 할 일이 있으면 마다 않고 입구에서 표도 받고 무대의 일도 보기도 하였다. 맷돌은 사회자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임문일, 이수만, 이백천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았고, 서강대를 다니던 임문일은 방송진행자로 이름을 날렸다. 임문일은 개그송이라 해서 "통닭, 통닭, 통닭, 통닭, 통닭 500원이란다~아아아~그렇지만 난 돈이 없어 못 사먹는다아~나중에 돈 벌면 많이 사먹으리……"란 내용으로 펄시스터즈의 '첫사랑'을 개사해서 부르기도 하였다.

맷돌의 객석과 무대의 간격은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4월과 5월이 공연하던 중 백순진이 앞 자리에 여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노래를 부르다말고 얼굴이 빨개지는 일도 있었다 한다. 맷돌 뒤에서 무대일을 하던 어니언스도 이 곳에서 노래를 하였고, 양희은은 「Try to remember」, 「Seven daffidils」, 「Day is done」 같은 팝송을 주로 불렀다. 정광태는 이장희의 흉내를 내 목소리를 깔고 우스운 얘기를 심각하게 하였는데, "제 연인의 이름은 한심이였습니다~"라고 하여 이장희의 '겨울이야기' 속의 경아를 한심이로 바꾸어

웃기기도 하였다. 개그맨 박성원도 이곳의 단골 이야기 손님이었는데, 그는 꽃만두를 요리하는 과정을 푸짐한 몸을 귀엽게 흔들면서 어느 요리 연구가의 흉내를 내가면서 맛있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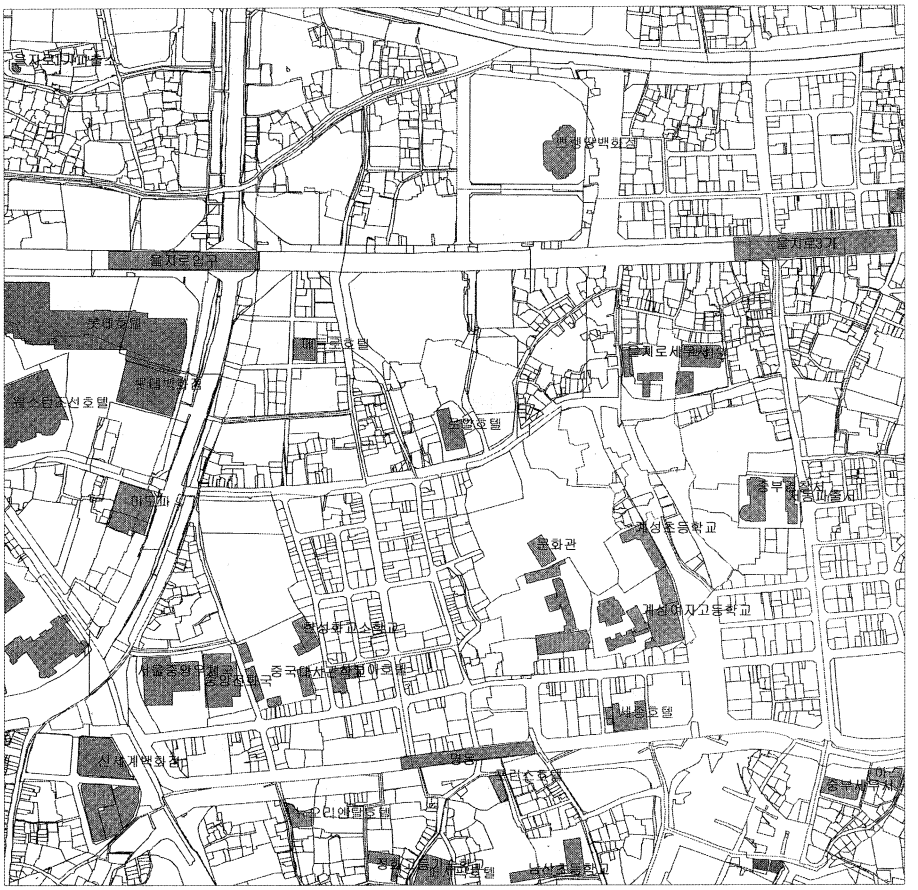
이렇게 대학생을 울리고 웃기던 맷돌은 일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명동 패션의 메카로 군림하던 제일백화점은 20대 여성을 위한 패션 전문매장으로 탈바꿈하여 유투존으로 문을 열었다. 유투존은 패션 잡화 및 액세서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서 쇼핑에 편리하다. 유투존 입구 주변에서는 수시로 이벤트가 열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각층마다 섹션에 맞게 나누어 놓아서 백화점 못지 않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의류매장이, 4층에는 동서양의 메뉴를 즐길수 있는 깔끔한 식당가가 있으며 1층에는 맥도날드 매장이 있다.

2002년 7월 5일 의류업체 신원(회장 박성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명동빌딩(옛 제일백화점)이 801억원에 팔렸다. 신원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산업은행 계열사 코람코와 최종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원은 1998년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해오다 2001년 9월 자율추진기업으로 전환된 후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명동빌딩 매각을 추진해왔다. 2002년 4월 코람코와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작업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356]

(나) 코스모스 백화점

코스모스백화점은 1970년 11월 25일 명동2가 83-5번지 코스모스 빌딩에서 재일동포 정규성이 개점하였는데, 매장면적은 19,.814㎡였으며 임대백화점으로 운영되었다. 코스모스백화점이 들어선 건물 코스모스 빌딩은 1969년 9월 삼신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하여 신축하였다. (주)코스모스는 1966년 4월 10일 (주)삼양관광으로 설립되었으며, 1969년 11월 27일 (주)한일관광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코스모스 백화점 개관 이후인 1974년 4월 10일에는 회사명까지 (주)코스모스로 변경하였다.[357] 이 코스모스 백화점은 국내 최초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화제가 되었다. 1979년에는 카드발급을 시작하여 유통계 카드의 발급경쟁을 확산시켰던 백화점이다. 그러나 이 카드는 고정고객의 확보와 자사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소매카드였으므로 회원범위가 좁고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결국 코스모스 백화점은 1982년 3월 24일 폐업하여, (주)코스모스는 사무실 임대업으로 전업하였다가 2002년 쇼핑몰 아바



명동 일대 지도 (2002년, 1/6,000)

타로 되었다.

(다) 아리랑백화점

아리랑 백화점은 1971년 2월 18일 명동에서 개점하여 KS, SF 상품을 직판하였다.

(라)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1979년 12월 17일 중구 소공동 1번지에서 개점하였고, 대표 강진우가 취임하였다. 롯데백화점 구관 건물은 롯데백화점이 개점하기 2년 전인 1977년 4월 삼신엔지니어

링에서 설계하여 신축하였는데 연면적은 94,800㎡이다. 신관은 역시 삼신엔지니어링에서 1984년 10월 설계하여 신축하였고, 연면적은 60,200㎡이다.

롯데백화점의 모기업인 롯데그룹은 1979년 '롯데쇼핑'을 개설하여 유통업에 참여하였다. 당시 국내 재벌기업들은 기존의 슈퍼체인, 연쇄점을 인수하거나 신규 개설하여 유통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롯데는 당초에는 외국인 면세백화점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하였는데, 백화점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79년 10월 25일 대통령으로부터 내국인 백화점으로 최종 결재를 얻어 백화점 업계에도 진출하게 되었다.[358]

롯데백화점은 개점하던 해(1979)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상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카드회원이 제한적이었다.

1997년 현재 매장면적은 23,635㎡이며 1,8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종업원수는 782명이고 전문식당수는 13개이다. 명동 롯데백화점의 경우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 고른 분포의 소비자가 찾는 곳인데, 서울의 서부지역 보다는 북부, 남부, 동부지역에 살고 있는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고, 경기도 의정부, 파주시, 수원시에 살고 있는 소비자가 이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마) 미도파백화점

광복 이후 중앙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미도파 백화점은 동화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잔류 종업원들만으로 영업을 하였다. 중앙백화점은 적산으로 구분되어 미군정청이 접수하여 미군 전용 PX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이때 모든 상품과 종업원은 동화백화점으로 넘어갔다. 그 후 6 · 25전쟁이 끝나고 새로 문을 열 때까지 중앙백화점은 백화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1948년 한국무역협회에 불하되었다. 무역협회는 이를 인수하여 1층은 임대하고 2,3층은 협회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 당시 1층의 임대수입이 무역협회의 재정적 기반을 조성해 주었다. 미도파는 1954년 10월 1일부터 무역협회 건물 지하와 1~3층의 매장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955년 11월 15일 종로구 종로1가 49번지에 신신백화점이 대지면적 1,678평, 건평 1,463평의 2층 건물에서 임대백화점으로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신신백화점은 화신백화점의 분신이었는데, 신신백화점의 탄생으로 백화점 업계는 동화 · 미도파 · 신신 등 3개의 상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1950년대 3개의 백화점은 임대(賃貸)백화점으로서 백화점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으나, 이들 중 미도파 백화점이 1950년대의 임대백화점

미도파백화점

으로서는 독보적인 존재였다.[359]

미도파백화점은 1964년 8월 31일 주식회사 무역회관으로 발족하였는데, 1969년 5월 20일 주식회사 미도파백화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71년 5월 27일 대농에서 미도파를 인수하였고, 1973년 11월 1일 명동점을 개수하고 완전직영체제로 재개점하였다. 1975년 미도파섬유를 합병하고, 12월 12일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이후 가고파백화점 · 대농건설(주) 등을 흡수합병하고, 1984년 10월 15일 주식회사 미도파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92년에 상계점, 1996년에는 춘천점을 개점하였다. 1998년 5월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 9월에 결정되었다.[360]

대형 유통업체로서 각 지역에 가맹점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입업, 각종 물품제조 및 도산매업, 공공문화사업, 각종 접객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도 겸하고 있다. 2001년 6월 말 현재 총자산 5314억 원, 매출액 3799억 원, 당기순이익은 336억 원이었다.

〈 홍윤정(洪允靜)〉

< 참고문헌 >

- 서울특별시, 「명동지구 재개발사업계획에 관한 연구」, 1978.
- 京城居留民團役所, 『京城發達史』, 1912.
- 京城府, 『京城府史』, 1936.
- 김영상, 『서울육백년』, 대학당, 1994.
- 김태웅, 1910년대 경성부 유통체계의 변동과 한상의 쇠퇴,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 김효천, 『돌아온 명동백작』, 동협상사, 1978.
- 박경룡, 『개화기 한성부 연구』, 일지사, 1995.
- 박경룡, 『서울사화』, 정음문화사, 1986.
- 박경룡,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중구문화원, 2000.
- 박경룡, 『한성부 연구』, 국학자료원, 2000.
- 朴珍, 『歲歲 千年』 – 한국의 연극 비장의 화제, 경화출판사, 1966.
- 白寬洙, 『京城便覽』, 홍문사, 1929.
- 서울특별시, 『서울건축사』, 1991.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Ⅱ(중구편) 제2판, 1992.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1권~제5권, 인물편, 1977~1993.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향토서울』 제43호, 1985.
- 서울학연구소, 『서울상업사연구』, 1990.
- 서울학연구소, 『조선후기 서울의 사회와 생활』, 1998.
-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연구』, 1994.
- 新世界百貨店, 『新世界 25년의 발자취』, 1987.
- 유지광, 『정치 주먹 천하』, 광복서, 1978.
- 윤인석, 『서울건축사』, 서울특별시, 1999.
- 이경재, 『서울정도 육백년』, 1995.
- 이계창, 『법정에서의 진실』, 카돌릭출판사, 1991.
- 이규태, 『이규태의 600년 서울』, 조선일보사, 1993.
- 李鳳九, 『명동 20년』 –그리운 이름따라, 유신문화사, 1966.

○ 李鳳九,『명동 비내리다』, 경미문화사, 1978.

○ 李鳳九,『명동, 그리운 사람들』 일빛, 1992.

○ 李鳳九,『明洞』-세월따라 바람따라, 삼중당, 1967.

○ 李鳳九,『明洞』, 삼중당, 1967.

○ 李鳳九,「哀歡깃든 명동, 어제와 오늘」,『한국의 여행』 1, 삼중당, 1973.

○ 이원순, 한국카톨릭 문화활동과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 이혜은, 경성부의 민족별 거주지분리에 관한 연구-1935년을 중심으로,『지리학』, 제29호, 1984.

○ 임정의 편저,『명동성당 100년』, 코리언북스, 1998.

○ 장호근,『명동황제』 1~3권, 1999.

○ 정승모,『서울의 사회풍속사』, 서울학연구소, 1995.

○ 정재성 외 2인,『서울근현대 역사기행』, 혜안, 1998.

○ 朝鮮王朝實錄

○ 朝鮮總督府,『朝鮮に於ける支那人』, 1924.

○ 朝鮮總督府,『朝鮮土木事業誌』, 1937.

○ 朝鮮總督府,『朝鮮と建築』, 1937.

○ 조풍연,『서울잡학사전』, 정동출판사, 1989.

○ 중구문화원,『중구문화』, 1997.

○ 천주교서울大敎區,『서울大敎區 敎區總攬』, 카톨릭출판사, 1984.

○ 최남진,『明洞 夜話』, 신원문화사, 1982.

○ 최완기,『한양』, 교학사, 1997.

○ 카톨릭중앙의료원,『카톨릭중앙의료원 50년사』, 1988.

○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서울특별시),『문학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화』, 1994.

○ 박경룡,『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서울편, 한국관광공사, 1987.

○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 허문영,『明洞夫人』, 대한출판사, 1964.

○ 황현,『매천야록』

○『光海君日記』

○『東國文獻備考』

< 주(註) >

1) 최남진, 『明洞夜話』, 1982, 신원문화사, 257쪽.
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260쪽.
3)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260쪽.
4)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제2판 『洞名沿革攷』Ⅱ, 중구편, 1966, 93쪽.
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276쪽.
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제2판 『洞名沿革攷』Ⅱ, 중구편, 1992, 382쪽.
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제2판 『洞名沿革攷』Ⅱ, 중구편, 1992, 395~396쪽.
8) 『현종개수실록』7권, 현종 3년 6월 갑진조.
9) 『예종실록』6권, 예종 1년 7월 갑오조.
10) 朝鮮總督府, 『朝鮮土木事業誌』, 1937, 1023~1024쪽.
11) 『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5월 기유조.
1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79, 1467쪽.
13) 『순종실록』1권, 순종 1년 10월 17, 18, 19일조.
14) 서울의 일본인거류지역은 이른바 거류지가 아니며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조선인과 그 밖의 외국인이 잡거(雜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일본영사관에 특허신청을 했으며, 또 일본영사관은 무슨 권한으로 이를 특허했는지 알 수 없다. 아마 사실상에 있어 진고개 좌우 일대의 지역이 일본인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처럼 되어 있었고, 일본영사관은 한국정부를 어느 정도 무시한데서 이루어진 월권행위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79, 286쪽).
15) 「조선일보」 1991년 11월 5일자. [600년 서울-尹善道宅]
1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1993, 847쪽.
1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1993, 1436쪽.
18) 박경룡, 『서울史話』, 1986, 정음문화사, 139~142쪽.
19)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1993, 779~780쪽.
20) 『순조실록』9권, 순조 6년 6월 신축조.
21)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1993, 148쪽.
2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1993, 1315쪽.
23) 『東國輿地備考』2권, 漢城府 第宅條.
24)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1993, 852쪽.
2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1993, 1274쪽.
2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人物篇, 1993, 456쪽.
27) 『東國輿地備攷』2권, 漢城府 第宅條.
2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육백년사』 인물편, 1993, 687쪽.
29)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육백년사』 인물편, 1993, 139쪽.
30) 『광해군일기』118권, 광해군 9년 8월 을사조.
31) 『고종실록』22권, 고종 22년 5월 갑진조.
32) 김영상, 1994, 『서울 육백년』 2, 265~266쪽.

33) 윤인석, 각종건축, 1999, 서울건축사, 서울특별시, 739~741쪽.
34)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4권, 1981, 342쪽.
3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81, 342쪽.
3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81, 342쪽.
3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81, 342쪽.
3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81, 342쪽.
39)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81, 342쪽.
40)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81, 343쪽.
41)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서울편, 1987, 270쪽.
4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4권, 1981, 344쪽.
43)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79, 306쪽.
44) 『朝鮮と建築』, 昭和 12년(1937), 11월호, 54쪽. 黃玹, 『梅泉野錄』 卷1, 上, 癸未條.
45)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서울편 1987 p.241
46) 『京城府史』 第2卷에 보면 경성영사관 건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그(영사관) 청사는 명치 18년(1885) 이래로 조선인 가옥을 사용해 온 것이므로 그 규모가 극히 협소하여 집무상 불편함이 적지 않았으므로 다른 곳에 신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 명치 28년(1895) 7월에 그 위치를 선정하고 그 자리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옥에 대한 退去料 지불도 마쳤다. 당시에는 부지의 구입이라는 관례가 없었으며 가옥을 매수하면 그에 딸린 토지는 당연히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

그런데 領事는 청사 내의 장식 기타 전부의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7월 7일부터 이전, 집무를 개시하였으며 경찰관서 · 순경합숙소 및 남대문과 용산의 양 경찰관파출소는 翌 30년(1897) 1월 1일에 모두 이전하였다. 영사관의 위치는 진고개와 남대문의 중앙 즉 오늘날의 本町(충무로) 1가 입구로서 현 三越 京城支店과 貯蓄銀行이 자리잡고 있는 부지의 전부와 그 후방 일대의 지점이다.」

47) 京城居留民團役所, 『京城發達史』, 1912, 171쪽. 京城府, 『京城府史』, 1936, 744쪽.
48) 京城府, 『京城府史』 제2권, 1936, 825쪽.
49) 新世界百貨店, 『新世界 25년의 발자취』, 1987, 49쪽.
50) 『京城發達史』, 1902, 362쪽.
51) 김영상, 1994, 『서울 육백년』, 대학당, 40~41쪽.
52) 이혜은, 경성부의 민족별 거주지분리에 관한 연구 - 1935년을 중심으로, 지리학, 제29호, 1984, 20~36쪽.
53)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연구』, 247쪽.
54) 朝鮮總督府調査資料 7, "朝鮮に於ける支那人" 1924, 47쪽 ; 譚永盛, "朝鮮末期 淸國人에 대한 硏究", 14~16쪽. ; 최남진, 1982, 『명동야화』, 신원문화사.
55) 이경재, 『서울 정도 육백년』, 300~308쪽.
56) 『京城府史』 2권, 573~574쪽.
57) 이경재, 『서울정도 육백년』 3, 진고개, 1994, 53~63쪽.
58) 『新版 大京城案內』, 京城都市文化硏究所 1936년 발행, 56~62쪽.
59)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1924, 76~79쪽.
60) 김태웅, 『1910년대 경성부 유통체계의 변동과 한상의 쇠퇴』, 『서울의 상업사』, 태학사, 2000, 453~483쪽.
61) 정재성외 2인,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혜안, 1998, 220~221쪽.
62) 『서울六百年史』 제 4권, 501~503쪽.
63) 허영란, 『일제시기 서울의 생활권적 상업과 소비』, 『서울 상업사』, 태학사, 2000, 515~522쪽.

64) 박경룡,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중구문화원, 2000년 12월
65) 『朝鮮の市場』, 272~276쪽.
66) 김정기, 「1890년 서울상인의 撤市同盟罷業과 시위투쟁」, 『한국사연구』 67, 1989, 86쪽.
67) 이봉구, 「哀歡깃든 명동, 어제와 오늘」, 『한국의 여행』 1, 삼중당, 1973, 146쪽.
68) 白寬洙 편, 『京城便覽』, 弘文社, 1929, 219~226쪽.
69) 『관광공사 25년사』, 1987, 97쪽.
70) 이봉구, 1992, 『명동, 그리운 사람들』, 일빛, 27~34쪽. 오장환은 1937년에 성벽, 1938년에 헌사, 1946년에 병든 서울 등이 있는데 1948년에 월북하였다.
71) 김영상, 『서울 육백년』, 1994, 288~294쪽. 이원순, '金範禹家 論考', 『한국카톨릭 문화활동과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462~467쪽.
72) 김정신, 『종교건축』, 『서울 건축사』, 서울특별시, 1999, 704~718쪽.
73) 김영상, 『서울육백년』, 대학당, 288~291쪽.
74) 『중구지』, 932~934쪽.
75) 임정의 편저, 『명동성당 100년』, 코리언북스, 1998, 19~23쪽.
76) 『중구지』, 933~934쪽.
77) 『사진으로보는 근대한국』(上): 산하와 풍물, 서문당, 51쪽.
78) 『뮈델주교 일기』(1), 126~127쪽.
79) 명동본당의 초기의 교세는 1894년 792명, 1900년 1,161명, 1904년 1,426명, 1910년 1,657명, 1924년 2,054명으로 점점 증가하였다. 天主敎서울大敎區, 『서울大敎區 敎區總攬』, 카톨릭출판사, 1984, 709쪽.
80) 청년연합회에서 병원설립목적은 천주교인들의 증가에 따라 카톨릭의료기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의료활동이 교리전파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카톨릭중앙의료원, 『카톨릭중앙의료원 50년사』, 1988, 54~55쪽.
81) 카톨릭 중앙의료원,『카톨릭 중앙의료원 50년사』, 56~64쪽.
82) 최남진, 『明洞夜話』, 1982 시원문화사, 67쪽.
83) 최남진, 『明洞夜話』, 1982, 신원문화사, 61~65쪽.
84)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5권, 1983, 1213쪽.
8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5권, 1983, 1214쪽.
8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5권, 1983, 1214쪽.
8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5권, 1983, 1215쪽.
88) 최남진, 『明洞夜話』, 1982, 64~66쪽.
89) 최남진, 『明洞夜話』, 신원문화사, 1982, 88~89쪽.
90)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5권, 1983, 1323쪽.
91)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5권, 1983, 1323쪽.
9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5권, 1983, 1324쪽.
93) 『中區誌』, 1994, pp. 703~709.
94) 최남진, 『明洞夜話』, 신원문화사, 1982, 139~142쪽.
95) 최남진, 1982, 『명동야화』, 신원문화사.
96) 최남진, 『明洞夜話』, 1982, 34~38쪽.
97) 장호근, 『명동황제』 1권, 출판시대, 1999., 145쪽.
98) 최남진, 『明洞夜話』, 1982, 158~160쪽.
99) 최남진, 『明洞夜話』, 1982, 153~154쪽. 유지광, 『정치 주먹 천하』, 광복사, 1978, 94~100쪽.

100) 최남진, 『明洞夜話』, 1982, 161~162쪽. 유지광, 『정치 주먹 천하』, 광복사, 1978, 298~302쪽.
101) 최남진, 『明洞夜話』, 1982, 139~146쪽.
102) 장호근, 『명동황제』 2권, 출판시대, 1999., 54~72쪽.
103) 『월간조선』 2001년 11월호, 「韓國 組暴의 歷史와 系譜」.
104) 장호근, 『명동황제』 2권, 1999, 254~274.
105) 장호근, 『명동황제』 3권, 1999, 8~31쪽.
106) 『월간조선』 2001년 11월호, 「韓國 組暴의 歷史와 系譜」.
107) 이봉구, 『명동, 그리운 사람들』, 일빛, 1992,
108) 이경재, 『서울 정도 육백년』, 61~63쪽.
109) 서울특별시, 『시민이 뽑은 서울명소 600선』, 1994, 110쪽.
110) 학원출판공사, 『세계대백과사전』, 1994, 459~461쪽.
111) 『동명연혁고』, 199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377쪽.
112) 노천명, 『노천명 시집』, 1972, 118쪽.
113) 전사편찬위원회, 『6 · 25전쟁사』개정판 제1권, 1979, 637~642쪽.
114) 「한국일보」1965년 8월 1일자.
115) 「조선일보」 1959년 1월 30일자.
11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통사』하, 1973, 602쪽.
117) 김태선, 「시장 5년」『삼천리』1 · 2, 1956, 54쪽.
118) 김태선, 「시장 5년」『삼천리』1 · 2, 1956, 55쪽.
119) 김한, 「明洞 小考」,『중구문화』창간호, 1997, 28~29쪽.
120) 최남진, 『明洞 夜話』, 신원문화사, 1966, 113쪽.
121) 이봉구, 『明洞 비내리다』, 1978, 경미문화사, 252~253쪽.
122) 「조선일보」, 2002년 4월 25일자.
123) 서울특별시, 「명동지구 재개발사업계획에 관한 연구], 1978, 7쪽.
124) 「동아일보」1958년 11월 4일자.
125) 「동아일보」1958년 11월 16일자.
126) 「한국일보」1955년 12월 7일자.
127) 「한국일보」1955년 11월 29일자.
128) [조선일보], 1958년 9월 27일자.
129) 「조선일보」 1961년 6월 2일자.
130) 「조선일보」 1963년 12월 25일자.
131) 「조선일보」 1992년 12월 25일자.~1999년 12월 25일자.
132) 서울특별시, 「명동지구 재개발사업계획에 관한 연구」, 1978, 11쪽.
133) 2000년 저동1가, 충무로1가, 충무로2가, 명동1가, 명동2가, 남산동1가, 남산동2가, 남산동3가, 장교동, 무교동, 다동, 태평로1가, 을지로1가, 을지로2가, 남대문로1가, 삼각동, 수하동, 수표동과 예장동의 일부, 남대문로2가의 일부 상주인구는 2,830명이다.
13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5권, 1983, 1323쪽.
135) 강훈덕 「서울백경-명동」『여성백과』, 1991년 2월호.
136) 李鳳九, 「哀歡 깃든 明洞, 어제와 오늘」『한국의 여행』, 146~147쪽.
137) 「조선일보」 2002년 8월 17일자.

138) 「조선일보」 1982년 12월 2일자.
139) 「조선일보」 1983년 11월 30일자.
140) 「조선일보」 1967년 3월 31일자.
141) 「조선일보」 1997년 9월 23일자.
142) 「조선일보」 1997년 9월 23일자.
143) 「조선일보」 1970년 3월 31일자.
144) 중구문화원, 『중구문화』 창간호, 1997, 36~39쪽.
145) 「조선일보」 1961년 9월 22일자.
146) 「조선일보」 1961년 9월 26일자.
147) 「조선일보」 1961년 9월 29일자.
148) 이봉구, 「哀歡깃든 명동, 어제와 오늘」, 『한국의 여행』 1, 삼중당, 1973.
149) 「조선일보」 1966년 8월 19일자.
150) 「조선일보」 1968년 8월 27일자.
151) 「조선일보」2000년 1월 7일자.
152) 「조선일보」2002년 6월 7일자.
153) 「조선일보」 1966년 9월 30일자.
154) 「조선일보」 1967년 3월 31일자.
155) 「조선일보」 1967년 7월 1일자.
156) 「조선일보」 1967년 6월 17일자.
157) 「조선일보」 1967년 9월 11일자.
158) 「조선일보」1973년 9월 18일자.
159) 김한, 「明洞 小考」, 『중구문화』 창간호, 1997, 29쪽.
160)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발견』 서울편, 1983, 164~165쪽.
161) 柳敏榮, 『韓國劇場史』, 한길사, 1982.
162) 「조선일보」 1974년 8월 22일자.
163) 「조선일보」 2002년 7월 15일자.
164) 「조선일보」 2002년 8월 17일자.
165) 「조선일보」 2002년 8월 8일자.
166) 「조선일보」 1963년 3월 2일자.
167) 최남진, 1982, 『명동야화』, 신원문화사, 249~250쪽.
168) 이봉구, 1966, 『그리운 이름따라—명동 20년』
169) 「조선일보」 1972년 2월 12일자.
170) 「조선일보」, 1976년 3월 3일자.
171) 「조선일보」, 1996년 6월 4일자.
172) 「조선일보」, 1996년 9월 9일자.
173) 「조선일보」, 1966년 8월 19일자.
174) 「조선일보」, 1968년 8월 27일자.
175) 이봉구(1916-1983) 는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 1943년부터 매일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등의 기자생활을 해왔으며 1966년 제 15회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의 문단활동은 「출발」을 『중앙』지에 발표하여 데뷔했으며 그후 오장환, 김광균, 서정주 등과 『시인부락』『풍림』『자오선』등의 동인으로 활약했다. 작품으로는 장편 『서

울의 연인』『인생신록』『여수』와 단편 『명동엘레지』『풍토』『선소리』 등 다수가 있으며, 수필집으로는 『명동 20년』 『명동비내리다』가 있다.

176) 「조선일보」, 1994년 8월 26일자.

177) 「조선일보」, 1981년 12월 19일자, 문화의 거리 명동 현장을 찾아서.

178) 「조선일보」, 1984년 1월 22일자.

179) 이봉구, 1992, 『명동, 그리운사람들』, 일빛

180) 최남진, 1982, 『명동야화』, 신원문화사, p. 254

181) 명동의 은행권에 대한 서술은 집필계획에 따라 1950, 1960년대와 1970년~2002년까지로 나누어각각 4장과 5장에서 서술해야 하지만, 각 은행과 명동과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각은행의 명동지점에 대한 서술을 시대로 구분하여 서술하기 어려워 설립연대와 맞추어 일괄적으로 서술하였다.

182) 조흥은행, 『조흥은행 백년사』, 1997, 825쪽.

183) 조흥은행, 『변화와 혁신의 105년』, 2002, 678쪽.

184) 조흥은행, 『조흥은행 백년사』, 289쪽.

185) 조흥은행, 『조흥은행 백년사』, 821쪽.

186) 조흥은행, 『변화와 혁신의 105년』, 2002, 741쪽.

187) 국민은행 본점은 중앙무진주식회사 자리였던 현재의 중구 남대문로 1가 9-1번지였다. 국민은행이 주택은행과 합병된 이후 국민은행 명동본점으로 되었다.

188) 일반은행의 금액별 대출액을 보면 10만원 이하는 총대출액의 6%미만이었으며, 50만원 이하를 포함시킨다하더라도 총대출액의 20%내외를 차지할 뿐이었다. : 국민은행 시장개발부, 『국민은행 30년사』, 1993, 90쪽.

189) 국민은행 시장개발부, 『국민은행 30년사』,1993, 832쪽.

190) 한국상업은행, 『전국점포안내』

191) 한일은행, 『한일은행 50년사』, 1987, 1313쪽.

192) 한일은행, 『한일은행 50년사』, 1987, 1293쪽.

193) 한일은행, 『한일은행 50년사』, 1987, 1245쪽.

194) 한일은행, 『한일은행 50년사』, 1987, 1322쪽.

195) 한일은행, 『한일은행 50년사』, 1987, 1293쪽.

196) 제일은행, 『제일은행 70년사』, 1999, 556~557쪽. 1999년 현재는 중구 명동 2가 83-5(코스모스빌딩)에 있다.

197) 이곳은 통감부 이사청이 있던 자리였다. : 제일은행, 『제일은행 70년사』, 1999, 588쪽.

198) 제일은행, 『제일은행 70년사』, 1999, 594쪽.

199) 제일은행, 『제일은행 70년사』, 1999, 661쪽.

200) 한국주택은행, 『한국주택은행 30년사』, 1997, 31~38쪽.

201) 한국주택은행, 『한국주택은행 30년사』, 1997, 848쪽.

202) 한국주택은행, 『한국주택은행 30년사』, 1997, 842쪽.

203) 한국외환은행, 『한국외환은행 20년사』, 1987, 20~25쪽.

204) 한국외환은해, 『한국외환은행 20년사』, 1987, 198쪽.

205) 한국외환은행, 『한국외환은행 20년사』, 1987, 182쪽.

206) 한국외환은해, 『한국외환은행 20년사』, 1987, 198쪽.

207) 한국외환은행, 『한국외환은행 20년사』, 1987, 183쪽.

208) 현재는 한국증권거래소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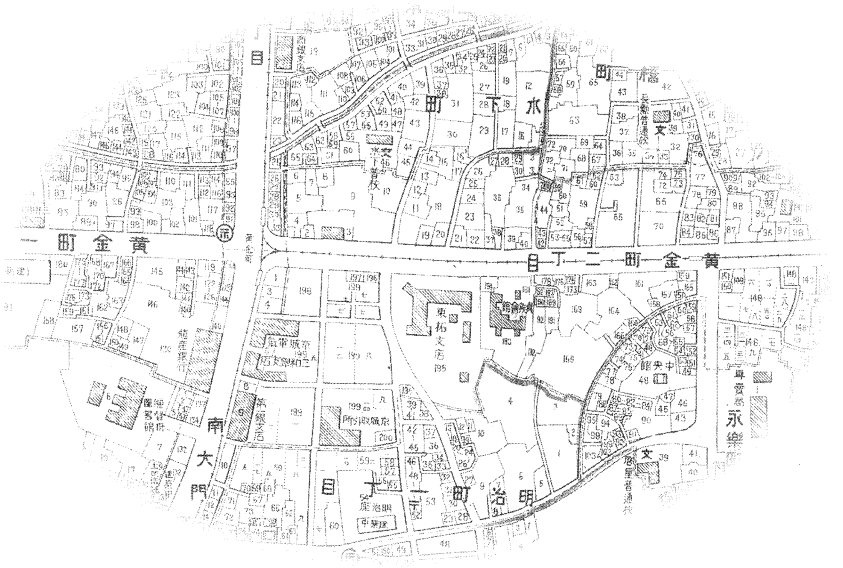
209) 한국상업은행, 『한국상업은행 100년사』, 1998, 451쪽.
21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통사』, 하권, 1973, 371쪽.
211) 이성욱, 「한국근대문학과 도시성문제 : 도시문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12) 「조선일보」 1957년 7월 20일자.
213) 「조선일보」, 1957년 1월 27일자.
214) 「조선일보」, 1958년 5월 7일자.
215) 「조선일보」 1961년 7월 10일자.
216) 「조선일보」, 1965년 12월 23일자.
21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6권, 1996, 50쪽.
218) 「조선일보」 1972년 2월 12일자.
219) 「조선일보」 1972년 11월 24일자.
220) 「조선일보」 1973년 12월 16일자.
221) 「조선일보」 1980년 9월 11일자.
22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6권, 1996, 966쪽.
223) 「조선일보」 1978년 11월 18일자.
224) 「조선일보」 1979년 6월 17일자.
225) 「조선일보」 1971년 5월 18일자.
226) 「조선일보」 1974년 5월 21일자.
227) 「조선일보」 1980년 1월 29일자.
228) 「조선일보」 1989년 7월 19일자.
229) 「조선일보」 1989년 7월 23일자.
230) 「조선일보」 1987년 2월 7일자.
231) 「조선일보」 1987년 6월 12 · 16일자.
232) 「조선일보」 1987년 6월 16일자.
233) 「조선일보」 1987년 11월 25일자.
234) 「조선일보」 1987년 12월 24일자.
235) 「조선일보」 1990년 5월 10일자.
236) 「조선일보」 1990년 10월 11일자.
237) 「조선일보」 1991년 5월 15일자.
238) 「조선일보」 1992년 2월 23일자.
239) 「조선일보」 1995년 6월 17일자.
240) 「조선일보」 1996년 7월 23일자.
241) 「조선일보」 1999년 12월 11일자.
242) 「명동신문」, 2001년 3월.
243) 「조선일보」 2002년 2월 26일자.
244) 이계창, 『법정에서의 진실』, 1991, 14~19쪽.
24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6권, 1996, 1907쪽.
24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6권, 1996, 54쪽.
247) 「조선일보」 1980년 1월 15일자.
24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6권, 1996, 55쪽.

249) 서울특별시, 「명동지구 재개발사업계획에 관한 연구」, 1978, 21쪽.
250) 중구문화원, 『중구문화』 창간호, 1997, 30~31쪽.
251) 「조선일보」 1980년 12월 25일자.
252) 서울특별시, 「명동지구 재개발사업계획에 관한 연구」, 1978, 7쪽.
253) 조풍연, 『서울잡학사전』, 1989, 정동출판사, 115쪽.
254) 「조선일보」 1987년 7월 1일자.
255) 「조선일보」 1992년 8월 16일자.
256) 「동아일보」 1971년 12월 25일자.
257) 조풍연, 『서울잡학사전』, 1989, 정동출판사, 136면.
258) 조풍연, 『서울잡학사전』, 1989, 정동출판사, 140쪽.
259) 「조선일보」 1989년 7월 19일자.
260) 「조선일보」 1986년 10월 21일자.
261) 「조선일보」 1982년 12월 2일자.
262) 「조선일보」 1982년 12월 2일자.
263) 「명동신문」, 2001년 6월 18일자.
264) 「조선일보」 1984년 12월 16일자.
265) 「조선일보」1984년 12월 15일자.
266) 「조선일보」 1985년 1월 19일자.
267) 「조선일보」 1989년 9월 22일자.
268) 「조선일보」 2000년 10월 11일자.
269) 「조선일보」 1981년 12월 19일자.
270) 「조선일보」 1999년 4월 3일자.
271) 「조선일보」 1990년 1월 6일자.
272) 「조선일보」 2000년 1월 7일자.
273) 「조선일보」 2000년 4월 12일자.
274) 「조선일보」 2001년 11월 23일자.
275) 「조선일보」 1982년 11월 5일자.
276) 「조선일보」 1993년 8월 14일자.
277) 「조선일보」 1992년 11월 16일자. 1992년 11월 18일자.
278) 최남진, 『明洞夜話』, 1982, 244~245쪽.
279) 「조선일보」 1992년 11월 29일자.
280) 「조선일보」 1997년 5월 11일자.
281) 「조선일보」 2002년 2월 19일자.
282) 최남진, 『明洞夜話』, 1982, 신원문화사, 89쪽.
283) 「조선일보」 1996년 7월 31일자.
284) 「조선일보」 1993년 12월 1일자.
285) 「조선일보」 1997년 1월 12일자.
286) 「조선일보」 1997년 3월 14일자.
287) 「조선일보」 2000년 12월 2일자.
288) 「조선일보」 1981년 12월 19일자.

289) 「조선일보」 2002년 8월 17일자.
290) 「조선일보」 1981년 12월 19일자.
291) 「조선일보」 1981년 12월 19일자.
292) 「명동신문」, 2000년 4월호.
293) 중구문화원, 『중구문화』창간호, 朴正典,「명동, 문화 · 예술인의 고향」1997, 104쪽.
294) 「조선일보」 2002년 3월 8일자.
295) 서울시, 『市勢一覽』, 1948, 10~11쪽.
296) 「조선일보」 1994년 6월 23일자.
297) 「조선일보」, 1996년 5월 13일자
298) 「조선일보」, 1998년 10월 30일자
299) 「조선일보」, 1993년 3월 21일자.
300) 「조선일보」, 1998년 10월 30일자
301) 「조선일보」, 1988년 5월 22일자.
302) 「조선일보」, 1979년 7월 24일자
303) 「조선일보」, 1996년 6월 4일자.
304) 「조선일보」, 2001년 10월 9일자
305) 「명동뉴스」, 2001년 10월 15일자
306) 「중구신문」, 2000년 9월 4일자. 「명동은 6백년 고도의 서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명동길 480미터의 구간으로 패션에 어울리는 디자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보행자의 편의를제공하고 있으며, 이 거리에서 사이 길들을 패션의 거리, 이상의 거리, 주점의 거리, 공연의 거리 역사의 거리, 다방의 거리 통기타의 거리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놓았다. 총예산은 약 17억 원이 투입되었다.」
307) 「중구신문」, 2000년 4월
308) 회장 김장환, 부회장 김순도(명동), 김영남(남대문), 황원철(북창동), 감사에는 유기용(남대문), 김현동(북창동), 간사는 주장건(세종호텔)이 선출됐다.
309) 「중구신문」, 2000년 6월 5일자.
310) 「조선일보」, 1998년 3월 27일자.
311) 「조선일보」, 1998년 5월 29일자, 북달재 성당
312) 「조선일보」, 1998년 3월 27일자.
313) 「조선일보」, 1998년 11월 28일자, 12월 5일자, 장덕필 주임신부.
314) 「조선일보」, 1999년 4월 26일자.
315) 「조선일보」, 2000년 12월 27일자.
316)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교회와 역사』, 137호, 1쪽.
317) 「명동뉴스」, 2002년 6얼 15일자.
318) 「명동뉴스」, 2002년 4월 15일자.
319) 「조선일보」, 1997년 7월 14일자.
320)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발견』 서울편, 1983, 164~165쪽.
321) 柳敏榮, 『韓國劇場史』, 한길사, 1982.
322) 「조선일보」 1974년 8월 22일자.
323) 「조선일보」, 1995년 4월 29일자, 5월 10일자, 5월 15일자, 10월 8일자.
324) 「조선일보」, 2000년 6월 30일자, 7월 4일자.

325) 「조선일보」 2002년 7월 15일자.
326) 「조선일보」, 2002년 8월 23일자.
327) 「조선일보」, 1995년 5월10일자.
328) 「조선일보」, 1991년 12월 14일자, 袁大人陣
329) 「조선일보」, 1992년 8월 23일자, 대만대사관터 어떻게 되나?
330) 「조선일보」, 1992년 9월 24일자.
331) 「조선일보」, 1993년 8월 7일자.
332) 「조선일보」, 1973년 9월 16일자.
333) 「조선일보」, 1989년 9월 22일자.
334) 「조선일보」, 1989년 9월 7일자.
335) 「조선일보」, 1988년 10월 28일자.
336) 「조선일보」, 1997년 10월 24일자.
337) 한국상업은행, 『한국상업은행 100년사』, 1998, 454쪽.
338) 한국상업은행, 『한국상업은행 100년사』, 1998, 454쪽.
339) 중소기업은행 조사협력부, 『중소기업은행 40년사』, 2001, 639쪽.
340) (주) 신한은행, 『신한은행 10년사』, 1997, 114~132쪽.
341) (주) 신한은행, 『신한은행 10년사』, 1997, 729쪽.
342) (주) 신한은행, 『신한은행 10년사』, 1997, 737~738쪽.
343) 세종증권 회장 金亨珍의 인터뷰.
344) 서울특별시, 「재개발 사업계획에 관한 연구(명동2가구역)」, 1978.
345) 구 경성우체국을 허물고 김수근씨가 설계한 현재의 중앙우체국이 들어섬.
346) 구 상공부가 자리를 옮기면서 신탁은행이 들어서게 된다.
347) 1960년대 말까지 명동공원, 코리아나 백화점(3층), 제일백화점(1976)
348) 서울특별시, 「서울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Ⅰ)」, 1983년 2월 4일자.
349)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 사업 연혁 및 시행절차」, 1986, 11쪽.
350) 동양척식회사가 광복 후 내무부로 쓰이던 것은 1978년 철거하고 1983년에 현 한국외환은행을 건립.
351) 정상용, 「도심지 상가 가로변 상점입면 구성에 관한 유형조사 · 연구-서울 명동2가 지구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5~18쪽.
352) 「조선일보」, 1996년 6월 3일자.
353) 상업은행 명동지점에서 제일백화점 건물에 새로이 들어선 대형 패션전문점 유투존을 지나 퇴계로에 이르는 총 연장 330m의 구간.
354) 김수정, 「상업가로 활성화 요인 · 특성에 관한 연구 -압구정동, 명동의 소가로를 대상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7, 44~56쪽.
355) 곽영수, 『백화점 이야기』, 매일경제신문사, 1993, 12쪽.
356) 「매일경제」 2002년 7월 6일자.
357) 매일경제사, 『2001 회사연감 CD-롬 타이틀』, 2001.
358) 곽영수, 『백화점 이야기』, 매일경제신문사, 1993, 24쪽.
359) 곽영수, 『백화점 이야기』, 매일경제신문사, 1995년, 17~18쪽.
360) 매일경제신문사, 『2001 회사연감 CD-롬 타이틀』, 2001.

부 록



◇ 명동 관련 연표

◇ 명동 지역 지도

◆ 김정호의 수선전도(首善全圖 : 1840년)

◆ 서울지도(1902년)의 명동지역

◆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 : 1908년)의 명동지역

◆ 경성시가명세도(京城市街明細圖 : 1918년)의 명동지역

◆ 대경성정도(大京城精圖 : 1936년)의 명동지역

◆ 서울상계약도(商界略圖 : 1955년)의 명동지역

◆ 서울안내(案內 : 1961년)의 명동지역

◆ 서울지도(1993년)의 명동지역

< 명동관련 연표 >

조선시대

1559년	설화문학가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이 명례방에서 출생
1597(선조30년) 겨울	명장(明將) 양호(楊鎬)가 남대문에 걸려 있던 원각사종을 명례동현(明禮洞峴), 현재 명동성당이 자리잡고 있는 고개 위로 옮김
1751(영조27년)	『수성책자(守成冊子)』를 간행 반포할 때, 금위영(禁衛營) 좌정(左停)에 지금의 명동지역 일부를 포함시킴
1784(정조8년) 겨울	남부 명례방 중국어 역관 김범우(金範禹) 집에 한국내 최초의 천주교회 설립. 북경에서 세례(洗禮)를 받은 이승훈(李承薰)이 귀국 후 세례를 베풂
1882년 8월 8일	임오군란 후 제물포조약으로 일본군 2개 중대가 명동1가(장악원 뒷터) 등 3곳에 주둔
1883(고종20년) 9월 7일	회현방(會賢坊) 낙동(현 명동2가 83번지)에 청국공관 완공. 진수당이 2천냥에 대지 6,500평 구입
1883년	김 가밀로의 명의로 쁘랑주교가 전 이조판서 윤행임(尹行恁)의 아들 윤정현(尹定鉉)의 집을 매수하여 명동성당 터를 마련
1884년	낙동(駱洞 : 현 중앙우체국 뒷편) 한옥에 독일공관이 임시로 들어섬. 1886년 11월에 박동(磚洞)으로 이전
1987(고종24년) 2월	명동에 진출한 일본상인들이 경상의회(經商議會)를 조직
1887(고종24년)	명동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현 등성이를 깎아 집터 조성
1887(고종24년)	일본공사관 아래 주자동에 일본식 고급요정 정문루(井門樓) 개업
1888(고종25년) 3월	프랑스 신부가 명동 천주교회 고아원 설치
1888(고종25년) 10월	진고개 부근에 제일은행 인천지점의 출장소 설치
1890(고종27년)	명동 언덕 위에 2층의 벽돌집 主敎館을 세움
1892(고종29년) 5월 8일	1885년에 입국한 코스트(Euqene Joan Gorge Cost)신부의 설계로 종현성당의 정초식(定礎式) 거행
1894(고종31년)	갑오개혁때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명동지역이 한성부 남서 명례방 명동계 명동 · 종현계 종현동, 저동계 저동 · 장악원계 장악원동 · 소룡동계 소룡동 · 대룡동계 대룡동으로 됨
1895(고종32년)	조선의 위생고문 나협수웅(瀨脅壽雄)이 명동 2가 25번지 부근에 병원을 개설하였다가 일본으로 귀국함
1895(고종31년) 8월	일본인 거류민과 영사관이 진고개~남대문간의 도로개수 작업
1896(건양1년)	일본 해군 군의(軍醫) 안전양(安田穰)이 해군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나협수웅이 개설한 한성병원을 인수하여 개원함
1896(건양1년) 12월 30일	일제가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일대의 터를 매입하여 일본영사관 청사 신축
1897(광무1년)	일본 상인들이 충무로입구에 일본인 상업회의소 설치
1898(광무2년) 5월 29일	고딕(Gothic)식 건물 종현성당 축성
1899(광무3년)1월 30일	최초의 민간은행인 대한 천일(天一)은행 창립(한국상업은행의 전신)

1902(광무6년) 11월 명동의 경성학당에 신문-잡지종람소 설치. 신문 13종, 잡지 17종 비치

1903(광무7년) 2월 제일은행 인천지점의 서울출장소가 경성지점으로 승격

1904(광무8년) 2월 18일 러일전쟁으로 일본군이 진고개의 일본가옥들과 장악원(을지로 2가, 외환은행 본점) 등 각처의 한국건물에 분산 주둔

1904(광무8년) 충무로 2가~충무로 5가까지의 도로 확장 · 개수

1905(광무9년) 2월 1일 을사조약 체결로 일본영사관이 폐지되고 이 청사에서 경성이사청 업무 시작

1905(광무8년) 3월 일본공사 임권조(林權助)가 해군성의 동의를 얻어 한성병원(명동 2가 25번지)을 일본거주민 공립병원으로 고치고 시설 확장

1906(광무8년) 5월 제일은행 경성지점이 한국총지점으로 승격

1906(광무10년) 한성병원을 개축, 확장함

1906(광무10년) 일본식 유도 도장 우찌다 도장[內田道場]을 명치정(明治町 : 명동)에 설치

1906(광무10년)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인 미스코시(三越) 오복점(吳服店)이 사보이호텔 자리에 3층 목조건물로 개점. 1929년 9월 미스코시 경성백화점으로 승격

일본인들이 진고개를 낮추고 길을 닦아 현대식 도로를 만들고, 높이 5척의 방추형태의 하수도 설치

1907년 11월 일본 거류민단이 코리안 워터 워크사(Korean Water Works Co.)와 일본 거류민단역소(日本居留民團役所), 일본인 학교, 유치원, 병원 등에 매일 90,000가론씩의 무상 급수와 비상시에 임시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계약 체결

1908(융희 2년) 일제가 장악원 자리에 조선의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한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1909(융희 3년) 일본상인들이 금융의 제공에 대해 이식(利息)을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저축회(貯蓄會)라는 무진(無盡)업체를 설립

1909(융희 2년)10월 29일 조선은행 설립

1909(융희 2년)11월 경성이사청 업무 폭증으로 청사가 협소해져 본관 동쪽에 1개 동의 청사를 완공

일제침략기

1910년 일제는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고 경성이사청건물을 경성부청사로 사용. 1926년까지 사용하다가 현재의 시청으로 이전

1910년 10월 1일 한성부 남서 명례방이 경성부 명동이 됨

1911년 4월 1일 경성부를 5부 8면제로 바꾸면서 경성부 남부 명동이 됨

1911년 현 외환은행 본점 자리에 르네상스풍 목조 2층건물로 동양척식회사 경성지점 준공

1912년 6월 명동성당에 프랑스인 신부 1명이 거주

1912년 명동 2가 85번지에 도소매 사설시장으로 경성어시장(京城魚市場) 설립 허가. 남대문로 3가 110번지에 조선은행 건물 준공

1913년 4월 1일 남부 명례방 장악원동 · 명동 · 소룡동 · 대룡동 · 종현동 · 저동, 회현방 구남부동을 경성부 명동으로 정함

1913년 4월 일본 거주민공립병원 임대문제로 폐쇄함. 수용된 환자는 총독부병원에 옮김.

1914년	명치정 우편소 설치
1915년	충무로 입구에 있던 경성 우편국과 세종로에 있던 체신국 사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무선전화 송수신 시험 실시
1915년	충무로 1가 21번지 자리에 경성우체국 준공
1918년	현재의 롯데백화점 자리에 조선식산은행 설립
1919년 10월 29일	경성부 소유의 명치정(明治町) 공설시장(명동 2가 25번지) 허가
1919년	벨기에 영사관건물을 일본의 횡빈생명보험회사(橫濱生命保險會社)에 매각하고 충무로 1가 18번지로 이전
1920년 12월	경성부에서 15,290원을 들여 명동 2가 25번지에 점포수 16개 총면적 226평의 명치정 공설시장 설립
1921년 2월 21일	경성부 본정 2정목 92번지에 한성은행 본정파출소(조흥은행 명동지점의 전신) 개점
1921년 7월 18일	한성은행 본정 파출소 본정 2정목 89번지로 이전
1921년 8월 1일	등전장태랑(藤田長太郎)이 저동 2가 79번지에 일용품 소매의 영락정 시장을 허가 받음
1921년 9월 1일	본정 2정목의 한성은행 본정 파출소가 본정 출장소로 승격
1921년	남대문로 2가에서 소림(小林)양복점 개업. 1934년에 조지아(丁字屋)백화점으로 발전
1922년	충무로 1가 45번지(전 원호청 건물)에 의류전문백화점 미나카이(三中井)백화점 설립
1922년 10월 5일	명동 2가 25번지 한성병원의 건물을 개수하여 경성부립도서관 개관
1922년 12월	을지로 2가 199번지에 경성현물시장 건물 준공
1923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다방의 효시가 되는 후다미(二見)다방이 본정과 명치정에 세워지고, 본정 진고개 2정목의 식료품점 가메야(龜玉) 안에 금강산 다방 개업
1923년	을지로 2가 198번지에 일본생명 사옥 건축
1924년 8월 1일	한성은행 본정출장소가 본정지점으로 승격
1925년 6월	충무로 2가에 혼마치(本町)빌딩 신축. 철근콘크리트조와 목조 · 조적조가 혼합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내에서 최초로 빌딩이라는 명칭 사용
1926년 12월 28일	나석주가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 투척
1926년	신세계백화점 자리의 구 경성부청을 헐고 그 빈터를 낙천지(樂天地)로 호칭
1926년	충무로1가 51번지(현재 대연각 빌딩 자리)에 재고품을 판매하는 히라다백화점(平田百貨店) 설립
1926년	남대문로 1가에 현대식 백화점과 유사한 금강상회(金剛商會) 잡화점 개설
1927년 5월	명동의 경성부립도서관이 소공동의 대관정 건물로 이전
1927년 8월 1일	충무로 3가에 본정 신(新) 시장 설립
1928년 12월	을지로 2가에 경성전기회사(한성전기회사-한미전기회사-경성전기회사) 사옥 준공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1929년	현 미도파 백화점 자리에 현대식 대형 점포를 신축
1930년 10월 17일	낙천지(樂天地)를 미쓰코시 오복점(三越五服店)이 불하받아 대지면적 730평, 건평 435평, 연건평 2,300평의 4층 현대식 대형 점포를 준공

1930년	충무로 2가 63-1번지에 메이지제과(明治製菓) 매점 준공
1931년 9월 26일	조선천주교회는 일본 동경주재 교황사절 문히주교를 맞이하여 조선교구설정 100주년 기념 축전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거행
1932년 6월 1일	조선일보가 임경래와 안재홍과의 판권 다툼으로 휴간. 사원들의 반발로 조선일보를 인수하지 못한 임경래는 명치정 2정목 82번지 중국인 소유 동순태 빌딩에 임시 사옥을 마련하고 6월 15일부터 신문 발행
1932년	의류 전문 취급점 미나카이백화점 현대식 3층 건물 신축
1933년 1월 23일	1890년부터 조선교구의 제8대 교구장 뮈델주교 80세를 일기로 명동주교관에서 별세
1933년 6월	명동 1가 59번지에 치요다 생명보험상호회사 경성지점 건물 준공.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1934년	을지로 2가 195번지에 동아증권주식회사 건물 신축.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1935년	천재시인 이상(李箱)이 명치정에 다방 '맥(麥)'을 직접 설계하여 완공 후에 개업 직전에 양도
1935년	충무로 1가 53번지에 철근콘크리트 4층 건물 아사히빌딩 준공
1936년	명동 1가 54번지에 일본인 이시바시(石橋良祐)가 본격적인 연극상연용 극장인 명치좌(明治座) 준공
1937년 8월 14일	국민은행 명동지점 자리(현 남대문로 1가 9-1번지)에 중앙무진주식회사 설립
1937년	충무로 2가 63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3층 규모의 공동상업빌딩 준공
1940년	현재의 외한은행 본점자리에 동양척식회사 별관 건축.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1940년	중앙우체국 옆에 모리나가 제품판매점 모리나가 캔디스토아 건물 준공
1942년 1월 8일	프랑스인 라리보(Larribeau, 元亨根) 주교 후임으로 보좌신부인 노기남(盧基南)신부가 서울교구장에 오르는 착좌식(着座式)을 거행
1942년 9월 1일	조선중앙무진주식회사가 조선무진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1942년 12월 20일	라리보 주교의 주례 하에 노기남교구장을 주교위에 올리는 성성식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거행. 노기남 신부는 한국인 최초의 주교가 됨
1943년 6월 10일	경성부의 구(區)제도를 실시로 명동지역이 중구에 속함
1943년 10월 1일	한성은행과 동일은행이 합병하여 조흥은행으로 출범하게 되어 한성은행 본정지점이 조흥은행 본정지점으로 됨
1944년 9월 8일	계성여자상업전수학교가 현재의 중구 명동2-1번지에서 개교

광복 이후

1945년 9월 9일	노기남 대주교가 서울에 온 스펠만 대주교(F. Spellman)와 하지 중장(Hodge)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대성당에서 우리 민족의 광복과 천주교의 발전, 연합군의 승리를 축복하는 미사를 집전
1945년 9월 15일	미스코시백화점을 동화(東和)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고 종업원 대표가 관리를 함. 이후 적산(敵産)으로 편입되어 미군정청이 임명한 관리인에 의해 운영

1945년 9월 26일 명동 대성당에서 노기남 주교의 주례로 세계평화의 회복을 감사하는 미사 집전 및 미군 환영회 개최

1945년 명동에 중화민국 대사관 설치

1946년 4월 1일 조선무진주식회사가 조선상호은행으로 개점

1946년 4월 25일 명동 천주교당에서 전조선 신문기자대회 개최

1946년 10월 1일 조흥은행 본정지점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중구 충무로 2가 89번지로 변경 등기

1946년 10월 9일 서울특별자유시 헌장 제1조에 의하여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명치정1정목은 명동1가로, 명치정2정목은 명동2가로, 본정1정목은 충무로1가로, 본정2정목은 충무로2가로 변경

1946년 영락동의 성모병원이 명동으로 이전 가수 현인이 공전의 히트곡 '신라의 달밤'을 명치좌에서 첫공연

1947년 4월 1일 조흥은행 본정지점을 충무로지점으로 명칭 변경

1948년 10월 일본 와세다대학교(早稻田大學校) 출신의 여류연극인 박노경(朴魯慶)이 여인소극장을 창단하고 7회에 걸쳐 공연

1948년 명동극장을 학생영화관으로 선정

광복 후 국유재산으로 분류되었던 미나카이 백화점 자리에 해군본부가 들어섬. 이후 원호처가 사용

조지야 백화점을 중앙백화점으로 개칭. 미군정청에서 P.X로 지정하고 인원, 상품 전량을 동화백화점으로 흡수 · 합병

1949년 10월 국내로 이전한 흥사단이 을지로 2가 대성빌딩(현재의 국민은행 본점 뒤)을 인수하여 대성문화사 창립. 1977년 9월 24일 종로구 동숭동으로 이전

1949년 1월 6일 명동대성당에서 북한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 신부를 양성하기 위해 평양교우대회(平壤敎友大會) 개최

1950년대

1950년 1월 4일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의 전신인 조선신탁 을지로지점이 중구 을지로 3가 243번지에서 개점

1950년 6월 6일 조선상호은행이 한국흥업은행으로 명칭변경

1950년 6월 25일 ~ 9월 27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6 · 25전쟁 발발. 공산군 점령으로 명동일대 파괴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 후 한국무용가협회란 이름으로 신인 무용가들이 명동 시민회관에서 「시민 및 UN군 환영」공연.

1951년 7월 19일 동화백화점 본관건물에 미군 P.X 입주

195년 8월 30일 명동극장 재개관

1951년 8월 31일 계성여자상업전수학교가 학제 개편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

1951년 1월 4일 중공군 개입으로 UN군의 작전상 후퇴로 정부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재천도

1952년 2월 11일 조흥은행 충무로 지점이 임시로 부산시 중앙동 소개점포에서 영업 재개

1952년 정부에서 명동을 전재(戰災)복구 재건을 위한 토지계획정리 추가지구로 고시

1953년 3월 3일 증권거래소 개소(開所). 당시의 상장주식(上場株式)은 한전(韓電) 주와 시중은행 주 12

	개사 13종목, 채권(債券)은 국채(國債) 3종목
1953년 3월	명동1가 54번지에 명동동회사무소 설치
1953년 4월 1일	조흥은행 충무로지점이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43번지로 복귀
1953년 12월 1일	제일은행 충무로지점이 중구 충무로 1가 39번지에서 본점(영업부) 충무로 예금취급소로 개업
1954년 5월 10일	조흥은행 충무로 지점이 중구 충무로 2가 89번지로 신축 이전
1954년 10월 1일	조지야 백화점이 한국인에 의하여 백화점의 전신인 미도파 매장으로 개점
1954년 10월 1일	한국흥업은행 본점이 한국흥업은행 중부지점으로 변경, 한국신탁(구 조선신탁) 을지로지점이 한국흥업은행 을지로지점으로 명칭 변경
1954년 11월 29일	관재청에서 동화백화점을 미군으로부터 정식으로 명도 받음
1955년 2월 20일	동화백화점 개점
1955년 4월 18일	명동1가, 명동2가, 충무로가, 충무로2가의 행정을 명동사무소에서 담당
1955년	청년실업가 김동근(36세)이 외환은행 본점 북쪽에 동방살롱 개업
1956년 9월	명동 국립극장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중 '장면부통령 저격 사건' 발생
1956년	명동 아동 공원(명동 어린이 공원) 신설. 명동의 노래「명동샹송」발표. 작사 박인환, 작곡 이진섭, 노래 임만섭
1957년 1월 25일	소실된 서울중앙우체국 재건
1957년 4월 10일	화재로 대한중석 건물 전소
1957년 5월 6일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이 충무로 2가 49-11번지 조양빌딩에서 개점
1957년 5월 19일	시립극장에서 제1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개최. 미스코리아 진 박현옥, 준미스코리아 김정옥, 준미스코리아 홍인방 선발
1957년 6월	환도한 국립극장이 시공관을 국립극장으로 정함. 국립극장은 신협(新協)을 다시 전속 극단으로 정하여 재정비
1957년 7월 12일	국립극장에서 20일까지 <신앙과 고향>(K, 쉔헤르 작, 서항석 역)을 홍해성 연출로 환도기념 및 출범공연
1957년 8월	엘칸토의 모체가 된 명동양화점 개점
1957년 9월 6일	충무로 1가 23-1번지에 사보이호텔 개관
1959년	메트로호텔 개관

1960년대

1960년 1월 1일	한국흥업은행이 한일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함에 따라 명동의 한국흥업은행 중부지점이 한일은행 중앙지점으로 변경
1960년 5월 16일	한국상업은행 명동지점이 명동 2가 33-2번지에서 개점
1961년 9월 22일	이순녀와 김영조가 우리은행 명동지점 옆(명동 2가 48-2번지) 대지에 일본인이 묻어 둔 것으로 추정한 시가 4억 5,000만환 상당의 보물함 발굴을 시도한 '명동 보물사건 발생'
1961년	명동에 에스콰이아 수제화점 개업

1962년 2월	구 한국국민은행이 중앙무진주식회사가 있던 중구 남대문로 1가 9-1번지에서 개업.
1962년 9월	동화백화점의 소유권이 동방생명으로 이전됨
1962년 10월 25일	제일은행 충무로지점 중구 충무로 2가 64-5번지 한일빌딩으로 이전
1962년 11월 12일	한일은행 을지로 지점 을지로 3가 116-1로 이전
1962년	오양빌딩 준공
1963년 2월 1일	국민은행이 구 한국국민은행의 본 · 지점 57개 점포를 동시에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
1963년 11월 12일	삼성그룹이 동방생명을 인수하면서 동화백화점을 흡수하고, 신세계백화점으로 상호 변경
1963년 12월	명동성모병원 준공
1963년	중화민국 대사관 건물 준공 중앙극장 준공 재일교포가 재산반입을 가장해「회전당구」(빠찡코) 도입
1964년	계성초등학교가 명동성당 구내에 교사를 마련하여 재개교
1964년 5월	민간 텔레비전의 선구자인 동양TV방송사가 신세계백화점 4, 5층으로 사옥을 이전
1964년 12월 7일	동양TV방송사가 신세계백화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TV전파 발사
1965년 11월 15일	조흥은행이 사세 확장으로 명동 1가 32-5번지에 명동지점을 개점
1966년 10월 5일	명동입구 지하보도 개설
1966년 12월	명동 2가 5-14번지에 유네스코회관 준공
1966년 12월 20일	충무로 2가 61-3번지에 세종호텔 개관
1967년 1월 30일	한국외환은행이 남대문로 3가 110번지 한국은행 별관에서 국내 유일의 외국환전문은행으로 영업을 개시
1967년 2월 7일	한일은행 명동지점이 명동 2가 50-16번지에서 개점
1967년 6월 20일	서울시, 명동에 입주한 업소나 사무실에 차량통행 허가증을 발급하여 차량통행을 대폭 제한
1967년 6월 30일	방한중인 험프리 미국 부통령이 아침 산책을 하기 위해 조선호텔을 나와 명동파출소를 방문
1967년 7월 21일	명동아동공원 2,779㎡를 상업지역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폐지
1968년 8월 1일	조흥은행에서 중구 명동1가 1-3번지에 영업부 중앙예금취급소 개점
1968년 8월	명동공원을 공개입찰하여 제일물산이 746평을 3억 4,254만원에 매입
1968년 9월 5일	외환은행 충무로지점이 대연각 빌딩(중구 충무로 1가 25-5번지)에서 개점
1968년 9월 18일	한일은행 퇴계로 지점 충무로 4가 125-1번지에서 개점
1968년 12월 18일	명동 2가 2-20번지에 한신증권(현 동원증권) 설립
1968년	YWCA회관 준공 한국전력사옥 별관 준공 「비내리는 명동거리」 발표(작사 작곡 백영호 , 노래 김희라), 동명의 영화 개봉. 1967년 배호가 다시 취입해 유행
1969년 6월 27일	제일은행 명동지점이 중구 충무로 2가 66-6에서 개점
1969년 12월 5일	외환은행 명동지점 중구 명동 1가 60번지 계양빌딩에서 개점

1969년 5월 20일 미도파백화점으로 상호 변경
1969년 이지재가 통키타클럽 오비스 캐빈(OB's Cabin) 개업

1970년대

1970년 2월 16일 명동 1가 1-3번지에 있던 조흥은행 영업부 중앙예금취급소를 중구 초동 21-9번지로 이전
1970년 11월 25일 명동2가 83-5번지 코스모스 빌딩에서 코스모스백화점 개점
1970년 코스모스 빌딩 건너편에 통키타클럽 금수강산 개업
1971년 2월 18일 아리랑 백화점 개점. 주로 KS, SF 상품 직판
1971년 3월 12일 명동1가 6번지에서 서울로얄호텔(Seoul Royal Hotel) 개관
1971년 4월 9일 조흥은행 충무로지점이 환지(換地)로 인해 중구 충무로2가 62-1로 변경 등기
1971년 5월 17일 미군 30명, 한국인 4명 등이 명동 국립극장 앞에서 월남전 반대 연좌 데모
1971년 12월 25일 대연각호텔 화재로 156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함
1972년 2월 28일 외환은행 충무로지점 충무로 1가 24-23번지 은정빌딩으로 이전
1972년 8월 7일 조흥은행 명동지점이 명동 1가 59-1번지로 이전
1972년 10월 25일 국민은행 본점이 신축 이전
1972년 12월 20일 한일은행 명동지점이 영업장 확장(제2영업장)
1973년 5월 미도파백화점이 시대백화점 인수
1973년 8월 26일 국립극장이 명동에서 장충동으로 이전. 구 국립극장은 예술극장으로 바뀜
1973년 9월 16일 서울시, 휴일에는 명동에 차량 통행금지 결정
1973년 12월 명동천주교회 미사 후 천주교인들이 민주헌법의 회복과 대일굴욕외교 반대 가두시위
1973년 명동 가톨릭여성회관 내에 덕명의숙이라는 노인교육기관 설립 명동에 휴일 차량 통행 금지
1974년 5월 20일 방위병 이원모 등 2명이 유네스코 지하다방에서 인질 소동
1974년 7월 18일 대연각빌딩이 복구되어 외환은행 충무로지점이 은정빌딩에서 재이전
1975년 1월 2일 조양은을 중심으로 한 무교동의 호남파 어깨가 명동파 어깨 신상사파를 급습한 「사보이 호텔 기습사건」 발생
1975년 6월 5일 한국상업은행 퇴계로지점이 충무로 1가 24-1번지에서 개점
1975년 10월 20일 서울은행 본점 중구 소공동 116-1번지에서 이전
1975년말 정부에서 예술극장이 있던 건물을 공개입찰에 붙여 21억 1,100만원에 대한투자금융에 매각 됨
1975년 돈암동에 있던 명동의류가 명동에서 개점
1976년 제일백화점 개점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3·1절 기념 미사와 기도회에서 재야인사들이 유신철폐를 요구한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명동사건' 발생
1977년 6월 29일 건설부고시 제123호로 명동1가동 주변 일대 71,000㎡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
1977년 10월 6일 신영증권 명동지점 개점

1977년 11월 7일 조흥은행 명동지점이 명동 1가 53-1번지로 이전

1977년 12월 28일 을지로 2가 163번지에 있던 부국증권 본점이 명동 2가 2-20번지로 이전. 부국증권은 다시 명동 2가 31-1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85년 4월 29일 여의도로 이전

1978년 5월 (주) 엘칸토에서 엘칸토 예술극장 설립

1978년 9월 26일 명동 도심개발구역 지정

1978년 6월 12일 국민은행 명동지점의 전신 광교지점이 중구 을지로2가 148-28로 이전하고 을지로지점으로 명칭 변경

1978년 7월 18일 조흥은행 중앙지점이 충무로 3가 60-1번지(극동빌딩)으로 이전

1978년 9월 26일 건설부고시 제285호로 명동2가동이 충무로1가동 · 충무로2가동 · 저동 일대 95,850㎡과 함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

1978년 명동지하보도를 지하상가로 개조.

1979년 6월 16일 서울시, 명동을 '차없는 거리'로 지정

1979년 12월 17일 중구 소공동 1번지에서 롯데백화점 개점

1979년 11월 24일 윤보선 전 대통령 등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반대하는 'YWCA 결혼 위장 집회사건' 발생

1980년대

1980년 중앙우체국 청사 건립

1980년 1월 26일 무장 탈영병 2명이 로얄호텔 지하 2층 고고클럽에서 인질 소동

1981년 1월 30일 현재의 을지로 2가 181번지에 외환은행 본점 건물 신축

1981년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내에 각 성당 부설 노인대학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노인대학연합회(老人大學聯合會) 설립

1982년 9월 13일 신한은행 명동지점이 중구 명동 2가 83-5번지에서 개점

1982년 12월 14일 한국장기신용은행 충무로지점이 명동 2가 83-5 코스모스빌딩 1층에서 개점

1984년 4월 16일 국민은행 명동지점의 전신이 되는 을지로 지점이 중구 을지로2가 101-1로 이전

1984년 12월 5일 '명동의 날'을 지정하여 제1회 명동의 날 행사 개최

1985년 4월 15일 외환은행 명동지점이 중구 명동 1가 7-1번지 태흥빌딩으로 이전

1985년 5월 1일 견지동에 있던 체신기념관을 중앙우체국 4층으로 이전하면서 우정박물관으로 개칭

1985년 7월 29일 한일은행 삼각동 지점이 을지로 2가 9-1로 이전하여 을지로입구지점으로 변경 개점

1986년 2월 18일 신한은행 충무로지점 중구 충무로 2가 62-10번지에서 개점

1986년 5월 31일 계성여자고등학교의 재단 명칭을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 대교구 유지재단으로 변경

1986년 10월 20일 명동 일대 노점상인 200여 명이 대연각빌딩 옆에서 영업행위를 요구하며 농성, 시위

1987년 2월 7일 서울대학교 박종철군 추모 추도회가 명동성당에서 개최되자 시위를 염려한 명동상인들이 상가를 철시함

1987년 6월 10일 6월항쟁으로 대학생 · 시민들 500여 명이 명동성당에서 철야 시위

1987년 9월 25~27일 명동축제 전야제 개최

1987년 10월 5일 제일은행 제1지점이 중구 충무로 1가 53-1번지에서 개업

1987년 11월 14~22일 제1회 명동축제 개최

1987년 11월 16일 국민은행 을지로 지점이 중구 명동2가 33-1번지 청휘빌딩으로 이전하고 명동지점으로 명칭 변경

1987년 11월 25일 명동에서 시위가 빈발하여 상업에 지장이 많자, 명동상인들이 명동에서 데모는 절대 안 된다는 현수막을 내걸음

1987년 12월 16일 노태우대통령의 당선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재야인사 · 대학생 등 2,000여 명이 명동성당에 모여 규탄대회를 가진 후 유네스코회관 앞 부근에서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 격렬한 시위로 명동 일대가 가스와 화염으로 뒤덮임

1988년 12월 3일 대학생 1,500여 명이 명동성당 입구에서 'KAL기 폭파 진상 규명 및 반민족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대회'를 갖고 명동일대로 나가 가두시위를 벌임

1989년 6월 3일 '이철규(李哲揆)군 사인규명-노태우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11일째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중인 재야인사 · 대학생 등 600여 명이 로얄호텔까지 촛불시위를 벌임

1989년 7월 22일 전국노점상연합회원 3,000여 명이 7월 2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노점 철거 반대 시위로 경찰과 충돌

1989년 8월 15일 26개 카톨릭 단체 회원 및 대학생, 일반인 800여 명이 명동성당에서 '문규현신부와 임수경양 구속 처벌에 반대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로얄호텔 앞까지 나가 연좌시위를 벌임

1989년 9월 20일 명동일대 주요도로에 차량 통행금지

1990년대

1990년 5월 9일 민자당 창당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대학생 약 2만여 명이 도심에서 시위를 격렬하게 벌이고, 밤 11경 명동성당에 500여 명이 들어가 철야 농성

1990년 6월 22일 한국장기신용은행 충무로지점이 충무로 2가 64-5번지 한일빌딩으로 이전

1990년 7월 18일 한국장기신용은행 명동출장소가 명동 2가 코스모스빌딩 1층에서 개점

1990년 7월 20일 조흥은행 명동지점에 우리나라 최초의 무인자동화코너 설치

1990년 7월 24일 중소기업 충무로 지점 중구 남산동 1가 1-2번지에 개점

1990년 8월 5일 충무로 2가 61번지에 세종서적 개장

1990년 11월 1일 국내은행 최초로 한국상업은행 명동지점에 무인 365일 코너 설치

1991년 4월 25일 국내외 금융제도, 금융정책, 금융기관 경영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 · 분석하는 한국금융연구원(韓國金融研究院)을 명동 1가 4-1번지에 설립

1992년 8월 24일 명동 2가 83번지의 주한 대만 대사관이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으로 바뀜.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상호 대사관을 개설

1993년 11월 12일 한국장기신용은행 명동출장소가 명동 1가 74-1번지로 이전

1992년 11월 15일 한국상업은행 명동지점 이희도지점장이 자택에서 자결한 사고 발생. 예금 수신고를 올리기 위해 250억원의 CD를 발행, 고민 끝에 방이동 자택에서 자결

1992년 11월 23일	신한은행 충무로지점이 중구 충무로 2가 65-4번지로 이전
1992년 11월 28일	코스모스백화점이 영업 부진으로 경매에 붙여져 북두칠성그룹에 낙찰
1993년 12월 4일	한국상업은행 명동지점 앞에서 장관 등이 불우 이웃돕기 가두 자선모금공연과 패션쇼를 벌임
1993년 12월 4일	장기신용은행 명동출장소가 명동 1가 74-1번지로 이전
1993년	(주)명동의류 법인 설립
1994년 11월	(주)엘칸토에서 패션전문백화점 브이-익스체인지 출범
1994년 12월 1일	한국장기신용은행 명동출장소를 명동지점으로 승격
1995년 6월 16일	종교인 500여 명이 문민정부가 종교기관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에 항의, 조계사에서 집회를 갖고 명동성당까지 행진
1995년 9월 14일	중구문화원 개원 (남산로2가 9-6)
1995년	명동의 시공관을 살리는 모임 발족
1997년 1월 10일	충무로 2가 명동상가 앞에서 소매치기를 잡으려던 시민 이근석(李根石)이 소매치기의 흉기에 찔려 숨짐
1998년	명동사무소와 태평로 1가동 명동사무소로 통폐합(남산로2가 9-6)
1998년 12월	중구문화원, 중구 장교동 1번지로 이전
1999년 12월 1일	조흥은행 충무로 지점 폐쇄. 명동지점으로 업무 통합
1999년 12월 10일	민주노총과 한국농민회총연맹 등 51 개 재야-시민단체회원 2만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후 1만여 명이 신세계백화점과 명동 일대에서 시위를 벌임
1999년	정부에서 명동 시공관을 '보존건물'로 지정

2000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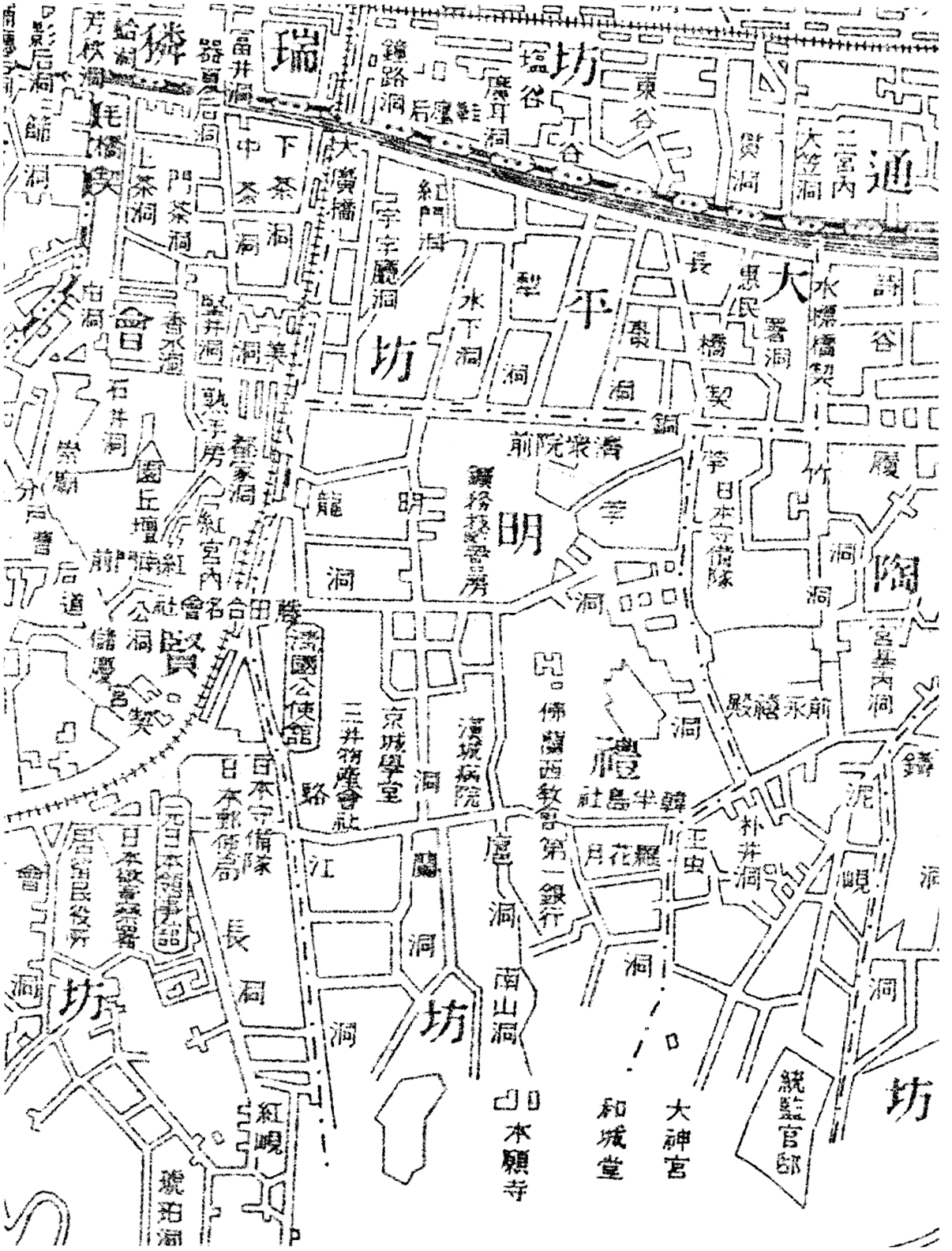
2000년 3월 27일	문화관광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동 일대 등 19만 1,638평을 관광특구로 지정
2000년 4월 6일	금일부터 1개월간 명동일대의 관광특구 축제 개최
2000년 10월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명동에서 거리 공연 개최
20001년 3월	관광특구 명동 운영위원회는 집단 시위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병력의 철수와 시위대를 퇴거시켜 달라는 공문을 중부경찰서와 명동성당 등의 관계기관에 발송
2001년 6월	명동의 시공관을 살리자는 100만인 서명을 국회에 제출
2001년 9월8일~10월13일	토요일마다 명동거리에서 청소년 축제 개최
2001년 10월 11~13일	명동거리에서 유네스코 축제 개최
2002년 2월 22일	복합 쇼핑몰 아바타가 코스모스백화점 자리에서 개장
2002년 5월17일~6월23일	제29회 명동축제 개최
2002년 7월 5일	산업은행 계열사 코람코가 신원이 소유한 서울 명동빌딩(구 제일백화점)을 801억원에 매입

< 명동지역 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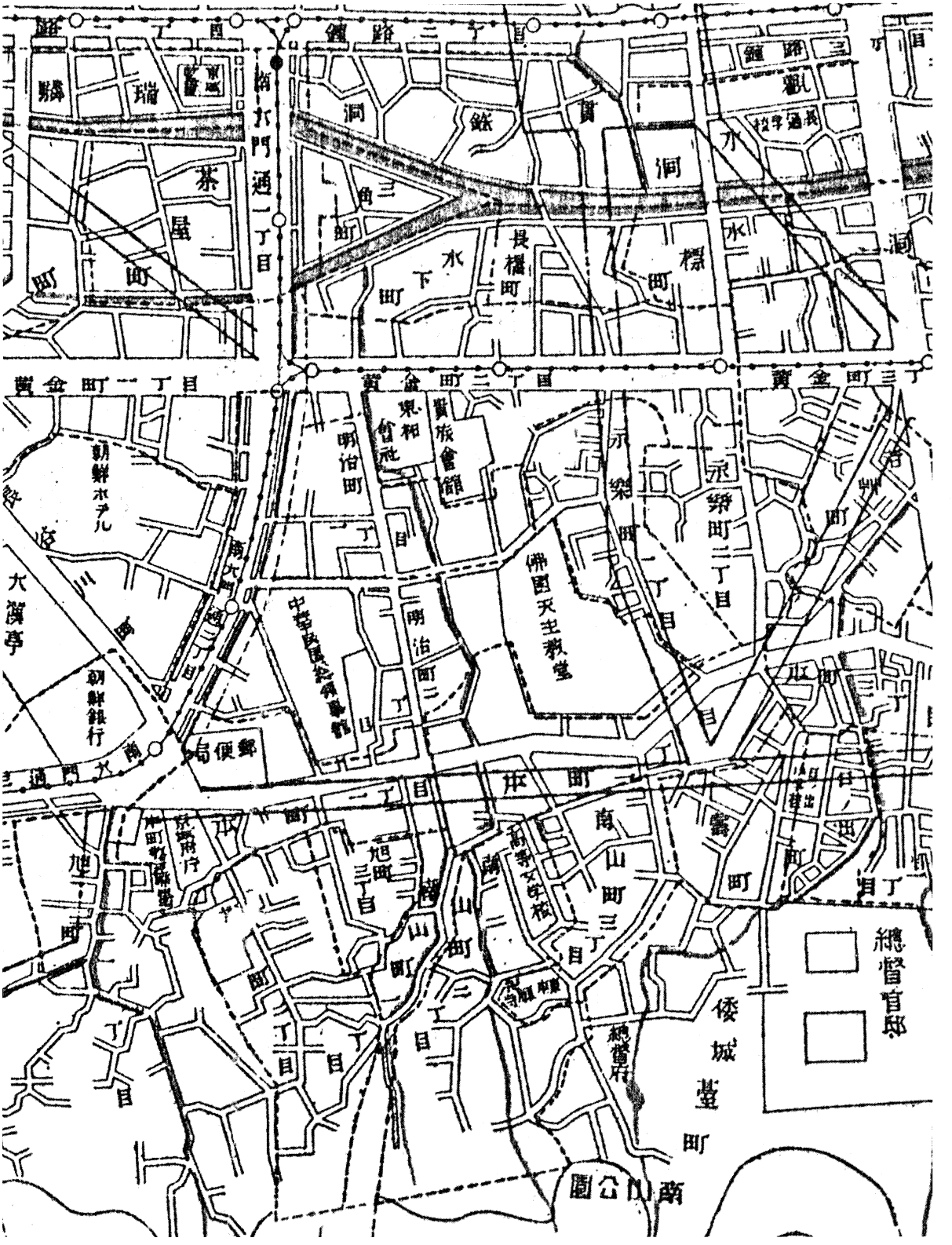
▲ 김정호의 수선전도(首善全圖 : 1840년)

▲ 김정호의 수선전도(首善全圖 : 1840년)의 명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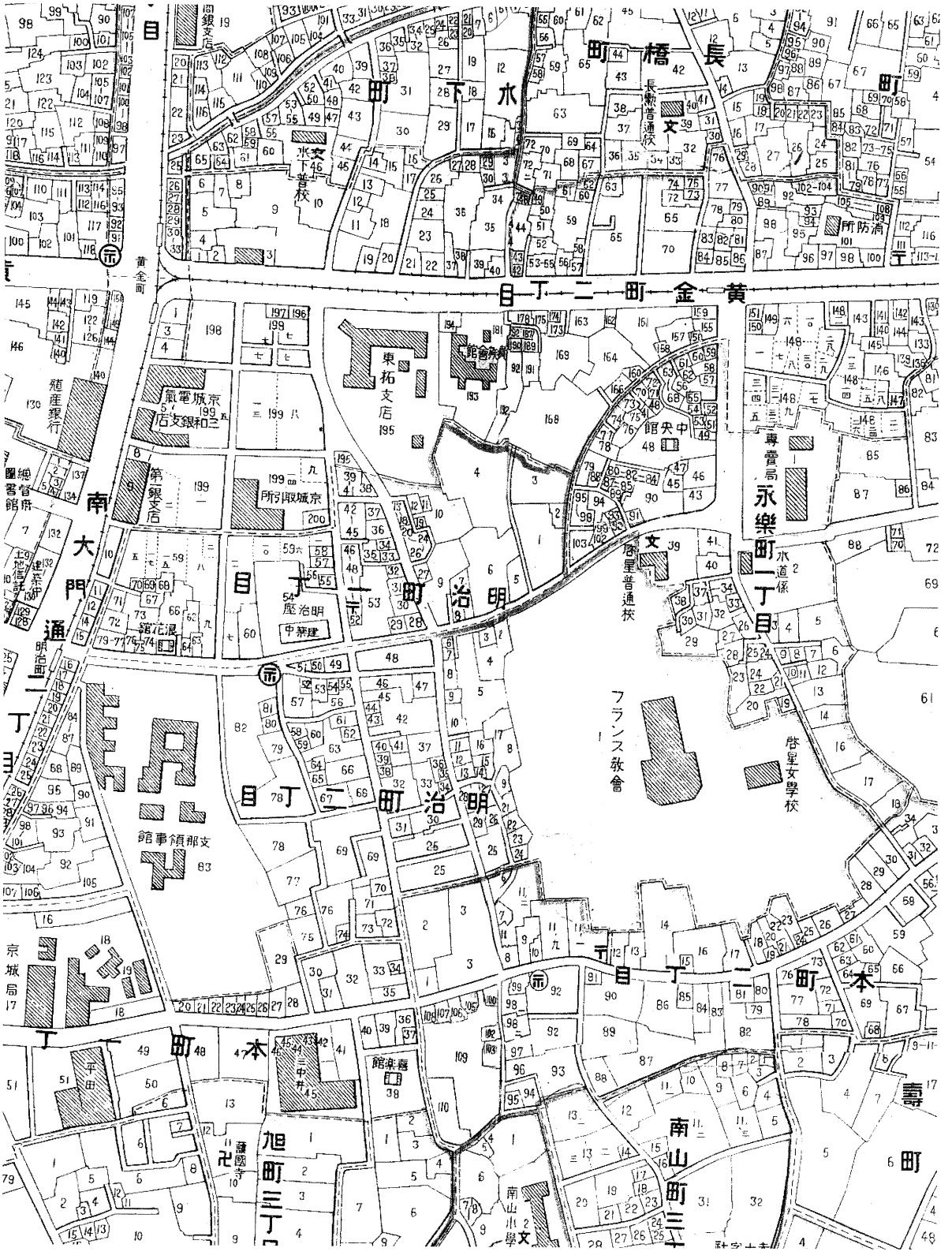
▲ 서울지도(1902년)의 명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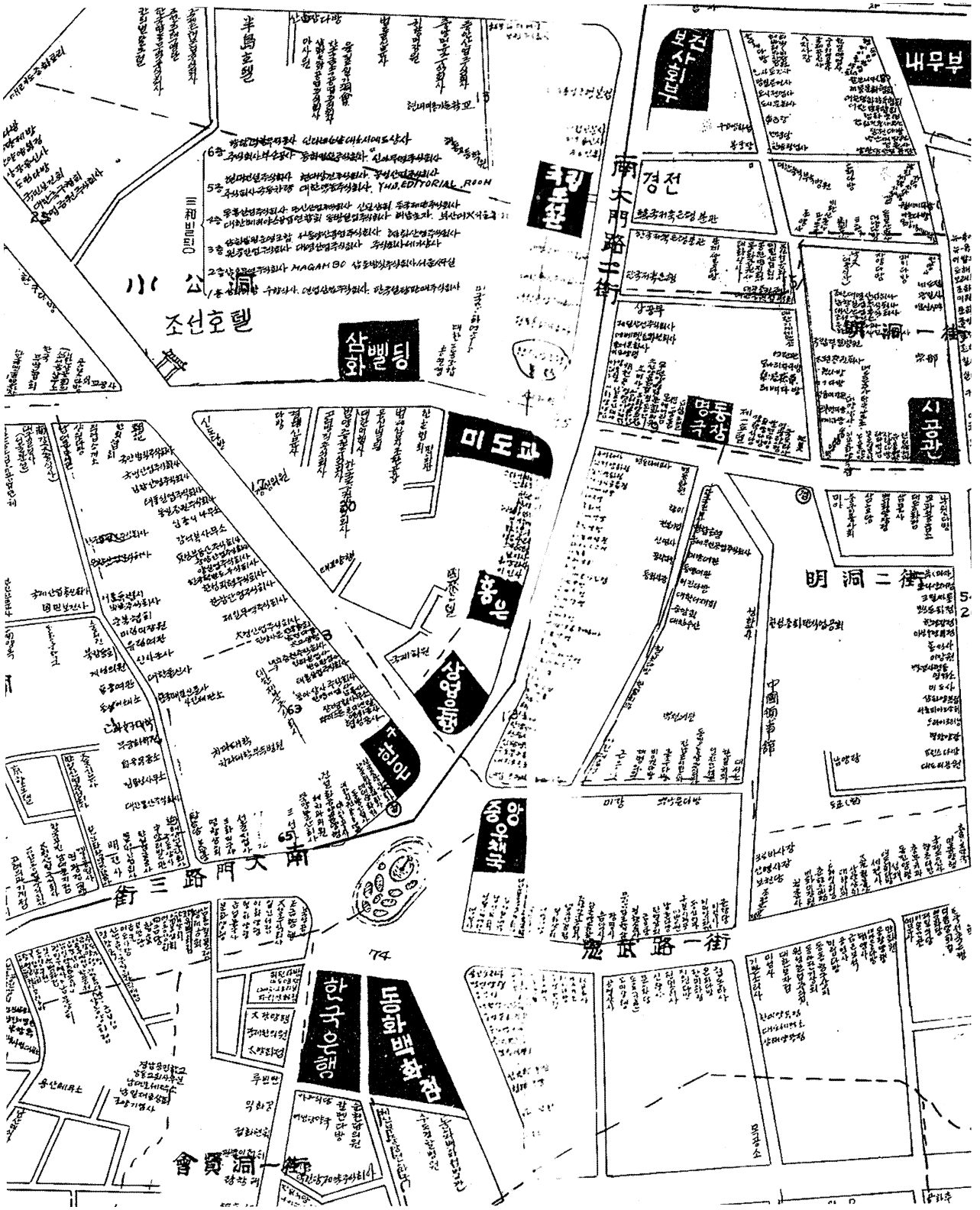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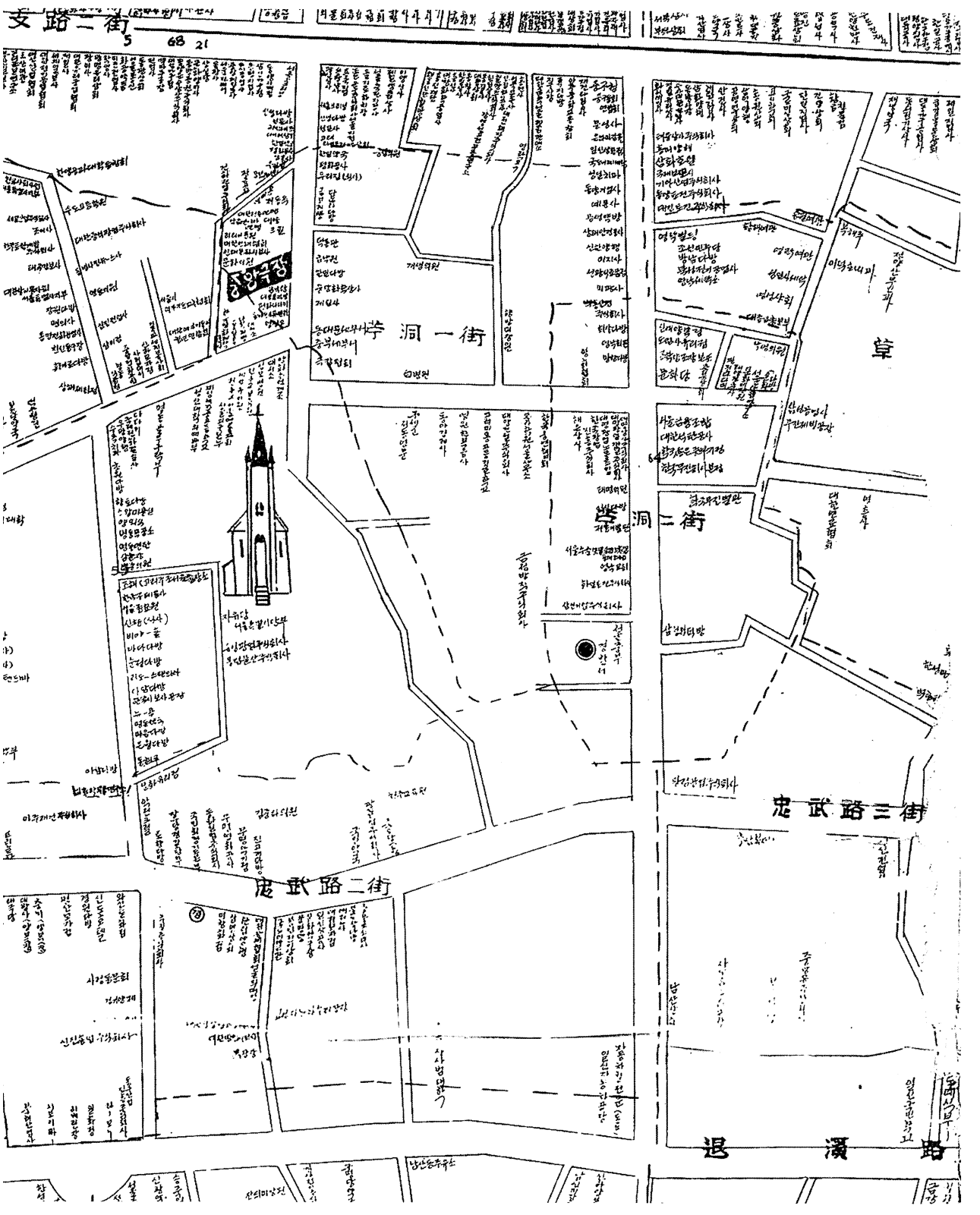
▲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 : 1908년)의 명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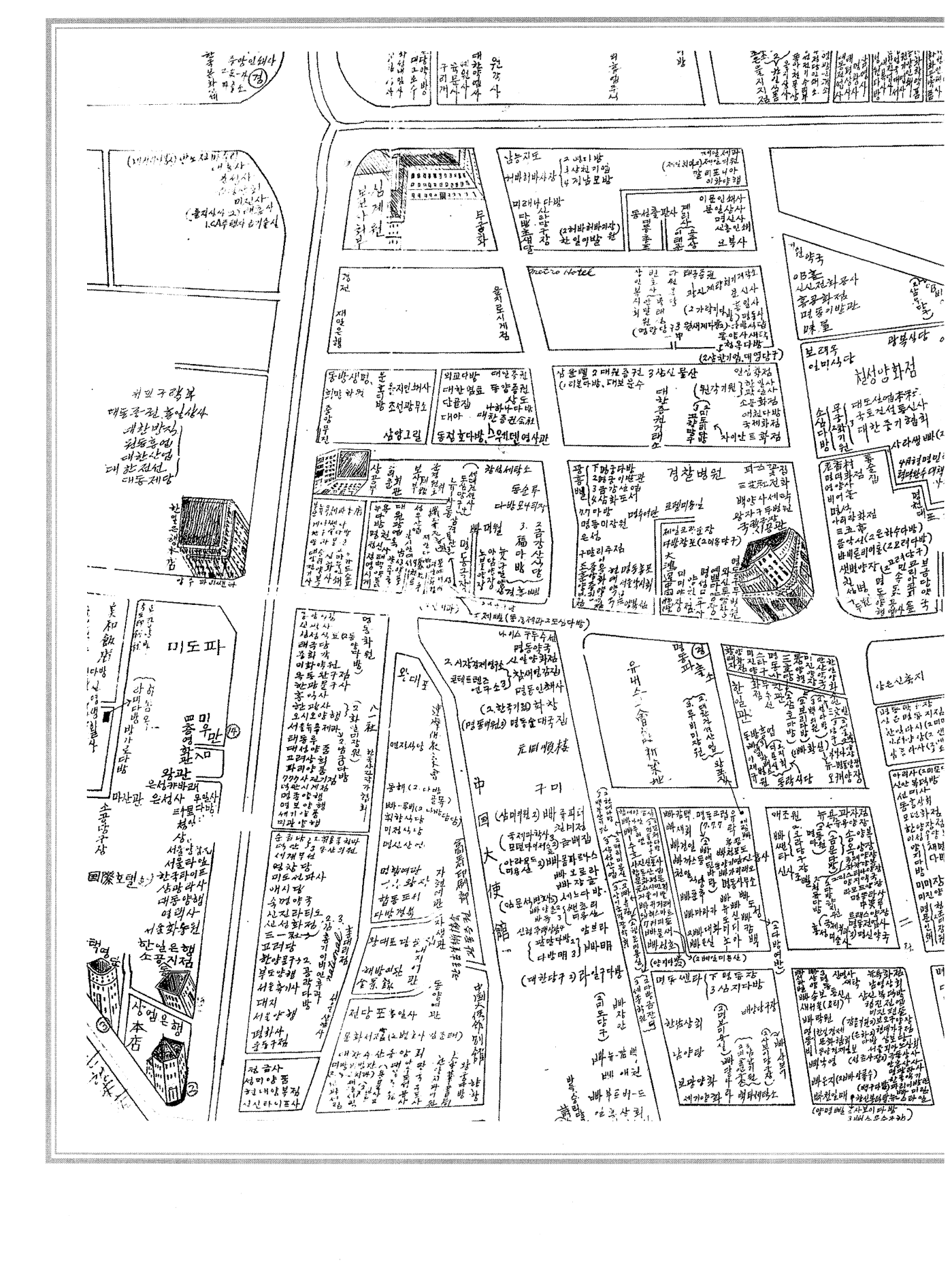
▲ 경성시가명세도(京城市街明細圖 : 1918년)의 명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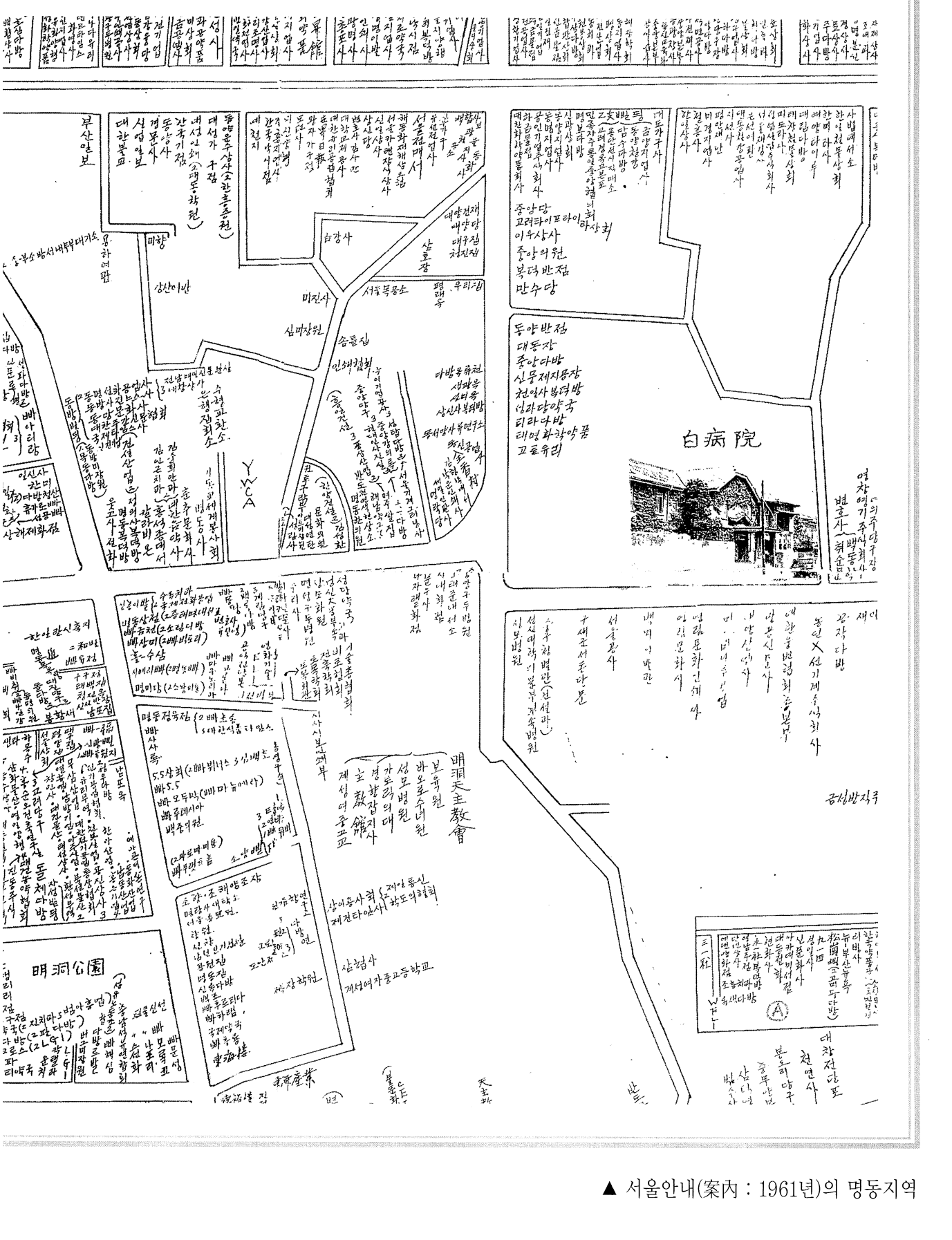

黃金町二丁目
南大門通二丁目
南大門通三丁目
長橋町
水下町
東拓支店
館事領那支
館事領佛
館書圖
館會集
館央中
館花混
館生學
館學小
館學中
館學女
館學商
館學普
館學高
館學專
館學工
館學實
館學師
館學農
館學醫
館學法
館學文
館學理
館學藝
館學體
館學音
館學美
館學建
館學機
館學電
館學化
館學物
館學數
館學天
館學地
館學生
館學動
館學植
館學礦
館學冶
館學金
館學銀
館學證
館學券
館學株
館學債
館學社
館學會
館學組
館學合
館學協
館學連
館學聯
館學盟
館學團
館學隊
館學班
館學部
館學科
館學系
館學院
館學校
館學園
館學場
館學所
館學室
館學局
館學廳
館學署
館學館
館學堂
館學寺
館學廟
館學祠
館學墓
館學碑
館學塔
館學橋
館學門
館學路
館學道
館學街
館學町
館學丁
館學目
館學番
館學地
館學番地
館學號
館學戶
館學家
館學人
館學口
館學數
館學量
館學重
館學輕
館學大
館學小
館學中
館學高
館學低
館學上
館學下
館學左
館學右
館學前
館學後
館學內
館學外
館學東
館學西
館學南
館學北
館學中央
館學本
館學支
館學分
館學出
館學張
館學所
館學事
館學務
館學員
館學長
館學主
館學任
館學理
館學監
館學督
館學察
館學官
館學吏
館學員
館學生
館學徒
館學弟
館學兄
館學姉
館學妹
館學父
館學母
館學祖
館學孫
館學曾
館學玄
館學高
館學遠
館學近
館學親
館學疎
館學密
館學秘
館學公
館學私
館學官
館學民
館學國
館學家
館學族
館學氏
館學姓
館學名
館學字
館學號
館學別
館學稱
館學呼
館學謂
館學言
館學語
館學話
館學說
館學論
館學議
館學決
館學定
館學案
館學件
館學事
館學物
館學品
館學貨
館學財
館學産
館學業
館學工
館學農
館學商
館學漁
館學鑛
館學林
館學牧
館學畜
館學養
館學植
館學栽
館學培
館學育
館學成
館學長
館學發
館學展
館學進
館學退
館學後
館學前
館學左
館學右
館學上
館學下
館學內
館學外
館學中
館學央
館學東
館學西
館學南
館學北


半島호텔
三和빌딩
조선호텔
삼화빌딩
미도파
상업은행
한국은행
동화백화점
명동극장
시공관
南大門路三街
南大門路二街
明洞一街
明洞二街
會賢洞一街
中國銀行
內務部
財務部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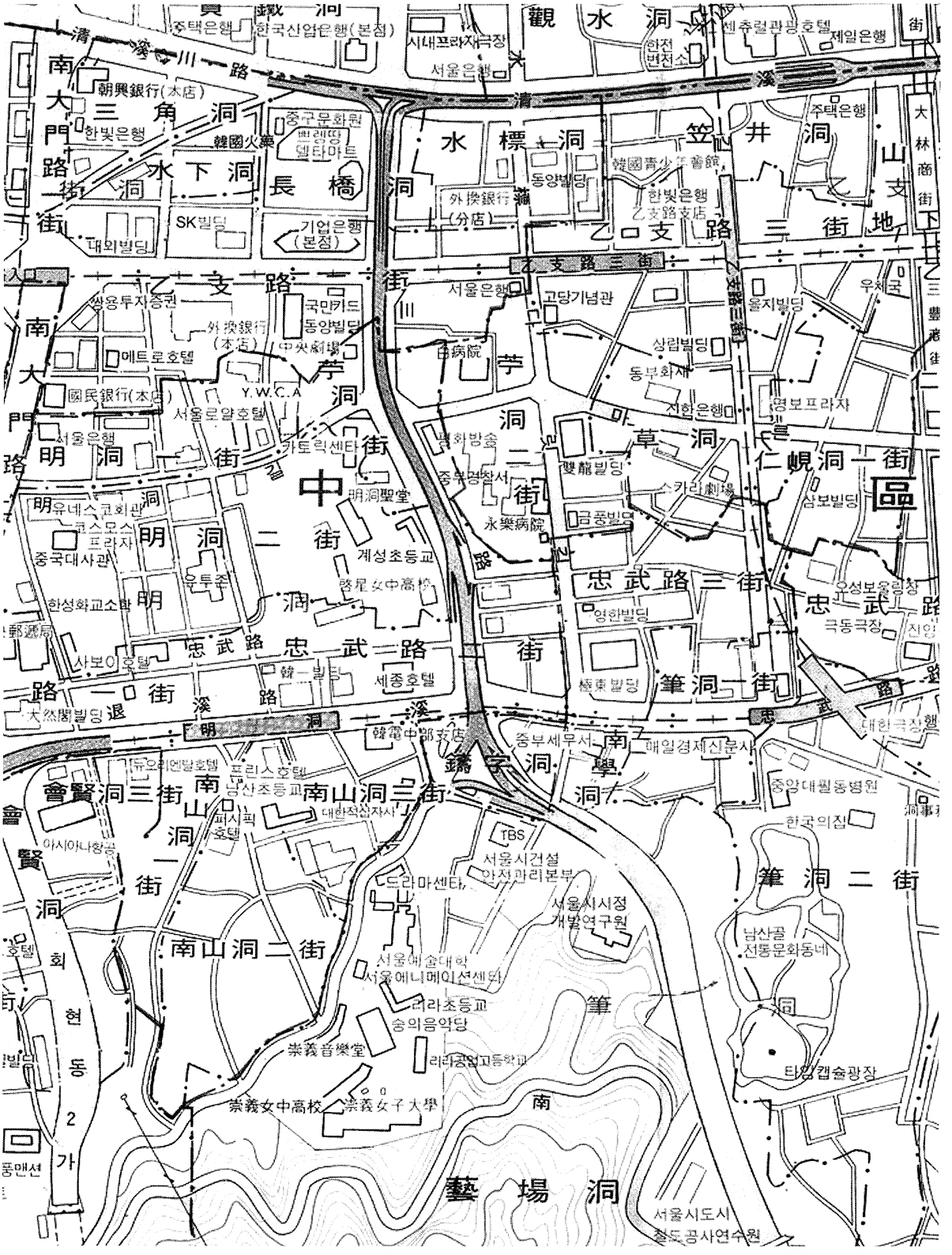


▲ 서울상계약도(商界略圖 : 1955년)의 명동지역





▲ 서울안내(案內 : 1961년)의 명동지역



▲ 서울지도(1993년)의 명동지역

◈ 문화원 임원

고 문 : 김동일, 손덕수
원 장 : 김영남
부원장 : 이준학
이 사 : 문일권, 이 사 : 백영호, 이 사 : 남상만, 이 사 : 서정호,
이 사 : 조상기, 이 사 : 장금생, 이 사 : 최종문, 이 사 : 문성훈,
이 사 : 김후란(형덕), 이 사 : 김선풍, 이 사 : 한면우, 이 사 : 이철수
감 사 : 홍한선, 감 사 : 장순화

◈ 향토연구위원회

위원장 : 이준학
위 원 : 남상만, 조상기, 김선풍, 홍한선, 김기태, 김형진
자문위원 : 김창수, 박경룡

◈ 사무국

사무국장 : 김기태
과 장 : 김동주, 간 사 : 강선영

명동변천사

중구향토사 관계 자료 제 7집

발행처 :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발행인 : 김 영 남
기 획 : 중구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회
집 필 : 박 경 룡, 김 일 림, 홍 윤 정
발행일 : 2003년 2월 24일
인쇄·출판 : 상 원 사

ⓒ **중구문화원.** 2003

비매품

100-220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 B/D 1층
전 화 : (02) 775-3001 FAX : (02) 775-3068
E-mail : cc100@junggu.seoul.kr

이 책은 중구의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하였습니다.